

2024년도 문화재위원회

제1차 건축문화재분과위원회 회의록

- ▣ 회의일시 : 2024. 1. 18.(목), 14:00 ~ 18:00
- ▣ 장 소 : 여수 한화 벨메르 회의실
- ▣ 출석위원 : 전봉희, 곽동엽, 박경식, 손태진, 송은석,
안선호, 이찬희, 이향미, 정광용, 정정남,
최지음(탄원)
(이상 11명)
-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문 화 재 위 원 회

목 차

【심의사항】

1	용인 서봉사지 현오국사탑비 주변 노유자시설 건립(변경허가)	공개
2	서울 인조별서 유기비 주변 아파트 단지 건립	공개
3	경주 마동 삼층석탑 주변 단독주택 건립(2차)	공개
4	순천 동화사 삼층석탑 주변 극락전 건립(변경허가)	공개
5	천안 천홍사지 오층석탑 주변 주차장 조성	공개

【검토사항】

6	완주 송광사 금강문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검토	공개
7	보은 법주사 사천왕문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검토	공개
8	양산 통도사 천왕문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검토	공개
9	순천 송광사 사천왕문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검토	공개
10	고흥 능가사 천왕문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검토	공개
11	구례 화엄사 천왕문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검토	공개
12	영광 불갑사 천왕문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검토	공개
13	포항 보경사 천왕문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검토	공개
14	김천 직지사 천왕문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검토	공개
15	함양 벽송사 삼층석탑 주변 선원 건립 기본설계(안) 검토(2차)	공개

【보고사항】

16	건축문화재분과위원회 소위원회 결과 보고 - 양산 통도사 문화공간 건립 설계 변경 검토	공개
17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처리결과 보고(14건) - 예천 개심사지 오층석탑 주변 예천 예누리길 조성 - 청송 대전사 보광전 주변 조경 정비(변경허가)	공개

- 경산 팔공산 관봉 석조여래좌상 주변 팔공산 갓바위 우회도로 개설
- 당진 안국사지 석조여래삼존입상 주변 단독주택 건립
- 춘천 칠층석탑 주변 전기지중화 공사로 인한 전력설비 설치
- 안동 임청각 주변 법흥인도교 개체공사(변경허가)
- 구례 연곡사 북 승탑 주변 전기차 충전기 설치
- 구례 천은사 극락보전 주변 전기차 충전기 설치
- 논산 쌍계사 대응전 주변 호우피해지 수해복구사업
- 거창 상림리 석조보살입상 주변 창고시설(농업용 창고) 설치
- 화순 쌍봉사 칠감선사탑 주변 임시 가설컨테이너(농막) 설치
- 청주 안심사 대응전 주변 가설건축물(농막) 설치
- 청송 찬경루 주변 소헌공원 정비
- 합천 해인사 장경판전 주변 인경조사실 건립

【심의사항】

안건번호 건축 2024-01-001

1. 용인 서봉사지 현오국사탑비 주변 노유자시설 건립(변경허가)

가. 제안사항

경기 용인시 소재 보물 「용인 서봉사지 현오국사탑비」 주변에 노유자 시설을 건립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노유자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을 건립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개별심의”에 해당, 제2구역 “평지붕 최고높이 11m를 초과함.
- ※ ‘18년 문화재위원회 제10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18.10.18.) : 부결
 - 역사문화경관 저해
- ※ ‘18년 문화재위원회 제11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18.11.15.) : 부결
 - 역사문화경관 저해
- ※ ‘18년 문화재위원회 제12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18.12.20.) : 부결
 - 절토량 과다 및 토목도면 보완 필요 / 역사문화경관 저해
- ※ ‘19년 문화재위원회 제10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19.10.19.) : 보류
 -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후 재심의
- ※ ‘19년 문화재위원회 제12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19.11.21.) : 원안가결
- ※ ‘20년 문화재위원회 제2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20.2.11.) : 원안가결
- ※ ‘20년 11월 제1차 현상변경 자체검토 회의결과(2020.11.10.) : 원안가결
- ※ ‘23년 문화재위원회 제12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23.12.21.) : 부결
 - 역사문화경관 저해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용인 서봉사지 현오국사탑비
 - 소재지 : 경기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산110번지
 - 지정일 : 1963. 01. 21.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기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746-1 외 2필지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400m
 - 사업내용 : 노유자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 건립

구분	사업내용	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및 최고높이	건축구조	비고
1차 (‘18.10.18./부결)	근린생활시설 및 의료시설 건립	1,823㎡	364.13㎡ (2,836.59㎡)	지하1층, 지상4층 / 20.86m(평지붕)	철근콘크리트구조	
2차 (‘18.11.15./부결)	(위와같음)	(위와같음)	(위와같음)	지하1층, 지상4층 / 14.91m(평지붕)	(위와같음)	
3차 (‘18.12.20./부결)	(위와같음)	(위와같음)	76.63㎡ (1,688.88㎡)	지하1층, 지상3층 / 10.99m(평지붕)	(위와같음)	*현지조사
4차 (‘19.10.19./보류)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건립	2,795㎡	520.59㎡ (1,633.49㎡)	지하1층, 지상2층 / 10.2m(평지붕)	(위와같음)	*현지조사
5차 (‘19.11.21./원안가결)	(위와같음)	(위와같음)	518.93㎡ (1,298.87㎡)	지하1층, 지상2층 / 10.65m(평지붕)	(위와같음)	
6차 (‘20.2.20./원안가결)	(위와같음)	(위와같음)	518.20㎡ (1,266.84㎡)	지하1층, 지상2층 / 10.43m(평지붕)	(위와같음)	
7차 (‘20.12.17./원안가결)	근린생활시설 건립	1,823㎡	362.97㎡ (1,392.23㎡)	지하1층, 지상2층 / 10.12m(평지붕)	(위와같음)	자체 처리
8차 (‘23.12.21./부결)	노유자시설 건립	1,822㎡	362.65㎡ (1,991.72㎡)	지하1층, 지상4층 / 14.81m(경사지붕)	(위와같음)	
금차	(위와같음)	(위와같음)	362.65㎡ (1,674.19㎡)	지하1층, 지상3층 / 14.4m(평지붕) * EV실 PIT층 외 옥상층 기준 최고높이 10.61m	(위와같음)	

※ 기허가(7차, ‘20.12.17.)한 사항을 변경허가 신청한 건으로, 허가내용 대비 최고높이가 4.28m 증가(옥상층 기준 10.12m→10.61m, 49cm 증가), 연면적 281.96㎡ 증가하여 재심의를 요청함.

라.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용벽이 1구역을 침해하지 않도록 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 조건부가결 11명

2. 서울 인조별서 유기비 주변 아파트 단지 건립

가. 제안사항

서울 은평구 소재 보물 「서울 인조별서 유기비」 주변에 아파트 단지를 건립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아파트 단지를 건립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2구역 “평지붕 최고높이 8m 초과”, 제5구역 “최고높이 32m 초과” 개별검토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서울 인조별서 유기비
 - 소재지 : 서울 은평구 역촌동 8-12번지
 - 지정일 : 2006. 02. 17.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서울 은평구 역촌동 13-4번지 일원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14m
 - 사업내용 : 아파트 단지 건립
 - 대지면적 : 33,871m²
 - 건축면적 : 8,434m² / 연면적 : 263,983m²
 - 건폐율 : 24.9% / 용적률 : 499.8%
 - 규모 : 지하 4층~지상 35층, 15개동 및 부대시설

- 용도 : 공공주택,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 세대수 : 1,766세대
-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계획 건축물 최고높이 : 22층(68.4m)

라. 의결사항

- 보류
 - 현지조사 후 재심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 보류 11명

3. 경주 마동 삼층석탑 주변 단독주택 건립(2차)

가. 제안사항

경북 경주시 소재 보물 「경주 마동 삼층석탑」 주변에 단독주택을 건립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단독주택을 건립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개별검토”에 해당됨.
- ※ ‘23년 6월 제1차 현상변경 자체검토 회의결과(2023.06.09.) : 부결
 - 역사문화경관 저해
- ※ ‘23년 문화재위원회 제10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23.10.19.) : 부결
 - 역사문화경관 저해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경주 마동 삼층석탑
 - 소재지 : 경상북도 경주시 마동 101-2, 101-3
 - 지정일 : 1987. 03. 09.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상북도 경주시 마동 106-20, 104-2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약 58m

○ 사업내용

구분	2023년 제10차 위원회(부결)	2024년 제1차 위원회(금회신청)	비고
대지면적(m ²)	674m ²	674m ²	변경없음
건축면적/연면적(m ²)	124.1m ² / 98.94m ²	74.38m ² / 98.94m ²	건축면적 49.72m ² 감
건폐율/용적률(%)	18.41% / 14.68%	11.04% / 14.68%	건폐율 7.37% 감
건물규모	1개동 지상 2층	1개동 지상 2층	변경없음
최고높이	7.9m	7.2m	0.7m 감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	철근콘크리트	형태변경
토공	터파기, 절토 0.65m	터파기, 절토 0.65m	변경없음
L형 옹벽	길이 14m, 높이 1m	길이 14m, 높이 1m	변경없음

라. 의결사항

○ 부결

- 역사문화경관 저해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 부결 11명

4. 순천 동화사 삼층석탑 주변 극락전 건립(변경허가)

가. 제안사항

전남 순천시 소재 보물 「순천 동화사 삼층석탑」 주변에 극락전을 건립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극락전을 건립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 내에 해당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 해당됨.
- ※ ‘23년 문화재위원회 제12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23.12.21.) : 조건부 가결
 - 현지조사 의견대로 시행

※ 현지조사 의견(2023.11.07. / 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 동화사 사역의 배치현황을 확인 한 결과, 전각이 들어설 수 있는 부지는 신청지 주변으로 판단됨.
- 다만, 극락전이 대웅전을 바라보는 배치는 전통 사찰의 위계에 맞지 않으므로 배치와향을 조정하는 것이 좋겠음.
- 신청부지는 중심사역의 인근이므로 터파기 시에 관계전문가 입회하에 시행토록 함이 좋겠음.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순천 동화사 삼층석탑
 - 소재지 : 전남 순천시 별량면 동화사길 208
 - 지정일 : 1985. 01. 08.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전남 순천시 별량면 동화사길 208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 내(문화재에서 32m)
- 변경내용 : 건립위치 변경
 - 당초 : 보호구역에서 10m 이격, 문화재에서 35m(대웅전 서쪽 권역)
 - 변경 : 보호구역 내, 문화재에서 32m(대웅전 동쪽 권역 *現 공양간 위치)
- 사업내용 : 극락전 건립(변경없음)
 - 건축면적 : 54m²(16.33평)
 - 건축규모 : 정면 3칸, 측면 2칸
 - 건축구조 : 5량가, 익공식
 - 지붕구조 : 겹처마, 팔작지붕
 - 최고높이 : 7.2m

라.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터파기 시에 관계전문가 입회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 조건부가결 11명

5. 천안 천흥사지 오층석탑 주변 주차장 조성

가. 제안사항

충남 천안시 소재 보물 「천안 천흥사지 오층석탑」 주변에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개별검토”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천안 천흥사지 오층석탑
 - 소재지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천흥리 190-2번지
 - 지정일 : 1963. 01. 21.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천흥리 223, 224-2번지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약 70m
 - 사업내용 : 주차장 조성(A=2,846.0m²)
 - 주차대수 : 86대
 - 잡석포설(T=20cm) : 2,790.0m²
 - 느티나무 식재 : 17주
 - 우수받이(410mm × 510mm × 600mm) : 2EA
 - 우수관(D200mm) : 12.0m

- 원심력사각수로관(D250mm) : 120.0m
- 콘크리트 경계석(150mm × 150mm × 1,000mm) : 107.0m
- 사업기간 : 착공일 ~ 2028년 11월 30일(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기간 5년)

라. 의결사항

- 부결
 - 역사문화경관 저해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 부결 11명

【검토사항】

안건번호 건축 2024-01-006

6. 완주 송광사 금강문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검토

가. 제안사항

전북 완주군 소재 「완주 송광사 금강문」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전북 완주군 소재 「완주 송광사 금강문」을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 받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전라북도지사
- (2) 대상문화재 :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송광사금강문」
 - 소재지 : 전라북도 완주군 소양면 송광수만로 255-16(대흥리 569-2번지)
 - 지정일 : 1999. 07. 09.
- (3) 신청내용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
 - 명칭 : 완주 송광사 금강문(完州 松廣寺 金剛門)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송광사
 - 소재지 : 전라북도 완주군 소양면 송광수만로 255-16(대흥리 569-2번지)
 - 조성연대 : 조선시대
 - 수량 : 1동
 - 지정면적 : 43.0m²
 - 구조/형식/형태 : 단층 목구조 / 정면3칸, 측면2칸 / 팔작지붕 / 홑처마

라. 현지조사 의견(2023.07.04. / 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전)문화재전문위원 ○○○)

- 문화재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있음.
- 문화재전문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유보.
- 전)문화재전문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있음.

마. 지정조사보고서 : 붙임참조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 원안가결 11명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23.07.04.	대상문화재	완주 송광사 금강문	
조사자	성 명	○○○	전공 분야	한국건축사
	소 속	○○대학교	직위(직책)	교수
주요 지정 사항 검토	문화재 종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문화재 명칭	완주 송광사 금강문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세부내용 별첨 참조		
	연혁·유래 및 특징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송광사 대웅전과 종루가 보물로 지정되어 있고 송광사 사역이 전체적으로 국가 지정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음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세부내용 별첨 참조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3년 10월 12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1.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 환경

완주 송광사(松廣寺)는 대한불교 조계종 제17교구 본사인 금산사의 말사(末寺)로서 전라북도 완주군 소양면 송광수만로 255-16에 있다. 송광사는 종남산 서남쪽 기슭 평평한 지형에 터를 잡았으며 주변에는 위봉산, 원등산, 시양산 등이 터를 감싸고 있다. 송광사를 기준으로 남서쪽에는 옛 전주부성이 자리하며 도로상으로 약 16.4있던 전주 시가지가 자리하며, 북동쪽으로 약 3km지점에는 위봉산성(威鳳山城)과 위봉사(威鳳寺)가 있다. 같은 산자락에 있는 봉서사(鳳棲寺)는 북서쪽으로 약 3.3km 거리에 있다.

송광사는 종남산 서남쪽 기슭 평평한 지형에 터를 잡았으며 위봉산, 원등산, 시양산 등이 터를 감싸고 있어 아늑한 공간을 형성하고 있다. 송광사 동쪽으로는 오도천이 남쪽으로 흘러 소양천과 합류한다. <전주부송광사개창비> 비문에는 송광사의 입지와 관련하여 ‘택지의 형세는 태백산(太白)을 조산(祖山)로 하고 속리산(俗離)을 종산(宗山)으로 하여 호서와 호남에 구불구불 이어져 있다. 절은 완산(完山)에 둥그스름하게 높이 있는데 좌로는 서방을 휘감고 우로는 응암(鷹巖)을 지키니 그 가슴에 해당하며 기세가 세차다. 산봉우리는 그 발등을 잘라 나누어 아래의 여러 산을 거느린다.’고 기록되어 있다.

『호남읍지』에 수록된 <호남 감영 병본부 영사례(湖南監營竝本府營事例)> 중 <전주부각방사례(全州府各房事例)>에는 송광사가 전주부의 30리에 위치하며 본부의 지소(紙所)라고 기록되어 있다. 즉, 조선 후기 송광사는 관청에서 사용되는 종이를 생산하고 공납을 담당하던 곳이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송광사 경내에는 대웅전(大雄殿), 종루(鐘樓) 등의 전각을 비롯하여 ‘소조 사천왕상’, ‘소조 석가여래삼불좌상 및 복장유물’, ‘목조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 및 소조십육나한상 일괄’ 등 5건의 국가지정 문화재가 있다. 이 외에도 일주문, 나한전, 금강문 등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8건과 전라북도 문화재 자료 1건 등 다수의 성보문화재가 있다.

2. 연혁 유래 및 특징

1) 송광사 금강문의 연혁

완주 송광사는 고려시대 보조국사 지눌(知訥, 1158~1210)이 점지(占地)하였다고 전하며, 1623년(광해군 16)에 1623년 대웅전 건립을 시작하여 실질적인 개창(開創)이 이루어진다. 당시 불사에는 남한산성을 비롯하여 쌍계사, 화엄사 등 이름난 사찰의 중건을 담당하였던 벽암(碧巖) 대사와 그의 제자들이 불사에 참여하였다. 송광사는 왕실의 안녕을 기원할 목적으로 왕실에서 지원 아래 창건되었다. 인조의 숙부인 의창군(義昌君)과 고모부인 신익성(申翊聖)이 작성한 사적비와 대웅전에 봉안된 삼전패(三殿牌)가 이를 뒷받침한다. <불상 조성기>에는 당시 왕과 왕비의 만수를 기원하는 내용과 병자호란 때 인질로 끌려간 소현세자와 봉림대군의 조속한 환국을 기원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송광사 금강문의 정확한 창건연대는 알 수 없다. <전주부송광사개창비(1636)>에는 법당(대웅전), 각방(各房), 각암(各庵), 시왕전(時王殿), 정문(正門), 명부전(冥府殿) 등에 관련된 기록이 있으나 금강문에 대한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송광사 금강문은 1636년 이전에는 건립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1665년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松廣寺法堂初創上層化主德林(규장각 소장)> 사료를 보면 송광사에 속한 건물과 암자 등 31동의 건물이 아래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

법당(法堂), 미타전(彌陀殿), 시왕전(十王殿), 종각(鐘閣), 응진전(應眞殿), 정문(正門), 천왕문(天王門), 해회당(海會堂), 객사(客舍), 금강문(金剛門), 승당(僧堂), 선당(禪堂), 향로전(香爐殿), 수도암(水道庵), 만월당(滿月堂), 백운당(白雲堂), 침계당(沈溪堂), 관음전(觀音殿), 서상실(西上室), 명경당(明鏡堂), 청풍료(淸風寮), 낙월료(落月寮), 연화당(蓮花堂), 비전(碑殿), 동암(東庵), 북암(北庵), 봉운암(鳳雲庵), 은수암(隱水庵), 수도암(修道庵), 태조암(太祖庵), 원적암(元寂庵), 천덕암(天德庵), 용문암(龍門庵), ㉠암(㉠庵), 백운암(白雲庵), 팔상전(八相殿), 대승암(大承庵), 미륵암(彌勒庵), 화장암(花藏庵), 청련암(靑蓮庵), 안양암(安養庵), 연수당(延壽堂), 서전(西殿), 약사전(藥師殿), 공루(空樓)

당시 송광사에는 정문(正門), 천왕문(天王門), 금강문(金剛門) 등 3동의 문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금강문 화주는 도헌(道軒)이라 기록되어 있는데 1636년(인조 14)에 세운 <전주부송광사개창지비(全州府松廣寺開創之碑)>에도 도헌이 확인된다. 따라서 송광사 금강문은 1637년~1665년(현종 6) 사이에는 이미 건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완주 송광사는 일주문-금강문-천왕문의 산문(山門) 체계를 이루고 있는데 벽암 각성대사가 중건했다고 전하는 화엄사, 하동 쌍계사 등의 사찰에서도 동일한 산문 체계를 이루고 있다. 구례 화엄사 금강문은 1632년(인조 10), 하동 쌍계사 금강문은 1641년(인조 19)에 중건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송광사 천왕문에 모셔진 서방광목천왕상에는 두 줄로 ‘順治己丑年七月日 金山畫圓主造像 崔七(수결)’이라 기록되어 있다. 천왕상은 1649년(인조 27)에 조성한 것이므로 비슷한 시기에 금강문도 창건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조선시대 송광사 금강문의 수리와 관련된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송광사 대웅전의 경우 1680년(숙종 6)에 중수하고, 1707년(숙종 33)에 대규모 수리가 이루어졌으며, 1814년(순조 14)에 7칸 중층 건물을 단층으로 고쳐 세웠음을 볼 때 금강문도 함께 보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1933년에는 대웅전, 종루, 나한전, 천왕문 등과 함께 지방부 보수공사가 이루어졌다. 이때 작성된 평면도를 보면 금강문 어칸에는 앞뒤로 출입문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는 출입문이 존재하지 않으나 기둥에 장부구멍이 있어 출입문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 1984년에 보수공사가 진행되었고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주초 이상 해체 보수가 이루어졌다. 2006년에는 금강상 1구와 동자상 2구를 교체하였다.

2) 건축 특성

완주 송광사 금강문은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의 건물이다. 가운데 칸은 흠바닥으로 통로로 사용하고 있으며 좌우 협칸에는 마루를 깔고 인왕상 2구와 문수·보현 동자를 나누어 모셨다. 어칸과 협칸은 살대를 설치하여 공간을 구분하였다. 기둥 간격은 정면 어칸의 경우 3,702mm, 배면 어칸은 3,736mm이며, 정면 좌우 협칸과 측칸은 2,452mm~2,499mm이다. 이를 척으로 계산하면 정면 어칸은 12척(尺), 협칸과 측칸은 8척(尺)으로 동일하며, 영조척은 약 310mm로 판단된다.

기단은 자연석을 사용하여 경사지를 따라 1~2단으로 조성하였으며, 정면과 배면의 통로 앞에는 계단을 설치하였다. 초석은 냇돌을 사용하였다. 기둥은 원기둥으로 10본이 사용되었는데 동측면과 배면의 기둥 6본은 신재로 교체하였다. 기둥은 상부를 기준으로 할 때 귀기둥이 평기둥보다 약 2치(寸) 정도 더 굵은 것을 사용하였다.

가구구조는 가구는 5량 형식이다. 전·후면 기둥 사이에 대들보를 걸었으며, 대들보 상부에 동자주를 세우고, 동자주 상부에 보아지와 뜯창방을 십자로 결구하고 주두를 놓아 중보를 받도록 했다. 중보 위에는 판대공을 놓아 중도리를 받는 구조이다.

공포는 외 3출목, 내 4출목의 다포 형식이다. 주간포는 정면 어칸에만 2조를 배치하였고, 나머지 칸에는 1조씩 배치하였으며 공포 간격을 동일하게 조정된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첨차는 모두 교두형 첨차를 사용하였다. 제공은 5개가 사용되었다. 초제공부터 삼제공까지는 모두 양서(仰舌)형이고, 사제공은 익공(翼工)형이며 오제공은 운공(雲工)형이다. 살미 형태는 경내에 자리한 대웅전, 종루, 일주문 등과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 살미의 내단은 초제공과 삼제공에 연봉(蓮峰)을 이제공에 연화(蓮花)를 조각하였고, 전체를 한 몸처럼 만들어 운궁(雲宮)형을 이루고 있다. 특히, 내단 상단의 살미를 길게 뻗치면서 다소 과장되게 장식적으로 표현하였으며, 모서리 부분의 공포에서는 귀한대와 함께 결구시켰다. 제공의 단면 크기는 폭 97~108mm, 춤 205~215mm 내외로 폭과 춤은 1:2의 비율을 지니고 있다.

추녀는 안쪽 끝부분은 강다리기법으로 보강하여 고식의 수법을 보여주고 있다. 연목은 직경은 150mm 내외의 것을 사용하였다. 연목은 자연재가 많이 남아 있으며, 추녀부에는 선자연을 사용하였다. 어칸 천장은 연등천장으로 개방하고 좌우 협칸은 평천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붕은 홑처마 팔작지붕이다. 양곡은 1.5자(尺)의 높이차를 보이며, 안허리곡은 2치(寸)~4치(寸) 정도이다. 용마루는 착고, 부고 위에 7단의 적새를 올렸고, 내림마루와 추녀마루는 착고 위에 5단의 적새를 올렸다. 용마루와 내림마루, 추녀마루에는 망와를 올리고, 기와 끝단은 수막새와 암막새를 사용하여 마감하였다.

3. 문화재 지정 가치 및 근거 기준

완주 송광사 금강문의 정확한 창건연대는 알 수 없으나, <전주부송광사개창비>와 <법당초창상층화주덕림> 사료 및 송광사 천왕문 사천왕상의 조성연대를 비교해 볼 때 17세기 중반에 건립된 것으로 판단된다. 완주 송광사 금강문은 일주문-금강문-천왕문과 직선축선상에 배치되어 있다. 이러한 사찰 초입의 산문의 배치 형식은 임진왜란 후 벽암 각성대사가 중건한 구례 화엄사, 하동 쌍계사의 사례와 동일하다. <전주부송광사개창비>에는 벽암문과 제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이처럼 완주 송광사 금강문은 창건 연대가 비교 빠른 편이며, 당시 사찰의 산문 배치 형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관련 인물을 볼 때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높다고 판단된다.

완주 송광사 금강문은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의 건물로서 일반적인 사찰 산문의 평면 형식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사찰의 산문이 주심포 또는 익공계 맞배지붕인 것과 달리 다포계 팔작지붕을 취하고 있어 독창성을 지니고 있다. 가구 구조는 5량 구조로서 기둥은 평기둥과 귀기둥의 단면 규격을 다르게 설정하였으며, 대들보와 중보, 도리 등 주요 구조재의 단면 규격이 크지 않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또한 추녀의 강다리기법 등에서 옛 수법을 잘 간직하고 있어 건축사적 가치가 높다고 판단된다. 공포는 외3출목 내4출목 형식으로 내부 살미 조각이 일체화되는 조선 중기 이후의 양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 외관은 축부와 지붕부의 비례가 균형 잡혀 있으며, 조각수법이 우수하며 예술적 가치가 높은 건물이다.

<종합의견>

완주 송광사 금강문은 다른 사찰의 산문과 비교해 볼 때 건축 연대가 비교적 빠른 편이며, 역사적·학술적·건축사적·예술적 가치가 높으므로 국가 지정문화재인 보물로 지정하여 보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추녀부에서는 선자연을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험간 천장이 평천장으로 처리된 것은 후대에 바뀌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조선 후기의 보수 관련 기록이 거의 확인되지 않으므로 향후 목부재 연륜연대를 측정하여 보다 정확한 창건 연대와 중수 시기를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현재 어칸 출입문은 존재하지 않으나 일제강점기 도면에서 출입문이 확인되므로 이에 대한 조사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대상 문화재의 핵심 보존가치

조선 중기 이후의 양식을 잘 간직한 공포
추녀의 강다리 기법
팔작지붕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23.07.04.	대상문화재	완주 송광사 금강문	
조사자	성 명	○○○	전공 분야	건축계획
	소 속	○○○○ 문화재연구원	직위(직책)	원장
주요 지정 사항 검토	문화재 종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문화재 명칭	완주 송광사 금강문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세부내용 별첨 참조		
	연혁·유래 및 특징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세부내용 별첨 참조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3년 08월 21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1. 연혁

완주 송광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제17교구 본사인 금산사(金山寺)의 말사이다. 867년(경문왕 7)에 체징(體澄)이 창건하였다 한다. 금강문의 정확한 창건 시기는 알 수 없으나 개략적인 추정에는 관련 문헌을 통해 가능하다. 송광사의 실질적 개창이 이루어진 1625년부터 1636년 사이 기록인 「전주부송광사개창비」에 금강문의 기록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반면,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법당초창상층화주덕림>를 보면 송광사에는 법당인 대웅전을 비롯하여 응진전, 관음전, 미타전, 팔상전, 약사전을 비롯하여 31동의 건물이 확인된다. 이 중에서 문은 정문(正門), 천왕문(天王門), 금강문(金剛門) 등 3동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금강문 화주는 도헌(道軒)이라 기록되어 있는데 1636년(인조14)에 세운 「전주부송광사개창지비(全州府松廣寺開創之碑)」에도 그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송광사 금강문은 1665년(헌종 6) 이전에는 이미 건립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천왕문의 ‘서방광목천왕상’에 두 줄로 ‘順治己丑年七月日 金山畫圓主造像 崔七(수결)’이라 기록되어 있다. 즉 천왕상은 1649년(인조 27)에 완성된 것이므로 비슷한 시기에 금강문이 건립되었다 추정해볼 수도 있다. 금강문과 관련된 연혁은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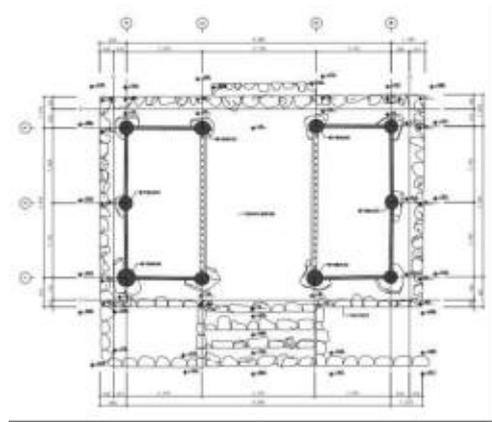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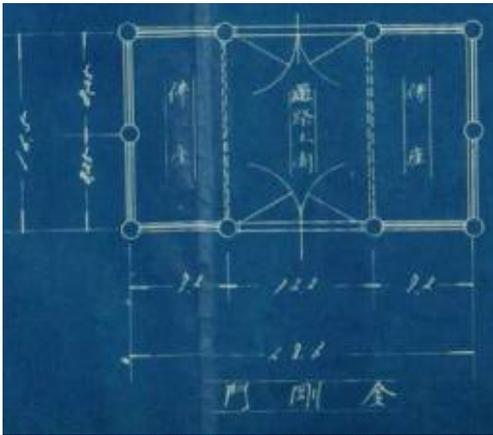
1625년(인조 3)~1649년(인조 27) 송광사 초창 당시인 벽암 각성 선사가 건립 추정
1932년 지붕부 보수
1984년 보수
1999년 전라북도 지정유형문화재 제 173호 지정
2005~2006년 주초 이상 해체보수
2006년 금강상 일괄 보수(4구)
2008년 금강문 단청

따라서 송광사 금강문에 관한 정확한 건립연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관련 사료를 통해 1636년에서 1665년 사이 건립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후 1984년과 2005년 대대적인 보수가 있어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기둥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요 부재가 교체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대부분의 천왕문 및 금강문이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불전에 비해 비교적 자유롭게 수리되는 상황의 결과로 이해된다. 1984년 수리에 관한 기록은 도면이 유일하여 수리 범위와 대상을 확인할 수 없으며 이후 2005년 수리 시 주초 이상 전면해체보수가 있었다. 근래 단청을 새로이 조성하면서 기존 부재와 교체 부재를 구분할 수 없어 건물의 원형과 관련된 판단의 어려움이 있다.

2. 건축형식

1) 평면

완주 송광사 금강문은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의 건물이다. 어칸은 흙바닥으로 통로로 사용하고 있으며 좌우 협칸에 인왕상 2구와 문수·보현 동자를 나누어 모시고 살대를 설치하여 공간을 구분하였다. 현재 출입문은 없으나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평면도를 보면 정면과 배면 중앙에 안쪽으로 여닫는 문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건물의 기능적 특징 상 평면의 특이점은 없으나 문이 달려 있었던 흔적은 특이하다 할 수 있다.



2) 가구 및 공포

건물의 틀을 구성하는 기둥은 외진주 10본으로 동측면과 배면은 모두 신재이며 나머지 4본은 원형으로 추정된다. 기둥 위 상부가구는 신재와 구재 여부를 육안으로 구별하기 부재의 형상, 치목기법 및 보수기록으로 추정해보면 대체로 1984년 이후 교체된 신재로 판단된다. 그 외 주요 구조부재나 가구구조는 특별할 것은 없다. 가구는 5량구조로 기둥은 창방으로 결구하고 앞뒤로 대들보를 걸었으며 그 위로 동자주를 세워 종보를 결구한 후 판대공을 놓아 종도리를 받았다. 보 형상은 위로 굽은 형상으로 원목의 모습을 최대한 살려 치목하였으며, 공포는 외3, 내4출목의 다포인데 교두형 첨차를 사용하였으며 제공은 주변 여타 비슷한 시기 건물과는 다소 다른 형상으로 중수 시 변형되었거나 시기를 달리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3) 인왕상 및 동자상

금강문 안에는 인왕상 2구와 동자상 2구가 봉안되어 있다. 동쪽에는 사자를 탄 문수동자상과 밀적금강을, 서쪽에는 흰 코끼리를 탄 보현동자상과 나라연금강을 모셨다. 동쪽에 배치되어 있는 밀적금강은 왼손에 긴 칼을 들고 오른손에 방패를 쥐고 있는 모습이다. 눈은 부리부리하고 코는 주먹코, 양쪽 귀도 큼직하다. 그 외 나라연금강과 인왕

상, 동자상. 문수동자와 보현동자는 새롭게 봉안한 것이다.

3. 종합의견

금강문은 조선 중기 이후 정형으로 자리 잡게 되는 사찰의 삼문(三門)중에 중문에 해당하는 문이다.

사찰에 따라 ‘인왕문’이라고도 칭하는데, 부처님의 가람과 불법을 수호하는 두 ‘금강역사’가 지키고 있는 문이다. 흔히 사찰의 삼문이라 하면 일주문, 천왕문, 불이문(不二門)을 말하는데 금강문을 세우지 않은 사찰도 많다. 송광사 금강문은 내부에 금강역사를 보호하고 있는 몇 안 되는 사료로써의 가치가 가장 높다 할 것이다. 또한 정확한 건립 연대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문헌자료와 송광사 중창 시기 등을 고려해 볼 때 17세기 중반으로 추정 가능하며 이후 중수가 있었으나 기둥 일부에서 원형의 흔적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완주 송광사 금강문은 일주문-금강문-천왕문과 직선축선상으로 배치되는 임진왜란 이후 사찰의 진입 특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며 당시 시대적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어 역사적·학술적 가치도 높다. 또한 벽암 각성대사가 당대에 중건한 화엄사, 하동쌍계사 등의 사찰에서도 이러한 배치형식이 확인되고 1625년 이후 완주 송광사의 개창 때 벽암 각성대사가 참여하였음을 볼 때 금강문 건립도 벽암 각성대사 또는 그의 제자들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역사성도 높다고 판단된다.

다만 현재 건물이 두 번의 수리를 거치며 부재의 대부분이 교체된 것으로 추정되며 내부의 금강역사 역시 밀적금강 외에는 근래에 새이 조성한 것으로 그 가치는 크게 높지 않다 할 것이다. 따라서 확인되는 구부재 외에 상부가구를 구성하는 부재 중 원형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따라 전반적인 문화재의 가치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대상 문화재의 핵심 보존가치

완주 송광사 금강문은 17세기 중엽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두 번의 큰 수리가 있어 기둥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부재가 교체된 것으로 추정된다. 공포 등 주요 부재의 치목이나 구조부 결구방식 등은 원형을 그대로 따른 것으로 추정되지만 부재가 교체된 상황에서 진정성이 낮다고 사료된다. 다만 단청 이전의 기록이나 부재의 원형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문화재 가치는 재검토할 여지는 충분하다. 그 외 건축적 형식은 일반적인 조선 중기 이후 삼문의 형식을 따르고 있다.

따라서 완주 송광사 금강문 시대성과 역사적 인물, 예술성 중 보편성과 우수성 및 창의, 학술성 중 지역성과 대표성으로 판단한다면 문화재 가치는 보통 수준으로 판단되며 공통사항의 동종문화재와의 비교에서 일부 가치가 확인된다.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23.07.04.	대상문화재	완주 송광사 금강문	
조사자	성 명	○○○	전공 분야	전통건축
	소 속	○○○○문화재연구소	직위(직책)	소장
주요 지정 사항 검토	문화재 종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문화재 명칭	완주 송광사 금강문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별지참조		
	연혁·유래 및 특징	별지참조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별지참조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별지참조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3년 9월 23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1. 역사적 가치

○ 송광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제17교구 본사인 금산사(金山寺)의 말사로 종남산 서남쪽 기슭의 평지에 위치한다. 1665년(현종 6)의 기록인 「송광사법당초창상층화주덕림」에 당시 31동의 당우를 갖춘 대가람이었고,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1933년 배치도에는 대웅전, 금강문을 비롯해 9동이 기록되어 있어 그간 전각 구성에 시기적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1933년 당시의 당우의 배치 존속 및 후대 증·개축과 신축으로 30여동이 건립되어 있다.

○ 금강문은 가람과 불법을 수호하는 '금강역사'가 지키고 있는 대문으로 일주문과 사천왕문 사이에 있다. 송광사에는 일주문-금강문-천왕문 3문 구성을 갖춘 드문 사례에 속하고, 금강문에는 인왕상 2구와 동자상 2구가 봉안된 문이다. 창건연대를 밝힐 자료는 없다. 다만, 1665년(현종 6)의 기록인 「송광사법당초창상층화주덕림」 당우 중 '금강문화주도현(金剛門化主道軒)'이란 기록이 있어 당시 건립 또는 기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기록은 없고, 1932년·1984년·2005~2006년·2008년 보수한 기록이 있다.

○ 완주 송광사 금강문은 관련 자료를 통해 임진왜란 직후인 17세기경에 평지가람의 삼문 구성과 함께 건립된 뒤 수차례 중수를 거쳐 다소 변형은 있었지만 당시 대문이 지금까지 존속한 시대적·장소적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2. 건축·학술적 가치

○ 건축적으로 완주 송광사 금강문은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에 주상부는 다포형식에 5량가 팔작 기와집이다. 평면은 중앙에 넓은 통로칸을 두고, 그 좌우 좁은 칸에는 2006년에 새로 조성한 인왕상 2구와 동자상 2구가 봉안되어 있다. 1933년 금강문 평면도에는 중앙 통로칸 전·후면에는 출입문이 달려 있었는데, 현재는 흔적만 남아 있다. 후대 변형이 있었지만 관련 자료를 통해 조선후기 사찰 대문(금강문)의 건축적 특성을 살필 가치가 있다.

○ 소규모 대문임에도 공포의 간포(어칸-2조, 협칸-1조) 구성과 작은 부재를 이용한 외3출목, 내4출목의 화려하고 독특한 공포구조와 형식은 조선후기 사찰 전각의 장엄화와 장식화의 시기적 경향과 연동된 사례로 예술적, 학술적 가치가 있다.

○ 이처럼 완주 송광사 금강문은 조선후기 평지 사찰의 배치 및 진입공간의 격식과 구성체계를 밝힐 사찰 대문이란 희귀성뿐만 아니라 건축형식에서 건립시기 및 지역적 특성 등 조선후기 건축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적 가치를 보여주고 있어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역사적, 건축적, 예술적 가치가 있다.

7. 보은 법주사 사천왕문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검토

가. 제안사항

충북 보은군 소재 「보은 법주사 사천왕문」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충북 보은군 소재 「보은 법주사 사천왕문」을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 받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충청북도지사
- (2) 대상문화재 :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보은 법주사 사천왕문」
 - 소재지 :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면 법주사로 405
 - 지정일 : 1977. 12. 06.
- (3) 신청내용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
 - 명칭 : 보은 법주사 사천왕문(報恩 法住寺 四天王門)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법주사
 - 소재지 :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면 법주사로 405
 - 조성연대 : 조선시대
 - 수량 : 1동
 - 지정면적 : 132.0㎡
 - 구조/형식/형태 : 단층 목구조 / 정면5칸, 측면2칸 / 맞배지붕 / 홑처마

라. 현지조사 의견(2023.07.04. / 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 문화재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있음.
- 문화재전문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있음.
- 문화재전문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있음.

마. 지정조사보고서 : 불임참조

바.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명칭은 “보은 범주사 천왕문”으로 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 조건부가결 11명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23.07.04.	대상문화재	보은 법주사 사천왕문	
조사자	성 명	○ ○ ○	전공 분야	전통건축
	소 속	○ ○ 대학교	직위(직책)	교수
주요 지정 사항 검토	문화재 종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문화재 명칭	보은 법주사 사천왕문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세부내용 별첨 참조		
	연혁·유래 및 특징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세부내용 별첨 참조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3년 11월 08일

제출자

○ ○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1.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법주사(法住寺)는 대한 불교 제5교구 본사로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면에 있는 사찰이다. 속리산(俗離山) 문장대에서 남서쪽으로 뻗어 내린 수정봉(水精峰) 앞으로 널찍하게 펼쳐진 평지에 사역이 자리 잡고 있다.

북에서 남으로 흐르는 계류를 따라 한참을 올라오면 일주문이 있고 이를 지나 수정교를 건너면 금강문을 마주하게 된다. 사역은 금강문(金剛門), 천왕문(天王門), 팔상전(八相殿), 쌍사자석등, 대웅보전(大雄寶殿)이 차례로 남북 일직선 주축을 이루고 있고 이와 직교된 동서로는 약사전(藥師殿)과 원통보전(圓通寶殿)이 배치되어 있다. 대웅보전 앞에는 각각 조사각(祖師閣)과 진영각(眞影閣)이 있으며, 사역 동편으로 요사채 일곽이 배치되어 있다.

사찰 창건 때 것으로 추정되는 기단과 경내 석물¹⁾의 원래 위치 그리고 문헌 기록 등을 분석한 선행 연구²⁾를 보면 원래 법주사는 지금 배치와는 달리 중문과 목탑(팔상전), 강당이 일직선에 놓이고 탑 서측에 다시 금당이 배치된 금당과 강당 직교형의 고대 일탑식 가람 배치였음을 알 수 있다. 팔상전 기단과 강당 앞 쌍사자석등만 원래 자리를 지키고 있고 나머지 전각이나 석물은 중건되거나 옮겨졌지만, 배치의 기본 골격은 팔상전을 중심으로 한 고대 사원의 배치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정유재란 후 재건 가람을 묘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법주사도(法住寺圖)³⁾와 1806년 제작 순조태봉산도(純祖胎峯山圖)에는 팔상전 바로 앞 현 사천왕문 자리에 비교적 큰 건물과 좌우로 붙은 긴 행각을 볼 수 있어 주목된다. 이 건물은 사역의 전체적인 배치구조로 볼 때 안과 밖이 구분되는 경계부에 놓였을 뿐만 아니라 행각이 부속된 것으로 보아 고대 가람의 중문 역할인 사원의 주 출입문이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법주사는 전체 일원이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경내에는 팔상전과 쌍사자석등, 석련지 등 국보 3점, 보물 13점, 지방 문화재 22점 등이 있다.

[표 1] 보은 법주사 내 문화재 현황

구분		명칭	지정일	수량
사적	제503호	보은 법주사	2009.12.21	일곽
국보	제5호	보은 법주사 쌍사자 석등	1962.12.20	1기
	제55호	보은 법주사 팔상전	1962.12.20	1동

1) 원통보전 서쪽의 회견보살상과 대웅보전 남쪽의 사천왕석등, 천왕문 서남쪽의 석련지 등이 있다.

2) 최현각, 김봉렬, 소재구, 『법주사』, 대원사, 2004(1994)

장현석, 최효승, 「속리산 법주사 가람배치의 변천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 14권3호, 2005.9.

3) 법주사 성보 박물관 소장 1점은 정유재란 이후의 모습을 묘사하였고 개인 소장 1점은 1765년 이후의 모습을 그렸다고 전해진다.

구분	명칭	지정일	수량	
	제64호	보은 법주사 석련지	1962.12.20	1기
보물	제15호	보은 법주사 사천왕 석등	1963.01.21	1기
	제216호	보은 법주사 마애여래의좌상	1963.01.21	1구
	제848호	보은 법주사 신법 천문도 병풍	1985.08.09	8폭
	제915호	보은 법주사 대응보전	1987.03.09	1동
	제916호	보은 법주사 원통보전	1987.03.09	1동
	제1259호	보은 법주사 쾌불탱	1997.08.08	1폭
	제1259호	보은 법주사 소조비로자나삼불좌상	2003.02.03	3구
	제1360호	보은 법주사 목조관음보살좌상	2003.02.03	1구
	제1413호	보은 법주사 철술	2004.08.31	1기
	제1416호	보은 법주사 복천암 수암화상탑	2004.10.07	1기
	제1417호	보은 법주사 석조희건보살입상	2004.10.07	1구
	제1418호	보은 법주사 복천암 학조화상탑	2004.10.07	1기
	제1858호	보은 법주사 동종	2015.03.04	1구
	지방 문화 재	제16호	보은 법주사 세존사리탑	1976.12.21
제46호		보은 법주사 사천왕문	1977.12.06	1동
제70호		보은 법주사 석조	1980.11.13	1기
제71호		보은 법주사 벽암대사비	1980.11.13	1기
제79호		보은 법주사 자정국존비	1980.12.19	1기
제204호		보은 법주사 석웅	2000.12.22	1기
제232호		보은 법주사 능인전	2004.01.09	1동
제233호		보은 법주사 선회궁 원당	2004.01.09	1곽
제234호		보은 법주사 궁현당	2004.01.09	1동
제236호		보은 법주사 가경구년명 철종	2004.07.09	1구
제238호		보은 법주사 선조대왕 어필 병풍	2004.07.09	8폭
제239호		보은 법주사 주서무일편 병풍	2004.07.09	10폭
제296호		보은 법주사 대응보전 후불도	2008.11.14	5폭
제297호		보은 법주사 여적암 다층청석탑	2009.03.06	1기
제298호		보은 법주사 복천암 극락보전	2009.03.06	1동
제305호		보은 법주사 복천암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	2009.09.11	3구
제306호		보은 법주사 복천암 신중도	2009.09.11	1폭
제307호		보은 법주사 복천암 삼세불도	2009.09.11	1폭
제308호		보은 문수암 산신도	2009.09.11	1폭
제313호		보은 보은사 지장시왕도	2009.12.04	1폭
제70호		보은 법주사 수정암 석조여래좌상	2009.12.04	1구
제79호	보은 법주사 상고암 마애불상군	2010.11.05	일괄	

2. 법주사 및 사천왕문 연혁

법주사의 창건 기록은 명확하지 않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이나 「속리산대법주사사적기(俗離山大法住寺事蹟記)」⁴⁾에 신라 진흥왕 14년(553) 의신(義信)이 창건한 것으로 나오

4) 1630년(인조 8)에 편찬이 시작되어 1873년(고종 10)에 완성되었고, 『寺誌』, 충청북도, 1982, 238~241쪽에 전문이 수록되어 있다. 이하 「법주사사적기」라 함.

지만 후속 관련 기록이 없어 신뢰성이 의문시된다. 현재로서는 삼국유사』(권4「의해」5)의 『영심(永深) 대덕이 진표의 법통을 계승하여(「眞表傳簡」), 길상초(吉祥草)가 난 속리산 자락에 사원을 지어 길상사(吉祥寺)라 부르고 점찰법회를 열었다』는 기록(「關東楓岳鉢淵藪石記」)에 의지해 8세기 말경 창건된 것으로 추정할 뿐이다.

당시 법상종을 종지로 개창된 법주사는 적어도 통일신라시대까지는 길상사라 그대로 불린 것으로 추측되며 고려시대 이후 들어서야 법주사 또는 속리사(俗離寺)로 바뀌어 불렸다 전한다. 경내에 남아있는 8, 9세기 무렵 제작된 여럿의 석조물을 통해 9세기경에는 사세가 커지고 많은 승려가 모여 수행하는 속리산의 대표적 사찰로 자리 잡았음을 알 수 있다.

창건 사원은 탑을 중심으로 금당과 강당이 직교하는 일탑식 가람배치 구조였으며 현존 유구 중 쌍사자석등, 석련지(石蓮池), 사천왕석등, 희견보살상(喜見菩薩像)과 팔상전 기단⁵⁾만이 당시 것이다.

창건 가람의 골격은 고려시대도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1006년(목종 9)에 당간을 주조해⁶⁾ 세웠고 금당에는 미륵장륙상을 봉안한 다음 산호전(珊瑚殿)이라 불렀다 한다. 산호전은 조선 전기에 이르러서는 산호보광명전(珊瑚普光明殿)이라 바꾸어 불렀고 이후 용화보전(龍華寶殿)으로 바뀌었다. 이후 고려와 조선 전기를 이어오며 대웅보전⁷⁾과 극락전이 차례대로 건립되었다.

법주사는 조선 초기 세종과 세조 등 왕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한 덕에 사세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었다. 그러나 1597년(선조 30) 발발한 정유재란으로 사역 내 거의 모든 건물이 소실될 정도의 병화를 입었다. 전란이 끝난 뒤 승병 대장이었던 사명대사 유정의 지휘 아래 팔상전을 필두로 대웅대광보전, 산호보전, 원통보전, 극락전 등 주요 전각이 재건되기 시작하였고 이들 외에 비로전, 약사전, 극락전, 윤장전, 해장전 등 경전을 보관하던 전각과 동상실, 서상실 등 승려들이 거처하던 요사까지 광범위하게 중건되었다. 이로써 17세기 초 법주사는 전쟁 이전의 사세를 거의 회복하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당시 재건된 건물을 기록한 법주사 사적기에는 대양문, 해탈문, 조계문 등과 함께 천왕문이 등장하는데 이 기록을 통해 전쟁 전부터 가람 내에 천왕문이 존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외 더 이상의 기록을 찾을 수 없어 천왕문의 상세한 건축 내력은 알 수가 없다. 사적기 내용을 통해 **현 사천왕문이 정유재란 이후 사원의 재건 활동으로 17세기 초에 건축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이후 세존 사리탑이 조성되고(1697), 대광명보전 수리가 있었으며(1715), 영조의 후궁 선

5) 최현각, 김봉렬, 소재구, 『법주사』, 대원사, 2004(1994).

6) 「法住寺鐵器」 명문: 統和二十四年歲次丙午(1006)旌鉞_田成幢.

7) 「법주사사적기」에는 정유재란 때 소실 이전의 명칭이 대웅대광보전이며 규모는 2층에 28칸이라고 했는데, 현존 대웅보전과 규모(1층 기준 정면 7칸, 측면 4칸)는 동일하다. 「대광명보전중수상량문」(1715)에는 이 건물이 정유재란 이후 1618년(광해군 10)에 3번째로 중창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희궁(宣禧宮) 영빈이씨(暎嬪李氏) 원당 건립과(1763) 영빈이씨의 시주에 의한 가람 중수(1765)가 이어졌다. 1786년(정조 10)과 1851년(철종 2)에도 두 차례 가람 중수가 있었다. 1866년(고종 3)에는 경복궁 재건에 쓸 당백전을 주조하기 위해 미륵장륙존상과 당간을 가져가면서 용화전(옛 산호전)도 같이 훼손⁸⁾되는 불운을 겪기도 하였다.

이후 구한말 쇠락했던 법주사를 일신하는 중창주 탄응(坦應) 비구에 의해 1892년(고종 29) 원통보전이 중수되고 대웅보전(1894)과 팔상전 및 극락전(1895)이 차례대로 중수되었다. 1896년(건양 1)에는 강당이 새로 건립되었고 그 다음 해인 **1897년(고종 34)에는 천왕문을 수리**하고 2년 후인 **1899년(고종 36)에 천왕상 4위를 개칭**하였으며 1900년에 극락전 터에 염불당을 지어 가람을 일신하였다 한다⁹⁾.

훼손된 산호전 자리에 1939년부터 콘크리트 미륵대불 조성이 시작되었으나 제작을 맡은 조각가 김복진(金復鎭, 1901-1940)¹⁰⁾의 요절로 중단되었다가 1964년에 완성되었다¹¹⁾. 1987년에는 콘크리트 불상을 철거하고 위치를 남쪽으로 옮겨 현재의 위치에 청동미륵대불 조성하고 대좌 아래의 기단 내부에 용화전을 조성했다(1990). 이 과정에서 이전까지 주불전의 장엄물로 원위치를 지키고 있던 희견보살상, 사천왕석등, 석련지가 지금과 같이 경내의 각지로 흩어졌다.

3. 사천왕문의 건축 현황 및 특징

법주사 사천왕문은 정면 5칸, 측면 2칸, 다포계, 1고주 3중량(三重樑) 7량가 홀처마 박공집으로 우리나라 천왕문 중 규모와 면적이 가장 크고 넓다. 여타 천왕문이 대부분 정면 3칸 구성임을 고려할 때, 이러한 주칸 구성과 넓은 면적은 천왕문 건물로서는 이례적이고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정면 간살은 어칸이 3,720mm로 가장 넓고 협칸(2,820mm)과 퇴칸(2,190mm)이 순차적으로 작아지는 구성인 반면 측면은 4,350mm로 양쪽이 모두 같다. 정면 가운데 칸은 통로이고 좌우 협칸과 퇴칸은 사천왕 소조상(塑造像) 2구씩이 안치된 봉안소이다.

통로와 봉안 면적을 비례적으로 분석해 보면 천왕문의 전형적 사례인 통도사는 봉안(56.8㎡)과 통로(27.7㎡)의 비가 2:1 정도이나 법주사는 봉안(87㎡)과 통로(32.2㎡) 면적이 2.7:1로 통로 비율이 작고 봉안 면적이 상대적으로 넓음을 확인할 수 있다.

8) 탄응선사의 비문 기록 “산호전은 이미 없어졌으며 대웅전도 장차 그러하며 각 전료(殿寮)도 화가 조석에 있다”

9) “...중략...去李朝開國五百年辛卯(1891), 坦應禪師, 自金剛就此寺判事之職, 一與目擊許作佛事. 明年壬辰(1892)重修圓通寶殿, 癸巳(1893)重修大雄寶殿及大香閣, 乙未(1895)重修五層殿及極樂寮舍, 丙申(1896)建築講堂, 丁酉(1897)修天王門, 己亥(1899)改稱天王像四位, 庚子(1900)築念佛堂於古極樂寶殿舊址, 設淨土會十年. 及華嚴會三年, 甲寅(1914)春, 又水晶庵, 庵因緣先靈, 以香火裕, 後昆以雲仍之所也. 然則營葺事業, 偉且大矣...중략...”, 『俗離山法住寺水晶庵化主比丘尼泰害碑銘』, 1926.

10) 1934년 금산사 미륵전의 미륵장륙삼존불입상(소조불) 중에서 중앙의 본존상이 실화로 불에 타버렸는데, 이것도 김복진에 의해 1938년에 다시 조성되었다. 『금산사지』九「佛像及寶物」彌勒三尊像.

11) 「法住寺彌勒佛像造成碑文」(1964). 『寺誌』, 207쪽 수록 원문 참조.

외진 변주 열에 맞추어 내부 고주 1열을 세움으로써 내부 공간이 자연스럽게 앞과 뒤로 양분되었고 이에 따라 사천왕상 4구의 자리 구분이 명확해졌다.

정면 어칸과 협칸 3주간에는 안으로 열리는 두꺼운 띠장 널문이 달려 있고 이보다 작은 퇴칸에는 기둥 중간쯤 높이에 짜인 가운데 설주 울거미에 널 쌍창(雙窓)이 밖으로 열리게 설치되어 있어 이색적이다. 이처럼 개폐가 서로 반대이며 형식도 다른 창호가 같은 면에 쓰인 경우도 드물지만, 무엇보다도 천왕문의 협칸과 퇴칸에 창호가 설치된 사례는 법주사가 유일하다.

어칸 문은 통로를 개폐하는 출입문 역할을 하지만, 협칸에 설치된 양개(兩開) 문은 봉안된 천왕상과의 간섭으로 개방할 수 없고 여기를 통해 사람이 출입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애초부터 이용할 수 없는 창호를 설치하지는 않았을 것이므로 후대 바뀌었을 개연성이 높다. 더구나 협·퇴칸 바닥은 타 천왕문처럼 건물과 일체화되거나 정교하게 짜 맞추어진 마루와 같은 구성이 아니라 흙바닥 위에 지대석을 아무렇게나 듬성듬성 깔고 그 위에 팔레트(화물 적재 깔판)처럼 거칠게 짠 마루 받침대를 놓아 마무리했음을 보아 천왕상을 후대 제작하여 기존 건물에 안치하였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이처럼 치밀한 가구(架構) 구성의 완성도에 비해 의외로 엉성한 소조상 안치 그리고 천왕문 세부 형식에서 발견되는 모순적인 형식과 구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애초 다른 용도의 건물에 후대 천왕상을 안치하면서 천왕문으로 용도를 바꾼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앞서 법주사 배치가 일탑식 가람 구조를 기본 뼈대로 하였고 몇 가지의 근거를 통해 현 천왕문이 원래는 고대 가람의 중문과 같은 사역 출입문의 용도로 지어졌을 가능성을 추정해 본 바 있다. 이를 함께 생각해 보면 원래 사찰 출입문이었던 중문이 어느 시기에 천왕문으로 개수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전의 문들은 그대로 남아 지금 모습이 되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생각된다. 이처럼 천왕문으로 바뀐 시기는 고종 연간에 시행된 1897년의 중수 때가 유력해 보인다.¹²⁾

평탄한 대지 위에 두벌대 장대석 기단을 쌓은 다음 그 위에 넓고 편평한 방형의 자연석 덩벙 주초를 놓아 기둥을 세웠다. 기둥은 외진 평주 10본, 내진 고주 4본, 우주 4본 등 총 18본이며 모두 민흘림으로 치목된 원주이다. 직경은 대략 550 ~ 860 mm 정도로 사뭇 굵은데 그 중 우주의 직경이 단연 굵고 어칸에서 협칸과 퇴칸으로 가면서 점진적으로 키가 높아져 외관상으로도 귀솟음이 완연하다.

좌우 측면은 인방을 걸고 심벽을 쳤으나, 배면은 어칸을 제외한 협·퇴칸의 인방 사이에 판벽을 쳐서 막고 상인방과 창방 사이에는 홍살을 설치하여 벽체 구성이 다르다. 판벽 널을 끼운 인방은 측면의 것보다 크기가 작고 널 맞춤과 홍살의 치목 및 끼워진 상태가 타 부재와 달리 치밀하지 않다. 19세기 중수 때 새로 설치되었거나 그 외 시기에 개체된 것

12) 1897년 천왕문 중수 2년 후인 1899년에 천왕상을 개칭하였다는 기록이 함께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 문을 수리하고 2년 후엔 소조상을 제작하여 안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 아닌가 한다.

정면 문울거미 인방과 문선 그리고 가운데 설주 등은 연귀나 제비초리 맞춤으로 결구되었고 부재 면에 쌍사가 남아있는 등 고식의 치목 수법이 남아있어 중·보수 과정에서 개체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퇴칸에 설치된 영쌍창(檣雙窓)은 우리나라 현존 건물에서는 고려시대 수덕사 대웅전에서 가장 이른 사례를 볼 수 있고 조선시대 17세기 초반까지 널리 유행되다가 18세기 이후로는 드물게 나타나는 비교적 고식(古式)의 창호 형식으로 알려져 있다.¹³⁾ 창호 전반에 남은 이러한 흔적을 통해 이 건물이 원통보전 중건쯤인 17세기 무렵에 건립되었을 가능성을 짐작해 본다.

창방은 단면이 비교적 큰 부재의 끝을 소매건이로 폭을 줄인 다음 양갈 기둥머리에 끼운 모습으로 규모가 큰 다포식 건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형식이다. 창방 위에는 평방을 올렸는데 우주 위에서 밖으로 빠진 평방 뺄목은 직절한 형태지만 창방은 상단을 사절(斜截)한 다음 그 밑을 연화두식형으로 조식(彫飾)하여 형태가 다르다.

포작은 외2출 내3출의 다포인데 박공집임에도 정·배면 외 측면부에 포작이 짜여 특징적이다. 특히 우주 상부 귀포는 45도 방향 귀한대(限大)와 좌우대(左右隊)가 설치된 팔작집에서나 볼 수 있는 전각포 형식이다. 따라서 우주 상부 평방 위에는 귀방(耳枋)을 두어 한대와 좌우대 등 제공부 처짐을 방지하고 보강하였다. 측면 포작과 전각포는 원래 팔작지붕의 측면부 서까래와 추녀를 받기 위함이 주목적임을 고려할 때 원래 팔작집이었던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정면과 배면에는 어칸만 간포가 설치되었으며 이보다 간살이 작은 협칸에는 포작 대신 화반이 놓이고 퇴칸은 간포가 설치되지 않았다. 반면 측면에는 기둥과 기둥 사이에 모두 주간포가 올려져 있어 주상포 10구, 주간포 6구, 우주 전각포 4구 등 총 20구의 포작이 짜여 있다.

포의 제공 외단은 아래로부터 초제공과 2제공은 쇠서형으로 치목되었고 3제공과 4제공은 운공형으로 초각되었다. 1, 2 제공 쇠서는 비교적 길고 날렵하며 부드럽게 곡선을 이루어 위로 휘어 오른 양서이며 상단에 연봉이나 연화 등이 장식되지 않고 단부는 오각형 양취가 뚜렷하게 표현된 비교적 강건한 형태이다. 전체 구성과 형식으로 보아 장식성이 두드러지는 조선 후기보다는 그 이전 형식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주상포는 초제공과 2제공의 내단부가 교두형이고 3운공이 연화두식형 보아지가 되어 대량 및 층량 하부의 초방(외단이 4운공이 됨)을 받치는데 비해 주간포의 경우에는 3, 4 운공을 한 몸처럼 구름형으로 초각하였고 그 위에 당초와 연화문을 새겨 길게 뽑은 5운공이 새로 올라간 형식이다.

행공과 출목은 소침과 대침 모두 교두형인데 일반적인 다포계 건물보다는 길이가 길고 직절된 단부 하부의 원호가 완만한 곡선을 이루며 아래쪽까지 길게 이어져 흡사 배모양

13) 김일진, 한국건축의 영쌍창에 관한 연구, 동국대 박사학위논문, 1988

으로 치목된 것이 특징적이다. 이러한 세부 형태는 원통보전의 것과 거의 흡사하다. 정면과 배면 협간에 설치된 화반은 모두 좌우단 및 하단을 초식(峭飾)하고 상단에는 소로를 3구 올려 주심도리 뜬 장혀를 받는 3소로 파련화반 형식이다. 특이한 것은 화반을 평방 위에 직접 놓지 않고 간포처럼 좌두를 설치한 다음 그 위에 올렸다는 것인데 다른 곳에서는 보기 힘든 드문 사례로 생각된다. 장식된 화반과 소로 등을 좌두 위에 올려 규모가 작은 간포처럼 보이게 하는 효과를 노린 것이 아닌지 흥미롭다.

천왕문의 포작 형태는 1647년에 재건¹⁴⁾된 것으로 최종 확인된 경내 원통보전의 것과 출목의 수만 다르고 세부 형식과 구성이 매우 흡사하다. 화반의 구성 및 형식 역시 비슷한데 좌두가 없다는 점만 다르다. 지붕 가구부에서도 결구와 구성면에서 두 건물의 유사점이 많아 원통보전이 재건될 당시 중건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지붕 가구는 3중량 7량가로 대들보는 내진 고주 위에서 맞보로 이어졌고 4분 변작 위에 동자주 대공을 놓아 차례대로 중보와 종보를 받은 형식이다. 대들보와 중보, 종보 등은 건물의 크기에 비해 춤과 폭이 비교적 작고 도리와 같이 거의 직재(直材)로 다듬어졌는데 이 덕분에 보와 도리 그리고 장혀와 뜬 창방 등 지붕 가구부 부재들이 중·횡 방향으로 정연하게 규칙화된 우아한 구성미를 자아낸다.

측벽 주상포와 주간포에는 충량과 덕량이 대량과 연결되어 있다. 충량과 덕량은 측벽 구조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간결성을 높여 좌우 횡력에 대응하기 위해 설치되는 팔작지붕 집의 필수 구성 부재이다. 주상포에서 건너오는 충량은 고주 위에서 맞보와 함께 장부맞춤 되지만 양쪽 주간포 위의 덕량 2본은 대량 위로 걸쳐 앉는 구조로 다르다.

내진 고주간에는 모두 창방으로 연결되었다. 그러나 어칸 통행로 상부만 창방을 건너지르지 않고 양쪽 고주 상부에 뿔목만 내어 구름 모양으로 초식해 두었다. 통행칸 상부에 창방을 건너지르지 않은 것은 통행인의 시각적 압박과 거부감을 우려한 조치로 생각된다. 이와 함께 대량과 충량 하부에는 장혀와 비슷한 크기와 형태로 치목된 초방이 결구되어 있어 주목된다. 초방의 한쪽 끝은 사갈 고주 머리에 창방과 교차 맞춤되고 다른 쪽은 외진 변주 주상포에 제공처럼 짜 맞춘 다음 밖으로 끝을 내밀어 초식하고 4운공이 되도록 하였다. 고주 창방과 초방을 활용한 이러한 특징적인 결구 방식은 원통보전의 퇴칸부 결구에서도 볼 수 있는데 포작과 지붕 가구를 일체화하여 건물 전체의 구조적 내력 성능을 높이는 한편 하중이 집중되는 보 하단을 받쳐 보강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내진 고주를 매개로 가구부와 포작 그리고 몸체를 일체화시키기 위해서는 변주, 고주, 보, 도리 등 구조 부재 높이와 첨차, 제공, 장혀, 소로 등 개별 부재의 크기가 서로 세밀하게 조정되어 치목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야만 결구부 짜임이 빈틈없이 정교하게 맞추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 범주사 사천왕문의 치밀한 구성과 건축적 완성도는 어느 건물에 비할 바 없이 대단히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14) 1997년 보수공사시 발견된 상량문을 통해 원통보전은 1647년 재건, 1847년 중수, 1974년 중수된 사실이 명확하게 밝혀졌다.

도리는 모두 굴도리이고 외목도리, 주심도리, 내목도리, 하중도리, 상중도리, 종도리 등으로 이루어진다. 단연과 장연은 하중도리 위에서 교차하면서 걸렸다. 도리 맞춤에서 흥미로운 것은 대량 양단 상부에 사다리꼴 형태로 잘 치목한 승두(초공)를 설치하여 대량 위로 지나는 내목도리와 장혀를 대공처럼 받쳐 둔 모습이다. 높게 걸린 내목도리는 보와의 맞춤이 완전하지 않거나 심지어 결구가 되지 않을 때가 있는데 이 경우 보 양단에 베게목처럼 거칠게 다듬은 부재나 가로 괴임목을 여러 겹 쌓아서 도리의 높이를 맞추어 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건물에서 보이는 제형 판대공 형식 승두는 조선 전기 삼척 죽서루에서도 동일한 형태로 찾아볼 수 있는데 눈에 띄지 않는 부분까지 공력을 들여 세밀하게 치목한 일면을 보여주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내3출 뜬 장혀 중간에는 동자주 화반을 설치하여 내목도리 처짐을 방지하고 있다.

상·하 중대공은 모두 같은 형식의 동자대공이다. 짧은 기둥 상부에 사갈주두를 올려 보와 중도리 장혀를 받았고 몸통에는 외단은 직절하고 내단은 운공형으로 모양을 낸 보아지를 끼워 보를 받쳐 보강하였다. 반면 종대공은 키대공이다. 도리와 장혀를 직접 받도록 상단을 따내어 얹히고 몸통 중간 높이쯤에 양단을 사절한 행공을 도리 방향으로 끼워 장혀 하단을 받쳐 보강한 모습이다. 지붕 가구 부재 중 뜬창방은 유일하게 하중대공에만 도리방향으로 결속되어 있다. 아마도 하중도리 단부에 팔작지붕 추녀 뒷뿌리가 올라타면서 횡력에 대한 추가적인 구조적 보강이 필요해서가 아닐까, 생각한다.

측벽 가구부 역시 이와 동일한 구성이다. 다만 대들보가 기둥에 의해 지지된 것이 아니라 측벽 포작 상부에 주심도리 대신 보를 설치하고 그 위에 지붕 가구를 짜 올렸다는 점이 다르다. 그런데 여기에 세워진 동자주 대공과 보아지는 다른 것에 비해 크기가 작고 치목과 주두 맞춤 등이 거칠고 엉성하며 종대공에는 장혀 보강용 행공이 생략되기도 하였다. 특히 포작 위로는 벽을 치지 않고 개방된 채로 남겨 두었는데 이 부분은 외부 박공에 의해 상부가 가려져 보이지 않기도 하지만 굳이 기밀성이 필요하지도 않은 건물이었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밀한 내부 가구와 정교한 맞춤과 차별되는 이러한 측벽의 구성 방법과 부재 상태는 다소 이례적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후대 팔작을 맞배로 지붕을 바꾸면서 남겨진 흔적으로 보인다. 법주사 사천왕문이 원래 팔작집이었을 가능성을 추정하게 하는 근거는 이 외에도 전각포와 측면에 포작이 남아있는 점, 총량과 덕량이 존재하는 점, 정면 5칸 주칸과 간살 구성이 팔작집 구성을 보이는 점, 측면 박공부와 포작 간 이격이 충분치 않아 간섭이 있는 점 등이다. 이처럼 지붕이 개변된 시점은 탄응(坦應)선사에 의해 중수가 이루어졌던 1897(광무1)년 무렵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같이 기록되어 있는 1899년(고종 36)의 천왕상 4위의 개칭은 이전의 것보다 더 현재 크기와 같은 천왕상의 제작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2년 전 팔작지붕을 박공으로 꾸며 더 큰 내부 공간을 확보하고자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박공지붕은 전통 한식기와 잇기에 막새 마감이며 용마루는 착고와 부고 위 적새 7단 구

성이며 내림마루는 당골 위 적새 5단 쌓기 마감이다.

4. 종합의견 및 지정가치

보은 법주사 사천왕문은 건축 시기를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경내 원통전(1647년 재건)과 치목 및 구조 법식 등이 유사하여 같은 시기인 17세기 중반 무렵 건축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조선 중기 양식으로 보이는 장식성이 배제된 간결한 공포 구성과 타이트한 가구 짜임 등이 이를 뒷받침하여 확인할 수 있는 근거이다.

건립 당시 천왕문 용도로 지어진 것이 아니었으나 19세기 후반 무렵 지붕을 고쳐 공간을 늘린 후 사천왕상을 안치하고 천왕문으로 개칭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우리나라 사찰 천왕문 건립의 또 다른 사례로 경제적 조건, 사회적 변화 등에 대응해 나가는 능동적인 사찰 운영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가치가 있다.

특히 법주사 사천왕문과 정면 5칸, 7량가로 우리나라 천왕문 중 가장 크고 넓기도 하지만 초방, 덕량, 승두 등 다소 이례적인 부재를 활용하여 몸체 구조부와 공포부, 지붕 가구부를 정교하고 치밀하게 일체화한 특징이 있다. 건축 및 구조적인 완성도가 매우 뛰어난 건물로 예술적인 가치 역시 충분한 것으로 인정된다.

국가 지정 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됨이 마땅하리라 생각된다.

아울러 문화재의 명칭을 신청서의 사천왕문으로 할지 아니면 편액에 따라 천왕문으로 해야 할지 추가 논의가 필요할 듯하다.

※ 대상 문화재의 핵심 보존가치

- 조선 중기의 것으로 판단되는 건축 양식
- 치밀한 구성과 정교한 맞춤의 내부 가구
- 원통전과 흡사한 공포 구성과 살미 및 첨차 형태, 화반
- 타 건축과 차별되는 이례적인 초방, 덕량, 승두의 활용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23.07.04.	대상문화재	보은 범주사 천왕문	
조사자	성 명	○○○	전공 분야	전통건축
	소 속	○○○○○○연구소	직위(직책)	소장
주요 지정 사항 검토	문화재 종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문화재 명칭	보은 범주사 천왕문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세부내용 별첨 참조		
	연혁·유래 및 특징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천왕문 1동, 132㎡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1972년 보수 이후 보존상태가 대체로 양호하지만 지붕의 누수 흔적, 양토벽의 탈락이 진행 중이고 부분적으로 기둥의 변형 등도 관찰되므로 연목 이상에 대한 보수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사천왕상을 봉안한 산문으로서 건물의 기능에 맞춰 현재와 같이 계속해서 이용		
종합의견	세부내용 별첨 참조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3 년 10 월 7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1)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속리산의 묘봉, 문장대, 천왕봉 등 주요 봉우리들이 서·북·동측을 감싸 안은 가운데, 서측으로 뻗어 내린 하나의 산줄기가 경내의 수정봉(568.5m)이 되었고 동측으로는 수정봉 맞은편 능선을 형성하였다. 좌우 능선 사이 계곡의 비교적 평탄한 곳에 남북 방향으로 가람을 조성하였고 또한 계곡을 따라 흐르는 개울은 태봉 쪽에서 흐르는 물줄기와 금강문 앞의 수정교에서 합수하여 남쪽으로 흐른다.

사역 중심부의 5층 목탑인 팔상전을 중심으로 서측에는 1964년 건립된 미륵대불, 북측에는 중층건물인 대웅보전, 그리고 사이에 원통보전과 약사전 등이 직교축을 형성하며 배치되어 있으며, 중심 영역의 동측과 대웅보전 북측으로 스님들의 수행 및 생활공간 등이 위치한다.

법주사 산문체계의 종결점에 해당하는 천왕문은 과거 사하촌(寺下村)이었던 상가지역을 지난 후, 개울을 건너 600m 정도의 진입로를 통과하면 가장 먼저 사찰의 바깥문에 해당하는 일주문을 만나고 다시 300m가량 숲길을 올라 수정교를 건너면 금강문이 나오며, 이를 통과하면 50m 앞에 천왕문이 남향으로 배치되어 조선시대 일반적인 사찰 통과예를 경험케 한다.

현재 법주사 경내에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목탑인 팔상전을 비롯하여 쌍사자석등, 석련지, 사천왕석등, 그리고 중층의 대웅보전, 원통보전 등 통일신라부터 조선후기까지 사찰과 오랜 시간 함께 했던 다양한 전각과 석조 유물들이 보존, 관리되고 있으며, 또한 속리산에서 갈라진 능선 사이로 복천암, 탈골암, 중사자암 등 주요 사내 암자들이 1960년대 이후 재건되어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한편 법주사는 부석사, 선암사 등 한국의 6개 중심사찰과 더불어 그 진성성과 완전성, 그리고 보존관리의 요건 등을 충족하여 2018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현재의 법주사는 주된 좌향이 남향이라고 할 수 있지만, 수정봉 앞의 금동미륵대불을 고려한다면 초기 좌향은 수정봉을 배산으로 하는 동향 배치였다고 할 수 있으며, 그리고 진입축을 고려한다면 팔상전(목탑)을 중심으로 금당과 강당이 직교하는 배치축을 형성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2) 연혁·유래 및 특징

보은 법주사는 산하에 70여 말사를 두고 있는 대사찰로 신라의 스님 의신(義信)이 흰 나귀에 불경을 싣고 와서 절을 세웠다고 하며, 법주사 혹은 속리사라는 이름으로 오랫동안 혼용되어 불려왔다. 법주사가 법상종의 대가람으로서의 면모를 갖춘 것은 진표율사와 그의 제자에 의한 것으로 금산사, 동화사와 함께 법상종의 3대 사찰로 꼽히고 있으며, 고려 문종의 여섯째 왕자인 도생(道生) 승통과 법상종의 자정국존(慈淨國尊) 등이 이곳의 주지를 하였다.

법주사의 법상종으로의 창건은 8C 후반~9C 초인 해공왕~헌덕왕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때 가람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고려 예종 7년(1112)에는 본사 주지가 반란에 연루되어 사찰의 태반이 훼손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창건 이래 가장 큰 피해는 정유재란 시 왜군의 방화로 인해 경내의 전각들이 대부분 소실되었고 용화전 내부의 미륵장륙상도 파괴되는 등 폐허가 되었다. 그리하여 17세기 초부터 사명당, 또는 벽암대사와 그의 사문들에 의해 재건공사가 시작되었는데, 1602년부터 공역을 시작하여 1618년 대웅보전 중창, 1626년 팔상전 중건, 1647년 원통보전 중창 등이 진행되었으며, 이후 여러 차례의 중건과 중수를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한편 법주사는 원종과 영빈 이씨(선희궁)의 원당이고 순조대왕의 태봉을 수호하는 사찰이며, 열성조의 어필(御筆)을 봉안하는 사찰로서 조선 왕실의 지속적인 비호를 받았으며, 따라서 의승역(義僧役), 잡역, 봉납 등을 면제받았고 공명첩을 통해 건물의 중창, 중수 등을 지원받았다.

1630년에 처음 작성되고 1737년 수정된 「俗離山大法住寺事蹟記(속리산대법주사사적기)」에는 법주사의 임진왜란 전후에 존재했던 건물과 주요 석조유구들이 모두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천왕문이 대양문, 조계문, 해탈문 등 법주사의 과거 산문들과 함께 기재되어 있다.

현재의 법주사 경내의 주요 전각들은 모두 정유재란 때 불타고 17세기 초에 모두 재건된 건물들이다. 따라서 천왕문 또한 17세기 초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2018년 천왕문 기둥과 사천왕상에 대한 연륜연대 분석결과, 기둥의 연대가 1619년과 1620년에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나 천왕문은 1620년대 초에 중건된 건물로 볼 수 있다.

한편 1926년 작성된 「俗離山法住寺水晶庵化主比丘尼泰害碑銘(속리산법주사수정암화주비구니태해비명)」에 따르면, 1891년 탄응선사(坦應禪師)가 법주사의 판사직으로 취임하여 여러 전각을 중수하였는데, 1897년 천왕문을 중수하였고 1899년에는 사천왕상 4위를 개채하였다. 그리고 현대에 들어 1972년 천왕문과 사천왕상에 대한 보수가 있었고 근래인 2016년 단청보수를 실시하였다.

천왕문은 정면 5칸, 측면 2칸 규모로 정면 정칸은 통로, 좌우 협칸과 퇴칸에는 거대한 사천왕상을 모셨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5칸 천왕문으로 규모가 가장 크며, 정면 44척(尺), 측면 28척으로 보칸에 대한 도리칸의 비는 1.58 : 1의 장방형 평면이며, 내부 중앙열에 기둥을 모두 정치시킨 독특한 주망구조를 갖고 있다.

기둥 상부에는 맞배집임에도 불구하고 4면에 평방을 설치하고 그 위에 다포식의 공포를 올렸으며, 정면 정칸과 좌우 협칸에 판문을 달았고 퇴칸 상부에는 2짝의 여단이 판문을 영쌍창으로 설치하였다. 좌우 측면은 토벽의 미장벽으로 마감하였고 팔상전과 마주 보는 배면의 경우, 상인방 하부는 세로판벽으로 처리하고 상인방 위로는 홍살을

춤춤히 설치하였다, 이러한 외관은 일제강점기 이래 관련 사진 등과 비교할 때, 대체로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천왕문은 내부 중앙열에 고주를 중심으로 맞보를 걸어 평주 위의 공포와 연결하였다. 맞보 위에는 동자주를 세우고 중보를 걸었으며, 그 위에 다시 중보를 올렸다. 통로공간인 정칸을 제외하고 고주 머리에는 수장쪽의 고주창방을 결구하여 횡방향의 결속을 강화하였다. 4면 공포 위에는 연목 길이를 고려하여 주심도리를 생략하고 내·외목도리만 설치하였으며, 내출목도리와 대들보 사이의 내부 포벽은 생략하였다. 전체적으로 3중량 방식의 7량가 건물이지만, 장연과 단연만으로 지붕면을 형성하였다.

내부에는 가공한 화강석을 지대석으로 놓고 목조 받침틀을 짠 후, 그 위에 사천왕상을 봉안하였다. 사천왕상은 국내에서 규모가 제일 큰 소조상으로, 연륜연대 및 탄소연대 측정결과 17세기 중엽에 조성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포는 다포식이지만 전·후면 정칸에만 주간포를 배치하였고 협칸에는 화반을, 그리고 퇴칸에는 주간포를 생략하였다. 좌우 측면에는 주심포 사이에 각 1조의 주간포를 배치하여 전체적으로 다포 건물로 분류된다. 공포는 외2출목, 내3출목인데, 특징적인 것은 내1출목에서 중첩차를 사용하였고 출목간격 또한 외출목은 1.2척, 내출목은 0.97척으로 간격을 달리하였다. 중첩차를 사용한 건물로는 세종 비암사 극락보전, 안성 청룡사 대웅전, 고창 선운사 대웅보전 등 전국적으로 다양하지만, 특히 범주사 원통보전, 팔상전(5층), 대웅보전(상층), 복천암 극락보전 등 임란 이후 재건되는 범주사의 주요 전각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한편 주상포의 경우, 4제공(운공)을 일반적인 운궁형 살미첨차로 처리하지 않고 내부 고주까지 길게 연결하여 맞보에 대한 구조적 보강과 주상포의 4제공을 겹하게 구성하는 특징적인 모습을 보인다. 또한 귀포 내부에서는 포간거리가 넓어 1출목 대첨차, 2출목 중첨차를 모두 장혀 형태로 간략하게 처리하였고 다만 노출되는 3출목 소첨차의 경우에만 일반적인 병첨 형태로 가공하였다.

천왕문의 전체 가구(架構) 계획은, 정면 5칸은 7-9-12-9-7척(尺)으로 협칸과 퇴칸을 3척, 2척씩 차이를 두어 칸살을 정했고, 측면 2칸은 14척(尺)씩 동일 간격으로 주칸을 설정했는데, 정면 퇴칸의 7척 칸잡이를 평면적 기준척도로 삼았다. 즉 측면 공포의 포간거리와 퇴칸의 주칸거리를 동일하게 설정함으로써 귀포(전각포) 구성의 좌우 균형을 고려하였다. 주고(柱高)는 지형에 따라 전·후면이 1척 가량 차이가 있지만 13~14척이고 그에 따른 처마내밀기는 주심기준 8척인데, 훌처마로 처리하여 주불전인 팔상전과의 위계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3)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천왕문은 팔상전(목탑)의 전면에 위치하는데, 목탑의 전면에 배치되는 문(門)은 고대

가람에서 중문이고 임란 이전에는 주불전 앞 마지막 산문인 정문(正門)이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현재의 5칸 천왕문은 중건 이전의 중문, 또는 정문을 전용(轉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비록 임란 이후 재건되었지만, 실물로 존재하고 또한 고대부터 현재까지 사찰 산문의 위치와 규모, 그리고 시기적 변천 등을 살필 수 있어 그 역사적 가치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천왕문은 정면 5칸, 측면 2칸이고 내부 중앙열에 모두 기둥을 배치한 고식의 주망 배치를 보이며, 특히 법주사 경내의 주요 전각들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공포의 중첩차 사용은 임란 이후, 재건 공역에서 사명당 유정(惟政) 문하 승장이라는 동일 기문의 건축기법을 확인할 수 있다는 데서 학술적 가치를 찾을 수 있다.

한편 천왕문은 다포계 맞배집으로, 현재의 모습이 언제부터인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임란 이후 중건 때부터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건물의 주칸 설정을 고려한다면, 고려시대 주심포 건물의 주칸에 다포식의 공포를 배치하면서 측면에도 정면 퇴칸과 균등한 주칸포를 배치하였고, 넓은 정칸에는 주칸포를 설치하여 지붕하중을 분담하는 등 공포 사용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로서 학술적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종합의견>

법주사는 8세기 후반, 3칸 목탑과 금당을 갖춘 일탑식 가람의 고대 사찰에서 출발하였다고 추정된다. 이때 배산임수의 지형을 고려하여 금당이 미륵전 위치에 놓고 강당이 목탑의 북측에 배치되는 교축형 구성을 형성하였고 그 골격이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으며, 이는 근래까지도 본래 자리를 지켰던 경내의 석조물 배치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俗離山大法住寺事蹟記(속리산대법주사사적기)」에 기록된, 법주사의 산문 중에서 가장 먼저 언급되고 칸수까지 표기된 대양문(大陽門)이 현재의 천왕문이었을 것으로 짐작되는데, 고대 가람의 중문에 해당하고, 또한 좌우로 회랑이 연결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천왕문은 법주사의 산문(山門)체계에서 마지막 통과례 문(門)으로, 임란 이후 중건되었고 1897년 중수를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1620년대 초 중건 당시의 원형을 대체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내부에는 17세기 중엽에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의 소조사천왕상 4위를 봉안하고 있다. 다만 좁은 폭의 퇴칸을 갖는 정면 5칸의 주칸 설정은 처음부터 사천왕상의 봉안을 계획하였던 것으로 보기 어렵고, 보칸에 대한 건물 높이가 1.0에 가깝다는 점, 팔상전(목탑)과의 배치관계 등, 오

랫동안 중심영역의 중문 또는 정문으로 존재하였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법주사 천왕문은 정면 5칸으로, 4면에 공포를 설치한 다포계 맞배집이다. 특히 내부 중앙열에 고주를 정치한 후, 전·후면의 공포와 맞보로 연결하였고 이를 통해 지붕 하중의 균등한 분산을 가져왔다. 다포식 공포를 설치하였지만, 기둥 위의 주심포를 중심으로 사이에 주간포를 적절하게 배치하고 주간포를 배치하기 곤란한 협칸에서는 초각한 화반을 설치하여 공포를 대신하였으며, 12척(尺)의 정칸에서는 기준 포간거리에서 벗어나지만 주간포를 설치하여 중심성을 강조하였다.

천왕문의 목구조 세부에서 가장 큰 특징은 법주사 경내의 주요 불전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공포의 중첩차 사용과 천왕문만의 독특한 4제공 살미의 구조적 보강 등을 꼽을 수 있다. 조선후기 중첩차 사용은 전국적으로 나타나지만, 특히 17세기 초에 중건된 법주사 주요 전각들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며, 이는 임란 이후 법주사 재건에 오랫동안 동일 기문의 승장들이 참여한 사실을 말해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위와 같이 법주사 천왕문은 고대 창건가람부터 중심영역을 형성, 한정하였던 핵심 전각으로 지금까지 그 위치를 지켜왔다. 17세기 초 중건 이후 대체로 원형을 지키고 있고 경내 주요 불전들과 동일한 기법을 공유함으로써 시대적, 지역적 특성을 내재하고 있으며, 특히 전통 목구조의 공포에 대한 이해와 활용, 그리고 건축 규모와 형식 등 여타 천왕문과의 차별성을 고려할 때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 관리할 필요가 매우 크다.

※ 대상 문화재의 핵심 보존가치

천왕문은 팔상전(목탑)과의 배치 관계에서 이해되어야 하고 위치와 규모, 기능 등이 매우 중요한 산문(山門)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조선후기 산문체계 속에서의 역할, 그리고 시기적, 지역적 특성을 보이는 동일 기문에 의한 건축기법도 중요하지만, 고대부터 현재까지 경계를 통과하는 문(門)으로서 계속해서 그 위치와 기능을 유지해 온 역사성은 그 보존가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23.07.04.	대상문화재	보은 법주사 천왕문	
조사자	성명	○○○	전공 분야	건축역사
	소속	○○문화재단	직위(직책)	수석연구원 (문화유산팀장)
주요 지정 사항 검토	문화재 종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문화재 명칭	보은 법주사 천왕문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법주사 일원이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쌍사자석등 등 8세기 통일신라시대 석조물 3점의 국보와 보물 13점 등 총 39건의 문화재가 보존되어 있음		
	연혁·유래 및 특징	천왕문은 17세기 전반 조성 이후 1897년, 1972년 수리가 이루어졌으며, 근래 2016년 단청보수가 있었고, 2019년에는 사천왕상 중 일부 보수가 있었음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법주사 천왕문은 호국불교에 바탕을 둔 거대 소조불상을 안치하기 위한 벽암문파의 시대적 특징을 잘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 역사성과 학술적 가치가 인정됨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사천왕문’으로 지칭되고 있으나 고문헌 및 고지도에 ‘천왕문’으로 대부분 표기되어 있어 지정명칭을 ‘보은 법주사 천왕문’으로 지칭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며, 건립시기에 대해서는 추후 면밀한 조사연구가 필요함		
	종합의견	법주사 천왕문은 사찰의 목조 산문 중 규모가 가장 크며, 사용된 기법은 조선 중기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는 점에서 보물로 지정하여 보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3 년 9 월 20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보은 법주사(法住寺)는 삼국시대 신라의 승려 의신(義信)화상이 창건한 사찰로 전하지만, 삼국유사의 기록에 따르면 진표(眞表)가 이전에 점지해 둔 속리산의 길상초(吉祥草)가 난 자리에 영심(永深)이 사원을 짓고 길상사(吉祥寺)라 부르고 법회를 열었다고 하며, 현존하는 석조유구를 통해 8세기 말경 사찰의 면모를 갖춘 것으로 보인다. 고려시대에도 개창된 사원의 모습을 유지한 것으로 보이지만 정유재란 때 전소(全燒)되고, 법주사가 현재의 모습을 갖춘 것은 상량문 등을 통해 밝혀진 1602년부터 착수하여 17세기 전반에 걸쳐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천왕문은 『의신태축경어법사(義信馱竺經於法寺)』에 의하면 1624년 건립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1647년에 건립된 원통보전과 공포의 형태가 유사하여 추후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경내 법주사 대웅보전의 경우 건물은 1618년 상량을 했지만, 마루기틀 청판 묵서는 1621년이고, 소조불상의 복장유물 연대는 1626년인 것을 보아 법주사 천왕문 역시 천왕문 건립 연대와 사천왕상의 조성 연대에서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천왕문은 조성 이후 1897년, 1972년 수리가 이루어졌으며, 근래 2016년 단청보수가 있었고, 2019년에는 사천왕상 중 광목천왕의 보수가 있었다.

천왕문의 위치는 일주문을 지나 계곡을 따라 산 속으로 들어가다가 수정교를 건너 사찰 경내로 들어서면 먼저 금강문이 자리하고 있다. 금강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가면 천왕문이 있고, 그 좌우로 요사채와 행랑이 보인다. 천왕문을 지나면, 팔상전이 전면에 위치하고 있고, 뒤로 쌍사자석등과 대웅보전이 일직선의 축을 가지고 있다. 팔상전 서측으로 용화보전이 있던 자리에 금동미륵불이 배치되어 있다.

법주사 사천왕문은 정면 5칸, 측면 2칸으로 어칸은 넓고 좌우의 협칸, 퇴칸으로 갈수록 좁아진다. 양측면의 벽은 기중 사이 중간 높이에 중방을 걸구하고 위아래 벽은 외위고 심벽을 친 다음 회를 발라 마감했다. 배면의 어칸 부분은 문이 없이 개방되어 있고, 좌우 협칸과 퇴칸에는 모두 상인방, 중인방을 걸구 한 다음 판벽을 만들었다. 그리고 배면의 5칸 전체에 걸쳐 상인방 상부, 즉 상인방과 창방 사이에 홍살을 설치했으며, 그중 어칸 중앙의 홍살에 태극문양을 달았다.

가구를 보면, 중앙에 고주를 둔 1고주 7량가 구조로 되어 있다. 전후 평주 위에 짜 올린 공포 위에 대들보를 걸치고, 이것이 중앙의 고주 위에서 맞보로 만나 걸구되었다. 고주 상부에 사개를 깊게 파고 보아지를 十자형으로 끼운 위에 주두를 놓고 대들보와 협칸-퇴칸 사이 고주 머리와 연결하는 뜯장여를 받도록 했다. 대들보 위 4분 변작 위치에 동자주를 세우고, 이중의 보아지와 주두를 걸구한 다음 중보를 받았다. 다시 중보

위의 4분변작 위치에 동자주를 세우고 보아지를 끼운 다음 주두를 올리고 종보를 받았다. 종보 중앙에 동자주를 세우고 종도리를 받았다.

공포는 네 면 모두 기둥 사이에도 간포를 짜넣어 지붕을 받는 다포형식으로 되어있다. 간포의 구성은 정면과 배면의 경우 어칸에만 주간포 1구를 놓고, 협칸에는 화반을 두었으며, 퇴칸에는 아무것도 없다. 양측면에는 기둥 사이에 각각 간포를 하나씩 구성했다. 포작의 구성은 내외 2출목으로 외부의 출목 거리가 내부보다 더 큰 점이 특징적이다. 행공침차는 소침과 대침 모두 양단부의 아래쪽만 완만한 곡선형으로 걸어 올린 교두형으로 되어있다. 살미는 초제공과 이제공 모두 외부는 쇠서를 조각했는데, 그 형태가 바깥으로 살미 몸을 조금 길게 내민 다음 완만하게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시 완만하게 솟구쳐 오르는 양서형으로 만들었다.

지붕은 맞배지붕이며, 지붕 양측면에 거대한 박공판을 달아 측면 가구부를 보호하고 있다.

<종합의견>

법주사의 현 가람배치 모습의 토대가 된 시점은 17세기 초이다. 팔상전 건립을 시작으로 주요 전각의 대대적인 중건공사가 이 시기에 이루어졌는데 이를 주도한 인물로 벽암대사와 그 스승인 부휴 선수대사의 문파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벽암 각성대사는 법주사 입구 앞 계류를 건너기 위한 수정교 인근에 그의 일대기가 기록된 비석이 세워져있다.

일반적으로 법주사는 1624년 벽암 각성대사의 주도로 중창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미 1602년부터 팔상전 중건을 시작하였고, 특히 1624년은 해인사에서 있던 벽암대사가 왕실의 명으로 팔도도총섭(八道都摠攝)이 되어 남한산성 축성을 하던 시점으로 이동 중 잠시 법주사에 머무를 수는 있지만 체류하면서 법주사 사역의 중창에 깊이 관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벽암대사가 실제 법주사에 은거한 기간은 1646년부터로, 원통보전이 해체수리과정에서 1647년에 건립된 연대가 확인되었다.

법주사 천왕문은 가구기법이나 공포의 의장양식은 원통보전과 매우 유사하다. 이는 1644년 완주 송광사 중창을 완료한 벽암대사와 그 문파가 법주사에 머무른 기간에 건립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천왕문은 남한산성에서 시작된 다양한 중건 경험으로 정립된 벽암 문파의 완성도 있는 기법을 볼 수 있는 역사적, 학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

다.

또한 조선시대 천왕문 중 유일하게 소조입상인 사천왕상을 안치하기 위하여 5칸 건물이고, 바닥 면적 또한 여타 천왕문의 2배 이상일 만큼 가장 큰 천왕문이라는 점과 다포식 건물과 동일한 구성을 갖는 귀포를 설치한 점에서 당초 팔작지붕 건물의 가구를 지닌 예술적 가치도 지니고 있다.



<법주사 천왕문 공포>



<법주사 원통보전 공포>

※ 대상 문화재의 핵심 보존가치

법주사 천왕문은 임진왜란 이후 호국사상을 바탕으로 사찰 중창을 이끈 벽암 각성대사가 그 문파들과 함께 다양한 사찰건물 중건의 경험을 토대로 가장 규모가 크고, 완성도 있는 목조 산문으로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인정된다. 또한 부분 보수나 단청보수 등을 제외하면 전면적인 보수가 2회 정도로 부재의 진정성과 완성성 역시 간직하고 있다.

따라서 고증자료 조사 및 현장조사 결과 2023년 보물로 지정된 내부 소조 사천왕상과 함께 보물로 지정하여 보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8. 양산 통도사 천왕문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검토

가. 제안사항

경남 양산시 소재 「양산 통도사 천왕문」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남 양산시 소재 「양산 통도사 천왕문」을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 받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경상남도지사
- (2) 대상문화재 :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양산 통도사 천왕문」
 - 소재지 :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통도사로 108(통도사)
 - 지정일 : 1985. 11. 14.
- (3) 신청내용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
 - 명칭 : 양산 통도사 천왕문(梁山 通度寺 天王門)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통도사
 - 소재지 :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통도사로 108(통도사)
 - 조성연대 : 조선시대
 - 수량 : 1동
 - 지정면적 : 86.17㎡
 - 구조/형식/형태 : 단층 목구조 / 정면3칸, 측면2칸 / 맞배지붕 / 겹처마

라. 현지조사 의견(2023.06.30. / 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 문화재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있음.
- 문화재전문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미흡.
- 문화재전문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있음.

마. 지정조사보고서 : 불임참조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 원안가결 11명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23.06.30.	대상문화재	양산 통도사 천왕문	
조사자	성 명	○○○	전공 분야	전통건축
	소 속	○○대학교	직위(직책)	교수
주요 지정 사항 검토	문화재 종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문화재 명칭	양산 통도사 천왕문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세부내용 별첨 참조		
	연혁·유래 및 특징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세부내용 별첨 참조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3 년 9 월 18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1.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통도사는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에 위치한 대한불교 조계종 제15교구 본사 사찰이다. 우리나라 불보사찰이자 팔대 총림 중 한 곳으로 신라 국통이었던 자장율사에 의해 646년경에 계율종 사찰로 최초 창건되었다 한다. 해발 1050m 영축산(靈鷲山) 남쪽 기슭의 평탄한 곳에 자리를 잡고 서에서 동으로 흐르는 하천변을 따라 가람 전체 형국이 좁고 길게 형성되어 깊이감이 있는 배치 구성을 하게 되었다.

사찰 입구인 일주문에서 천왕문, 불이문을 거쳐 대웅전과 금강계단에 이르는 길다란 동서축을 주축으로 그에 직교하는 3개의 부축으로 이루어진 삼로전(三爐殿) 형식의 복합적인 배치 구성이 눈에 띈다. 이러한 특징적인 배치 구조는 고려말과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율종계 교리체계가 점차 범종과의 통불교적 성향으로 바뀌어 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기능의 전각을 수용하면서 초래된 결과로 해석된다.

사역 진입부로부터 시작하여 영산전을 중심으로 극락보전과 약사전이 있는 하로전(下爐殿), 대광명전 주변 용화전과 관음전의 중로전(中爐殿), 그리고 가장 안쪽 깊숙한 곳에 대웅전과 금강계단(金剛戒壇)이 있는 상로전(上爐殿) 등 세 영역이 차례대로 배치되어 있다.

세 영역의 각 외부공간은 단 차이를 점차 높여 점진적인 위계를 주는 한편 하로전의 진입부와 중로전과의 사이에 천왕문과 불이문을 배치함으로써 영역간 통과를 경험케 하여 더 깊은 깨달음의 세계로 이끄는 실제적이고 물리적인 체험을 유도한 것으로 생각한다.

통도사는 2018년 경상남도 기념물로 지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이라는 명칭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사역 내에는 국보 1건, 보물 19건이 있으며 세부 사항은 다음 표와 같다.

No.	구분		명칭	지정일	수량/면적	비고
1	국보	제290호	통도사 대웅전 및 금강계단	1997.01.01	일곽	설법전 북측
2	보물	제11-6호	통도사 사인비구 동종	2000.02.15	1구	정보박물관
3		제74호	통도사 국장생석표	1963.01.21	1기	반경 약 2km
4		제334호	통도사 은입사동제향로	1963.01.21	1점	정보박물관
5		제471호	통도사 봉발탑	1968.12.19	1기	용화전 앞
6		제1041호	통도사 영산전팔상도	1990.09.20	8폭	영산전

No.	구분	명칭	지정일	수량/면적	비고
7	제1042호	통도사 대광명전삼신불도	1990.09.20	3폭	대광명전
8	제1350호	통도사 석가여래괘불탱	2002.10.19	1폭	정보박물관
9	제1351호	통도사 괘불탱	2002.10.19	1폭	정보박물관
10	제1352호	통도사 화엄탱	2002.10.19	1폭	정보박물관
11	제1353호	통도사 영산전 영산회상탱	2002.10.19	1폭	영산전
12	제1354호	통도사 청동은입사봉황문향완	2002.10.19	1점	정보박물관
13	제1373호	통도사 금동천문도	2003.04.14	1점(부속구포함)	정보박물관
14	제1471호	통도사 삼층석탑	2006.06.01	1기	극락전 앞
15	제1472호	통도사 아미타여래설법도	2006.07.18	1폭	정보박물관
16	제1711호	통도사 영산전 벽화	2011.04.29	일괄(52점)	영산전
17	제1735호	통도사 청동은입사향완	2011.12.23	1구	정보박물관
18	제1747호	통도사 은제도금아미타여래 삼존상 및 복장유물	2011.12.23	1점	정보박물관
19	제1826호	양산 통도사 영산전	2014.06.05	1동 / 288.5㎡	극락전 우측
20	제1827호	양산 통도사 대광명전	2014.06.05	1동 / 269.0㎡	용화전 우측

표 1 통도사 내 국보 및 보물 현황

2. 통도사 및 천왕문 연혁

통도사(通度寺)의 초창(初創)이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삼국유사(三國遺事)와 삼국사기(三國史記)의 관련 기록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라 선덕여왕(善德女王 ?~647) 15년(646)에 창건(創建)되었을 것으로 추측할 따름이다.

기록에 의하면 당나라에서 수학하던 자장율사(慈藏律師 590~658)가 선덕여왕 12년(643)에 왕의 부름에 귀국한 후 황룡사에 탑을 세우기를 청하고 완공된 후에는 당에서 가져온 부처님 머리뼈와 치아 그리고 사리 1백립(粒)을 황룡사탑과 태화사(太和寺)탑 그리고 통도사 금강계단(金剛戒壇) 등에 세 곳에 나누어 모셨다는 것이다.

1) 삼국유사 권4, 의해5 慈裝定律條, 권3 탑상4 皇龍寺九層塔條, 권3 탑상4 前後所將舍利條,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 선덕왕 14년(645)조 皇龍寺九層木塔刹柱本記條

자장의 귀국(643)과 황룡사탑 창건(645), 선덕여왕 타계(647년 2월) 등 시기가 확인된 당시 역사적 상황을 추론해 보면 통도사의 초창은 645년이거나 646년이었음이 확실한 데 관련 학계에서는 황룡사 탑을 건립한 후인 646년을 보다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처럼 통도사는 국통(國統)이 된 자장이 선덕여왕의 강력한 지원 아래 당에서 가져온 부처의 진신사리(眞身舍利)와 금란가사(金欄袈裟)를 봉안한 금강계단을 세워 사방에서 모여드는 사람들에게 불교적 가르침인 계(戒)를 주어 불법으로 통합하려는 불사리 신앙 중심의 율종(律宗) 중심 사찰로 창건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기록만으로는 일부 확인되는 대웅전이나 금강계단 외 얼마나 많은 전각이 당시 사역 내에 존재했는지 현재로서는 알 길이 없다.

고려시대에는 한때 왕실의 보호를 받으며 율업(律業 남산종 南山宗)의 중심 사원으로 표방되기도 하였으나 개경을 중심으로 하는 불교 중앙 무대에서 크게 주목받지는 못했던 것으로 추정되며 가람의 확장이나 특징에 대한 기록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고려말에 들어 비로소 통도사는 중흥기를 맞아 대찰로 변모하는 계기를 맞게 된다. 여기에는 고려말 무신정권 수립과 인도승 지공(指空 ?~1363)이 통도사에 주석하면서 끼친 영향이 컸다.

당시는 교종 사찰의 몰락과 함께 무신정권의 보호를 받는 선종계 조계종이 급성장하게 되고 선불교 수행법으로 간화선이 유행하던 시기이기도 했다. 이러한 불교의 사상적 변혁기에 율종계 사찰이던 통도사도 변화의 바람을 피할 순 없었다. 특히 선종계 승려인 지공은 1328년에 통도사 금강계단을 참배하여 가사와 사리를 친견하고 법회를 열었는데²⁾ 당시 지공의 통도사 방문은 통도사의 교리체계에 영향을 주었고 지공과 나옹의 후원 속에 계율종 수행 도량인 통도사가 조계종의 중심 사찰로 발전하였다 한다.³⁾

지공의 방문에 앞서 충렬왕 31년(1305)에는 선종계 사찰에서 선호하던 불이문(不二門)과 일주문(一柱門)이 창건되어 현재와 같은 일주문에서 불이문을 거쳐 금강계단에 이르는 동·서축 가람의 틀이 갖추어졌는데 이는 기존 영역을 하나의 종합적인 체계로 통합하여 질서를 부여하였다는 의미가 있다. 이어 지공의 통도사 방문 이후인 **충숙왕 복위**

2) 娑婆教主釋迦如來靈骨舍利浮圖碑, 通度寺誌. 西天指空和尚爲舍利袈裟戒壇法會記

3) 지공은 고려말 최고의 승려였던 懶翁(1320~1376)의 스승이었고 이 법통은 太古普愚(1301~1382)에게 전수되어 조선시대 선종인 조계종으로 이어진다.

6년(1337)에는 취암대사(翠巖大師)에 의해 천왕문(天王門)이 최초로 창건⁴⁾되어 비로소 현재와 같은 일주문-천왕문-불이문으로 이어지는 가람의 틀이 완성된 것으로 보인다.

탑이나 佛殿, 탕화 등에 있던 사천왕상이 사찰 입구에 따로 마련된 천왕문에 봉안되기 시작한 것은 대략 13세기 후반 무렵부터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와 관련된 기록 중에는 통도사 천왕문이 가장 이른 것으로 여겨진다. 이때부터 사천왕이 수호해야 할 공간이 개별 전각이나 탑에서 사찰 전체 영역으로 확대되었다 할 수 있다.⁵⁾

이후 고려말을 거쳐오면서 다양한 신앙체계를 갖는 불전이 다수 건립되었는데 충혜왕 복위 1년(1340)과 이듬해에는 승방인 감로당(甘露堂)과 원통방(圓通房)이 차례로 창건되고 그 후 몇 해 뒤인 1344년부터 1346년 3년간 극락암과 비로암 그리고 서운암 등 암자 3곳이 창건되었다. 이어서 공민왕 17년(1368)과 이듬해엔 명부전, 극락전, 용화전, 약사전 등 4곳의 불전들이 창건되어 각종 신앙체계를 아우르는 종합신앙의 사찰로 발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기록은 당시 통도사에 수많은 승려가 모여들면서 사세가 비약적으로 발전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 하겠다.⁶⁾

이후 조선시대 중기까지는 건축 기록이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⁷⁾ 아마도 조선조 배불 정책으로 인해 불사(佛事)가 정체기에 접어들었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는데 급기야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사역 내 거의 모든 전각이 불타 버리는 참혹한 병화(兵火)의 피해를 보게 된다.

전쟁이 끝난 3년 후인 선조 34년(1601)에 불이문, 천왕문, 일주문 등 세 개의 문을 복구하고 대웅전(현 영산전으로 추정됨)을 중수하면서⁸⁾ 통도사의 재건이 시작되는데 소실된 전각 중 가장 먼저 산문과 대웅전을 건립한 것은 과거 통도사가 가지고 있던 가람 영역의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했음을 보여주는 일면이라 하겠다. 이어 인조 19년(1641)에는 우운대사(友雲大師)가 현 대웅전의 중건공사를 시작하여 4년 만인 인조 23년(1645)에 완공하였고⁹⁾ 같은 해 만세루도 함께 중건되었다.

4) 靈鷲山通度寺事蹟碑(1967), 通度寺略誌(1969)

5) 임영애, 천왕문의 등장-사천왕상의 봉안 위치와 역할. 2018. 신라문화 제52권.

6) 靈鷲山通度寺事蹟碑(1967) 와 通度寺略誌(1969)의 내용 중 발췌.

7) 사명암 창건과 비로암 중건 등 소규모 암자의 영건 기록 정도만 확인되나 건립 시기의 신뢰성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8) 佛宗刹略史 舍利塔及大法堂初創重修來歷條에는 “宣祖三十四年辛丑春松雲推政特以威武命峇衍戮力經營三門不二天王一柱門及大雄殿重修也” “선조 34년(1601) 봄에 송운 유정이 특별한 명으로 불이문, 천왕문, 일주문 등 삼문을 건립하고 동시에 대웅전을 중수하였다.” 로 기록해 두었다. 그러나 여기에 언급된 대웅전은 현 대웅전이 아닌 영산전 건물을 지칭한 것이라 견해가 있다. 이는 신용철, 『통도사 영산전의 역사와 건축의장 고찰』. 불교미술사학 제6집. 2008.에 실린 내용에 의한 것이다.

당시에 이루어졌던 전후 재건은 빈약한 재정과 당시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 사역 중심인 대웅전 일곽에 한정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통도사 수복은 숙종 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영조대에 중흥기를 맞아 대부분 전각이 완공되게 된다. 숙종대 확인되는 영건 기록은 1677년과 1686년에 응진전(應眞殿)과 범종각(梵鍾閣)의 창건, 1704년 영산전(靈山殿) 중건, 1705년 금강계단(金剛戒壇)과 영각(影閣) 중수, 1706년 가람각(伽藍閣) 창건 정도이다.

그런데 숙종 42년(1716)에 작성된 영산전천왕문양중창검단확기문(靈山殿天王門兩重創兼丹腹記文)¹⁰⁾에는 천왕문 관련 기록이 있어 주목된다. 이 기록에 의하면 임진왜란 후 재건된 바 있는 천왕문이 1713년에 다시 화재로 소실된 뒤 이듬해인 **1714년에 중건**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이 내용은 **천왕문 명문 기와**¹¹⁾과도 일치한다. 이후 천왕문에 대한 영건 및 건축에 관한 기록은 찾아지지 않는다. 특히 2012년 목조 사천왕상 보수과정에서 발견된 조성기와 복장유물을 통해 **사천왕상의 조성연대**가 천왕문 조성 4년 뒤인 **숙종 44년(1718)**임이 밝혀졌다.¹²⁾ 사천왕상 안치 이후 문이나 조각상에 대해 큰 공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현 천왕문의 양식적 완성 시기를 이 당시로 산정하여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영조 대에는 영조 원년(1725)부터 관음전의 창건을 필두로 2년 후에는 장경각이 창건되고 50년 후인 영조 33년(1757)에는 범음대사(梵音大師)에 의해 일로향각(一瀟香閣)-전향각(篆香閣)-응향각(凝香閣)이 나란히 창건된다. 이들은 통도사 삼원(三院)의 전각을 관리하는 노전(爐殿)으로 상로전-중로전-하로전으로 이루어지는 삼로전제(三爐殿制)의 구성이 이때 완성됨을 의미한다. 이어서 명부전(1760) 일주문(1770)이 중건되고 산령각(1761)이 창건됨과 동시에 통도사의 재건사업은 일단락을 짓게 된다. 뒤이어 19세기 전

9) 1961년 실시된 현 대웅전 보수 당시 동쪽 합각머리의 서까래 3개에서 ‘順治二年甲申五月十一日立柱 全年八月初十日上樑 全年八月十八日椽 匠工二十余名上樑後十四名造練者’ 라는 기록이 발견되어 건립연대를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기록의 순차 2년은 인조 23년(1645)이나 갑신년은 인조 22년(1644)에 해당하므로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확인이 필요한 대목이다.

10) 康熙 五十五年 丙申年(1716)에 鷲巖 義玄이 쓴 기문으로 “康熙癸巳仲春一星之火二殿之火千年寶刹一朝荒廢...(중략)..由是甲午成造請僱材於蓬萊乙未丹腹邀壤聖於湖南懿乎儼若化城燦然...중략.....” 이라 기록되어 있다. 해당부분만 국역하면 강희 계사년(1713) 봄에 일성의 불이 두 전각을 불태워 천년 보찰이 하루 아침에 황폐해졌는데...(중략)...갑오년(1714)의 성조(成造)에는 금강산에서 좋은 재목을 청했고 을미년(1715)의 단정에는 호남에서 안료를 구했으니 아름답고 의젓하기가 성곽을 쌓은 듯 안팎이 찬란하다...’

11) “康熙五十三年 甲午四月日 天王門蓋 片手金德端 允金 一崧 大功德朗聰 都監大岩 供養主石賢” **강희 53년 갑오년은 1714년에** 해당한다.

12) 조선 후기 활동한 대표적인 조각승 진열(進悅)에 의해 제작된 것으로 밝혀짐

반에는 임진란에 없어진 취운암을 비롯한 7개의 암자들이 중건되었고 19세기 후반에는 감로당과 승방들이 중건되어 현재에 이른다.

따라서 사역내 수많은 현 전각들은 임란 이후 모두 숙종대와 영조대에 창건되거나 중건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통도사 영건 기록 중 **천왕문과 관련된 내용**만을 다시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고려 충숙왕 복위 6년(1337) 천왕문(天王門) 창건
- 임진왜란 소실 후 선조 34년(1601) 천왕문 복원
- 숙종 39년(1713) 화재로 소실
- 숙종 40년(1714) 천왕문 중건
- 숙종 44년(1718) 사천왕상 봉안

3. 천왕문의 건축 현황 및 특징

통도사 천왕문은 정면 3칸, 측면 2칸, 익공계 이중량(二重樑)의 5량가 겹처마 박공집이다.

정면 3주칸 중 어칸은 통로로 하고 좌우 퇴칸에는 사천왕상을 2구씩 봉안해 두었는데 양쪽 퇴칸(4,320mm) 간살이 어칸(4,230mm)보다 900mm 더 크다. 전체적인 주칸을 다른 건물보다 다소 넓게 구성한 점, 퇴칸 간살을 어칸보다 더 넓힌 것 등은 통행과 조각상 안치의 기능적 특성이 간살 설정에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측면 간살은 두칸 모두 3,330mm로 같다. 측 고주가 대량 밑을 바치며 보강하는 구조재이다 보니 정중앙에 위치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통행칸 앞쪽에는 커다란 띠장 널문이 둔테에 달려 안쪽으로 개폐할 수 있지만 후면은 창호 없이 개방되어 있다. 어칸과 양 퇴칸은 각각 용도에 적합하게 시멘트 몰탈과 장마루로 마감되었고 둘 사이 경계에는 낮은 홍살이 세워져 양쪽 영역이 구분되었다.

전저후고(前低後高)의 완만한 경사지에 거칠게 다듬은 화강석으로 축대를 쌓아 지형을 평탄화하고 그 위에 문을 세웠다. 축대 끝에서 일정 거리를 뒤로 물려 기단을 쌓았는데 다듬은 화강암 기단석을 경계석 정도의 높이로 낮게 깔고 그 위에 방형 전을 깔아 마감한 형식이다. 기단이 높으면 통행에 방해되므로 보행자가 인지할 수 없을 만큼 낮추어 기단을 깎은 것 역시 통행 기능을 고려한 건축적 배려라 할 수 있다.¹³⁾

기단 위에는 넓고 낮으며 편평한 자연석 덩벙 주초를 놓고 하부를 그랭이 뜬 외진주

13) 1930년대 촬영된 사진을 보면 기단 높이는 현재와 거의 같고 자연석에서 화강석 등으로 마감재만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0분을 세워 몸체를 결조(結造)하였는데 평주와 우주간 높이 차이는 거의 없고 귀솟음 역시 확인되지 않는다. 양 측면 2분은 대량 아래까지 키를 높여 세운 고주이며 모든 기둥은 민흘림으로 치목되었다.

주목되는 것은 평주 높이가 3,780mm로 경내 수많은 불전과 부속 전각을 통틀어 대웅전(4,350mm) 다음으로 높다는 것이다. 심지어 대광명전(3,452mm)과 영산전(3,655mm) 등 중로전과 하로전의 중심 전각보다 기둥이 높다.

포작은 사갈된 기둥 상부 화통가지에 창방과 익공을 직교해 끼운 다음 주두를 올려 행공과 교차된 2구의 익공을 차례대로 받고 주심 밖으로는 다시 1출목을 낸 1출목 3익공 형식이다.

보통 출목 익공¹⁴⁾은 2익공으로 결구할 때가 가장 자연스럽고, 안정되어 있어 1출목 2익공이 보편적이고 사례가 가장 많다. 따라서 통도사 천왕문과 같은 1출목 3익공 형식은 다소 파격이기도 하지만 구조적으로는 불안해서 비합리적이라 볼 수 있다. 3익공에 출목을 낼 경우, 기둥에 직접 끼워져 결구부가 단단하고 움직임이 억제된 초익공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결구 상태가 약한 2익공에 출목이 걸리기 때문이다.

이러한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익공을 하나 더 포개어 올린 덕에 천왕문은 다포 짜임처럼 높이가 훌쩍 높아졌다. 남다르게 키가 큰 기둥과 높아진 포작으로 인해 지반에서 대들보 하부까지의 높이가 거의 4,300mm에 이를 만큼 다른 전각에 비해 몸체가 높다.¹⁵⁾ 이 때문에 천왕문의 외관이 다소 경충해 보이기까지 한다.

초익공과 이익공은 촛가지가 아래로부터 위로 휘어 오른 양서 형태로 길이가 비교적 짧고 상단에는 연화(초익공)와 연봉(이익공)이 초식(峭飾)된 모습이다. 새부리 모양으로 날카롭게 뺀 일반적인 익공의 살미가 아니라 조선시대 후기 장식화된 다포계 살미처럼 치목된 모습이 이색적이다. 그 위에 올라간 3익공은 두어 번 굴곡을 주어 깎아 끝이 뾰족하게 치목된 삼분두 형태이며 다시 상부에는 단부 폭을 줄여 밖으로 빼내 메뚜기 머리처럼 초각한 보머리가 출목도리를 받고 있다.

천왕문 익공 포작은 전체적인 구성과 세부 살미 초각이 바로 이웃한 다포계 영산전 건물의 것과 매우 흡사해 주목된다. 제공과 출목의 수만 줄었을 뿐 제공과 침차의 구성이 같고 살미와 삼분두의 형상 및 치목 기법은 거의 동일한데 아마도 천왕문이 영산전과 동시에 중건되면서 빚어진 현상으로 생각된다.

주심 행공은 소침과 대침 모두 동일하게 양단부를 직절하고 하단은 거의 직선처럼 모를 죽일 정도만 둥글려 각은 교두형인 반면 출목 침차는 양단 사절 후 아랫부분을 연

14) 출목 익공은 일반적인 익공 형식이 널리 유행하기 전 사찰 부속 전각이나 서원 사당과 같이 다소 위계가 높거나 규모가 큰 건물 등에서 주로 사용되던 과도기적 형식으로 익공의 간략한 구조와 처마 하중 지지의 장점이 있는 출목을 함께 쓰는 구조이다. 그러나 과도기적 형식의 한계로 결구가 완전하지 않고 구조가 다소 불안한 것으로 평가된다.

15) 대들보 높이가 높게 구성된 대표적인 건물로 예천 용문사 대장전이 있다. 대장전은 내부 윤장대(높이 4.2m)를 설치하기 위해 포작을 높여 대들보가 기둥 높이의 두 배에 이를 만큼 높게 걸렸다.

화두형으로 조식한 것이 다르다. 익공의 장식성을 높이기 위해 출목 첩차를 더 화려하게 치목한 것으로 보인다. 익공 내단은 모두 한 몸처럼 운공각 한 후 대들보 밑을 받쳐 보강재인 보아지 역할이 되도록 하였다. 특히 측벽부 우주 익공 중에는 내단부가 사절된 몇몇의 부재가 발견되는데 이는 후대 중수 시에 개체된 것으로 생각된다.

창방과 주심도리 사이에는 모양을 내지 않은 사각형 화반에 양갈 외소로를 올려 주심도리 장혀를 받아 처짐을 방지하였다.

상부 가구는 전·후칸을 가로지른 장통대보 위에 종보가 올라간 이중량(二重樑) 5량 구조이다. 대보를 3분변작하여 세운 중대공과 종보 상부 중대공은 모두 판재를 3단으로 쌓고 운공형으로 화려하게 초식(峭飾)한 파련대공인데 포작 내단의 것과 함께 어울려 내부 연등천장 결구부 곳곳에는 구름이 피어오르는 듯 한 형태가 연출되어 통일적 이미지를 자아내고 있다.

중대공과 중대공 모두 기둥 위 포작처럼 키가 훌쩍하게 높다. 이 때문에 대보 하단에서 최상단 중도리까지 가구부 높이가 거의 2,600mm에 달한다. 높아져 불안한 가구 보강을 위해서인 듯 대공과 이웃한 대공 사이에는 뜯창방이 설치되어 서로를 맞잡고 있고 중대공과 중대공 상단에도 도리 방향의 짧은 행공 첩차를 끼워 장혀를 받치는 보강재 구실을 하도록 하였다.

매 주간 뜯창방 위에도 화반이 설치되었는데 장식하지 않은 창방 위 판화반과는 달리 양단을 구름 모양으로 운공 초식한 형식이다.

대들보 양단에 올라가는 주심도리는 보에 직접 결구되지 않고 보 상단에 따로 설치된 승두(초공)에 앉혔다. 출목 익공 형식에서는 출목도리와 주심도리간 높이차로 인해 주심도리가 대들보와 충분히 결속되기 어려운 구조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리가 안정되게 앉을 수 있는 승두가 따로 필요하다. 중도리 역시 종보 상단에 힘겹게 걸터앉아 있다. 이는 대보의 경우와는 달리 종보가 세장하여 장혀를 결구하고 나면 도리가 앉는 자리를 충분히 따낼 수 없어서 나타난 현상이다.

종보뿐만 아니라 대들보 역시 의외로 가늘다. 부재의 자연적인 굴곡을 그대로 살려 치목한 대보는 간살에 비해 가늘고 길어 상부 하중을 받아내기가 버거울 정도로 보이는데 이를 고려한 듯 양 측벽 대보는 고주를 받쳐 지지해 두었다.

비교적 곧은 부재를 사용하여 중도리와 중도리간 단연을 걸고 장연은 중도리 위에서 교차해 주심과 출목도리를 거쳐 처마로 길게 뻗어 있다. 장연 단부는 사절되고 소매견이 되었고 그 밖으로 부연이 화려하게 걸렸다.

기와는 근래 새로 개체한 듯하다. 용마루는 착고와 부고를 놓고 그 위에 4단으로 적새를 쌓아 나지막하게 만들었고 지붕 끝단에는 막새로 마감하였다. 나지막한 마루를 올린 박공지붕이 검박하게 보인다.

4. 종합의견 및 지정가치

통도사 천왕문은 646년 자장에 의해 창건된 율종계 사찰이 고려말 선종 사찰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인 1337년에 처음 지어졌다. 이 시기는 우리나라 사찰에 사천왕을 따로 모시기 위한 문이 막 들어서기 시작하던 때이기도 하며 통도사의 천왕문 창건기록은 이러한 관련 기록 중에 가장 이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임진왜란과 숙종 때의 화재로 인한 두 차례 소실과 중건 등의 기록과 이를 뒷받침하는 관련 자료 역시 비교적 자세하게 남아있다.

따라서 통도사 천왕문은 우리나라 사찰에서의 사천왕문 도입과 건립 및 동기 그리고 시대적 상황 변화에 따른 변천 과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료로 역사적인 가치가 있다고 본다.

천왕문은 사역 내 다른 전각에 비해 기둥과 대공이 높고 박공지붕을 깊이감 있는 연등천장으로 구성하여 내부에서 느껴지는 공간의 볼륨감이 남다르게 크고 넓다. 이는 문 내부에 봉안된 사천왕상을 특정 공간에 간혀 억압되고 위축된 모습이 아니라 당당하게 어깨를 활짝 편 이미지로 연출하기 위한 건축적 배려가 아닌가 한다. 특히 대들보와 종보 등 가구부 부재를 가늘게 치목하고 보를 높게 걸어 천왕상 얼굴을 부재가 가리지 않도록 구성한 것 역시 참배자의 시선이 방해받지 않도록 시각적 개방감을 추구하면서 의도된 부분으로 생각된다. 신도와 출입객 통행 동선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기둥 간살을 일반적인 경우보다 넓은 점, 통행시 인지되지 않도록 기단을 낮추어 축조한 점 역시 기능적이라 볼 수 있다.

천왕문에서 찾아지는 이러한 건축적 특성은 천왕상 안치, 내객의 참배, 통행인 동선 처리 등 사천왕문이 가져야 하는 기능적 요구를 모두 수용하면서 나타난 모범적인 결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통도사의 천왕문은 우리나라 사찰 천왕문 중 전형적 양식의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건축 및 학술 가치가 뛰어나다고 평가할 수 있다.

통도사 천왕문에서는 출목익공 건물에서 필연적인 구조 보강재의 설치 특성이 두드러진다. 출목과 주심간 높이차로 인한 주심도리 하부 안장목(승두) 설치, 대공 사이에 설치되어 가구부 전체를 맞잡아 보강하는 뜯창방 결구, 대공 상부 도리 방향 보강재인 행공의 설치, 창방과 뜯창방 상부에 설치된 화반 등이 그것이다. 또한 익공 내측 보아지와 중대공과 종대공 등을 동일한 형식의 운공형으로 치목하여 내부의 통일된 장식성을 추구하는 것 등은 익공 건물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구조 및 장식 수법이다.

특히 익공 살미가 뽀족한 새부리 모습의 일반적인 형태가 아니라 연봉 및 연화 초각의

다포계 촛가지로 짧게 치목된 것은 익공이 주심포나 다포가 점차 간략화되어가는 양식적 변천 과정에서 발생되었음을 보이는 실증적 근거가 아닌가 한다.

이처럼 통도사 천왕문의 포작 및 세부 치목과 결구에는 출목익공의 전형적인 구조 특성과 함께 양식적 변천 과정의 일면이 잘 표현되어 있어 우리나라 포작의 시대별 특성과 계통화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본다. 예술적 가치 역시 충분하다고 평가된다.

※ 대상 문화재의 핵심 보존가치

- 우리나라 사찰 천왕문 건립 기록으로는 가장 빠른 기록과 뚜렷한 중건 및 중수 기록
- 천왕문의 기능적 요구를 충실하게 반영하여 결구 및 치목된 가구 및 구조.
- 조선시대 사찰 천왕문의 전형적 형식을 모두 갖춘 대표적 사례
- 출목 익공의 전형적인 형식과 우리나라 포작 양식적 변천 과정의 실증적인 사료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23.06.30.	대상문화재	양산 통도사 천왕문	
조사자	성 명	○○○	전공 분야	전통건축
	소 속	○○○○○○연구소	직위(직책)	소장
주요 지정 사항 검토	문화재 종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문화재 명칭	양산 통도사 천왕문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세부내용 별첨 참조		
	연혁·유래 및 특징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천왕문 1동, 86.17㎡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천왕문은 많은 관람객이 반드시 통과하는 산문으로 근래 들어 건물의 침하에 따른 축부의 보수공사가 시행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장혀, 연목 등 지붕가구의 부재들 또한 변형 및 파손이 확인됨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추후 부재 교체 등이 필요함		
종합의견	세부내용 별첨 참조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3 년 10 월 7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1)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영축산(靈鷲山, 1,082m)의 정상에서 남쪽으로 급하게 뺏어내린 능선이 주변 계곡을 흐르는 물줄기를 만나 낮은 봉우리를 만들고, 앞쪽 계류 사이의 동서로 긴 대지가 형성된 곳을 사역으로 삼았다. 처음에는 서쪽 끝의 금강계단과 대웅전 영역에서 가람이 시작되었다가 시대 변화와 함께 전면 하천과 평행하게 동쪽으로 사역이 확대되었다.

즉 북측 산자락과 남측 계류 사이라는 전형적인 배산임수의 지형을 선택하였고 사찰로의 진입은 양산천이 합류되는, 현재의 무풍교에서 시작하여 계류를 따라 1.2km가량 서쪽으로 들어서서 진입과정(공간)을 길게 설정하였다.

창건 당시와 다르게, 현재의 통도사 배치는 일주문-천왕문-불이문-대웅전으로 이어지는 강력한 동서 진입축에 따라 남북으로 영역이 분리되고 또한 이 축선에 직교하여 별도의 구성축을 갖는 3개의 영역으로 구분된다. 즉 대웅전과 금강계단을 중심으로 상로전 영역, 관음전과 용화전, 그리고 대광명전으로 구성되는 중로전 영역, 영산전, 극락전, 약사전, 만세루 등이 4동중정형을 구성하는 하로전 영역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때 영역 구분의 경계 및 결절점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천왕문과 불이문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통도사 경내에는 본 가람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불사리를 안치한 금강계단과 사리전(舍利殿)인 대웅전을 비롯하여 수많은 동산, 부동산의 문화유산을 간직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 불·법·승 삼보사찰의 중심사찰로 2018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2) 연혁·유래 및 특징

대한불교 조계종 제15교구 본산인 양산 통도사는 당나라에서 율법을 구한 자장율사(慈藏律師)가 신라 선덕여왕 15년(646)에 처음 창건하였다고 한다. 자장은 계율(戒律)을 구하기 위해 당나라로 들어가 문수보살로부터 오계(五戒)를 전수받고 부처님의 가사와 진신사리를 얻어 귀국하였고 바로 황룡사 9층목탑을 세우기 시작하였으며, 또한 부처님이 계신 영축산과 비슷한 양산의 영축산 산록에 통도사를 건립한 후, 부처님 가사와 사리 등을 모셨다.

9세기 후반에는 통도사 계단에서 구족계를 주었다는 기록이 있으며, 통일신라 말에서 고려 초 사이에 영산전 앞에 있는 3층석탑이 건립되었다. 11세기 후반에는 사찰의 영역을 표시하였던 '통도사국장생석표(通度寺國長生石標)'를 고쳐 세웠으며, 1328년에는 지공(指空) 스님이 금강계단을 참배하였다.

한편 「통도사사적비(1967)」에 따르면 천왕문은 고려 충숙왕때인 1337년에 처음 창건되었고 불이문 6칸은 충렬왕 31년인 1305년에 창건되었으며, 일주문은 「불종찰략사」에 불이문과 동시에 건립한 것이라 하였다.

통도사의 많은 전각들은 고려후기에 대부분 창건되는데, 이는 현재의 가람배치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임란 전인 1583년 당시 주지 스님이 통도사의 전각들을 기록한 「통도사제성전(通度寺諸聖)」에 따르면, 지전(持殿)이 내·외로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통도사는 본래 2개의 영역으로 구분되고 그 기준은 불이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임란 이후 중창공사를 통해 3개의 영역으로 분리되고 각각 노전을 따로 두어 상·중·하지전이라고 하였다.

임진왜란으로 통도사의 수많은 전각들은 소실되었고 현재의 건물들은 모두 임진왜란 이후에 다시 중창한 건물이다. 천왕문은 앞의 「통도사제성전(通度寺諸聖)」에 불이문, 조계문과 함께 나란히 기재되어, 고려후기에 창건되어 왜란 전까지 존속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임란 후, 사명대사의 중창공사 지시를 통해 금강계단을 비롯한 여러 전각들이 복구되었다. 1601년 불탄 대웅전을 비롯하여 불이문과 천왕문을 중수하였고 1603년 금강계단을 중수하였으며, 1614년 부처님 진신사리가 왜구에게 약탈당한 후 다시 통도사로 돌아왔다.

한편 1713년(숙종 39) 자연화재로 영산전, 극락전, 천왕문 등 하로전 일곽이 모두 소실(燒失)되었다. 이듬해인 1714년 영산전과 천왕문을 새로 짓고 다음 해 단청을 실시하였으며, 1718년에는 사천왕상을 다시 조성하였다. 1770년에는 일주문을 중건하였고 1800년에는 천왕문의 사천왕상에 색을 다시 입혔으며, 1999년 현대에 들어 천왕문을 보수했다.

천왕문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겹처마 맞배집으로, 기둥 위의 가구는 일출목 익공 위에 대들보를 올리고 그 1/3지점에 뜯장혀로 보강된 판형 동자주를 세웠으며, 동자주 사이에 다시 종보를 올렸다. 종보 중앙에는 판형 동자주와 동일한 구성의 판형 대공을 세우고 종도리를 설치하였다.

공포는 일출목을 갖는 3익공으로, 초익공과 이익공은 각각 연화와 연봉을 새겨 장식하였고 삼익공은 삼분두형식으로 가공하였으며, 외목도리를 받는 운공은 끝단을 둥글게 말아 올렸다. 일반적으로 3익공의 경우 2출목을 구성하는 것이 보통인데, 여기서는 일출목으로 처리하였으며 대신 출목 첨차를 초익공이 아닌 이익공에 설치하여 간략하게 구성하였다. 이러한 출목기법은 1725년(영조 1) 중창한 통도사 관음전에서 살펴볼 수 있어, 동일 기법의 익공 구성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건물은 통과용 문(門)의 기능에 충실한 평면구성과 거대한 사천왕상을 봉안하기 위한 건축형식을 갖추었다. 측면에 대한 정면의 평면비는 1.9 : 1의 세장한 장방형 구성이고 평면에 대한 건물 높이의 비율은 1.0 이상이며, 특히 정칸의 칸살을 좌우 협칸 보다 3치(寸)가량 작게 설정하여 임란 이후 건립된 고흥 능가사 천왕문, 김천 직지사 천왕문 등과 유사한 주칸 구성을 보인다.

천왕문의 전체 가구(架構)는 5량가 구성으로 정면 3칸은 14-13.7-14尺, 측면 2칸은 10.7-10.7尺으로 주칸을 설정하였다. 기둥 높이는 12척, 공포대 높이는 3.4척이며, 그에 따른 처마내밀기는 7.9척을 확보하였다. 장연 물매는 5치(寸)이고 단연 물매는 8.6치(寸) 정도인데, 이는 일반적인 맞배지붕보다 장·단연의 꺾임이 크다고 할 수 있다.

3)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통도사 천왕문은 1716년에 작성된 「영산전천왕문양중창검단확기문(靈山殿天王門兩重創兼丹腹記文)」에 따라 현재의 건물은 1713년 화재 후 1714년 새롭게 중창되어 건물의 조성시기가 명확하며, 산문이라는 격식을 갖추었다.

현재의 건물은 조선후기 일반적인 출목 익공식 맞배집 건물이며, 특징적인 것은 3익공 형식이지만 2익공에 첨차를 구성한 1출목 익공이라는 점이 독특하다. 이러한 익공 형식은 통도사의 관음전에서도 확인되어 18세기 통도사 장인 기문의 기법으로 추정된다.

건물은 장·단연의 5량가 형식으로 각 주칸 사이에는 단순한 판형의 화반을 설치하였고 대들보와 종보 또한 자연목을 그대로 이용하였으며, 대공 및 동자주 또한 판재의 좌우 마구리를 둥글게 가공하거나 사절한 정도이다. 전체적인 가구의 짜임, 세부적인 부재 가공, 공포 형식 등 18세기 일반적인 건축형식으로 판단된다.

다만, 일제강점기 촬영된 유리건판 등에서 확인되는 천왕문 외벽에 장엄되었던 벽화, 즉 팔부신중으로 추정되는 회화가 사라지는 등 보수과정에서 본래의 원형을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 즉 경내의 극락보전 등 건물의 외벽에 장엄된 벽화에서 볼 수 있듯이 천왕문 외벽에 장엄되었던 벽화가 사라짐으로써 사천왕과 팔부신중의 상징적인 의미와 벽화의 예술적 가치를 잃어버린 것으로 판단된다.

<종합의견>

천왕문은 일주문, 불이문과 함께 통도사 산문의 하나로서 중심 사역의 진입축 및 구성축을 담당하는 주요 전각이며, 특히 하로전 영역의 통과문이자 경계를 한정 짓는 결절점 역할을 담당한다. 정면 3칸, 측면 2칸의 맞배집 건물로 중앙 정칸은 통로이고 좌우 협칸에는 1718년(숙종 44)에 제작된 사천왕상을 봉안하고 있다.

천왕문은 「통도사사적비(1967)」에 따라 고려 충숙왕때인 1337년에 처음 창건되었고, 1716년에 작성된 「영산전천왕문양중창검단확기문(靈山殿天王門兩重創兼丹腹記文)」의 기록을 통해, 1714년 새롭게 중창되었으며, 이후 여러 차례의 보수공사를 통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건축양식은 중창 때인 18세기 초의 간단한 출목익공 양식이고 전체 가구의

짜임 또한 간략한 5량가 형식이며, 부재의 가공, 공포의 구성 등 조선후기 일반적인 익공 양식으로 판단된다. 다만 출목 3익공의 짜임이 보다 간략화되어, 익공 양식의 다양한 사례중 하나로 평가할 수 있다.

통도사 천왕문은 18세기 초에 새롭게 중창됨으로써 조선후기 일반적인 전각들과의 차별화되는 특징을 찾기 어렵고, 오히려 일제강점기 사진 속에서 확인되는 건물의 벽화가 건물의 기능과 어우러져 예술적 가치가 컸던 것으로 보이나, 현재 원형을 상실하여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특별한 가치를 부여하기 어렵다.

※ 대상 문화재의 핵심 보존가치

통도사 천왕문은 1714년 중건된 건물로 통도사의 진입에 따른 구성축을 형성하여 경내를 남북으로 분리하는 배치상의 주요한 결절점이자 중요한 통과용 산문이다. 내부에 사천왕상을 봉안하고 있는 맞배집의 간단한 익공집으로, 단순하지만 18세기 초 출목익공의 한 사례를 보여준다.

한편 현재 일주문 정면에 걸려있는 ‘영취산통도사(靈鷲山通度寺)’라는 현판은 본래 천왕문 정면 어칸 상부에 있었던 것이므로 원래의 위치로 옮겨 천왕문의 격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또한 일주문도 본래 걸려있었던 통도사의 사격을 표명하였던, 현재 불이문에 걸려있는 ‘원종제일대가람(源宗第一大伽藍)’ 현판을 옮겨 제자리를 찾을 필요가 있다.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23. 6. 30.	대상문화재	양산 통도사 천왕문	
조사자	성 명	○○○	전공 분야	전통건축
	소 속	○○○○○○대학	직위(직책)	전업강사
주요 지정 사항 검토	문화재 종류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문화재 명칭	양산 통도사 천왕문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세부내용 별첨 참조		
	연혁·유래 및 특징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세부내용 별첨 참조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3년 9월 27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 문화재명 : 양산 통도사 천왕문(梁山 通度寺 天王門)
- 신청종별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 지정별 : 양산 통도사 천왕문(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250호, 1985. 11. 14.)
- 소재지 : 경상남도 양산시 통도사로 108(하북면, 통도사)
- 구조 및 형식 : 정면 3칸, 측면 2칸, 5량가, 일출목 삼익공, 맞배지붕, 겹처마
- 재 료 : 목조, 한식기와
- 시 대 : 조선시대 1714년 중건

1.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1.1. 입지현황

양산 통도사(通度寺)는 신라 선덕여왕 15년(646)에 자장율사(慈裝律師)에 의하여 양산 영축산 아래에서 창건된 사찰이다. 개산조(開山祖) 자장율사(慈裝律師)에 의하여 석가모니의 진신사리(眞身舍利)가 봉안됨으로써 명실공히 나라의 대찰(國之大刹)이요 부처의 종가(佛之宗家)로서 삼보사찰 가운데 불보사찰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통도사(通度寺)가 있는 양산은 양산시내, 물금읍, 동면, 상북면, 원동면, 하북면, 부산광역시 북구의 구포동, 강서구 대저동·강동동을 포함하는 지역이다. 조선시대의 읍치는 양산시내 북부동 일대에 있었다. 조선시대 고지도인 지승, 광여도, 해동지도, 1872년 지방도에 나타나는 양산군의 진산(鎭山)은 읍치 동북쪽에 위치한 성황산(城隍山)이다. 읍성은 북부리산성(사적)이라고 하는데 돌로 쌓은 성이다. 읍치 좌측에 보이는 송담서원(松潭書院)은 숙종 22년(1696)에 세워져, 숙종 43년(1717)에 사액을 받은 서원으로 찰방 백수희를 배향하였다가, 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에 따라 헐렸다. 송담서원의 아래에 보이는 황산역은 영남대로의 요로에 위치한 황산도의 찰방역으로서 16개 역을 관할하였다. 읍치 북쪽에 위치한 통도사(通度寺)는 언양과 경계를 하고 있는 양산시의 북쪽 영축산 아래에 위치해 있다.

통도사(通度寺)는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통도사로 108(지산리)에 있으며, 찾아가는 길은 경부고속도로 통도사IC로 들어와 우회전하여 통도사입구 삼거리에서 통도사길을 따라 하북면소재지를 통과하여 850m정도 올라오면 통도사매표소가 나온다. 여기에서 다시 숲길을 따라 무풍교, 청류교를 1.3km정도 올라오면 ‘영축산문(靈鷲山門)’이라고 쓰여진 산문이 나온다. 여기에서부터 통도사 일주문까지 1km정도 되는데 좌우에 수백 년 된 소나무군락이 형성되어 있어 무풍한솔길이라 명명되어 있다. 차량은 산문에서 좌측으로 난 도로를 따라 주차장으로 들어 올 수 있다.

통도사(通度寺)는 영축산 아래에 계곡을 끼고 동서측으로 배치되어 있는데 해발 1,050m의 영축산(靈鷲山) 상봉(上峰)에서부터 흘러내린 작은 봉우리들은 남쪽으로 이어 내려오다가 불사리를 봉안한 금강계단(金剛戒壇)에 이르러 절묘하게 멈추고 있다. 전각

들은 해발 155m내외의 영축산과 천성산에서 발원한 양산천을 경계로 동서로 길게 자리 잡고 있다.

통도사(通度寺)가 위치해 있는 양산시는 지리적으로 신라고도인 경주와 가야 고도인 김해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경주와 김해지역간의 교통 요충지로 양산시의 중심으로 흐르는 양산천은 영축산과 천성산으로 발원된 물줄기가 북쪽에서 흘러 내려 남쪽 끝인 물금에서 다시 낙동강과 합류한다. 이러한 지리적 영향으로 인해 양산지역의 불교유적은 대부분 영축산과 천성산 줄기에 형성되어 있다. 통도사(通度寺) 역시 같은 이유로 영축산에 자리 잡게 되었다.

1.2. 역사문화환경

통도사(通度寺)가 자리 잡고 있는 영축산(靈鷲山)은 양산지역의 등줄산맥으로서 험준한 산정으로 이뤄져 있으며, 예로부터 밀양지방과 경계를 이루는 자연적 장애물이기도 하다. 이 영축산은 한반도의 등줄기 태백산맥이 남쪽으로 뻗어 내리다가 경남과 경북의 경계에서 다시 한 번 힘차게 솟아오른 이른바 ‘영남알프스’의 준봉 중의 하나이다. 이 산의 북북동쪽으로 신불산(1,208m), 남남서쪽으로는 시살등(980m)에 이르는 영축산맥의 주봉이다. 동쪽사면이 깎아지른 듯 급경사이고 서쪽사면은 상대적으로 완만한 경동지형을 이루는 영축산은 산정이 화강암으로 된 예리한 톱니바퀴형으로 되어 있으며, 따라서 멀리서 보면 하나의 성채 같다. 통도사(通度寺)가 자리 잡고 있는 곳의 풍수적 특징을 살펴보면, 산세는 금강계단을 중심으로 그 서북쪽과 멀리 남쪽을 병풍처럼 에워싸고 있으며 남쪽과 서쪽에서 흘러드는 물줄기가 절 앞에서 합수(合水)되는 수구(水口)에 선자바위가 서 있고 다시 산문입구에 여의주봉이 있어 봉전(峰前)에 두 계곡물이 합한 용담(龍潭)이 있으므로 그 형국은 비룡으로 그 기운이 강한 곳이다.

그리고 영축산(靈鷲山)은 양산시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삼남면 사이에 위치한 산이다. 영축산은 원래 취서산(鷲棲山)이라고 불렸다. 취서산은 산정상의 바위가 마치 독수리의 부리처럼 생겨 유래한 지명이다.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 언양편에는 “취서산은 현 남쪽에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언양편에는 “취서산(鷲棲山)은 현의 남쪽으로 12리에 있으며, 대석산(大石山)이라고도 한다.”라고 기록한 것을 보면 유래가 오랜 지명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대동지지(大東地志)》의 산수편에 “취서산은 북쪽으로 40리에 언양을 경계로 하며 통도사에는 석가모니 진신사리 및 가사를 소장하고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양산군읍지(梁山郡邑誌)》에는 “취서산(鷲棲山) 한줄기가 옆으로 뻗은 곳에 통도사(通度寺)가 있고 그 큰 줄기가 뻗어내려 평지에 와서 협곡을 이루었으며, 이를 지나 순지(蓴地)가 되었다가 다시 솟구쳐 일어나 원적(圓寂)이 되었으니, 원적은 동으로 기장과 울산을 끼고 서로 본 군의 중간이 되며 남쪽으로 뻗어내려 금정산(金井山)이 되었으니 실상인즉 동래와

부산의 진산이다”라 기록되어 있다. 여기에서 취서산은 영축산, 영취산, 축서산 등으로 부르는데 최근에 영축산으로 통일하였다.

통도사(通度寺)가 자리잡고 있는 지산리(芝山里)는 영축산(靈鷲山)이 남으로 뻗어 내린 여러 능선 중 산밖 등(큰 산 바깥의 등) 능선에 위치한다. 또한 지산리는 지산(芝山)-평산(平山)-서리(西里) 삼각형으로 자연마을이 자리잡고 있는데, 통도사(通度寺)창건 이래 사하촌이 있는 마을이며 그 중심에 평산마을이 있다. 사하촌은 원래 대처승의 가족들이 모여 살던 곳이었으나, 1981년 정우태응화상(定宇泰應和尚)이 신도들과 함께 집과 주변의 논밭을 매입하여 현재의 관음암(觀音庵)으로 조성 하였다고 전한다. 한편, 통도사(通度寺)는 서북쪽과 남쪽이 영축산(靈鷲山)으로 둘러쳤고 동쪽은 비교적 낮은 산으로 열려 있는 편이다. 그러므로 산내 암자의 분포 역시 서북쪽과 북쪽 및 남쪽에 치우쳐 위치한다. 가장 높이 위치한 백운암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암자들은 통도사 기점으로 2km내외에 위치한다. 통도사를 중심으로 서쪽과 북쪽에 안양암, 반야암, 비로암, 백운암, 서축암, 자장암, 굽수암, 극락암이 있고, 남쪽에는 취운암, 보타암, 수도암, 사명암, 서운암, 옥련암, 백련암, 옥련암 등이 있다. 그리고 통도사산문에서 북쪽으로 관음암, 보문암, 무량암, 축서암 등이 있다.

그리고 양산시에서는 통도사(通度寺) 주변의 명소에 대하여 8경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제1경은 무풍한송길로 통도사 입구 산문에서 일주문까지 약 1km구간으로 수백년된 소나무군락이 길 좌우로 형성되어 있다. 통도사(通度寺)의 제 1경으로 통도사 가는 옛길 복원 차원에서 양산시에서는 8억9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통도사 산문에서 일주문까지 길이 1km, 폭 5m의 무풍한송 길에 기존 아스콘 포장을 걷어내고 자연친화적인 마사토와 자연 석재를 이용해 재정비했다. 제2경은 안양동대로 안양암 입구에 쌓아놓은 석축이다. 제3경은 비로폭포로 비로암입구의 비로폭포 소리로 유명하다. 제4경은 극락영지로 극락암 입구 연못에 비친 영축산의 그림자, 제5경은 자장동천으로 자장암 아래로 흐르는 반석계곡, 제6경은 백운암의 큰북소리, 제7경은 영축산 너머에 있는 단조산성에서 보는 저녁노을. 제8경은 취운암에서 들리는 저녁종소리 등으로 명명되어 있다.

양산 통도사 주변 문화재로는 원동면에 위치한 신흥사 대광전, 원동에서 5km 지점. 영포리 신흥사 등이 있으며, 사적 신기동 고분군, 북정동 고분군(양산 북정동), 북부동 산성, 신기리 산성, 법기리 도요지 등이 있고, 도지정문화재 양산향교, 천성산 내원사 등이 양산 통도사 인근 거리에 있다. 또한, 통도사는 국보로 지정된 조선중기의 대표적 건축인 대웅전과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담고 있는 금강계단을 비롯하여 탑·석등 등 약 267건의 문화유산들이 산재하고 있는 곳으로 65동의 건물과 17개의 암자를 가지고 있어 해인사·송광사와 함께 대한민국 3보 사찰의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양산 통도사는 2018년도에 경상남도 기념물로 지정되었으며, 2018년,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이라는 명칭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양산 통도사 내에는

국보 1건, 보물 19건이 있으며, 유형문화재 58건 및 시도기념물 1건, 문화재자료 22건으로 양산 통도사 천왕문은 경상남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2. 연혁 및 특징

2.1. 연혁 및 유래

통도사는 경상남도 양산시에 소재하고 있다. 대한불교 조계종 15교구의 본산이며 영축총림(靈鷲叢林)으로 불린다. 통도사는 신라의 국통(國統)이었던 자장율사(慈藏律師)에 의해 646년(통일신라 선덕여왕 15)에 창건되었다고 전하는데, 통도사가 불보사찰로 알려지게 된 이유로는 자장이 석가의 진신사리를 금강계단에 봉안한 것과 관련이 있다. 1305년(고려 충렬왕 31)에 일주문과 불이문을 창건하고, 1328년경 지공이 통도사를 방문한 이후에는 1337년(고려 충숙왕 6) 천왕문이 창건되고, 뒤이어 감로당, 원통전 등의 승방들이 건립되었다. 극락암과 비로암, 서운암이 1344년(고려 충목왕 원년)부터 1346년(고려 충목왕 2)까지 차례로 통도사 인근 산록에 건립되었다. 1368년(고려 공민왕 17)에는 화엄전이 건립되고, 1369년(고려 공민왕 18)에는 극락보전, 약사전, 명부전 등이 건립되었다. 1372년(고려 공민왕 21)에는 수도암이, 1374년(고려 공민왕 23)에는 백련암과 옥련암이 차례로 창건되었다.

임진왜란 전까지 통도사의 건축 관련 기록은 거의 없다. 임진왜란 이후 1641년에 대웅전 공사를 시작하여 1645년(인조 23)에 상량하였다. 당시 중건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1645년(인조 23) '順治 三年'명 철기와가 현재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대웅전에 이어 황화각이 중건되고, 1677년(숙종 3)에는 응진전이 상로전에 창건되고, 17세기 말에는 범종루가 창건되었다. 1713년(숙종 39)에는 영산전과 천왕문이 화재로 소실되어 이듬해 영산전과 천왕문을 중건하였다. 그리고 세존비각과 가람각과 관음전, 해장보각이 새로 창건되었다. 1725년(영조 1) 화재가 발생하여 대광명전이 소실되어 1758년(영조 34) 9월에 중건하고, 1759년(영조 35)에 단청과 후불탱화까지 마무리하였다. 19세기 초부터는 취운암, 백운암, 옥련암 등 산내 암자들이 중수, 19세기 말에는 사내의 감로당, 원통당 등 요사의 중수 및 명부전, 해장보각을 중수했다. 1911년은 비교적 대규모의 중수가 있었는데, 계단 주변에 석책(石柵)을 추가로 둘렀다. 1967년에 건립된 「영취산통도사사적비(靈鷲山通度寺事蹟碑)」에는 통도사의 전각과 주변 암자의 연혁이 기록되어 있다. 이외에 통도사의 역사를 기록한 사적비(事蹟碑)가 현재 통도사 입구의 부도원(浮屠園)에 있다.

양산 통도사 천왕문과 관련된 기록으로는 불종찰약사(佛宗刹略史)》 사리탑급대법당초창중수래역(舍利塔及大法堂初創重修來歷)조에 의하면 임진왜란 이후 금강계단 수리와 그밖에 전각이 창건되었거나 중수된 내용이 1601년 봄에 송운 유정이 특별한 명으로 천왕문, 불이문, 일주문 등 삼문을 건립과 동시에 대웅전을 중수했다는 기록이 남아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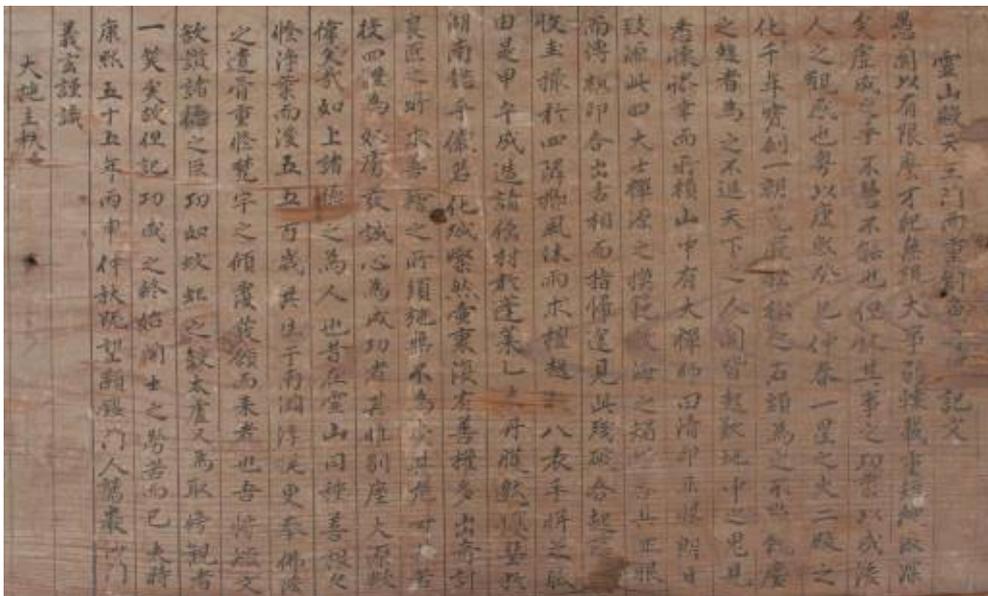
다.(宣祖三十四年辛丑春松雲惟政特以威武命峯衍戮力經營三門佛二天王一柱三門及大雄殿重修也)

통도사정보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영조 42년(1716)에 작성된 “영산전천왕문양중창겸단확기문(靈山殿天王門兩重創兼丹牖記文)” 이 기문에 따르면, “강희 계사년 즉 숙종 39년(1713)에 영산전(靈山殿)과 천왕문(天王門)이 불이나 전부 소실되었다가 숙종 40년(1714)에 영산전(靈山殿)과 천왕문(天王門)이 함께 중건되었다”는 내용으로 영산전과 천왕문을 중창하고 겸하여 단청을 한 기문이다.

이 같은 기문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유물로는 영산전(靈山殿)과 천왕문(天王門)의 명문 기와가 있는데, 천왕문(天王門)의 명문 기와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康熙五十三年 甲午四月日 天王門蓋 片手金德端 允金 一崑 大功德朗聰 都監大岩 供養主石賢

강희53년 갑오 4월경 천왕문 기와의 편수는 김덕단, 윤금, 일은, 대공덕은 랑충, 도감은 대암, 공양주는 석현이다.



[그림.1] 영산전천왕문양중창겸단확기문 출처: 통도사정보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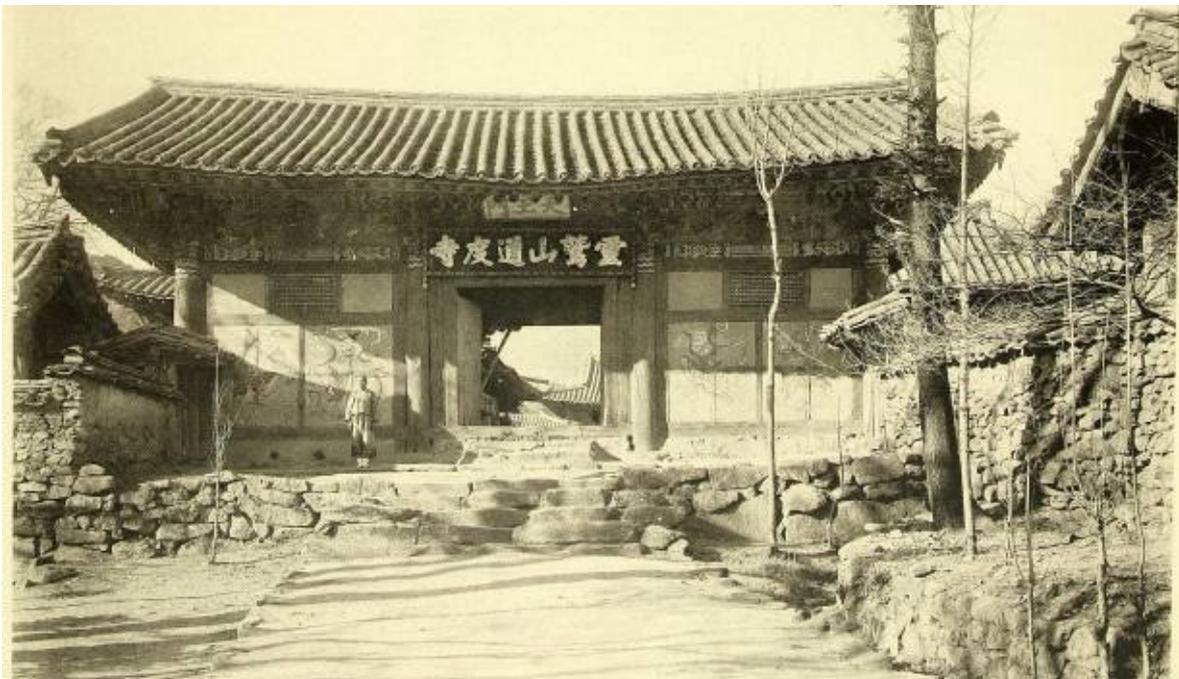


[그림.2] 통도사 천왕문 산자이상보수 현황(두산백과, 1896년 보수 후 추정)

현재 통도사 천왕문의 모습은 1986년 보수 당시 모습이며, 천왕문의 주요 연혁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1] 양산 통도사 천왕문 주요 연혁

시기		내용		비고
신라시대	646년	선덕여왕 15	자장율사(慈藏律師)가 창건 금강계단, 대웅전, 구룡지, 자장암	출처 영산전 정밀실측 조사보고서
고려시대	1337년	충숙왕 6	천왕문 창건	
조선시대	1601년	선조 34	천왕문, 일주문, 불이문 건립(임란 피해 후)	
	1713년	숙종 39	화재로 영산전, 천왕문 소실	
	1714년	숙종 40	천왕문 중건, 취서암 창건, 영산전 중건	
일제강점기	1930년		전향각 중건, 불이문 확인, 천왕문 확인	
현대	1985년		천왕문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지정	
	1986년		천왕문 보수	



[그림.3] 양산 통도사 천왕문(조선고적도보)



[그림.4] 양산 통도사 천왕문 정면(1985년 지정조사)



[그림.5] 양산 통도사 천왕문 좌측면(1985년 지정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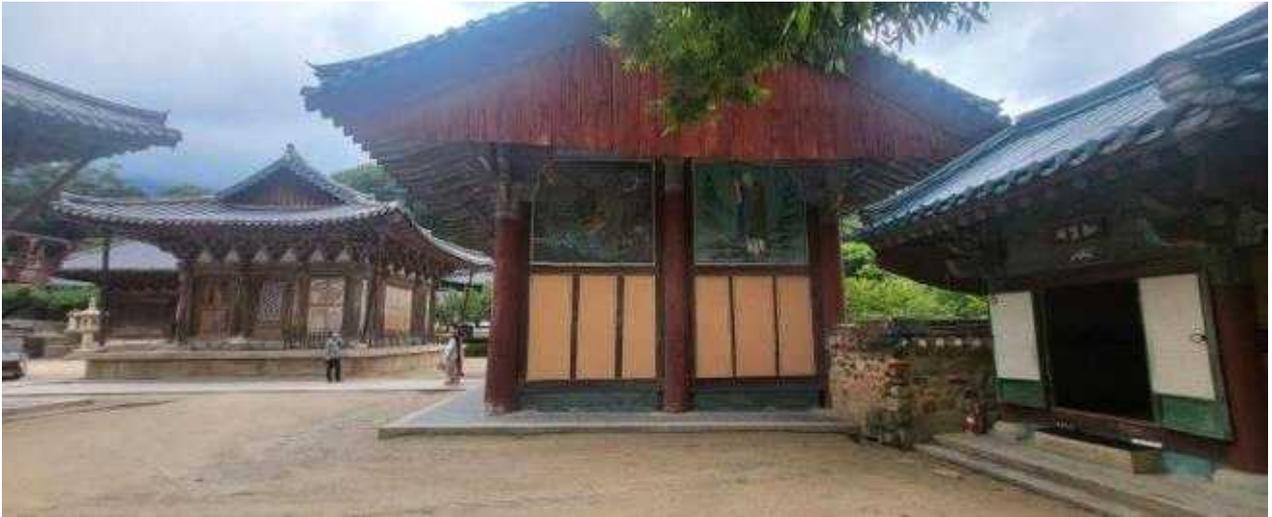
[그림.6] 양산 통도사 천왕문 우측면(1985년 지정조사)



[그림.7] 양산 통도사 천왕문 정면(2023. 6. 30)



[그림.8] 양산 통도사 천왕문 배면(2023. 6. 30)



[그림.9] 양산 통도사 천왕문 좌측면(2023. 6.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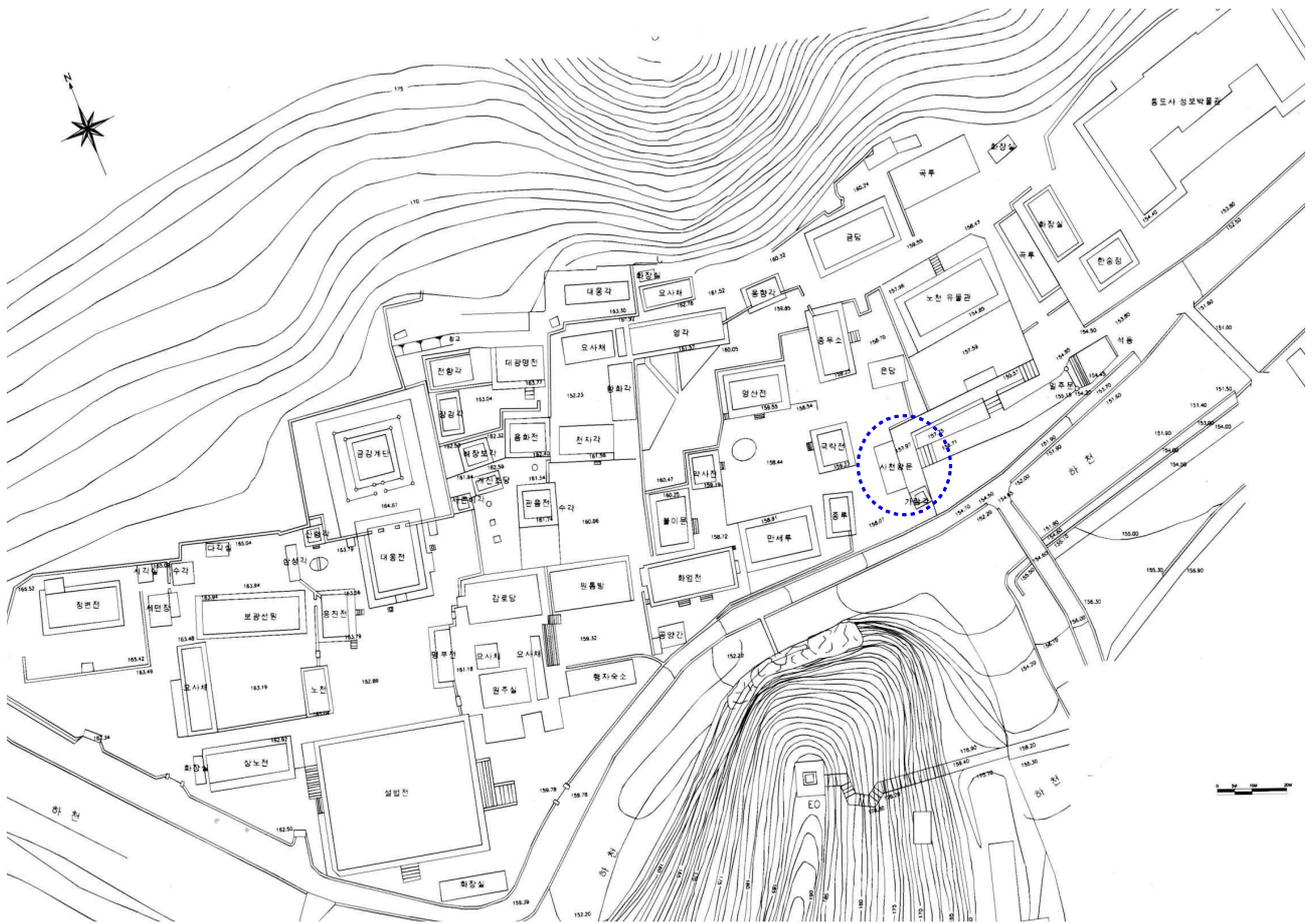
2.2. 배치

통도사의 전체적 가람 배치는 남쪽에 계류를 두고 북쪽에 가람을 배치한 형식이다. 통도사는 비교적 평지에 입지하고 있다. 계류를 좌측에 두고 동에서 서로 진입하기 때문에 전각들도 계류를 따라 길게 배치되었다. 지형적으로 풍수지리설에 의한 배산임수 지형에 입지한 통도사는 사역의 높은 곳에 중심전각을 두는 배치이다. 이와 같은 통도사의 배치는 자연 지세에 순응하면서 가람을 배치하는 전통적 건축관에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일주문·천왕문·불이문을 거쳐 대웅전에 이르는 동서축이 주축(主軸)이 되고, 이 주축상에 직교하며 각기 독립된 3개의 부축이 형성된 독특한 배치체계를 보인다. 이는 주축을 중심으로 대칭성을 보이는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난 비교적 자유로운 가람배치 형식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배치는 통도사가 창건된 후 1,300여 년을 지내오면서 형성된 것으로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중창과정에서 기존의 가람배치를 존중하면서 당시의 사정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통도사의 가람배치의 큰 특징은 동서 주축에 직접 대응하는 부축의 관점에서 크게 세 영역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구분하고 있다. 즉, 상로전·중로전·하로전으로 대표되는 ‘삼로전제(三廬殿制)’가 바로 그것이다. 일주문에서 대웅전에 이르는 주축 위에 대웅전과 금강계단을 잇는 부축, 대광명전과 관음전을 잇는 부축, 영산전 만세루로 이어지는 부축 구조로 분석된다. 가장 안쪽에 금강계단과 대웅전이 있는 영역은 상로전이라 하며, 중간의 대광명전과 용화전, 관음전이 있는 영역은 중로전, 그리고 영산전과 극락전, 약사전이 있는 영역은 하로전이라 한다. 부축에 의해 나누어지는 외부공간은 일주문이 있는 하로전에서 대웅전과 금강계단이 있는 상로전까지 마당을 중심으로 한 몇 개의 단을 형성하면서 점진적 위계(位階)가 설정되어 있다.

통도사(通度寺)의 배치 특징은 동쪽에서 진입하는 형식으로 큰 사찰답게 전각이 많다. 전체적으로 통도사의 주요 전각은 남향을 했으면서도 지형 때문인 듯 가람배치가 동서로 길게 이루어져 있다. 이와 같은 배치형태는 신라시대인 선덕여왕 15년(646)에 창건된 이래 금강계단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소실과 중창불사가 행해져 왔으며, 창건 당시의 모습과는 많은 차이가 있을 것이라 추정된다. 창건당시보다 지금의 사세(寺勢)는 전각의 중창기록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고려말, 조선중기 이후, 최근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자장율사가 통도사(通度寺)를 창건한 이래 계율종으로 시작하여 여러 종파를 거쳐 현재의 조계종 8대 총림 중의 하나로 연결되는 고리에는 그 당시 전통법식에 따라 전각이 중창 불사되고 종파의 교리에 따라 전각이 배치되어 창건 당시의 통도사 모습에서 많이 벗어나게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창건당시에는 금강계단을 중심으로 계곡을 따라 동서축으로 전각이 배치되었다면, 후대로 오면서 통도사(通度寺)는 범종파적 성향을 띄게 되는데, 이러한 성향이 상노전(上爐殿), 중노전(中爐殿), 하노전(下爐殿) 등으로 영역이 세분화되는 특징을 낳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즉, 종파적 신앙의 대상을 어느 불전에 봉안하는가에 있었으며, 석가모니불을 봉안하는 대웅전(大雄殿)과 금강계단(金剛戒壇)을 중심으로 한 상로전(上爐殿)과 비로자나불을 봉안하는 대광명전(大光明殿)을 중심으로 한 중로전(中爐殿), 그리고 영산전(靈山殿)을 중심으로 한 하로전(下爐殿)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와 같이 노전이 3개라는 것은 통도사가 3개의 가람이 합해진 복합사찰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흥윤식은 상노전(上爐殿), 중노전(中爐殿), 하노전(下爐殿)의 삼노전(三爐殿) 영역 이외에 상노전 위의 보광전 구역을 별개의 영역으로 설정하여 4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즉, 삼노전(三爐殿)은 각기 다른 신앙영역을 형성하고 있으며, 보광전 영역은 수행도장인 선원(禪院)구역으로서 그 기능에 따라 구분하였다. 그 기능을 살펴보면, 노전 지역은 각종 불교신앙의례를 행하는 곳이므로 ‘하화중생(下化衆生)’의 기능을 다하는 곳이라 할 수 있으며, 보광전 영역은 선원(禪院)으로서의 수행도장이므로 이는 ‘상구보리(上求菩提)’의 기능을 다하는 곳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구보리·하화중생의 두 기능은 대승불교의 보살도정신(菩薩道精神)을 표방하고 있어 통도사 가람의 기본구조는 대승불교의 정신을 잘 실천하도록 전각이 배치된 것으로 4개의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실제적으로 보광전 구역은 승려들의 수행공간으로 삼노전(三爐殿)과 성격이 다르므로 3개의 영역으로 구분되든 아니면 4개의 영역으로 구분되든 그 성격은 변함이 없다.



[그림.10] 양산 통도사 배치도 출처: 양산 통도사 영산전 정밀실측조사보고서

2.3. 건축적 특징

통도사 천왕문은 하로전(下爐殿) 영역의 경계에 위치하여 일주문·천왕문·불이문을 거쳐 대웅전에 이르는 동서축의 주축(主軸)에 해당된다. 정면 3칸 가운데 중앙 정칸은 통로로 사용하고 좌우 퇴칸에는 각각 2구씩 사천왕상이 안치되어 있다. 천왕문은 1337년 (충숙왕 6) 취암대사(翠岩大師)에 의해 초창된 이후 소실되고 중건, 중수 등의 여러 차례의 수리를 거친 후 19세기 이후의 건축 양식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 건물은 1985년 11월 14일에 경상남도유형문화재 지정 후 1986년 수리된 건물이다.

정면 3칸, 측면 2칸의 평면에 익공계의 맞배지붕 건물로 석축 기단 위에 동향하여 있다. 석축은 이고석 크기의 화강석을 바른층쌓기하고 갑석을 장대석으로 구성하였다. 기단과 석축 사이에 단을 조성하고 바닥면은 박석깔기로 마감되어 있다. 기단은 화강석을 거칠게 다듬은 장대석을 외벌대로 구성하였다. 배면 기단 모서리는 귀틀석이 사용되었으며, 기단바닥은 연화문 방전으로 마감하였다. 중앙 정칸 내부 통로 바닥은 강회다짐으로 마감하였다.



[그림.11] 양산 통도사 천왕문 정면 현황



[그림.12] 양산 통도사 천왕문 석축 및 진입계단 현황



[그림.13] 양산 통도사 천왕문 석축 상부바닥 현황



[그림.14] 양산 통도사 천왕문 좌측면 및 배면 기단 현황

중앙 정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하인방 전면에는 3단으로 된 화강석 장대석 계단이 있으며, 계단 측면으로 소맷돌로 구성되어있다. 배면은 화강석 장대석 2단으로 계단이 월방 외부에 구성되어있다. “조선고적도보” 사진자료를 보면 전면에는 3단의 자연석 계단이 설치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15] 양산 통도사 천왕문 계단(조선고적도보)

[그림.16] 양산 통도사 천왕문 계단(현재)

주초석은 덩벙 주초로 그 위에 원기둥을 세웠는데 전체 10개소로 전·후 열에 각각 평주 4개소, 좌·우측면 중앙에 고주가 구성되어있다.



[그림.17] 양산 통도사 천왕문 배면 기단 및 계단



[그림.18] 양산 통도사 천왕문 좌측면 기단 및 초석



[그림.19] 양산 통도사 천왕문 우측면 초석



[그림.20] 양산 통도사 천왕문 중앙 통로

내부 중앙 정칸 통로는 강희다짐으로 마감하고 좌·우 퇴칸에는 장마루를 깔고 그 위에 목조 사천왕상(四天王像)을 배치하였다. 동방지국천(持國天)은 칼을 들었고, 북방다문천(多聞天)은 보탑(寶塔)을, 남방증장천(增長天)은 용(龍)을, 서방광목천(廣目天)은 비파(琵琶)를 들고 있다. 사천왕상은 경상남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그림.21] 양산 통도사 천왕문 퇴칸 장마루널 바닥



[그림.22] 남방증장천왕(용,보주), 북방다문천왕(당,답)



[그림.23] 서방광목천왕(비파), 동방지국천왕(갈)

지난 2012년 통도사 사천왕상의 소제 작업을 실시하던 중 동방지국천왕 내부에서 목서가 발견되면서 1718년(숙종 44) 조각승인 진열(進悅)을 수화사로 하여 모두 20여 명의 화원이 참여하여 조성되었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양산 통도사 사천왕상은 경상도지역에서는 가장 규모가 큰 사천왕상으로 다리가 길고 전체적인 진열의 조형적 특징을 잘 보여 준다. 또한 목서의 조성기와 복장유물은 불사운영 및 복장유물 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다.

천왕문 공포는 도지정문화재 지정 당시 이익공으로 명기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일출목 운공받침 삼익공으로 판단되며 건물 규모에 비하여 다소 간결하게 조각되어 있다. 최하부의 쇠서는 주두 밑에서 기둥머리에 끼운 연화양서형으로 장식하고, 이익공은 연봉양서를 놓고 그 위에 두공과 직교하고 간결하게 치목한 수서와 운공을 얹고 장여와 출목도리를 직교하여 결구하였으며, 내부에는 보 밑받침으로 보아지가 지지하고 있다. 공포의 단순하고 소박한 가구 구조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조선 후기 건물로서 당시 건축 양식을 반영한 것으로 건축적 가치가 있다고 사료된다.

화반은 주간 창방에 방형의 판재를 두고 소로를 얹어 상부의 장여를 지지하고 있다. 포벽의 교란 및 뒤틀림 현상으로 인해 변형된 상태이다. 좌·우측면 고주 상부에는 주두를 놓고 대들보를 받치고 있다.



[그림.24] 양산 통도사 천왕문 정면 공포부



[그림.25] 양산 통도사 천왕문 배면 공포부



[그림.26] 양산 통도사 천왕문 우측면 및 배면 공포부



[그림.27] 양산 통도사 천왕문 측면 고주

천왕문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겹처마 맞배지붕으로 가구구조는 5량가구조로 출목도리, 주심도리, 중도리, 종도리로 구성하고 뜯장여를 대공과 연결시켜 구조보강하였다. 도리장여와 뜯장여 사이에는 화반으로 장식되었다. 대들보는 자연재를 그대로 사용하고 배바닥만 부분적으로 치목하여 걸고 도리장여를 받고 있다. 대들보 상부에 파련대공으로 뜯장여와 중도리장여, 종보를 받치고 있으며, 종보 상부 또한 파련대공으로 장식하여

뜯장여와 도리장여, 종도리를 받고 있다. 좌·우측면은 과련대공 대신 판대공으로 단순하고 소박한 가구로 결구하였고 대들보와 종보 사이 벽면은 중깃을 세우고 심벽으로 마감하였다.



[그림.28] 양산 통도사 천왕문 내부 가구구조



[그림.29] 양산 통도사 천왕문 내부 중앙 천장 가구

내부 중도리 당골벽의 탈락과 포벽의 균열, 이완, 박락 현상과 종보 보머리 부분에서 중도리와 이격된 상태이며, 대들보와 주심도리는 꺾쇠로 철물 보강한 것이 육안으로 관찰된다. 현재 상부 구조의 변형으로 인한 훼손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가구부의 목부재는 기존 목부재로 추정되나 1986년 해체보수시 서까래 이상 해체보수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지붕은 맞배지붕으로 전면과 후면 모두 서까래와 부연을 구성한 겹처마이며, 좌·우측면 외벽에는 풍판을 달았다. 출목도리와 주심 사이에는 순각판으로 마감하였으며, 지붕 바닥은 중와 규격의 한식기와를 2겹 반 정도로 잇고 용마루와 내림마루를 구성하였다.

용마루는 당초 “조선고적도보” 자료와 같이 착고, 부고 적새 3단 마루기와의로 구성되어 있다. 내림마루 적새는 2단으로 구성하고 망와로 마감하였다. 암막새는 내림마루 하단 부에서 일부 확인되고 처마부에는 와구토로 마감되었던 것을 현재는 전체 암막새로 장식된 것으로 보아 중수하면서 전체 암막새 장식의 흔적으로 남겨둔 것을 현재와 같이 보수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30] 양산 통도사 천왕문 배면 지붕



[그림.31] 양산 통도사 천왕문 배면 처마부



[그림.32] 양산 통도사 천왕문 좌측면 및 배면

3.지정 가치 및 근거

(1) 역사적·학술적 가치

양산 통도사 천왕문은 1337년(충숙왕 6) 건립된 이후 1713년(숙종 39)에 화재로 소실되었다가 그 다음 해인 1714년(숙종 40) 중건되었다. 천왕문 내부에 봉안된 사천왕상은 목서를 통해 1718년(숙종 44) 제작되었음이 확인되었으며, 천왕문과 사천왕상은 그 이후 보수 등 유지관리를 통해 현재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1930년대 유리건판 사진은 현재 남아있는 천왕문과 유사함이 확인되었다. 공포는 건물 규모에 비하여 간략하게 되어 있으며, 단순하고 소박한 가구 구조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조선 후기 건물로서 당시 건축 양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중 하나이며, 건립 당시 배치형식이 오늘 날까지 그 모습을 잘 보존하고 있어 역사적 가치를 높게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천왕문 내부에 봉안된 사천왕상은 조선후기 대표적 조각승인 진열이 1718년(숙종 44)에 만든 것으로 경상남도에서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2012년 발견된 조성기와 복장물은 불사운영 및 복장유물 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며, 학술적·역사적·미술사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2) 건축적 가치

통도사 천왕문은 하로전(下爐殿) 영역의 경계에 위치하여 일주문·천왕문·불이문을 거쳐 대웅전에 이르는 동서축의 주축(主軸)에 해당된다. 양산 통도사 천왕문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맞배지붕 형태로, 공포는 일출목 운공받침 삼익공으로 외부 주간의 화반은 방형의 판재로 건물 규모에 비하여 간략하게 조각되어 있다. 최하부의 쇄서는 주두 밑에서 기둥머리에 끼운 연화양서형으로 장식하고, 이익공은 연봉양서를 놓고 그 위에 두공과 직교하고 간결하게 치목한 수서와 운공을 얹고 장여와 출목도리를 직교하여 결구하였으며, 내부에는 보 밑받침으로 보아지가 지지하고 있다. 공포의 단순하고 소박한 가구 구조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조선 후기 건물로서 당시 건축 양식을 반영한 것으로 건축적 가치가 있다고 사료된다.

천왕문의 가구구조는 5량가구 구조로 출목도리, 주심도리, 중도리, 종도리로 구성하고 뜯장여를 대공과 연결시켜 구조보강하였다. 도리장여와 뜯장여 사이에는 화반으로 장식되었다. 대들보는 자연재를 그대로 사용하고 배바닥만 부분적으로 치목하여 걸고 도리장여를 받고 있다. 대들보 상부에 판련대공으로 뜯장여와 중도리장여, 종보를 받치고 있으며, 종보 상부 또한 파련대공으로 장식하여 뜯장여와 도리장여, 종도리를 받고 있다. 좌·우측면은 파련대공 대신 판대공으로 단순하고 소박한 가구로 결구하고 대들보와 종보 사이 중깃으로 세우고 심벽으로 마감하였다. 가구부의 목부재는 기존 목부재로 추정되나 1986년 해체보수시 서까래 이상 해체보수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용마루는 당초 “조선고적도보” 자료와 같이 착고, 부고 적새 3단 마루기와로 구성되어 있다. 내림마루 적새는 2단으로 구성하고 망와로 마감하였다. 암막새는 내림마루 하단

부에 일부 확인되고 처마부에는 와구토로 마감되었던 것이 현재는 전체 암막새로 장식된 것으로 보아 중수하면서 전체 암막새 장식의 흔적으로 남겨둔 것을 현재와 같이 보수한 것으로 추정된다.

상기와 같이 기존 구조부재의 보존가치와 단순하고 소박한 가구 구조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조선 후기 건물로서 당시 건축 양식을 알 수 있는 자료이다.

4. 종합의견

양산 통도사는 신라 선덕여왕 15년(646)에 자장율사에 의하여 양산시 영축산 아래에서 창건된 사찰이다. 개산조(開山祖) 자장율사(慈裝律師)에 의하여 진신사리가 봉안된 곳으로 삼보사찰 가운데 불보사찰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통도사 천왕문의 건립과 중수에 관련한 기록 문헌자료를 통해 1337년(충숙왕 6) 건립된 이후 1601년 봄에 송운 유정이 특별한 명으로 천왕문, 불이문, 일주문 등 삼문을 건립과 동시에 대웅전을 중수했다는 기록이 남아있고, 1713년(숙종 39)에 화재로 소실되었다가 그 다음 해인 1714년(숙종 40) 중건되었음을 할 수 있다.

통도사의 전체적 가람 배치는 남쪽에 계류를 두고 북쪽에 가람을 배치한 형식이다. 통도사는 비교적 평지에 입지하고 세 가지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일주문·천왕문·불이문을 거쳐 대웅전에 이르는 동서축이 주축(主軸)이 되고, 이 주축상에 직교하며 각기 독립된 3개의 부축이 형성된 독특한 배치체계를 보인다. 통도사가 창건된 후 1,300여년을 지내오면서 형성된 것으로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중창과정에서 기존의 가람배치를 존중하면서 당시의 사정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통도사의 배치 특징은 동쪽에서 진입하는 형식으로 전체적으로 주요 전각은 남향을 했으면서도 지형 때문인 듯 가람배치가 동서로 길게 이루어져 있다.

통도사 천왕문은 하로전 영역의 경계에 위치하여 일주문·천왕문·불이문을 거쳐 대웅전에 이르는 동서축의 주축(主軸)에 해당된다. 중앙 정칸은 통로로 사용하고 좌우 퇴칸에는 각각 2구씩 사천왕상이 안치되어 있다. 천왕문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규모로 일출목 운공받침 삼익공 건물이다. 최하부 쇄서는 주두 밑에서 기둥머리에 끼운 연화양서형으로 장식하고, 이익공은 연봉양서를 놓고 그 위에 두공과 직교하고 간결하게 치목한 수서와 운공을 얹고 장여와 출목도리를 직교하여 결구하였으며, 내부에는 보 밑받침으로 보아지가 지지하고 있다. 공포의 단순하고 소박한 가구 구조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조선 후기 건물로서 당시 건축 양식을 반영한 것으로 건축적 가치가 있다고 사료된다.

천왕문 가구구조는 5량가구 구조로 출목도리, 주심도리, 중도리, 종도리로 구성하고 뜬장여를 대공과 연결시켜 구조보강하였다. 도리장여와 뜬장여 사이에는 화반으로 장식되

었다. 대들보는 자연재를 그대로 사용하고 배바닥만 부분적으로 치목하여 걸고 도리장여를 받고 있다. 대들보 상부에 파련대공으로 뜯장여와 중도리장여, 종보를 받치고 있으며, 종보 상부 또한 파련대공으로 장식하여 뜯장여와 도리장여, 중도리를 받고 있다. 좌·우측면은 파련대공 대신 판대공으로 단순하고 소박한 가구로 결구하고 대들보와 종보 사이 중깃으로 세우고 심벽으로 마감하였다.

따라서 통도사 천왕문은 조선후기 일출목 운공받침 삼익공의 건축기법과 가람배치의 특성을 고려하여 높은 건축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하여 보존할 만한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9. 순천 송광사 사천왕문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검토

가. 제안사항

전남 순천시 소재 「순천 송광사 사천왕문」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전남 순천시 소재 「순천 송광사 사천왕문」을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 받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전라남도지사
- (2) 대상문화재 : 비지정 「순천 송광사 사천왕문」
 - 소재지 : 전라남도 순천시 송광면 송광사안길 100(신평리)
- (3) 신청내용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
 - 명칭 : 순천 송광사 사천왕문(順天 松廣寺 四天王門)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송광사
 - 소재지 : 전라남도 순천시 송광면 송광사안길 100(신평리)
 - 조성연대 : 조선시대
 - 수량 : 1동
 - 지정면적 : 57.00m²
 - 구조/형식/형태 : 단층 목구조 / 정면3칸, 측면3칸 / 맞배지붕 / 겹처마

라. 현지조사 의견(2023.06.28. / 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 문화재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있음.
- 문화재전문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있음.
- 문화재전문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있음.

마. 지정조사보고서 : 불임참조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 원안가결 11명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23.06.28	대상문화재	순천 송광사 사천왕문	
조사자	성 명	○ ○ ○	전공 분야	한국건축사
	소 속	○ ○ ○ ○ 대학교	직위(직책)	교수
주요 지정 사항 검토	문화재 종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문화재 명칭	순천 송광사 사천왕문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세부내용 별첨 참조		
	연혁·유래 및 특징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세부내용 별첨 참조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3 년 10 월 7 일

제출자

○ ○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1.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순천 송광사 사천왕문은 전남 순천시 송광면 송광사안길 100(신평리)에 위치하고 있다. 송광산이라고도 부르는 조계산 자락에 입지하는 대한불교조계종 제21교구 본사이다. 순천 송광사 사천왕문은 산의 명칭을 따라 지은 송광사의 사천왕을 모신 문이다. 일주문인 조계문 다음에 위치하는 문으로 사방으로 불법을 수호하는 사천왕 조상(彫像)을 봉안한 곳으로 조계문은 진입축에 따라 중심축에서 벗어나 있지만 사천왕문은 중심축에 위치한 가람수호의 관문으로서 의미가 있다.

순천시청에서 서순천 IC 방면으로 6km 정도 이동하여 남해고속도로(순천-부산) 서순천 IC에서 승주 광주방면으로 21.4km 가서 호남고속도로 주암 방면으로 2.6km 이동하여 송광사 TG에서 송광사 벌교 순천 방면으로 좌회전 후 373m 가서 송광사길(18번 도로) 벌교 보성 방면으로 약 8.4km 이동 후 송광사 삼거리에서 송광사안길(지방도로 897번)로 좌회전 후 송광사 방면으로 1.0km 이동 후 신평천 다리를 건너 신평천을 따라 1.2km 정도 들어가면 송광사 입구인 조계문에 도달한다. 일주문인 조계문에서 22m 접근하면 신평천을 가로지르는 우화각을 건너 사천왕문에 도달하게 된다. 사천왕문을 지나 종고루를 들어서면 송광사 안마당에 도달한다. (카카오맵 참조)

송광사의 문화재 현황은 16국사의 진영을 봉안한 순천 송광사 국사전(국보 제56호), 순천 송광사 목조삼존불감(국보 제42호), 순천 송광사 화엄경변상도(국보 제314호) 등 국보 3건을 비롯하여 순천 송광사 하사당(보물 제263호), 순천 송광사 약사전(보물 제302호), 순천 송광사 영산전(보물 제303호), 순천 송광사 소조사천왕상(보물 제1467호), 순천 송광사 소조 사천왕상 복장유물(보물 제1468호), 순천 송광사 경질(보물 제134호), 순천 송광사 경패(보물 제175호), 순천 송광사 금동요령(보물 제176호), 순천 송광사 고려고문서(보물 제572호), 순천 송광사 십육조사진영(보물 제1043호), 송광사 응진당 석가모니 후불탱·십육나한탱(보물 제1367호), 순천 송광사 티베트문 법지(보물 제1376호), 순천 송광사 목조석가여래삼존상 및 소조16나한상 일괄(보물 제1549호), 순천 송광사 목조관음보살좌상 및 복장유물(보물 제1660호), 순천 송광사 목조관음보살좌상 복장전적(보물 제1661호) 등 보물 15건, 순천 송광사 천자암 쌍향수(곱향나무)(천연기념물 제88호) 천연기념물, 순천 송광사 『송광사 사료집성(松廣寺 史料集成)』(국가등록문화재 제633호) 국가등록문화재, 순천송광사응진당(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254호), 순천송광사보조국사감로탑(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256호), 순천 송광사 감로암 목조아미타여래좌상과 복장유물(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334호) 등의 전라남도 유형문화재를 포함하여 24건의 문화재가 보존되어 있다.

주변 문화재로는 순천시 낙안면에 있는 금둔사, 순천 낙안읍성, 낙안민속마을, 낙안향교 등이 있고, 순천시 인근에는 금곡동에 있는 순천향교, 선암사, 동화사 삼층석탑 등이 있

다.

16국사가 나와 불법을 포교한 승보사찰로서 송광사는 역사문화환경이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수많은 승려들이 거주하는 큰 규모로 조성되어 목조문화재가 많은 사찰로서 알려져 있듯이 경내에는 약 80여 동의 건물이 있다. 임인년 화재로 소실된 부분이 총 2,152간이고 타지 않은 부분이 750간이라고 한다면 2,900여 간에 이르는 규모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순천 송광사는 소백산맥 끝자락의 송광면과 주암면 일대에 걸쳐있는 조계산(887m) 서북쪽에 자리한 산사의 입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송광사 사천왕문은 많은 화재에도 소실되지 않고 남아 있는 건물로 일주문을 거쳐 우화각을 건너 바로 위치하고 종각(종고루)을 지나 안마당과 대웅전(대웅보전), 진여문과 설법전에 이르는 중심축에 자리하고 있다. 이는 선종사찰에서 중요한 공간구성을 이루는 계류를 끼고 있는 중요한 시설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경계가 되는 조계문을 지나 신평천을 중심으로 홍예교인 석교 위의 우화루와 더불어 직교하여 사찰을 수호하는 사천왕문이 자연친화적인 청정한 경지로서 가장 아름다운 경관을 이루고 있다.

2. 연혁·유래 및 건축적 특징

(1) 송광사의 연혁 및 유래

송광사와 관련된 역사 관련 문헌은 『송광사사고(松廣寺史庫)』, 『대승선종 조계산 송광사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적은 1678년에 설명(雪明)이 기술한 송광사 경내의 「송광사사원사적비(松廣寺嗣院事蹟碑)」, 1885년에 용운당(龍雲堂)이 기술한 「송광사사적」, 1928년 기산이 찬한 「송광사사적」¹⁾이 전하고 있다.

송광사의 연혁은 기산이 찬한 「송광사사적」에 중건 역사에 따라 6중창과 『대승선종 조계산 송광사지』에 6중창 이후의 역사를 보완해 7중창으로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이후의 중창을 포함해 8중창으로 기술하고 있다.²⁾ 승보사찰인 송광사에 스님을 중심으로 중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혜린에 의한 창건

송광사의 창건은 1207년에 최선(崔詵; ? ~ 1209)이 기술한 「대승선종조계산수선사중창기(大乘禪宗曹溪山修禪社重創記)」에 의하면 신라말 혜린(慧麟)이라는 승려에 의해 송광산(조계산)에 길상사로 시창³⁾되었으나 붕괴되었고, 고려 인종조(1122~1146 재위)에 승려 석조(釋照)가 대찰을 건

1) 『조계산 송광사사고』, 아세아문화사, 영인본, 1983, pp.58~86.

2) 문화재청, 송광사 중요목조건축물 정밀실측조사보고서(상), 2007. 10.

3) 『조계산 송광사사고』, 앞의 책, pp.183~188 「大乘禪宗曹溪山修禪社重創記」 “昇平郡管內富有縣曹溪山者古之松廣山也 修禪社者古之吉祥寺也 新羅時僧慧麟者始創而居 厥後星霜屢換 飄搖遷搖棟 壞崩堂宇略盡 雖村夫野 之居不穀於此矣 仁廟朝山僧釋照將 欲創成大刹 鳩材集工而不幸身沒其所成立更皆以爲墟迫二十餘年”

립하고자 재목을 모으고 장인을 불러 모았으나 완성하지 못하고 타계하였다고 한다. 당시 100여 간의 규모이고 승려 3·40 정도가 있었다⁴⁾면 혜린의 시창 후 붕괴된 사찰을 석종 이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길상사가 유지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2) 보조국사의 중창

고려 명종 때 공산(公山) 거조사(居祖寺) 득재(得才)가 조계종 창시자인 보조국사(普照國師) 지눌을 요청하여 정혜결사(定慧結社)를 결성하여 거조사에 수용하기 어렵게 되자 제자 수우(守愚)가 현재 자리를 물색하였다고 한다. 도려천진(道侶天真), 확조(廓照)와 함께 1197년(명종 27)부터 1205년까지 불우와 승료, 제당, 부엌, 창고 등 80여 간을 짓고 산의 옛 이름인 송광(松廣)을 조계(曹溪)로 바꾸고 수선사(修禪社)로 개칭하고 있다.

3) 진각국사의 제 2중창

월남사지의 「진각국사비(眞覺國師碑)」의 기록⁵⁾을 통해 강종(康宗 ; 1211~1213 재위)은 유사(有司)에게 수선사의 증축(增築)을 명해 공사를 시작하고 여러 차례 중사(中使)를 보내 역사(役事)를 감독하게 하여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으나 크게 중창된 것을 알 수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이색(1328~1396)이 송광사의 침계루(枕溪樓)라는 시⁶⁾와 「송광사사적」에 공민왕이 나옹(懶翁)을 왕사로 봉하고 행해당(行解堂)에 머무르라고 한 기록⁷⁾ 등이 전하고 있어 침계루와 행해당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고려사절요』 31권 신우 2편에 1380년(禑王 6) 3월에 왜적이 침범⁸⁾하여 피해가 매우 심각했을 것임을 추정된다.

4) 고봉화상과 중인의 제 3중창

「조계산수선사중창조고봉화상행장(曹溪山修禪社重創祖高峰和尚行狀)」⁹⁾을 통해 고봉화상의 건의로 임금이 허락(1400년 7월)하여 대목인 운비, 상제 등 30여명을 고용하여 옛날 규모로 중창¹⁰⁾을 하고, 고봉화상의 제자인 중인(中印)선사가 홍수(洪修), 상제(尙濟) 등 10여인을 청하고 아울러 자기의 문도인 상우(尙愚) 등 10여 명을 이끌고 1428년

4) 같은 책, pp.183~188 「大乘禪宗曹溪山修禪社重創記」 “僅一百間居僧不指三四十然是土也”

5) “泰和戊辰欲命師嗣席即退安圭峯師固辭遂去智異山絕跡滅影者數載大安庚午國師入寂門徒聞于上承勅繼住師不獲已入院開堂於是四方學者及道俗高人逸老雲奔影驚無不臻赴社頗隘康廟聞之命有司增構屢遣中使督役遂闢而廣之又遣使就賜滿繡袈裟磨衲各一領并茶香寶瓶因求法要師撰心要以進今行于世”

6) 披雲一上枕溪樓 便欲人間萬事休 半日登臨即歸去 明朝上馬重回頭 洞府深深隔世塵 山僧無事解談眞 他年福地尋何處 白石清溪入夢頻

7) 『조계산 송광사사고』, 앞의 책, pp.43~58, 「松廣寺事蹟」 龍雲堂 記 “高麗恭愍王以懶翁封爲王師而謂松廣寺爲東方第一道場乃命居之故來住行解堂……”

8) 高麗史節要 권31 辛禡二 “三月 倭寇順天松廣寺”

9) 『조계산 송광사사고』, 앞의 책, pp.526~538 「曹溪山修禪社重創祖高峰和尚行狀」

10) 洪武二十八年乙亥遊南州安樂郡金蔽止宿夢見梵刹經營勝境殊特翌日乃入曹溪山松廣寺舊址徘徊四顧宛然如前夢師慨然再歎謂門弟曰 榻庭於此豈無先祖勝像模等須以重新更就禪刹然非我獨力所辦 建文己卯詣闕啓開臣僧志崇願欲重創先師普照普濟諸祖大道場上許之下王旨庚辰七月受王旨而來勸詣縑索或化或施 大木雲庇尙濟等三十餘人施工木之長短基之闊狹皆以量之與古無差矣僅成佛法僧殿堂兩三所以老辭退焉

(무신) 90여 간에 이르는 증축이 이루어지고 있다.¹¹⁾ 고봉화상을 중창조라고 기록한 것은 현재 송광사의 모습이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고, 이후에도 증건되고 수리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송광사 상단의 조선 초에 건립된 하사당, 응진당, 국사전 등과 근대에 소실된 청운당(靑雲堂), 백설당(白雪堂) 등은 16세기 전후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어 상단의 건물들은 15세기~16세기 사이에 건립되면서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5) 응선, 선수대사의 제 4 중창

「임경당수각천자암보조암중창기(臨鏡堂水閣天子庵普照庵重創記)」¹²⁾에 의하면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으로 다행히 많은 전각들은 피해를 받지 않았으나 수각(水閣), 임경당(臨鏡堂), 보조암(普照庵), 천자암(天子庵) 등이 소실되어 폐허로 남아있다가 응선(應禪)이 1601년 수각 중창을 시작으로 1604년 천자암, 1606년 보조암, 1608년 임경당을 중창하고 있다. 1609년 선수(浮休善修, 1545~1615)가 문도 각성(覺性)을 비롯해 400여 사람을 데리고 와 조전, 동행랑, 천왕문 등을 신축하고 전각을 수보(修補)하고 있다.¹³⁾ 기문 다음에 이어지는 중창 참여자 명단에 천왕문이 나타나¹⁴⁾ 천왕문이 이때 새롭게 조성되어 현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¹⁵⁾ 사찰의 천왕문이 언제부터 건립되기 시작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중요한 기록이라고 판단된다.

6) 제 5 중창 임인년 회록과 중창

1842년 송광사는 임인(壬寅)년 대화재¹⁶⁾로 송광사의 거의 대부분이 소실되고 있다. 서북쪽의 낙하당(落霞堂 ; 道成堂)에서 발화하여 폭풍으로 인하여 순식간에 전 사찰로 퍼지게 되어 사찰 내에 머무르던 나주 쌍계사(雙溪寺)의 금고군(金鼓軍)과 사찰 내 사람들이 진압하여 중앙의 중각을 중심으로 불길을 끊어 다음날 진화되었다. 임인회록이라고 하는데 「임인화재보」에는 화재로 소실된 부분과 겨우 살아남게 된 전각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소실된 부분은 총 2,152간이며 남은 부분이 750간임을 확인할 수 있다. 기봉(奇峰)의 비문에 울목(栗木) 봉산(封山)으로 지정되어 영문(營門)에 불우(佛宇) 5전(殿)과 승료(僧寮) 8방, 공사(公舍) 11소 및 2,152간이 모두 전소된 것으로 보고¹⁷⁾되어 공명첩(空名帖) 700장과 재물을 보내어 3년 만에 중창되었다. 이후 기봉과 용운당(龍雲堂)은 1843년 재건¹⁸⁾이 시작되어 대웅전¹⁹⁾, 명부전(冥府殿), 응향각(凝香閣), 법왕문(法

11) 又庚子年曹溪宗大禪師中印得任茲寺亦效師之志願兼慕普照普濟等歷代諸祖住錫之所乃因院宇狹隘故叢席未足清師之門弟洪修尙濟等十餘輩兼自之門徒尙愚等十餘輩增崇堂于始庚子至戊申年諸事幾訖印公移錫京華師自著榜文命洪修等庚子冬設慶讚落成會兼設坐禪上法席此印公與君等已前二十餘年間功就大道場九十餘間之慶讚也

12) 『조계산 송광사사고』, 앞의 책, pp.188~192 「臨鏡堂水閣天子庵普照庵重創記」

13) 『대승선종 조계산 송광사지』, 불일출판사, 기산 임석진, 1965, pp.16~18

14) “普照庵臨鏡堂祖殿天王門 大木 學正 …… 天王門化土 智 ”

15) 강순애, 김상호, 박지선, 임영애, 한경순, 『송광사 사천왕상 발굴자료의 종합적 연구』, 아세아문화사, 2006. 최근에 사천왕복장 유물이 발견되었다.

16) 『조계산 송광사사고』, 앞의 책, pp.925~930 「壬寅火災報」, pp.931~935 「道成堂火災報」

17) 『역주 조계산송광사사고 - 인물』, 혜안, 조명제, 김탁, 정용범, 원경 역주, 2007, pp.377~385.

王門), 종각(鐘閣)이 건립되고, 1844년에는 도성당(道成堂), 보제당(普濟堂), 문수전(文殊殿)을, 1845년에는 상고(上庫), 각고(各庫), 1846년에는 관음전(觀音殿)을 건립하고 있다. 1856년에 대장전(大藏殿)²⁰⁾, 해탈문(解脫門), 삼일암(三日庵)을 건립해 소실된 건물을 복원하고 있다.

7) 설원과 울암의 제 6 중창(1922-1928년)

제 5 중창 이후에도 1885년에 도성당(道成堂)에서 화재로 발운요(拔雲寮)를 포함²¹⁾해 도합 150여간, 공루(空樓) 32간이 소실되거나, 크고 작은 보수나 중수 등으로 사찰을 유지하고 있다. 1922년 주지 설월(雪月)이 송광사를 중신(重新)하고자 마련하려 했으나 임기가 만료되어 이루지 못하고 있다. 울암(栗庵)은 관부와 교섭해 1923년 5월에 인가를 받아 기존 건물들을 보수하고 번와하는 등 사찰의 대규모 중수가 진행되고 있다. 《송광사지》²²⁾에는 1924년 가을 용화당 중수, 용화당 남쪽에 사감고(寺監庫)를 신건, 종각 서측에 2간 증축, 1925년 봄 용화당 수장, 가을 명성각, 화장루, 진남문, 시기문, 여관 증건, 백설당, 청운당, 하사당 중수, 어천문의 목재를 이용해 부도암 비림의 장원문 신건, 대웅전, 명부전, 법왕문, 해탈문, 우화각, 천왕문, 영산전, 약사전, 화엄전, 불조전, 삼일암 번와, 1926년 봄 해청당 중수, 남천변에 해청당 숙사 신건, 1927년 봄 해청당 숙사 수장 완료, 차안당 중수, 가을 법성료 중수, 응향각(凝香閣 ; 大持殿) 수문, 삼일암 옥실 증건, 향적전 중수, 1928년 겨울 동천변에 대변소 2간 신건 등이 있다. 그 외에 여러 건물들이 보수 및 중수되고 훼손하기도 하고 있다. 건물뿐만 아니라 사찰의 여러 축대와 기단을 보수한 기록도 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영역의 변화는 없었으나 1924년에 월조헌, 1925년에 명성각, 화장루 등의 중수로 더 이상 중수가 필요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1927년 화엄전이 위치한 지역에 변화가 된다. 월조각은 서쪽으로, 명성각은 북쪽으로 화장루는 정중앙으로 위치시키고 월조각은 칠성전 향각으로, 명성각은 화엄전과 불조전의 향사(香社)로, 화장루는 화엄전 영역을 출입하는 정문으로 용도가 변화되어 당시의 틀을 유지하고 있다. 1928년에 보제당, 행해당 수리 등 이후에도 사찰 내 여러 건물의 중수가 계속되고 있다.

8) 금당과 화주 취봉의 제 7 중창(1955-1963년)

여순사건과 한국전쟁 때 공비의 방화로 사찰의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던 대웅전을 중심으로 마당을 둘러싸고 있던 법왕문, 해탈문, 종각, 장경각, 보제당, 사고, 명부전, 심검당, 용화전, 행해당 등이 소실되고, 상대의 진여문, 설법전, 조사전, 백설당, 청운당, 차

18) 『조계산 송광사사고』, 앞의 책, pp.227~234 「曹溪山松廣寺重創記」

19) 같은 책, pp.135~139 「大雄法堂重建上樑文」

20) 같은 책, pp.145~150 「大藏殿重建上樑文」

21) 도성당, 발운요는 이후 증건되지 못하고 빈 땅의 기를 누르기 위해 진영당(眞影堂)을 이진하기도 한다.

22) 『대승선종 조계산 송광사지』, 앞의 책, pp.22~24. 《송광사사고》에 전해지고 있는 많은 상량문과 기문들은 이때 당시에 구해진 것이 정리되어 전하는 경우가 많고 편찬자인 기산(綺山)도 당시 중창에 참여하고 있다.

안당이 소실되어 중요 건물들이 모두 소실되고 있다. 전후 주지 금당(錦堂)은 1955년부터 사찰 재건의 계획을 세우고 취봉(翠峰)이 화주가 되어 1957년 박물관이 건립되고 있다. 주불전인 대웅전은 1958년부터 1960년까지 건립하고 있다. 1960년에는 해탈문이 있던 자리에 종고각(鐘鼓閣)을 건립하고 있다. 1963년에는 명부전, 응향각을 건립하고 여관을 이긴하는데 명부전은 산내 암자인 감로암을 이긴해서 건립하고, 응향각은 화엄전의 명성각을 이긴해 건립하고 있다. 제 7중창이 이루어지나 대부분은 빈 공터로 남게 된다.

9) 방장 구산과 주지 현호의 제 8 중창²³⁾(1970년대 이후)

1969년 조계총림(曹溪叢林)이 발족하고 전국에 불일회(佛日會)가 조직된 이후 수선사(修禪社), 종고루(鐘鼓樓), 문수전(文殊殿), 사자루(獅子樓), 화엄전(華嚴殿), 도성당(道成堂), 감로암(甘露庵), 천자암(天子庵), 불일암(佛日庵)이 중창되고 국제선원(國際禪院)이 개설되고 있다.

1983년 3월부터 5년간에 걸쳐 방장 구산(九山)과 주지 현호(玄虎)는 대규모로 8차 중창을 하고 있다. 기존 대웅전을 박물관자리로 이전하여 승보전(僧寶殿)으로 사용하고 거대한 亞자형 평면의 대웅보전(大雄寶殿)을 새롭게 건축하고 있다. 또 박물관을 이전해 응향각으로 삼고, 명부전을 이전해 행해당으로 사용하고 있다. 지장전(地藏殿)을 새롭게 신축하고, 옛 보제각 자리에 거대한 규모의 성보각(聖寶閣)을 건립하고 있다. 그 외에도 주지실인 목우헌(牧牛軒), 인월암(印月庵), 원불당(願佛堂), 정랑(淨廊), 세심각(洗心閣), 진여문(眞如門), 불일문(佛日門), 효봉영각(曉峰影閣), 선열당(禪悅堂)을 새롭게 건립하고 있다.

10) 제 9 중창

1990년 이후 관음전, 문수전, 정혜사 등의 해체 중창과 산내암자 복원 불사 및 국사전과 하사당, 약사전, 영산전 등의 보수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2000년에는 임경당, 해청당, 사자루, 응진전, 월조헌, 취정루 등을 해체 보수하고, 종무소, 선호당(善護堂), 다송원(茶松苑), 효봉영각, 수석정, 죽림정사, 목우농원 등을 신축 또는 중창하여 80여 동을 이루고 있다. 현재에도 진행 중으로 사찰에서는 제 9중창이라고 한다.

(2) 송광사 사천왕문 연혁 및 유래

순천 송광사 사천왕문의 연혁은 「송광사 사천왕문 중창 상량문」(1612), 송광사 사천왕문 발견 구상량도리 묵서, 송광사 사천왕 비파 명문 등으로 살펴볼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신라 말 해린 선사가 송광산 길상사로 시창하여 보조국사 지눌이 정혜결사 운동을 일으키고 조계산으로 바꾸고 절 이름도 수선사(修禪社)로 개칭하고 있다. 이후 9차에 걸친 중창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중 사천왕문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

23) 『불일회보』, 1988년 1월호, p.8, 「松廣寺 第八次 重創佛事 功德碑文」 참조

다음과 같다.²⁴⁾

순천 송광사 사천왕문은 1462년(세조 8)에 초창된 것이라고 하나 정확한 기록을 확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연혁을 통하여 순천 송광사가 현재의 모습을 갖춘 것으로 추정되는 고봉국사의 제 3 중창 때 상단의 건물들이 15-16세기 사이에 건립되는데 사천왕문도 15세기 중반 이후에 건립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사천왕문 보수공사 때 복장조사에서 명문을 통해 1461년 하사당이 건립될 무렵 조성되었으므로 1462년 이후에 건립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상량에 나타나는 연혁은 제 4 중창으로 「임경당수각천자암보조암중창기(臨鏡堂水閣天子庵普照庵重創記)」²⁵⁾에 1609년(광해군 1) 선수(浮休善修, 1545~1615)대사가 문도 각성(覺性)을 비롯해 400여 사람을 데리고 와 조전, 동행랑, 천왕문 등을 신축하고 전각을 수보(修補)하고 있다.²⁶⁾ 신축이라고 표현한 것은 1597년 정유재란으로 훼손된 이전의 천왕문과 사천왕상을 1609년(광해군 1) 가을에서 겨울 사이에 중수한 건물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사천왕상 복장유물 목서명 기록에 의하면 1597년 정유재란으로 훼손된 천왕문과 사천왕상은 1609년(광해군 1)에 천왕문이 중수된 것으로 확인된다.²⁷⁾ 기문 다음에 이어지는 중창 목록에 천왕문이 나타나²⁸⁾ 천왕문이 이때 새롭게 조성된 천왕문과 사천왕상이 현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²⁹⁾ 건립은 대목장 학정(學正)과 화사(化士)로는 지(智)가 관여하고 있다. 앞으로의 연구에 의해 계통을 밝혀나가야 할 것이다. 상량도리에는 1612년 9월 천왕문 분중창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사천왕상은 1628년(인조 6, 崇禎元年 戊辰)에 수화사 응원(應圓)을 중심으로 고한(高閑), 석호(釋湖), 법해(法海), 계웅(戒雄), 석삼(釋森), 회간(懷澗), 천익(天翼), 이환(離幻), 천연(天然), 성열(性悅), 삼인(三忍), 신회(信懷), 법단(法端) 등에 의해 중조되었다고 『조계산 송광사사고(曹溪山松廣寺史庫)』에 기록되어 있다. 보물로 지정된 천왕문 내부에 봉안된 사천왕상은 1628년(인조 6) 중조된 것으로 확인된다. 사찰의 천왕문이 언제부터 건립되기 시작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중요한 기록으로 천왕문과 사천왕상의 조성에 대한 중요한 기록이라고 판단된다. 송광사 사천왕문에서 발견된 구상량도리 목서에 의하면 1718년(숙종 44) 봄 도감(都監) 희오(希悟)와 화사(化士) 요안(了眼) 및 부화사(副化士) 한초(漢初)에 의해 천왕문 중수와 단청을 하고³⁰⁾, 1719년(숙종 45) 3월에 중창되고 있다.³¹⁾

24) 송광사 성보박물관 고경이 2004년에 실시한 사천왕문 보수공사 시 사천왕문의 복장조사를 실시하면서 발견된 명문(銘文)을 조사, 정리한 자료집으로 사천왕상이 1461년 하사당이 건립될 무렵에 조성되었다는 것을 근거로 사천왕문도 1462년 이후에 건립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천왕문 상량도리 및 구 상량도리에서 발견된 목서를 통해 천왕문의 중수 기록을 확인한 내용을 담고 있다.

25) 『조계산 송광사사고』, 앞의 책, pp.188~192 「臨鏡堂水閣天子庵普照庵重創記」

26) 『대승선종 조계산 송광사지』, 앞의 책, pp.16~18

27) 상량도리의 기록에 따르면 1612년을 오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28) “普照庵臨鏡堂祖殿天王門 大木 學正 …… 天王門化士 智 ”

29) 강순애, 김상호, 박지선, 임영애, 한경순, 앞의 책, 최근에 사천왕 복장 유물이 발견되었다.

1720년(숙종 46) 4월에는 사천왕상 1차 중수 개체되고 있다.³²⁾ 1806년(순조 6) 4월에는 천왕 2차 중수 개체가 있고³³⁾, 1842년 임인(壬寅)년 대화재에 대응전을 비롯한 2,152간이 소실되지만 사천왕문, 침계당, 우화각, 임경당, 삼청각, 영산전, 약사전 등 750간이 살아남게 된다. 이에 사천왕문은 임인년 대화재에도 여존부를 확인할 수 있다.³⁴⁾ 1864년(고종 1)에 천왕문 변화 중수가 있고, 1891년(고종 28) 7월 27일 천왕 3차 중수 개체와 천왕문 개체를 하고 있다.³⁵⁾ 1925년 가을 중수 때 천왕문 변화가 있고, 1926년 8월 17일부터 9월 7일까지 천왕 4차 중수 개체를 하고 있다. 1940년 8월 20일 2시에는 북방 천왕 노후로 두부 절단되어 낙하되고 있어 1941년 3월에서 7월 사이에 천왕 5차 중수 개체를 하고 있다. 1951년에도 대화재로 화재를 피하고 1975년 11월에 천왕문 보수를 하고 변화와 단청을 하고 있다.³⁶⁾ 1976년 4월 18일부터 5월 23일에는 천왕 6차 중수 개체를 하고 있다. 2003년 9월 3일 남방천왕 노후되어 좌비 절단 낙하가 있어 2004년 천왕 4차 중수 개체를 하고 천왕문을 중수하고 있다. 또한 2008~2010년까지 중수를 하고 있다.

송광(松廣)이라는 이름의 유래에 대한 전설이 있는데 다음과 같다. 우선, 18명의 승려가 나서 부처의 가르침을 널리 펼 절이라는 뜻이다. 즉, '송(松)'은 '十八(木)+公'을 가리키는 글자로 18명의 승려를 뜻하고, '광(廣)'은 불법을 널리 퍼는 것을 가리킨다는 것이다. 둘째, 보조국사 지눌이 정혜결사를 옮기기 위해 터를 잡을 때 모후산에서 나무로 깎은 솔개를 날렸더니 지금의 국사전 뒷등에 떨어져 앉더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 뒷등의 이름을 치락대(솔개가 내려앉은 대)라 불렀다 한다. 이 전설을 토대로 최남선은 송광의 뜻을 솔갱이(솔개의 사투리)라 하여 송광사를 솔갱이 절이라 풀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일찍부터 산에 소나무(솔갱이)가 많아 '솔메'라 불렀고 그에 유래해서 송광산이라 했으며 산 이름이 절 이름으로 바뀌었다고 한다.³⁷⁾ 유래를 통하여 역사 기록을 기반으로 풍수와 구전적인 의미가 혼합된 것으로 이해된다.

송광사의 9차에 걸친 중창의 연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송광사와 관련된 역사 관련 문헌은 『송광사사고(松廣寺史庫)』, 『대승선종 조계산 송광사지』, 1678년에 설명(雪明)이 기술한 송광사 경내의 「송광사사원사적비(松廣寺嗣院事蹟碑)」, 1885년에 용운

30) (都監) 『사지』, p.43. 1719년으로 오기하고 있다.

31) 康熙五十八年己亥三月日重創 都監希悟 恒居大衆 七百餘員 造緣秩 片手宝還 濱海 瑞澄 致淳 別座以察 化土了眼 副化土漢初 養供主會淸

32) (都監) 『사지』, p.264. 송광사 사천왕 비과 명문, 康熙五十九年庚子四月 日 重修.

33) 같은 책과 명문.

34) 문화재청, 앞의 보고서 참조.

35) 앞의 책과 명문.

36) 『불일보조국사와 조계산 송광사』

37) <http://www.songgwangsa.org> 卍 승보종찰 조계총림 송광사 :: (songgwangsa.org) 송광사 안내, 창건 및 연혁

당(龍雲堂)이 기술한 「송광사사적」, 1928년 기산이 찬한 「송광사사적」이 전하고 있다. 송광사는 신라말 혜린에 의해 길상사로 창건되어 1205년 보조국사에 의해 80여칸을 짓고 수선사로 개칭하였다. 1212년 진각국사에 의해 제 2중창이 이루어지고, 1428년 중인(中印)선사가 90여 칸에 이르는 제 3중창이 이루어지고 있다. 송광사 상단의 조선 초에 건립된 하사당, 응진당, 국사전 등과 근대에 소실된 청운당(靑雲堂), 백설당(白雪堂) 등은 16세기 전후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어 상단의 건물들은 15세기~16세기 사이에 건립되면서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1601년 응선(應禪)이 수각 중창을 시작으로 1604년 천자암, 1606년 보조암, 1608년 임경당 등 제 4중창을 시작하여 1609년 선수(善修)대사가 조선, 동행랑, 천왕문 등을 신축하고 전각을 수보(修補)하고 있다. 천왕문은 건립 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기록이다. 1842년 임인(壬寅)년 대화재로 2,152칸이 소실되고 750칸만 남게 된다. 기봉과 용운당(龍雲堂)은 1843년부터 시작되어 대웅전, 명부전(冥府殿), 응향각(凝香閣), 법왕문(法王門), 종각(鐘閣)이 건립되고, 1844년에는 도성당(道成堂), 보제당(普濟堂), 문수전(文殊殿)을, 1845년에는 상고(上庫), 각고(各庫), 1846년에는 관음전(觀音殿), 1856년에 대장전(大藏殿), 해탈문(解脫門), 삼일암(三日庵)을 건립해 제 5 중창이 이루어지고 있다. 1922년부터 1928년까지 설원이 시작하여 율암(栗庵)에 의해 용화당 중수, 사감고(寺監庫) 신축, 종각 증축, 명성각, 화장루, 진남문, 시기문 중건, 백설당, 청운당, 하사당 중수, 천왕문, 영산전, 약사전, 화엄전 등 제 6 중창이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다. 1948년부터 1953년까지 여순사건과 한국전쟁 등으로 대웅전을 중심으로 마당을 둘러싸고 있던 중요 전각이 모두 소실되고 있다. 1955년부터 1963년까지 금당과 취봉에 의해 옛 모습대로 제 7차 중창이 이루어지나 대부분은 빈 공터로 남게 된다. 1970년대 구산에 의해 수선사, 화엄전(華嚴殿) 등을 보수하고 1983년부터 1990년까지 현호에 의해 대웅전을 승보전으로 하고 대웅보전, 지장전, 성보각, 목우헌 등 신축하는 등 제 8 중창이 이루어지고 있다. 1990년 이후 관음전, 문수전, 정혜사 등의 해체 중창과 산내암자 복원 불사 및 국사전과 하사당, 약사전, 영산전 등의 보수 등이 이루어지고, 2000년에는 임경당, 해청당, 사자루, 응진전, 월조헌, 취정루 등을 해체 보수하고, 종무소, 선호당(善護堂), 다송원(茶松苑), 효봉영각, 수석정, 죽림정사, 목우농원 등을 신축 또는 중창하여 80여 동에 이르는 제 9중창이 이루어지고 있다.

(3) 송광사의 사천왕문의 특성

1) 입지 및 가람배치

호남정맥(湖南正脈)의 한 봉우리를 형성하고 있는 조계산(887m)은 섬진강 동쪽에서 남쪽으로 뻗어 내려간 정맥으로 순천의 북서쪽에 솟아있다. 「대동여지도」에는 동리산 자락으로 서쪽으로 흘러 아미산을 뚫었고 중간쯤에서 분



그림 1. 대동여지도의 송광사

기된 지류가 남향하다가 다시 서쪽으로 뻗어 조계산과 안산을 뗀고 있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즉 조계산 자락 안에 넓고 아늑한 공간에 송광사가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택리지』에 실린 송광사는 대웅전과 요사채 등이 많지만 치밀하며 정교하다고 공간구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자연과 관련해서는 물과 돌이 맑고 깨끗하고 그윽하고, 봉우리와 산줄기가 아름답고 높으며 사방의 경계가 모두 아담하고 아늑하다고 하고 있다. 특히 종루 앞에 수각(水閣, 물가나 물 위에 지은 집)이 있고, 그 앞에 나무한 그루와 보각국사 재생에 관한 내용이 실려 있다. 이는 산과 물에 대한 자리와 건축적인 대응 그리고 공간구성의 정교함을 언급하고 있다고 추정된다.



그림 2. 순천송광사사적 송광사도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순천송광사사적』의 「송광사도」(1886년 제작 추정)³⁸⁾에는 동쪽의 진락대(眞樂臺) 뒤편에 높게 솟은 봉우리를 주산(主山)으로 하고, 주산 오른쪽의 호령봉(號令峯)과 남서쪽 높은 조계산(曹溪山) 그리고 남북쪽의 망수봉(望水峯)으로 표현하고 있다. 서쪽 낮은 봉우리인 당산(堂山)이 있고, 당산을 넘어 멀리 동북(同福)의 모후산(母后山)이 자리하여 당산을 안산으로 모후산을 조산으로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³⁹⁾ 송광사를 감싸고 흐르는 계류인 신평천은 사찰의 남동쪽의 호령봉에서 발원해 사찰을 감싸 흐르고 있으며 사찰 우측에서도 하나의 계류가 흘러 서로 모여 흐르는데 내수를 표현한 것으로 추정된다. 내수는 우화루 앞에서 합쳐 내수구가 되고 다시 외수와 합쳐 주암호로 흐르고 있다. 는 것으로 추정된다. 좌향은 甲坐庚向으로 서향하고 있다. 순천 송광사는 큰 규모의 종찰임에도 탑이 없을 뿐만 아니라 풍경과 석등이 3가지가 없다고 한다. 이는 바람에 흔들리는 풍경 소리는 승보사찰인 송광사의 스님들의 공부에 방해가 되고, 석탑과 석등이 없는 것은 형국이 연화부수형의 터이므로 무거운 석탑이나 석등을 세우면 가라앉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림 3. 「조선고적도보」 송광사 전경

38) 용운당, 송광사사적. 光緒十一年乙酉二月初二日夜道成堂落霞堂拔雲寮 合二百餘間燒盡無餘 故南在眞影堂移建此虛基壓鎮回錄之場 孰曰不可也.

39) 문화재청, 앞의 보고서, p.112. 용운당의 「송광사사적」에는 사찰의 안산(案山)은 모후산(母后山)이며 서쪽 봉우리는 주봉(主峰)인데 좌측으로 돌아서 있고 이름은 망수봉(望水峰)이라고 하고 있다.

『순천송광사사적』의 「송광사도」를 통하여 송광사의 지형을 높은 축대를 쌓아 높은 지형을 형성한 상대와 대웅전을 중심으로 겹겹이 감싸며 일주문이 있는 경계까지의 영역인 하대로 구분되는 것이 확인된다. 하대는 다시 낮은 축대로 구분되고 계류를 건너 진입하도록 하고 있다. 낮은 축대와 담장이 있는 현재 종고루를 경계로 조성되고, 계류는 우화각을 건너 진입하도록 되어 있다.⁴⁰⁾ 송광사는 서향하여 남북의 긴 터에 조성되므로 중앙을 중심으로 좌변과 우변 영역별로 합리적으로 이해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4. 「조선건축사론」 송광사 배치도

중앙 영역은 다시 상단·중단·하단 세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고, 중심축이 일직선을 이루지 않고 약간씩 틀어져 구성되고 있다. 상단은 승보사찰임을 보여주는 가장 위쪽으로 16국사의 영정을 봉안한 국사전⁴¹⁾, 목조건물 중 건립시기(1461년)가 가장 빠른 하사당⁴²⁾, 설법전 등이 자리하고 있는 수선(修禪) 영역이다. 중단은 대웅보전을 중심으로 하는 가운데로 법왕문, 종각, 대장법당, 복도, 해탈문 등이 있는 대웅보전 영역이다. 중단 영역의 좌변에는 약사전과 영산전은 남동쪽에 서로 인접해 있는데 1637년 화재로 소실되고 1640년 재건한 것으로 1737년 중수되었다



그림 5. 1951년 송광사 전경(성보박물관 자료)

고 한다.⁴³⁾ 중단 영역의 우변에는 대방, 지대방, 부엌 등으로 구성된 승방건물인 임경당, 육감정 등이 있는 영역이다. 하단은 아래쪽으로 조계문, 우화각, 천왕문 등에 이르는 진입영역이다. 이러한 상중하단 영역은 전체적으로 중심축에 따르지만 각 영역별로 약간씩 틀어져 있어 수행 중심의 선종 사찰의 성격을 반영하는 듯 전체적으로 틀 내에서 자유로운 특성을 보이고 있다. 그 중에서 하단 영역의 조계문, 우화각, 천왕문 등의 건물들은 신평천에 접해 있으면서 배치 및 구성에서 엄격한 격식보다는 자유롭게 자연환경과 어우러지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강당은 일반적으로 중심축에 대웅전 가는 길에 배치되지만 송광사는 천왕문 옆에 신평천을 따라 배치하고 있다. 천왕문도 홍예교 위에 가설된 동서방향 장방형의 우화각과 남북방향 장방형의 천왕문이 어우러

40) 앞의 보고서, pp.109-113. 이러한 기술을 통해 중심으로 접근하면서 축대를 중심으로 상중하로 구분하는 방식과는 다르게 이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1) 『조계산 송광사사고』, 앞의 책, pp.164~169. 「國師殿重創上樑銘」“嘉靖天啓成林性 入啓重成堂宇則方患傾斜康熙道光栢菴龍雲從私修葺棠桶衰朽於淋雨”

42) 1999년 하사당 보수과정에서 상량문에 “天順五年辛巳五月十一日松廣寺……主上殿下壽等南山壽……成造衆目 大衆禪師尙乳焰學……勝守 祐 靈隱 供養……”라고 하여 천순5년은 1461년(세조 7)에 해당한다.

43) 『조계산 송광사사고』, 앞의 책, pp.1060~1061, 306-307. “崇禎十二年己卯(1639)燔瓦大施主大森比丘海 永丁趙宿年施主上大木孫湖仁淳戒林雪湖 別座哲 化主法欽三綱一兩供養主幸和(靈山殿瓦面抄)”, “乾隆丁巳年春 靈山殿重修 都監 贊悅 別座 眞學”, “(乾隆)辛未年春 藥師殿重修 化主 演敏 都監 贊悅 別座 智遠”

『조계산 송광사사고』, 앞의 책, pp.257~260. 「國師殿重修記」“康熙六十一年壬寅栢庵老重修 嘉慶十二年丁卯華峰師修葺云”

지고 있다. 또한 우화각이 진입 쪽에 팔각지붕과 천왕문 쪽에 맞배지붕으로 하여 맞배지붕인 천왕문과 근접하여 한 쌍의 건물처럼 구성하고 있다.

1928년 8월 藤島亥治郎의 실측 배치도가 『조선건축사론(朝鮮建築史論)』에 수록되어 건물의 명칭과 크기 등이 표기되어 있다. 또한 비슷한 시기로 추정되는 사진이 『조선건축사론』, 『조선고적도보』와 『조선사찰31본산사진첩(朝鮮寺刹 三十一本山寫眞帖)』에 청량각, 법왕문, 해탈문의 모습과 각 건물 그리고 전경사진 등을 통해 당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연혁에 서와 같이 1886년에서 1928년까지 많은 변화가 있었으나 실측도에는 큰 차이가 없게 나타나 제6차 중창은 대부분 기존 건물들을 중수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6. 「송광사지」 송광사 배치도

1951년 송광사 사진을 통해 폐허가 되었음에도 하대 부분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⁴⁴⁾ 1965년에 출간된 『송광사지(松廣寺誌)』에는 송광사 전체 건물의 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 약식 배치도가 수록되어 당시 모습을 알 수 있다.



그림 7. 「한국의 고건축」 2호 송광사 배치도

1975년 문화재연구소에서 실측한 배치도가 『한국의 고건축』 2호에 수록되어 있다. 배치도를 통해 사찰 중심부의 해탈문, 법왕문, 대장전, 종각, 보제당, 대웅전, 응향각, 명부전, 불감고, 용화당, 심검당, 행해당, 백설당, 청운당, 차안당, 설법전, 조사전 등 대부분 소실되었으나 천왕문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계류 근처의 입구 및 하대 영역은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사찰의 입구인 조계문과 세월각, 척주각, 우화각, 천왕문, 침계루, 임경당, 해우소 등 대부분 그대로 위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건축적 특징

천왕문은 정면 3칸, 측면 3칸 규모의 일(一)자형 평면으로 다포계 맞배 건물이다. 건축물의 구성은 자연석 외벌대기단 위에 자연석 초석을 놓고 민흘림의 두리기둥을 세우고 기둥머리에 창방과 평방을 결구하고 그 위에 외2출목, 내2출목의 다포계 공포를 놓고 있다. 지붕은 맞배지붕으로 양측면에 풍판을 설치하고 있다.

평면구성은 정면 3칸(8,790mm), 측면 3칸(6,510mm)이지만 장방형으로 구성하고 있다. 어칸 1칸은 3,750mm(312.5mm 영조척) 정도로 12尺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추정되고, 협칸은 2,520mm(315mm 영조척) 정도로 8尺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추정된다. 측면 주칸은

44) 송광사 정보박물관 사진 자료 참조

1칸이 1,680mm 정도로 280mm 영조척으로 환산하면 6尺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추정된다. 어칸 1칸은 3,750mm(312.5mm 영조척) 정도로 완척으로 떨어지지 않지만 어칸을 완척으로 가정하고 순천 송광사 조계문이 정면과 측면이 3,720mm이고 벽암과 관련된 보은 범주사 사천왕문의 어칸이 3,720mm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12尺(310mm 영조척)을 기준으로 하고, 협칸은 8尺, 측칸은 6尺으로 한 것으로 추정된다. 더 연구가 필요하지만 당시 사용 용척은 정칸을 기준으로 완수를 설정하면 1尺을 310mm 전후로 사용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정면 28.4척, 측면 21척으로 1.35:1 정도의 비율을 잡고 있다. 이는 김천 직지사 천왕문 1.78:1, 고흥 능가사 사천왕문 1.73:1, 영광 불갑사 천왕문 1.55:1, 구례 화엄사 천왕문 1.44:1인 것과 비교하면 확연히 차이가 나고 있다. 주변 건물로 인해 좁게 계획된 것으로 추정되나 주변과 함께 조성된 형태이며 사천왕상을 내부에 수용하면서 진입에 따른 통과와 깊이를 갖는 구조를 갖도록 전이공간을 하면서 자체적인 공간을 형성하는 정면과 측면비로 조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건물의 토대가 되는 기단은 화강석을 거칠게 다듬은 외벌대 자연석기단으로 전면은 우회각과 이어지면서 경사로 되어 있다. 어칸은 기단 전후면으로 박석포장을 하고 기단 내 중앙 어칸 통로와 윗면에는 강회다짐으로 하고 있다.

사천왕상을 봉안한 좌우 협간의 바닥은 우물마루를 깔고 있다. 순천 송광사 사천왕상은 소조상의 골격이 되는 중심구조물의 다리 하부가 의자처럼 네 개로 구성되는데 마루의 바닥을 통과하여 지면에 닿도록 만들어져 있고 다리 상부는 직각방향의 부재들이 서로 맞닿는 방법과 함께 연결 부위를 꺾쇠로 보강함으로써 견고한 결구에 집중하는 모습이 되었다.⁴⁵⁾ 사천왕상 골격을 이루고 있는 중심구조물의 네 기둥은 마룻바닥을 통과하여 지면에 설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소조상이면서 대규모로 제작된 사천왕상은 일반적으로 이를 안치하고 있는 천왕문 건축과 시대가 일치할 확률이 높다. 소조사천왕상의 경우 안정적인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순천 송광사의 천왕문이나 홍천 수타사 천왕문에서는 소조상의 뼈대를 마루에 통과시켜 건물과 결속시키는 방법을 확인할 수 있고, 건물 상부 가구에 떨어지기 쉬운 천왕상의 신체 일부나 지물을 매달아 하중을 분담하는 방법도 사용하기 때문이다.⁴⁶⁾

측면 가구를 2고주 5량가로 하면서 기둥 배열에서 가운데 칸을 3,150mm 정도로 크게 잡고 있다. 높게 고주를 잡고 고주를 연결하는 인방 규격을 크지 않게 하고 있다. 공포를 전후면에만 배열하고 측면에는 의장적인 장식이 없으며 벽이 판벽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1612년 천왕문을 먼저 건립하고 1628년에 사천왕상을 제작한 것을

45) 한경순, 순천 송광사 사천왕상 제작기술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제30집, 2005, pp.97-114.

46) 류성룡, 17세기 사천왕상 천왕문의 건축양식 전개에 관한 연구, 한국건축역사학회 제21권 5호, 2012, 10, p.69

추정하게 한다.

전면을 제외한 3면에는 자연석을 쌓아 배수로를 만들고 있다. 기단 내밀기는 원주를 중심으로 전면과 배면은 1,500mm이고 측면은 1,200mm 정도이다. 일반적으로 전후측면에 동일한 경우 팔각지붕으로 하지만 확인하기 어렵다. 기단 위에는 자연석 초석을 놓고 그 랭이질하여 그 위에 두리기둥을 세우고 있다. 기둥은 전후면의 평주와 우주는 420mm 정도이고, 측면의 평주는 360mm 정도이다. 주기둥은 민흘림이 있는 두리기둥이나 대들보 하부에는 330mm 정도의 팔각 단면의 각주인 심고주를 세워 대들보를 지지하고 있다. 내부에 심고주를 세우고 있는 사례는 보은 법주사 사천왕문의 두리기둥과 영광 불갑사 천왕문은 내부에 네모기둥이 있고 고흥 능가사의 사천왕문은 양측면에 150×150mm 정도의 팔각주를 세우고 있다. 전자는 사천왕상을 구조적이면서 구분하는 기둥으로 보이고 후자는 장식적인 보조기둥으로 추정된다. 주간은 구례 화엄사 사천왕문이 6,660mm인 것과 비교하면 6,510mm로 적어서 구조적인 기둥이라기보다 보완하면서 사천왕상의 영역을 구분하고 통로에서 보았을 때 의장적 조형성을 드러내기 위한 지역적인 특성으로 추정된다.

또한 팔각주 머리에는 보 방향으로 연화형 침차를 보아지와 같이 설치하고 기둥 위에 주두를 올려 보 하부를 따서 끼워 보를 받치고 있다.

어칸은 개방하여 통로로 사용하므로 통로의 좌우에는 홍살을 세워 사천왕상과 통로를 구분하고 있다. 좌우측면의 벽면은 판벽으로 처리하고, 전후면의 벽면에는 살창을 두어 통풍을 고려하고 있다.

기둥뿌리에는 통로 부분만을 제외하고 낮게 고막이벽을 만들고 하인방을 결구하고 있고 통로부분에만 환기구를 설치하고 있다. 전후면의 기둥머리에 폭보다 춤이 큰 270×315mm 정도의 모를 굴린 창방을 걸고 귀에서 창방뿔목으로 처리하고 있다. 그 위에 창방과 달리 춤보다 폭이 넓은 360×240mm 정도의 직절한 평방을 올리고 창방과 같이 귀에서 직절한 뿔목으로 처리하고 있다. 창방뿔목은 연화형으로 평방 위에 주두를 놓고 다포계 공포를 올리고 있다. 공포는 천왕문의 건물의 측면에는 설치하지 않고 전후면에 구성하고 있다. 각 주상과 주간의 어칸에는 2구 및 좌우 협칸에 1구씩을 설치하고 있다. 전후면에 포 간격은 4尺 정도로 모두 일정하게 배열하는 계획된 다포 맞배지붕 건축이다.⁴⁷⁾ 천왕문은 어칸에 통로를 두어야 하므로 정면에 어칸을 강조하여 어칸의 주간거리를 협칸의 주간거리보다 크게 잡고 있다. 또한 어칸의 공포를 좌우 협칸에 1구보다 많은 2구를 놓으면서 포 간격을 일정하게 놓고 있다. 이는 정칸을 통로로 해야 하는 천왕문은 의장성을 계획하여 포간거리를 4尺으로 같게 한 것으로 창건 당시의 모습이 그대로 주칸 크기에 따른 공포의 간격, 양식이 유지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47) 류성룡, 조선전기 다포건축 공포계획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8권 7호, 2012. 7, p.155. 계획된 다포 맞배지붕 건축은 15세기의 개심사 대응전과 귀포 형식상 2단계에 속하는 장곡사 하대웅전이 있다고 한다.

공포 위에 폭보다 춤이 큰 420×450mm 정도의 전체적으로 모를 굴린 대들보를 걸고 상부에 동자주를 세우고 춤이 큰 240×300mm 정도의 종보를 걸고 있다. 모를 굴린 종보 위에는 파련대공을 세워 장여 받친 종도리를 받치고 있다.

가구구성은 주심도리, 외출목도리, 내출목도리, 중도리, 종도리로 구성된 5량가이다. 가구 내부는 심고주 5량가이고 측면은 2고주 5량가이다. 도리는 모두 장여 받친 굴도리이다. 출목도리 장여를 건너지르고 심고주 위의 대들보 위에 걸친 별도의 가구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사천왕상을 결속하기 위하여 건너지른 것으로 추정된다. 어간의 가구와 측면의 가구를 결속하기 위한 시도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⁴⁸⁾

공포는 소침차와 대침차를 사용하여 내·외 2출목으로 간결하지만 강직한 형식이다. 침차 위에 초제공과 이제공 그리고 3제공은 삼분두로 하고 4제공은 운공으로 하고 있다. 침차의 외단은 쇠서형으로 소박하지만 강한 모습을 하고 있다. 주간포의 경우 내단은 초제공과 2제공은 양쪽면을 수직으로 직절하고 하단을 둥글게 굴린 교두형이고, 3제공은 운공형이고 4제공은 두공형으로 하고 있다. 주상포의 경우 3제공은 연화형으로 하여 대들보를 받치고 있다. 귀포도 주상포와 주간포와 같은 형식으로 처리하는 전형을 따르고 있어 본래부터 맞배지붕으로 꾸민 것으로 추정된다.

일반적인 공포 구성이 외출목보다 내출목이 많은데 내외출목을 같게 한 특성을 하고 있다. 공포의 형식을 통하여 조선 중기 특성을 보이고 있다고 추정된다.

내부 천장은 연등천장으로 종도리와 중도리에 단연을 걸고 중도리에서 외목도리 바깥으로 장연을 걸고 있다. 전후면에 서까래 단부에 부연을 설치한 겹처마 맞배지붕으로 구성하고 있다. 박공은 일반적인 맞배지붕과 같이 박공널, 목기연 등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 측면은 풍판을 달고 귀포 있는 곳은 조금 길게 처리하여 설치하고 있다. 풍판과 들보 사이는 순각판으로 마감하고 있다. 중화 규격의 한식기와를 사용하여 2겹 반 이음을 하였으며, 용마루는 5단, 내림마루는 3단으로 구성하고 있다. 기와 마감은 막새, 용마루와 내림마루 끝에는 망와를 올리고 있다.

수미산의 네 방위를 수호하는 호법신인 사천왕상은 호국적 성격 때문에 임진왜란 이후 17세기에 조성되고 있다. 사천왕 신앙은 삼국시대 불교가 전래된 이래 고려시대까지 지속되었고 조선시대에도 맥을 이었으나 임란 이후에 활발히 제작하고 있다.⁴⁹⁾ 17세기 제작된 사천왕상은 나무와 진흙으로 제작하면서 다양한 요소를 복합적으로 구성한 형태로 거대한 규모로 제작하여 위협을 주는 것과 같은 특징이 있다. 이는 임진왜란과 관련되는데 승군의 활약한 사찰에 많이 만들어졌고 팔도도총섭 벽암 각성과 관련이 있다.⁵⁰⁾ 현존하는 조선시대 사천왕상 중 제작연대가 가장 올라가는 사천왕상은 보림사 사천왕

48) 류성룡, 앞의 논문, p.69

49) 주수완, 「조선 전반기 불교건축과 예배상과의 관계에서 본 도상의미 연구」 『강좌미술사』 36, 한국미술사연구소, 2011, p.404.

50) 노명신, 조선후기 사천왕상에 대한 고찰, 미술사학연구, 제202호 1994. 6, pp.97-126

상으로 천왕문 안에 사천왕상과 더불어 인왕상이 함께 배치되고 있다.⁵¹⁾ 순천 송광사의 사천왕상은 1628년 제작된 4.03m 높이의 소조상으로 조성되어 임란 이후의 1624년 제작된 6m 높이의 보은 범주사 사천왕상 다음 제작된 것이다. 현재 보물 제1467호로 지정되어 있다. 순천 송광사 천왕문은 건축연대가 명확하기 때문에 17세기 초 다포 맞배 지붕인 3칸 산문건축을 분석하는 좋은 예가 되고 있다.⁵²⁾ 천왕문 내부는 중앙 어칸 통로를 기준으로 우측에 칼을 든 동방지국천왕, 왼손에 비파를 든 북방다문천왕, 좌측에 용과 보주를 들고 있는 남방증장천왕, 당과 보서(寶鼠)를 들고 있는 서방광목천왕 순으로 마주하여 배치되어 있다.

임진왜란 이후 사천왕상의 조성은 순천 송광사, 구례 화엄사, 완주 송광사 사천왕상들은 신체 균형 및 제작 기법 등에서 당시를 대표하는 사천왕상들이라 할 수 있다. 이 중 인조시기에 만들어진 사천왕상들은 모두 벽암 각성 대사들의 문도들에 의해 조성되고 있어 같은 집단의 기술자들이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⁵³⁾ 벽암각성대사는 임진왜란 이후 재건에 활약한 고승으로 광해군 말년의 해인사 대장경판고 증영(1622)을 시작으로 남한산성 축성 및 9개 승영 사찰의 신축 및 증축을 이끌고 있다. 이후 완주 송광사 창건(1622~1631), 화엄사 재건(1630~1636), 하동 쌍계사 재건(1641), 안변 석왕사 재건(1642~1644) 등으로 이어지는 건축공사를 끊임없이 주도하고 있다.⁵⁴⁾ 벽암대사와 그의 문도들에 의해 집중적으로 세워진 사천왕상은 숙종조에 들어서도 활발하게 만들어지지만 소조가 아닌 주로 목조로 만들어져 제작 수준 및 표현 기법 등에서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3. 지정가치 및 근거기준

순천 송광사 천왕문에 대한 역사적 가치는 다음과 같다.

순천 송광사 사천왕문은 「송광사 사천왕문 중창 상량문」(1612), 송광사 사천왕문 발건 구상량도리 목서, 송광사 사천왕 비파 명문, 『조계산 송광사사고(曹溪山松廣寺史庫)』 등으로 살펴볼 수 있다. 초창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확인하기 어렵고 순천 송광사가 현재의 모습을 갖춘 상단의 건물들이 15-16세기 사이에 건립되는데 사천왕문도 15세기 중반 이후에 건립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사천왕문 보수공사 때 복장조사에서 명문을 통해 1461년 하사당이 건립될 무렵 조성되었으므로 1462년 이후에 건립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1597년 정유재란으로 인해 피해를 입어 1609년(광해군

51) 순천대학교박물관, 『迦智山 寶林寺』, 1995, p.42.

52) 류성룡, 앞의 논문 p.69

53) 魯明信, 앞의 논문, p.95.

54) 이강근, 「17세기 불전의 장엄에 관한 연구」, 1994,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p.85~86.

1)에 선수에 의해 문도 각성(覺性) 등 400여 명을 데리고 와 대목장 학정(學正)과 화사(化士)로는 지(智)가 관여하여 중수하고 있다한다. 상량도리를 통해 1612년 9월 천왕문 분중창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어 현재의 건물은 1612년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사천왕상은 묵서명과에 의해 수화사 응원(應圓)을 중심으로 고한(高閑), 석호(釋湖), 법해(法海), 계웅(戒雄), 석삼(釋森), 회간(懷澗), 천익(天翼), 이환(離幻), 천연(天然), 성열(性悅), 삼인(三忍), 신회(信懷), 법단(法端) 등에 의해 1628년(인조 6) 제작되어 안치되고 있다. 1719년 3월 도감(都監) 희오(希悟)와 화사(化士) 요안(了眼) 및 부화사(副化士) 한초(漢初)에 의해 천왕문 중수와 단청을 하고 있다. 1720년 4월에는 사천왕상 1차 중수 개체되고 있다. 1806년 4월에는 천왕 2차 중수 개체가 있고, 1842년 임인년 대화재에도 화를 면하고 있다. 1864년 천왕문 번와 중수가 있고, 1891년 7월 27일 천왕 3차 중수 개체와 천왕문 개체를 하고 있다. 1925년 가을 중수 때 천왕문 번와가 있고, 1926년 8월 17일부터 9월 7일까지 천왕 4차 중수 개체를 하고 있다. 1940년 8월 20일 2시에 는 북방천왕 노후로 두부 절단되어 낙하되고 있어 1941년 3월에서 7월 사이에 천왕 5차 중수 개체를 하고 있다. 1951년에도 대화재로 화재를 피하고 1975년 11월에 천왕문 보수를 하고 번와와 단청을 하고 있다. 1976년 4월 18일부터 5월 23일에는 천왕 6차 중수 개체를 하고 있다. 2003년 9월 3일 남방천왕 노후되어 좌비 절단 낙하가 있어 2004년 천왕 4차 중수 개체를 하고 천왕문을 중수하고 있다. 또한 2008~2010년까지 중수를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이 초창은 순천 송광사가 현재의 모습을 갖춘 15-16세기 사이에 상단의 중요 건물 건립 이후인 15세기 중반 이후 1462년 이후에 건립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현재의 건물은 1597년 정유재란으로 인해 피해를 입어 1612년 9월 선수에 의해 문도 각성(覺性) 등 400여 명을 데리고 와 대목장 학정(學正)과 화사(化士)로는 지(智)가 관여하여 분중창한 것으로 사천왕상은 1628년 수화사 응원(應圓)을 중심으로 고한(高閑), 석호(釋湖), 법해(法海), 계웅(戒雄), 석삼(釋森), 회간(懷澗), 천익(天翼), 이환(離幻), 천연(天然), 성열(性悅), 삼인(三忍), 신회(信懷), 법단(法端) 등에 의해 제작된 것이다. 17세기에 조성된 사천왕문 중 초기에 해당하는 연혁을 확인할 수 있다. 사천왕문과 사천왕상은 1842년 임인년과 1951년의 대화재에도 재난을 피한 건물로 건립 연대가 명확한 천왕문이다.

예술적 가치는 다음과 같다.

순천 송광사 천왕문은 많은 화재에도 소실되지 않고 남아 있는 건물로 일주문을 거쳐 우화각을 건너 바로 위치하고 종각(종고루)을 지나 안마당과 대웅전(대웅보전), 진여문과 설법전에 이르는 중심축에 자리하고 있다. 경계가 되는 조계문을 지나 신평천을 중심으로 홍예교인 석교 위의 우화루와 더불어 직교하여 사찰을 수호하는 사천왕문이 자연친화적인 청정한 경지로서 가장 아름다운 경관을 이루고 있다. 이는 선종사찰에서 중

요한 공간구성을 이루는 계류를 끼고 있는 중요한 시설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일주문인 조계문 다음에 위치하는 문으로 사방으로 불법을 수호하는 사천왕 조상(彫像)을 봉안한 곳으로 조계문은 진입축에 따라 중심축에서 벗어나 있지만 사천왕문은 중심축에 위치한 가람수호의 관문으로서 의미가 있다.

「대동여지도」에는 동리산자락으로 조계산 자락 안에 넓고 아늑한 공간으로 표현하고 있다. 『택리지』에는 산과 물에 대응하는 자리와 공간구성이 정교하고 특히 종루 앞 수각(水閣) 주변의 공간을 언급하고 있다. 『순천송광사사적』의 「송광사도」(1886년 제작 추정)에 동쪽의 진락대(眞樂臺) 뒤편 봉우리를 주산(主山)으로 호령봉(號令峯)과 조계산(曹溪山) 그리고 남북쪽의 망수봉(望水峯)이 있고, 안산인 당산(堂山)과 조산인 모후산(母后山) 등 연화부수형의 터를 표현하고 있다. 또한 서향한 남북의 긴 터에 조성되므로 중앙을 중심으로 좌우변 영역으로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 상중하단 영역은 전체적으로 중심축에 따르면서 각 영역별로 약간씩 틀어져 있어 수행 중심의 선종 사찰의 성격을 반영하여 자유로운 특성을 보이고 있다. 그 중에서 하단 영역의 조계문, 우화각, 천왕문 등의 건물들은 신평천에 접해 있으면서 배치 및 구성에서 엄격한 격식보다는 자유롭게 자연 환경과 어우러지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홍예교 위에 가설된 동서방향 장방형의 우화각과 남북방향 장방형의 천왕문이 근접하여 우화각이 진입 쪽에 팔작지붕과 천왕문 쪽에 맞배지붕으로 하여 한 쌍의 건물처럼 구성하고 있다.

1928년 藤島亥治郎의 『조선건축사론(朝鮮建築史論)』에 건물의 명칭과 크기 등이 수록되고, 『조선고적도보』와 『조선사찰31본산사진첩(朝鮮寺刹 三十一本山寫眞帖)』 등 사진에 당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1951년 송광사 사진, 1965년 출간된 『송광사지(松廣寺誌)』의 배치도, 1975년 『한국의 고건축』 2호에 문화재연구소에서 실측한 배치도를 통해 천왕문을 비롯해 계류 근처의 입구 및 하단 영역은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순천 송광사 천왕문은 정면 3칸, 측면 3칸 규모의 일(一)자형 평면으로 다포계 맞배 건물이다. 평면구성을 보면 어칸 1칸을 기준으로 보면 벽암과 관련된 보은 법주사 사천왕문의 어칸, 순천 송광사 조계문이 정면과 측면 등과 같이 12尺(310mm 영조척)을 기준으로 하고, 협칸은 8尺, 측칸은 6尺으로 한 것으로 추정된다. 더 연구가 필요하지만 당시 사용 용적은 정칸을 기준으로 완수를 설정하면 1尺을 310mm 전후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면과 측면의 비는 1.35:1 정도로 비슷한 시기의 다른 천왕문에 비해 좁게 계획된 것으로 추정되나 주변과 함께 조성된 형태로 사천왕상을 내부에 수용하면서 진입에 따른 통과와 깊이를 갖는 구조를 갖도록 전이공간을 하면서 자체적인 공간을 형성하는 정면과 측면비로 조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내부의 팔각 단면의 각주인 심고주를 세워 대들보를 지지하고 있는데 구조적으로 보완

하면서 사천왕상의 영역을 구분하고 통로에서 보았을 때 의장적 조형성을 드러내기 위한 지역적인 특성을 이루고 있다. 또한 팔각주 머리에는 보 방향으로 연화형 첨차를 보아지와 같이 설치하고 기둥 위에 주두를 올려 보 하부를 따서 끼워 보를 받치고 있다. 1628년에 벽암대사와 그의 문도들에 의해 제작된 사천왕상은 나무와 진흙으로 제작하면서 다양한 요소를 복합적으로 구성한 형태로 숙종조에 목조로 제작되는 사천왕과 비교하여 제작 수준과 거대한 규모로 위협을 주는 것과 같은 표현기법 등에서 뛰어난 특징을 보이고 있다.

가구 내부는 심고주 5랑가이고 측면은 2고주 5랑가로 출목도리 장여를 건너지르고 심고주 위의 대들보 위에 걸친 별도의 가구를 설치하여 사천왕상을 결속하기 위하여 건너지른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측면 2고주 5랑가이면서 가운데 칸을 넓고 고주를 높게 잡고 고주를 연결하는 인방 규격을 크지 않은 대신 여러 개로 분산하고 판벽으로 되어 1612년 천왕문을 먼저 건립하고 1628년에 사천왕상을 제작한 것을 추정하게 한다.

공포는 외단에 초제공과 이제공은 쇠서형, 3제공은 삼분두, 4제공은 운공으로 하고, 내단에 주간포의 경우 초제공과 2제공은 교두형, 3제공은 운공형, 4제공은 두공형이며 주상포의 경우 3제공은 연화형으로 대들보를 받치고 있다. 첨차의 외단은 쇠서형과 삼분두로 간결하지만 원초적인 모습을 하고 있고, 내·외 2출목으로 같게 하여 간결하지만 강직한 조선 중기 특성을 보이고 있다고 추정된다.

귀포도 주상포와 주간포와 같은 형식으로 처리하는 전형을 따르고 있어 본래부터 맞배지붕으로 꾸민 것으로 추정된다.

학술적 가치는 다음과 같다.

순천 송광사는 1609년에 선수에 의해 문도 각성(覺性) 등 400여 명을 데리고 와 대목장 학정(學正)과 화사(化士)로는 지(智)가 관여하여 중수하고 있다하고, 상량도리를 통해 1612년 9월 천왕문 분증창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어 당시의 건물로 추정된다. 또한 사천왕상은 수화사 응원(應圓)을 중심으로 고한(高閑), 석호(釋湖), 법해(法海), 계웅(戒雄), 석삼(釋森), 회간(懷澗), 천익(天翼), 이환(離幻), 천연(天然), 성열(性悅), 삼인(三忍), 신회(信懷), 법단(法端) 등에 의해 1628년 제작되고 있다. 또한 구상량도리 목서에 의하면 1718년 봄 도감(都監) 희오(希悟)와 화사(化士) 요안(了眼) 및 부화사(副化士) 한초(漢初) 등의 중수와 단청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당시의 대목장이나 화사 그리고 수화사와의 관계와 제작자 등이 수록되어 지역의 승장의 계보와 수화사나 주변 사찰과의 연관성 등에서 학술적인 연구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17세기 제작된 큰 규모의 위협적인 모습의 소조상과 사천왕문은 임진왜란과 관련되어 승군의 활약한 사찰에 많이 만들어졌고 팔도도총섭 벽암 각성과 관련이 있다. 임진왜란 이후 순천 송광사, 구례 화엄사, 보은 법주사 사천왕상과 사천왕문은 벽암대사의 문도

들에 의해 조성되고 있어 같은 집단의 기술자들이 참여한 비례와 규모 그리고 사실적인 기법에서 대표적인 사례이고, 이후 완주 송광사, 구례 화엄사 및 하동 쌍계사 등의 재건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소조가 아닌 주로 목조로 만들어져 제작 수준 및 표현 기법 등에서 비견되지 못하고 사천왕문도 출목익공형식이나 후기에는 무출목 익공 등의 소박한 형식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사천왕문의 건립 시기와 변천 과정 등을 통해 벽암과 관련된 사찰과 비교 연구에도 학술적인 가치가 크다고 판단된다. 순천 송광사의 사천왕상(보물 제1467호)은 1628년 제작된 4.03m 높이의 소조상으로 조성되어 임란 이후의 1624년 제작된 6m 높이의 보은 법주사 사천왕상 다음 제작된 17세기 초 다포 맞배지붕인 3칸 산문건축을 대표한다고 판단된다.

순천 송광사 사천왕상은 소조상의 골격이 되는 중심구조물의 다리 하부가 의자처럼 네 개로 구성되는데 마루의 바닥을 통과하여 지면에 닿도록 만들어져 있고 다리 상부는 직각방향의 부재들이 서로 맞춤되는 방법과 함께 연결 부위를 꺾쇠로 보강함으로써 견고하게 결구하고 있다. 순천 송광사의 천왕문은 소조상의 뼈대를 마루에 통과시켜 건물과 일체화시켜 결속하고, 사천왕문에 출목도리 장여를 건너지르는 부재를 설치하고 심고주 위의 대들보에 위에 걸친 부재는 상부 가구에 떨어지기 쉬운 천왕상의 신체 일부나 지물을 매달아 하중을 분담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전후면의 포는 4尺으로 일정하여 계획된 다포 맞배지붕 건축이다. 어칸에 통로를 두어야 하므로 정면에 어칸을 강조하여 어칸의 주간거리를 협칸의 주간거리보다 크게 잡고, 어칸의 공포를 2구 놓고 좌우 협칸에 1구를 놓아 일정하게 배열하고 있다. 이는 정칸을 통로로 해야 하는 천왕문은 의장성을 계획하여 포간거리를 같게 한 것으로 창건 당시의 모습이 그대로 주칸 크기에 따른 공포의 간격, 양식이 유지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송광사 사천왕문은 17세기 초반에 조성된 사천왕문 중 초기에 해당하는 내외 2출목 다포 맞배집의 기준이 되는 대표적인 산문 건축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보물로 지정된 수작 소조사천왕상과 더불어 지역의 승장과 사찰의 연계성 그리고 벽암과 관련된 집단의 활동과 전수 그리고 지역성과 건축적 특성 등에서 학술적 가치를 갖는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이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측면에서 국가지정 문화재로서 가치를 지닌다고 판단된다.

<종합의견>

순천 송광사 사천왕문은 초창은 1462년 이후에 건립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현재의 건물은 1597년 정유재란으로 인해 피해를 입어 1612년 9월 선수에 의해 분중창하고 1628

년 사천왕상을 제작하여 안치하고 있다. 1719년 3월 천왕문 중수와 단청, 1864년 천왕문 변와 중수, 1891년 7월 27일 천왕문 개체, 1925년 가을 천왕문 변와, 1975년 11월에 천왕문 보수 및 변와 단청, 2004년 천왕문을 중수하고 있다. 17세기에 조성된 사천왕문 중 초기에 해당하는 건물로 변화가 확인되는 시대성이 우수하다고 판단된다.

예술적 측면에서 송광사의 중심축에 자리하는 두 번째 산문으로 계류와 어우러진 선종 사찰의 자유로운 공간구성을 하고 있다. 홍예교 위에 우화각과 한 쌍의 건물처럼 구성하고, 어칸을 기준으로 1尺을 310mm 전후로 사용되었을 것이다. 정면과 측면의 비는 1.35:1 정도로 사천왕상을 내부에 수용하면서 진입에 따른 통과와 깊이를 갖는 구조를 갖도록 전이공간을 하면서 자체적인 공간을 형성하도록 하고 있다. 내부의 팔각 단면의 각주인 심주와 보 방향으로 연화형 침차를 구조적으로 보완하면서 사천왕상의 영역을 구분하는 의장적 조형성을 드러내고 있다. 1628년에 벽암대사와 그의 문도들에 의해 제작된 사천왕상은 나무와 진흙으로 제작하면서 다양한 요소를 복합적으로 구성한 형태로 제작 수준과 표현기법 등이 뛰어나다. 측면 가구를 통해 천왕문을 건립하고 사천왕상을 제작한 것으로 보이고 출목도리 장여와 대들보 위에 부재를 걸쳐 사천왕상을 결속하고 있다. 공포는 외단의 쇄서형과 삼분두 그리고 내단의 교두형, 연화형 등이 간결하지만 원초적인 모습을 하고 있고, 내·외 2출목으로 간결하지만 강직한 조선 중기 특성을 보이고 있다.

학술적인 측면에서 1612년 9월 중창하여 대목장이나 화사 그리고 사찰과의 관계와 제작자 등이 수록되어 지역의 승장의 계보와 사찰의 연관성 등의 연구가 기대된다. 임진왜란 때 승군의 활약한 사찰에 팔도도총섭 벽암 각성과 문도들에 의해 조성된 비례와 규모 그리고 사실적인 기법 등에서 우수하고, 이후 사찰의 사천왕과 사천왕문에 영향을 주고 있다. 사천왕문의 건립 시기와 변천 과정 등을 통해 벽암과 관련된 사찰과 비교 연구의 기준이 되고 있다.

사천왕상과 사천왕문은 뼈대를 마루의 바닥을 통과하여 지면에 닿도록 일체화시켜 결속하고, 부재를 가구에 결속하여 천왕상의 신체 일부나 지물을 매달아 하중을 분담하고 있다. 정칸을 통로로 하는 다포 맞배집으로 의장성을 고려하여 포간거리를 같게 한 창건 당시의 모습으로 추정된다. 17세기 초반에 조성된 사천왕문 중 초기에 해당하는 내외 2출목 다포 맞배집의 기준이 되는 대표적인 산문 건축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보물로 지정된 수작 소조사천왕상과 더불어 지역의 승장과 사찰의 연계성 그리고 벽암과 관련된 집단의 활동과 전수 그리고 지역성과 건축적 특성 등에서 학술적 가치를 갖는다고 판단된다.

※ 대상 문화재의 핵심 보존가치

- 1612년 9월 선수에 의해 분증창하고 1628년 사천왕상을 제작하여 안치한 이후 변화가 확인되는 시대성
- 계류와 어우러진 선종사찰의 자유로운 공간구성, 우화각과 어우러진 구성, 어칸을 기준으로 진입 통과 깊이를 고려한 정면과 측면의 비, 내부의 팔각주의 의장적 조형성, 1628년에 벽암대사와 그의 문도들에 의한 소조로 우수한 제작 수준과 표현기법, 측면 가구를 통해 천왕문 건립 후 사천왕상을 제작하고 가구와 일체된 부재로 보완, 공포는 내·외 2출목으로 쇠서, 삼분두, 교두형 등의 조선 중기 특성 등의 의장성
- 제작자와 사찰과의 관계를 통한 계보와 연관성, 벽암 각성과 문도들에 의한 비례와 규모 그리고 기법 등의 비교, 사천왕문의 건립 시기와 변천 과정, 사천왕상과 사천왕문의 일체화 방법, 계획된 다포 맞배건축의 기준 등의 학술성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23.06.28.	대상문화재	순천 송광사 천왕문	
조사자	성명	○○○	전공 분야	건축역사
	소속	○○문화재단	직위(직책)	수석연구원 (문화유산팀장)
주요 지정 사항 검토	문화재 종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문화재 명칭	순천 송광사 천왕문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조계산 자락에 있는 송광사는 僧寶사찰로 경내에는 약 80여동의 건물이 있으며, 국사전을 비롯한 국보 3건과 보물 15건 등 총 24건의 문화재가 보존되어 있음		
	연혁·유래 및 특징	송광사 천왕문은 1597년에 훼손되었던 것을 1609년(광해군1)에 重創을 시작하여 1612년(광해군 4) 上樑되었으며, 사천왕상은 1628년(인조 6)에 重造하였음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천왕문은 악귀를 쫓아 신성한 가람영역을 표시하는 중요한 구성요소로 송광사 천왕문은 조성연대가 뚜렷하고 조선 중기의 벽암계의 특징을 잘 간직하고 있음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57㎡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천왕문’과 ‘사천왕문’으로 혼용되어 지칭되고 있으나 고문헌 및 고지도에 ‘천왕문’으로 대부분 표기되어 있어 지정명칭을 ‘순천 송광사 천왕문’으로 지칭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함		
종합의견		조선시대 대표적인 목조 산문건축으로 가치가 인정되어 2006년 보물로 지정된 내부 목조 사천왕상과 함께 보물로 지정하여 보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3 년 10 월 5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순천 송광사는 기록에 의하면 신라 말 혜린(慧璘) 선사가 송광산 길상사(吉祥寺)라는 이름으로 창건하였다고 전해진다. 고려 신종 때 조계종의 창시자인 지눌선사가 정혜결사를 이곳으로 옮겨와, 수선사(修禪寺)로 하였다. 이후 산 이름이 조계산으로 바뀌면서 절 이름도 수선사에서 지금의 송광사로 바뀌었다고 한다. 불교 佛, 法, 僧의 삼보(三寶) 중 승보사찰로 현재까지 수선의 도량으로 그 기능을 이어 오고 있다.

송광사 천왕문은 1951년 대화재 당시, 재난을 피한 건물로 1462년(세조 8) 건립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정확한 기록은 없다. 1597년에 정유재란으로 훼손되었던 것을 『송광사지』에 1609년(광해군1)에 중수한 기록이 있는데 2004년에 해체보수하는 과정에서 상량목서에서 1612년(광해군 4) 중창(重創)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천왕문 내부에 봉안된 사천왕상도 이때 보수를 진행하면서 복장유물을 수습하였는데 1628년(인조 6) 응원(應圓)을 중심으로 조각승들에 의해 중조(重造)된 것을 알 수 있다.

송광사 천왕문의 위치는 일주문을 지나, 계류 위의 흥예교에 가설된 누각인 우화각을 통과하면 바로 천왕문에 이르게 된다. 진입시 우와각과 천왕문의 어칸 기둥 간사이가 유사하여 우화각과 천왕문이 하나의 건물로 착각하게 되지만 엄연하게 지붕이 분리된 각각의 건물이다. 천왕문에 들어서면, 진입자의 좌측으로 북방다문천왕(北方多聞天王)과 남방증장천왕(南方增長天王)이, 우측으로 동방지국천왕(東方持國天王)과 서방광목천왕(西方廣目天王)이 서로 마주하여 있다. 북방다문천왕은 북방의 수호신으로 많이 듣고 두루 듣는다고 하며 비파를 들고 있다. 남방증장천왕은 수미산의 남방을 지키는 신으로 중생의 이익을 더욱 길고 넓게 키워준다고 하며, 오른손에 용을 움켜쥐고 있다. 동방지국천왕은 동방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국토를 지키고 중생을 편안하게 한다고 하며, 왼손을 허리에 짚고 오른손에는 날카로운 칼을 지물로 들었다. 서방광목천왕은 수미산 서쪽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세 개의 눈으로 널리 보고 모든 것을 아는 천신이라고 한다. 허리를 짚은 왼손으로 호랑이를 잡고 있으며 커다란 오른손에는 지물(持物)로 당(幢)을 쥐었다.

송광사 천왕문 규모는 정면 3칸, 측면 3칸의 다포계 맞배집으로 내부에는 팔각형 심고주를 세워 대들보를 받게 하였다. 다른 사찰의 천왕문과 마찬가지로 어칸은 개방하여 통로로 이용하고 좌우측면의 벽면은 심벽으로 처리하였으며, 전후면의 벽면에는 살창을 두어 통풍이 되도록 하였다. 통로의 좌우에는 홍살을 세우고 공간을 구분하였다. 기단은 한 단의 나지막한 자연석 기단으로 구성하였고, 전면을 제외한 3면에 자연석을 쌓아 배수로를 만들었다. 기단 위에 자연석 초석을 놓고 원형의 기둥을 세워 하부는 그랭이 질 하였다. 사천왕상을 봉안한 좌우 퇴간의 바닥에는 우물마루를 깔았고 통로부분과 기

단 윗면에는 강회다짐을 하였다. 지붕가구는 5량가로 전후면의 평기둥 위에 대들보를 걸고 상부에 동자주를 세우고 종보를 걸었으며 종보 위에는 파련대공을 세워 종도리를 받쳤다. 대들보의 하부에는 팔각형 단면의 심고주를 세워 대들보를 지지하게 하였다.

전후면의 기둥 위에 창방을 걸고 평방을 놓아 다포계의 공포를 형성하였다. 공포는 건물의 전후면에만 구성하였는데, 어간에는 2조, 좌우 뒷간에는 1조씩의 포작을 올렸다. 공포는 내·외 2출목으로 제공의 외단은 1·2제공은 양서, 3제공은 삼분두로 하고 4제공은 운공으로 하였다. 내단은 공간포의 경우, 1·2제공은 교두형, 3제공은 권비형으로 하였다. 첨차는 소첨차와 대첨차가 사용되었는데 첨차의 끝면은 직절하고 하단은 호형으로 가공한 교두형 첨차를 사용하였다. 내부 천장은 산문의 성격에 맞게 연목이 노출되는 연등천장으로 하였으며 부연을 사용한 겹처마로 구성하였다

사천왕은 수미산의 네 방위를 지키고 수호하는 호법신이다. 사천왕이 지닌 호국적 성격으로 인해 임진왜란 이후인 인조 대에 많은 사천왕상이 조성되었다고 한다.

<종합의견>

순천 송광사는 신라말 ‘혜린(慧璘)’에 의하여 창건되었으며, 불교 佛, 法, 僧의 三寶 중 승보사찰로 현재까지 수선의 도량으로 그 기능을 이어 오고 있다. 송광사 천왕문은 상량목서 등을 통하여 조성시기가 명확하게 밝혀진 건물이다. 특히 임진왜란 이후 호국불교가 중요시 되는 시점에 승군을 조직하여 직접 전쟁에 참여하였던 부휴 선수대사와 제자인 벽암 각성대사의 주도로 처음 건립된 건물 중 하나이다. 사찰 초입에 악귀의 침입 막는 거대 사천왕상을 건립하는 것은 신성한 사찰공간을 지키기 위한 수호의지를 보여준다는 의미와 함께 호국사상을 반영한 거대 사천왕상 건립과 17세기 유행에 영향을 준 최초 건물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가 깊다.

또한 송광사 천왕문에서 보이는 다포계 의장 기법은 벽암계에서 이어지는 예술성을 볼 수 있는데 이후 법주사 대웅전, 완주 송광사, 구례 화엄사 등 다른 건물들과의 비교를 통하여 축조기술 전통을 확인할 수 있다. 송광사 천왕문에서 시작된 축조기법의 경험은 발달을 통하여 이후 조선 중기 사찰 중흥의 견인차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조선시대 중기 목조기술의 발달과정을 연구할 수 있는 학술적 가치도 높다.

송광사 천왕문은 왜란으로 전소후 1609년(광해군1)에 중수를 시작하여 1612년(광해군4) 중창(重創)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천왕문 내부 사천왕상의 복장유물을 수습하면서

1628년(인조 6)년 중조(重造)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거대 소조불 조성을 계획하면서 건물이 먼저 건축되고 이후 내부 소조상이 축조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후 유지관리를 위한 수리공사가 8차례 진행되었음에도 현장조사에서 비교적 시대적 특성을 담은 원형의 부재와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정성과 완전성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



<송광사 천왕문 공포>



<법주사 대웅전 공포>

※ 대상 문화재의 핵심 보존가치

송광사 천왕문은 임진왜란 이후 호국불교가 중요시 되는 시점에 승군을 조직하여 직접 전쟁에 참여하였던 부휴 선수대사와 제자인 벽암 각성대사의 주도로 처음 건립된 건물 중 하나로 벽암계에서 이어지는 예술성을 볼 수 있다. 송광사 천왕문에서 시작된 축조기법의 경험은 발달을 통하여 이후 조선 중기 사찰 중흥의 견인차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조선시대 대표적인 목조 산문 건축으로 가치가 있다.

따라서 고증자료 조사 및 현장조사 결과 2006년 보물로 지정된 내부 소조 사천왕상과 함께 보물로 지정하여 보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23.06.28	대상문화재	순천 송광사 사천왕문	
조사자	성명	○○○	전공 분야	전통 건축
	소속	○○○문화연구소 ○○	직위(직책)	대표
주요 지정 사항 검토	문화재 종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문화재 명칭	순천 송광사 사천왕문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세부내용 별첨 참조		
	연혁·유래 및 특징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세부내용 별첨 참조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3 년 11 월 22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1.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송광사는 전남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조계산에 위치하고 있다. 조계산은 호남정맥의 한 봉우리를 형성하는 산이다. 호남정맥(湖南正脈)은 서쪽에 만경강, 동진강, 영산강 등을 두고 동쪽에 섬진강을 따라 서남쪽으로 뻗어내려간 정맥이다. 호남정맥은 정읍의 내장산, 담양의 추월산, 광주의 무등산 등 큰 산봉우리를 뺏은 후 순천에 이르러 해발 887m의 조계산을 뺏었다. 「대동여지도」에 의하면 동리산이 서쪽으로 흘러 아미산을 뺏었고 여기서 하나의 지류가 나와 멀리 서남쪽에 조계산을 뺏고 있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다. 조계산은 송광산이라고 부르는데 사찰의 명칭이 송광사인 것은 산의 명칭을 따라 지어진 것이다. 사적기에 의하면 송광(松廣)이라는 뜻은 十八명의 공이 차례로 계속 배출되어 널리 불법을 펼친다는 의미를 갖는다고 한다.

조계산 자락 안에 넓고 아늑한 공간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곳에 송광사가 위치하고 있다. 규장각에 소장 되어 있는 『순천송광사사적』의 「송광사도」를 통해 사찰 주변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진락대(眞樂臺) 뒤편에 높게 솟은 봉우리를 주산(主山)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주산 오른쪽의 높은 봉우리를 호령봉(號 令峯), 사찰 정면의 왼쪽편 높은 봉우리를 조계산(曹溪山)이라고 하고 있고, 오른쪽편 봉우리를 망수봉(望水峯)이라고 표현했다. 또한 사찰 정면의 낮은 봉우리를 당산(堂山)이라고 하고 있고 당산을 넘어 멀리 동북(同福)의 모후산(母后山)이 위치하고 있다. 송광사를 감싸고 있는 계류인 신평천은 사찰의 좌측 호령봉에서 발원해 사찰을 감싸 흐르고 있으며 사찰 우측에서도 하나의 계류가 흘러 서로 모여 주암호로 흘러간다. 사찰의 좌향은 甲坐庚向이라고 하고 있다. 갑좌경향은 서향에 해당한다. 사찰이 위치한 대지는 높은 축대로 양분되는데 산간에 위치한 상대와 하부에 위치한 하대로 구분된다. 하대에도 그리 높지 않은 축대로 양분할 수 있다. 사찰의 입구에는 계류가 흐르고 있어 이를 건너야만 사찰 내부에 진입할 수 있다.

2. 송광사 사천왕문의 연혁·유래 및 건축적 특징

1) 연혁 및 유래

송광사의 역사와 관련된 문서 중 현재 가장 오래된 기록은 1207년에 최선(崔詵; ? ~ 1209)이 기술한 「대승선종조계산수선사중창기(大乘禪宗曹溪山修禪社重創記)」 7)이다. 이 기록에 의하면 송광사 창건은 신라 말 혜린(慧麟)이라는 승려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한다. 이후 송광사의 창건과 관련된 모든 기록에서 사찰의 창건은 신라시대 혜린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일관되게 기록하고 있다. 혜린이 어느 시대 어느 종파의 승려인지 알려진 바는 없다. 자료에는“昇平郡管内富有縣曹溪山者古之松廣山也 修禪社者古之吉祥寺也 新羅時僧慧麟者始創而居 厥後星霜屢換風飄搖遷棟 壞崩堂宇略盡 雖村夫野 之居不穀於此矣”라고 기록 하고 있다. 당시 산의 이름은 송광산, 사찰명은 길상사라고 했음을

알 수 있다.

「대승선종조계산수선사증창기」에서는 이후「仁廟朝山僧釋照將欲創成大刹鳩材集工而不幸身沒其所成 立更皆以爲墟迫二十餘年」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다른 모든 사적기에서 이 부분을 인용하고 있다. 후에 보조국사가 사람들을 시켜 새로운 땅을 구하기 위해 강남을 유람하던 중 길상사의 땅을 보고“사 우의 범위가 100여간에 지나지 못하고 거주하는 승려는 겨우 3·40을 넘지 못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100여간의 사찰이 실제 경영되고 있었다면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사찰이라고 할 수 있다. 송광사의 증창과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송광사 증창

순번	구분	내용
1	보조국사의 증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산(公山) 거조사(居祖寺) 득재(得才)선사가 보조국사(普照國師)를 요청하여 정혜결사(定慧結社)를 결성 • 「대승선종조계산수선사증창기」 명종 27년 정사년(1197) 나무를 베고 흙을 나르기 시작해 사찰을 경영하였는데 80여 간이었음. 공역을 마친 시기는 1205년이며 그해 10월 1일 조지(朝旨)를 받들고 약 120일간 경찬법회를 열었다고 전함 • 「송광사사원사적비(松廣寺嗣院事蹟碑)」 1197년에 공사가 시작되었다고 하며, 경신년(1200년)에 보조국사가 이 절로 본사(社)를 옮겼으며 이에 그 건물을 백여간으로 넓혔다고 함. 9년 만인 1205년 공사를 끝냄
2	진각국사의 제2증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각국사비(眞覺國師碑)」 강종(康宗 ; 1211~1213 재위)은 유사(有司)에게 수선사의 증축(增築)을 명해 공사를 시작하고, 여러 차례 중사(中使)를 보내 역사(役事)를 감독하게 한 끝에 크게 확장 • 『고려사절요』 31권 신우 2편 : 우왕(禎王) 6년(1380) 3월에 왜적이 순천 송광사를 침범했다는 기록
3	고봉화상의 제3증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계산수선사증창조고봉화상행장」의 문서명에 증창조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현재 송광사의 기본틀이 이때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 • 1448년 5월에 번와관련 기록 (大施主 李末金伊兩主從山田貴孫兩主令音文里, 박물관 기와 보관) • 1461년 5월 11일에 하사당을 상량 • 1504년 응진당을 건립 • 1490년 6월 11일 彌勒殿(龍華堂)을 상량 • 1533년 4월19일에는 鎮南門을 상량했으며, 1543년에는 부사 沈通源의 도움으로 臨鏡堂을 창건함. 1588년과 1592년에는 說法殿을 중수한 기록
4	응선, 선수대사의 제4증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경당수각천자암보조암증창기」 임진, 정유란을 거치면서 수각, 임경당, 보조암, 천자암 만 이 피해를 입었다고 기술 • “普照庵臨鏡堂祖殿天王門 大木 學正 …… 天王門化士 智 ” 천왕문이 수각에 포함되는 건물인지 명확하지 않으나 화재 당시 보이지 않던 천왕문이 이때 새롭게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사천왕문에 대한 기록)
5	임인년 회록과 제5증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42년 송광사에 큰 화재 발생 • 화재 결과 소실된 부분은 총 2,152칸이며 남은 부분이 750칸. • 조계문은 여존부(餘存部)에 포함되어 있어 최소한 1842년 이전에 건축되었던 것으로 짐작
6	제6증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85년에 도성당(道成堂)에서 발생한 화재로 발운요(拔雲寮)를 포함해 도합 150여간, 공루(空樓) 32칸이 소실

순번	구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22년 경 주지 설월(雪月)이 송광사를 중신(重新)하고자 함. 다음해 율암(栗庵)이 관부와 교섭해 1923년 5월에 인가를 받음. 이후 1924년부터 사찰 내 대규모 중수가 순차적으로 진행. 주로 보수하고 번와하는 일이 대부분이었음. 《송광사사고》에 전해지고 있는 많은 상량문과 기문들은 이때 당시에 구해진 것이 정리되어 전하는 경우가 많음.
7	제7중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25 전쟁 때 산중에 숨어지내던 공비의 방화로 사찰의 대부분이 소실 • 주지 금당(錦堂)이 1955년부터 사찰 재건의 계획을 세웠고 취봉(翠峰)이 화주가 되어 1957년 박물관을 건립 • 주불전인 대웅전은 1958년부터 건립하기 시작해 1960년에 완공 • 1960년에는 해탈문이 있던 자리에 종고각(鐘鼓閣)을 새롭게 건립
8	제8중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3년 3월부터 5년간에 걸쳐 방장 구산(九山)과 주지 현호(玄虎)의 노력으로 8차 중창불사가 시작 • 8차 중창불사는 과거 송광사의 영예를 다시 회복하기에 충분한 거대한 규모의 중창 • 거대한 亞자형 평면의 대웅보전(大雄寶殿)을 새롭게 건축 • 그 외 지장전, 성보각, 목우헌, 인월암 등 다수의 건물 건립

순천 송광사 사천왕문은 1462년(세조 8)에 초창, 조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정확한 기록이 없어 연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연혁을 통하여 순천 송광사가 현재의 모습을 갖춘 것으로 추정되는 고봉국사의 제 3 중창 때 상단의 건물들이 15-16세기 사이에 건립되는데 사천왕문도 15세기 중반 이후에 건립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사천왕문 보수공사 때 복장조사에서 명문을 통해 1461년 하사당이 건립될 무렵 조성되었으므로 1462년 이후에 건립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상량에 나타나는 연혁은 제 4 중창으로 「임경당수각천자암보조암중창기(臨鏡堂水閣天子庵普照庵重創記)」¹⁾에 1609년(광해군 1) 선수(浮休善修, 1545~1615)대사가 문도 각성(覺性)을 비롯해 400여 사람을 데리고 와 조진, 동행랑, 천왕문 등을 신축하고 전각을 수보(修補)하고 있다.²⁾ 신축이라고 표현한 것은 1597년 정유재란으로 훼손된 이전의 천왕문과 사천왕상을 1609년(광해군 1) 가을에서 겨울 사이에 중수한 건물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사천왕상 복장유물 묵서명 기록에 의하면 1597년 정유재란으로 훼손된 천왕문과 사천왕상은 1609년(광해군 1)에 천왕문이 중수된 것으로 확인된다. 사천왕상은 1628년(인조 6)에 수화사 응원(應圓)을 중심으로 고한(高閑), 석호(釋湖), 법해(法海), 계웅(戒雄), 석삼(釋森), 회간(懷澗), 천익(天翼), 이환(離幻), 천연(天然), 성열(性悅), 삼인(三忍), 신회(信懷), 법단(法端) 등에 의해 조성되었다고 『조계산 송광사사고(曹溪山松廣寺史庫)』에 기록되어 있다. 1720년(숙종 46), 1806년(순조 6), 1891년(고종 28), 1926년, 1941년, 1976년, 2004년, 2008~2010년까지 총 8차례 중수 개체 하였다. 1951년의 대화재 시에 재난을 피한 건물이다.

1) 『조계산 송광사사고』, 앞의 책, pp.188~192 「臨鏡堂水閣天子庵普照庵重創記」

2) 『대승선종 조계산 송광사지』, 앞의 책, pp.16~18

2) 건축적 특징

송광사의 전체 영역은 크게 4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대지의 높이에 따라 상대, 중대, 하대로 구분 할 수 있고, 계류 건너편에 따로 담장으로 설정된 화엄전 영역이 있다. 일주문이 위치한 곳은 계류 근처 하대 영역으로 청량각을 지나 계곡을 따라 오르면 일주문의 위치한다. 이 문을 통해 경내에 들어서게 되며 삼청교와 천왕문 측으로 축을 꺾어 진입하면 대웅전 영역이 나온다.

사찰의 입구 및 하대 영역은 이전과 비교해 커다란 변화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 기존 건축물들이 대부분 그대로 위치하고 있으며 몇 채의 건물들이 새롭게 영건되었다. 사찰의 입구인 조계문과 세월각, 척주각이 그대로이며 우화각, 천왕문, 침계루, 임경당, 해우소가 기존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 침계루 뒤편의 범성료는 크기가 축소되었고 새롭게 거대한 정혜사를 건립했다. 또한 침계루 동쪽 편으로 계류를 따라 육화당, 강원, 안양원, 선열당을 새롭게 건립했다. 기존에 이곳에는 향노전과 원불당 등이 위치하고 있었다. 임경당 서쪽 편 땅에도 몇 개의 건물이 신축되었다. 가장 커다란 건물로 탐진당을 들 수 있는데 현재 사찰의 종무소로 사용되고 있다. 탐진당 서쪽 편에는 선방 및 체력단련장이 만들어졌고, 탐진당 북쪽에는 화진당을 건립했다. 탐진당 정면에는 커다란 마당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 마당을 통해 화진당과 효봉영각에 진입할 수 있다. 효봉영각은 비록 중대에 위치하고 있는 건물이지만 탐진당 마당을 통해서 진입할 수 있게 만들었다.

사천왕문은 정면의 우화각을 통해 진입한다. 우화각의 지붕은 진입부에 팔작지붕을 천왕문 측으로는 맞배지붕을 구성하였는데 후면에 위치한 천왕문의 지붕과 면이 인접하여 마치 T자 지붕형태의 한 채 건물처럼 인식되기도 한다. 현재 사천왕문은 정면 3칸, 측면 3칸의 다포계 맞배 건물로 현재까지 약 8차례의 수리를 거친 조선 후기의 건축물로 추정된다.

<기단 및 평면>

사천왕문 기단은 화강석을 거칠게 다듬은 자연석을 사용하여 외별대 자연석 기단으로 우화루에 인접한 정면을 제외한 3면에는 자연석 배수로를 두었다. 외부기단 상부는 강회다짐으로 구배를 두어 마감하였고 내부 정칸에도 강회다짐하였다. 기단 위에는 자연석 주초석을 두고 민흘림의 원주를 세웠는데 초석의 높이가 모두 다르기에 하부는 그랭이질 하여 높이를 맞추었다. 정면과 배면에는 박석 포장한 진입로를 두어 이용객의 안전과 파손을 방지하였다.

송광사 사천왕의 평면은 정면 3칸, 측면 3칸의 장방형이다. 기둥의 크기는 평주가 직경 380mm, 우주가 420mm이며 원형이다. 내부에는 팔각주를 사용하였는데 그 크기가 약

330mm로 대들보 하단에 맞대어 지지한다. 평면구성은 정면의 경우 정칸이 3,750mm, 협칸이 2,520mm이며 측면은 정칸이 3,150mm, 퇴칸이 1,580mm이다. 양 협칸에는 사천왕상을 본안하고 있는데 바닥에 우물마루를 두었다. 마루는 하인방의 역할을 하는 장귀틀에 동귀틀을 결구하였는데 그 크기가 450X180mm이다. 마루 청판은 7~8장으로 나뉘어져 있다.

<가구>

지붕 가구는 무고주 5량가로 전후면의 평기둥 위에 대들보를 걸고 상부에 동자주를 세우고 종보를 걸었으며 종보 위에는 파련대공을 세워 종도리를 받쳤다. 대들보의 하부에는 팔각주를 두어 지지하게 하였는데 상단에 작은 주두와 안초공을 두어 보다 안정적으로 상부 하중에 대응하게 하였다.

<공포>

기둥상부에는 창방과 평방을 두고 주상포와 주간포를 형성하였다. 공포는 정면과 배면에만 두었고 측면에는 공포 없이 2고주와 보로 간결하게 처리하였다. 공포 구성은 내·외 2출목으로 3제공과 보를 두었다. 주두 위에 초제공과 이제공을 두었는데 쇠서형으로 하단으로 우직하게 뻗어있다. 삼제공은 삼분두 형식이며 주간포에만 있는 사제공도 그 형태가 유사하다. 제공의 내단은 하단을 굴린 교두형이다. 귀포는 주상포구성에 도리와 장혀를 뿔목 처리한 것으로 보아 형태변화 없이 맞배 다포의 형식이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다포계 공포 구성의 경우 외출목보다 내출목이 1개 더 많은데 내외 출목이 같고 쇠서형 제공, 삼분두의 사용으로 보아 비교적 조선 초·중기 구성을 계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배면 공포



귀공포



내부 고주 안초공

<지붕>

지붕은 맞배지붕으로 전면과 후면 모두 서까래와 부연을 구성한 겹처마를 설치하였고, 측면은 하단을 둥글게 처리한 풍판을 달았다. 풍판과 들보 사이는 순각판으로 마감하였다. 중와 규격의 한식 기와를 사용하여 2겹 반 이음을 하였으며, 용마루는 5단, 내림마루는 3단으로 구성하였다. 기와 마감은 막새, 용마루와 내림마루 끝에는 망와를 올

렸다. 천정은 연등천정이다.

<부휴선수, 벽암 각성과 사천왕문>³⁾

벽암 각성은 천왕문 건립 확산 요인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인물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丙子胡亂, 1636~1637)때 승군(僧軍)을 이끌며, 전공을 세운 대표적인 의승군이다. 각성은 임진왜란 때는 스승 부휴 선수(浮休 善修, 1543~1615)를 대신해 해전에 참여해 큰 공을 세웠고, 1624년 남한산성 축조의 책임을 맡아 2년 만에 완성했다. 이후 전란으로 소실된 사찰들의 재건 불사를 맡아 진행하였다.

연도	불사 내용
1601년	순천 송광사 相殿 및 同行廟 중수, 天王門 신축(1601년(광해군))
1622년	안주 송광사 화엄법회 개최 및 중창
1624년	합천 해인사 중창, 보은 법주사 중창
1630년	구례 화엄사 중수
1632년	하동 쌍계사 중수
1642-1644년	안변 신흥산 석왕사 중건
1649-1651년	속초 실악산 신흥사 중수

표1. 벽암 각성이 참여한 불사

순천 송광사 천왕문은 천왕문 보수공사와 사천왕상 복장 조사 당시 발견된 명문 등을 종합하여 1462년(世祖 8) 초창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천왕문은 1597년에 정유재란으로 피해를 입고, 1609년에 중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松廣寺 天王門 上樑文」(1612)에서는 1609년 이후 1612년에 부분 중수가 완료되었다고 전하고 있어 완전히 중수된 것은 1612년으로 생각된다. 1609년 중수는 부휴 선수가 제자 벽암 각성을 포함하여 400여 명을 거느리고 사찰을 중창하였다고 전해지며, 이때 임경당, 보조암, 천자암을 재건하면서 천왕문도 같이 중창한 것으로 추정된다. 보고서에서는 천왕문이 수각에 포함되는 건물인지 명확하지 않으나 화재 당시 보이지 않던 천왕문이 이때 새롭게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오히려 벽암 각성보다 스승인 부휴 선수가 중창에 참여한 예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송광사지(松廣寺誌)의 사천왕상 조성에 대해, 1609년 천왕문이 중수되고 1628년(仁祖 6) 化主 法欽의 주도하에 應圓을 중심으로 高瀾, 釋湖, 法海, 戒雄, 釋森, 懷澗, 天翼, 離幻, 天然, 性悅, 三忍, 信懷, 法瑞 등의 조각승들에 의해 중조(重造)된 상이라 기록이 있어 상의 조성 또한 벽암과의 연관성이 높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다. 결과적으로 송광사 천왕문의 건립 연대와 상의 조성연대를 추정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벽암 각성의 영향이라 파악하기 어렵다. 그리고 당시 34세였던 벽암 각성이 불사에 참여했지만 실질적인 불사 주관자는 스승인 부휴 선수였고, 천왕문 안의 사천왕상은 20년이 지난 1628년이 되어서야 완성되었다는 점에서 벽암 각성의 영향으로 천왕문이 건립되었다고 추정하기에 무리가 있다. 또한 당시 부휴 선수의 영향력을 생각해봤을 때도 순천 송광사 천왕문 조성이 벽암 각성보다는 부휴 선수의 주관일 가능성이 높다.

<사천왕상>

3) 정여원, 「조선시대 천왕문의 성립 배경과 확산 과정」, 불교미술사학회, 2023, PP.347~349.

천왕문 안의 사천왕상은 천왕문 건축 이후 햇수로 20년이 지난 1628년이 되어서야 완성했다. 순천 송광사 천왕문 내부는 중앙 어칸에 통로를 내고, 좌우 협칸 내부에는 동방지국천왕, 서방광목천왕, 남방증장천왕, 북방다문천왕의 목조 사천왕상(四天王像)을 배치하였다. 사천왕상은 출입구를 기준으로 우측에 칼을 든 동방지국천왕, 비파를 든 북방다문천왕, 좌측에 용과 보주를 들고 있는 남방증장천왕, 당과 보서(寶鼠)를 들고 있는 서방광목천왕 순으로 배치되어 있다. 현재 보물 제1467호로 지정되어 있다.

표2. 벽암 각성이 주관한 사찰 천왕문 현황

연번	지역	사명	천왕문 건립연도	사천왕상 조성연도
1	전남 순천	송광사	1612년	1628년
2	충북 보은	법주사	1624년	1624년
3	전남 구례	화엄사	1636년	1632년
4	전북 원주	송광사	1636년 이전	1649년
5	경남 하동	쌍계사	1704년 (1978년 중수)	1705년

3. 지정 가치 및 근거 기준

1) 역사적 가치

순천 송광사는 승보사찰이자 조계총림으로 중요하며 역사적으로도 정혜결사 관련 역사적 가치가 확인된 중요한 절이다. 특히 경내에는 국가지정을 포함해 시도지정 역사문화자원을 다수 가지고 있다. 검토 대상인 사천왕문의 정확한 건립연대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몇 가지 사료와 사천왕상 복장조사 명문 등에서 확인과 유추가 가능하다. 먼저 연혁을 통하여 순천 송광사가 현재의 모습을 갖춘 것으로 추정되는 고봉국사의 제 3 중창 때 상단의 건물들이 15-16세기 사이에 건립되는데 사천왕문도 15세기 중반 이후에 건립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사천왕문 복장조사의 명문을 통해 1461년 하사당이 건립될 무렵 조성되었으므로 1462년 이후에 건립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상량문에서 확인되는 시기는 제 4 중창으로 1609년(광해군 1) 선수(浮休善修, 1545~1615) 대사가 신축하고 전각을 수보(修補)하고 있다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정유재란으로 인한 소실로 인한 중수를 추정하게 한다.

또한 사천왕상 복장유물 목서명 기록에 의하면 1597년 정유재란으로 훼손된 천왕문과 사천왕상은 1609년(광해군 1)에 천왕문이 중수된 것으로 확인된다. 사천왕상은 1628년(인조 6)에 조성되었다고 『조계산 송광사사고(曹溪山松廣寺史庫)』에 기록되어 있다. 1720년(숙종 46), 1806년(순조 6), 1891년(고종 28), 1926년, 1941년, 1976년, 2004년, 2008~2010년까지 총 8차례 중수 개체 하였다. 1951년의 대화재 시에 재난을 피한 건물이다.

2) 건축사적 가치

송광사의 전체 영역은 크게 4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대지의 높이에 따라 상대, 중대, 하대로 구분 할 수 있고, 계류 건너편에 따로 담장으로 설정된 화엄전 영역이 있다. 사찰의 입구 및 하대 영역은 이전과 비교해 커다란 변화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

사천왕문은 전면의 우화각을 통해 진입한다. 우화각의 지붕은 진입부에 팔각지붕을 천왕문 측으로는 맞배지붕을 구성하였는데 후면에 위치한 천왕문의 지붕과 면이 인접하여 마치 T자 지붕형태의 한 채 건물처럼 인식되기도 한다. 현재 사천왕문은 정면 3칸, 측면 3칸의 다포계 맞배 건물로 현재까지 약 8차례의 수리를 거친 조선 후기의 건축물로 추정된다. 지붕 가구는 무고주 5량가로 전후면의 평기둥 위에 대들보를 걸고 상부에 동자주를 세우고 종보를 걸었으며 종보 위에는 파련대공을 세워 종도리를 받쳤다. 대들보의 하부에는 팔각주를 두어 지지하게 하였는데 상단에 작은 주두와 안초공을 두어 보다 안정적으로 상부 하중에 대응하게 하였다.

공포는 정면과 배면에만 두었고 측면에는 공포 없이 2고주와 보로 간결하게 처리하였다. 구성은 내·외 2출목으로 3계공과 보를 두었다. 주두 위에 초계공과 이계공을 두었는데 쇠서형으로 하단으로 우직하게 뻗어있다. 삼계공은 삼분두 형식이며 주간포에만 있는 사계공도 그 형태가 유사하다. 귀포는 주상포구성에 도리와 장혀를 뺄목 처리한 것으로 보아 형태변화 없이 맞배 다포의 형식이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다포계 공포 구성의 경우 외출목보다 내출목이 1개 더 많은데 내외 출목이 같고 쇠서형 계공, 삼분두의 사용으로 보아 비교적 조선 초·중기 구성을 계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학술적 가치

순천 송광사는 보조국사 지눌에 의한 중창과 함께 승보사찰로서 중요한 사찰이다. 특히 사중의 관리를 통해 많은 사료와 문헌자료를 가지고 있어 중창과 관련된 실증적 확인이 가능하다. 특히 천왕문의 경우 1951년 송광사의 큰 화재 때에도 살아남은 전각이다.

특히 이 건축물은 천왕문 건립 확산의 주요 인물인 벽암 각성과 함께 그의 스승인 부휴 선수와 의 연관성으로 학술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벽암 각성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丙子胡亂, 1636~1637)때 승군(僧軍)을 이끌며, 전공을 세운 대표적인 의승군이다. 각성은 임진왜란 때는 스승 부휴 선수(浮休 善修, 1543~1615)를 대신해 해전에 참여해 큰 공을 세웠고, 1624년 남한산성 축조의 책임을 맡아 2년 만에 완성했다. 이후 전란으로 소실된 사찰들의 재건 불사를 맡아 진행하였다. 송광사 천왕문은 1462년 초창 이후 1597년에 정유재란으로 피해를 입고, 1609년에 중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시기에

이루어진 중수는 부휴 선수가 제자 벽암 각성을 포함하여 400여 명을 거느리고 사찰을 중창하였다고 전해지며, 이때 임경당, 보조암, 천자암을 재건하면서 천왕문도 같이 중창한 것으로 추정된다. 명확하지 않으나 화재 당시 보이지 않던 천왕문이 이때 새롭게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오히려 벽암 각성보다 스승인 부휴 선수가 중창에 참여한 예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사천왕상 조성과 관련하여 송광사지에 1609년 천왕문이 중수되고 1628년(仁祖 6) 조각승들에 의해 중조(重造)된 상이라 기록이 있어 상의 조성 또한 벽암과의 연관성이 높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다. 결과적으로 벽암 각성이 불사에 참여했지만 실질적인 불사 주관자는 스승인 부휴 선수였고, 천왕문 안의 사천왕상은 20년이 지난 1628년이 되어서야 완성되었다는 점에서 순천 송광사 천왕문 조성이 벽암 각성보다는 부휴 선수의 주관일 가능성이 높다.

<종합의견>

순천 송광사는 여러번의 화재와 중창으로 변화를 겪었지만, 꾸준한 중창과 노력으로 현재의 승보사찰로서 기능과 문화유산 보존의 가치를 유지하고 있다. 사천왕문은 건립 시기를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지만 사료를 통해 현재의 건물은 최소 17세기 초반으로 1612년 건축, 1628 사천왕상 조성이 유추된다, 특히 1951년 대화재에서도 재난을 피해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건물로 역사적 가치를 잘 계승하고 있다.

건축사적 측면에서는 우화루와 함께 구성하여 본 경내의 진입부에 전이공간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특별하다. 정면 3칸, 측면 3칸으로 사천왕상을 봉안한 협칸과 어칸의 바닥구조를 달리 두어 의장성과 편의성을 함께 도모하였다. 공포 구성은 내·외 2출목으로 3제공과 보를 두었다. 주두 위에 초제공과 이제공을 두었는데 쇠서형으로 하단으로 우직하게 뻗어있다. 삼제공은 삼분두 형식이며 주간포에만 있는 사제공도 그 형태가 유사하다. 귀포는 주상포구성에 도리와 장혀를 뿔목 처리한 것으로 보아 형태변화 없이 맞배 다포의 형식이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다포계 공포 구성의 경우 외출목보다 내출목이 1개 더 많은데 내외 출목이 같고 쇠서형 제공, 삼분두의 사용으로 보아 비교적 조선 초·중기 구성을 계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내부의 보 하단대들보의 하부에는 팔각주를 두어 지지하게 하였는데 상단에 작은 주두와 안초공을 두어 보다 안정적으로 상부 하중에 대응하게 하였다.

학술적으로는 천왕문 건립 확산의 주요 인물인 벽암 각성과 함께 그의 스승인 부휴 선수와의 연관성으로 가치를 가지고 있다. 특히, 천왕문의 중수와 함께 사천왕상의 조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벽암 각성이 불사에 참여했지만 실질적인 불사 주관자는 스승인 부휴 선수였음이 추정된다. 특히 천왕문 안의 사천왕상은 20년이 지난 1628년이 되어서야 완성되었다는 점에서 순천 송광사 천왕문 조성이 벽암 각성보다는 부휴 선수

의 주관일 가능성이 높다.

17세기 초반 조성된 송광사 사천왕문은 최근 여러 차례의 보수공사가 이루어졌지만 중창 당시의 위치와 형태도 잘 유지하고 있다. 사찰 진입부의 구성과 맞배 다포의 공포 구성 수법, 부휴 선수와 벽암 각성과 관련된 천왕문 건축 확산의 조성 계보 등에서 학술적 가치가 있다. 이에 따라 국가지정 문화재(보물)로 지정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 대상 문화재의 핵심 보존가치

1. 순천 송광사는 여러번의 화재와 중창으로 변화를 겪었지만, 꾸준한 중창과 노력으로 현재의 승보사찰로서 기능과 문화유산 보존의 가치를 유지하고 있음.
2. 사천왕문 건립과 사천왕상 조성 및 봉안의 시기를 유추할 수 있는 사료의 실증적 확인이 가능함.
3. 주변건축물과의 전이공간 형성과 쇄서형제공, 삼분두형식 제공을 통한 맞배 다포의 형식 구성, 대들보 하단 안초공 사용에서 건축사적 조영 기법이 돋보임.
4. 부휴 선수와 벽암 각성이 함께 관련된 17세기 초반 천왕문 건축 확산의 주체임.

10. 고흥 능가사 천왕문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검토

가. 제안사항

전남 고흥군 소재 「고흥 능가사 천왕문」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전남 고흥군 소재 「고흥 능가사 천왕문」을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 받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전라남도지사
- (2) 대상문화재 : 비지정 「고흥 능가사 천왕문」
 - 소재지 : 전라남도 고흥군 점암면 팔봉길 21
- (3) 신청내용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
 - 명칭 : 고흥 능가사 천왕문(高興 楞伽寺 天王門)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능가사
 - 소재지 : 전라남도 고흥군 점암면 팔봉길 21
 - 조성연대 : 조선시대
 - 수량 : 1동
 - 지정면적 : 66.46㎡
 - 구조/형식/형태 : 단층 목구조 / 정면3칸, 측면3칸 / 맞배지붕 / 홑처마

라. 현지조사 의견(2023.06.29. / 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 문화재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미흡.
- 문화재전문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미흡.
- 문화재전문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미흡.

마. 지정조사보고서 : 붙임참조

바. 의결사항

- 부결
 - 보물 지정가치 미흡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 부결 11명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23.06.29.	대상문화재	고흥 능가사 천왕문	
조사자	성 명	○○○	전공 분야	한국건축사
	소 속	○○대학교	직위(직책)	교수
주요 지정 사항 검토	문화재 종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문화재 명칭	고흥 능가사 천왕문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세부내용 별첨 참조		
	연혁·유래 및 특징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고흥 능가사 대웅전이 보물로 지정되어 있으며 천왕문 영역까지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에 포함되어 있음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세부내용 별첨 참조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3년 10월 12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1.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 환경

능가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제21교구 본사인 송광사의 말사로서 전라남도 고흥군 점암면 팔영산(八影山) 기슭에 자리하고 있다. 능가사가 자리한 지형은 대체적으로 평탄하며 주변에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남쪽이 높고 북쪽이 낮은 지형을 따라 전체적으로 북향을 취하고 있다.

능가사는 사적비에 417년 신라 아도화상이 보현사로 창건했다고 하나 신빙성이 떨어진다. 다만 『신증동국여지승람』의 「홍양현 불우」 조에 보현사가 팔영산에 있다는 기록이 있어 적어도 조선 전기에는 사찰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능가사의 연혁 관련 기록으로는 임진왜란 이후 능가사의 중창 및 불사와 관련된 내용을 1688년에 비문을 작성하여 1690년에 세운 <전라도홍양현팔영산능가사사적비(全羅道興陽縣八影山楞伽寺事蹟碑)>와 1712년(숙종 38)에 작성한 능가사시창전후단월록서(楞伽寺始創前後檀越錄序)가 있다. 「능가사사적비」에 따르면 1644년(인조 22)에 벽천(碧川) 정현(正玄)대사가 방장산에서 하안거(夏安居)를 하다 꿈을 꾸게 되어 그의 스승인 벽암(碧巖) 각성대사와 상의한 후 광희(廣熙)스님과 함께 팔영산 자락에 옛 절터를 발견하여 20여 동에 이르는 불사를 일으켰다고 한다. 그리고 정현대사 입적 후에는 민정(敏淨), 의헌(義軒), 상기(尙機) 등이 스승의 뜻을 따라 문과 요사를 세우고 단청을 실시하는 등 사세를 확장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처럼 능가사는 17세기 중반에 대대적인 불사가 이루어지며 17세기 말에는 40여 동이 넘는 건물과 여러 암자까지 거느린 가람으로 성장하였다.

이후 능가사는 1768년 대웅전을 중건하였음을 볼 때 18세기 후반까지 사세를 유지하다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급격하게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능가사에는 천왕문이 사찰의 출입문의 기능을 하고 있으며, 천왕문을 들어서면 대웅전이 자리하고 있다. 대웅전 왼쪽에는 원웅료가 있고 뒤쪽으로는 응진당, 첨성각 등 5동의 건물이 있다.

능가사의 문화재로는 대웅전과 동종이 국가지정문화재인 보물로 지정되어 있으며, 능가사 사적비, 능가사 추계당 및 사영당부도, 능가사 목조사천왕상 등 3건이 전라남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2. 연혁 유래 및 특징

1) 능가사 천왕문 연혁

능가사 천왕문은 1995년 천왕문을 해체보수 과정에서 도리에 기록된 상량문 2개가 발견되었다. 첫 번째 상량문에는 1666년(현종 7)에 창건하였으며 도감(都監) 겸 화주(化主)는 신찬(信讚)이라는 기록이 있다. 그리고 1824년(순조24) 중창하였으며 도감(都監) 추과당 양초(秋坡堂 養初)라는 기록이 있다. 두 기록은 필체가 동일함을 볼 때

1824년 천왕문을 중창하면서 부재를 바꾸고 옛 기록을 그대로 옮겨 적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1690년에 세운 「능가사사적비」 후면에는 천왕문 화주(化主)는 시민(是閔)이고 별좌(別坐)는 회익(懷益)이며, 사천왕상의 화주는 천일(天日)과 충인(沖印)으로 기록되어 있다. 「능가사사적비」에는 새로 세운 건물과 중건한 건물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으므로 천왕문은 이전에 건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능가사 천왕문은 상량문에 기록된 1666년에 창건하고 1688년경 한 차례 중수가 있었으며, 1824년에 중창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현재의 건물은 양식적으로 볼 때 1824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두 번째 상량문에는 일제강점기인 1936년에 중창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어 이때 중수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1995년에는 해체보수공사가 이루어졌는데 이때 기둥과 보 등 주요 부재들이 많이 교체되었다.

2) 건축 특성

고흥 능가사 천왕문은 정면 3칸, 측면 3칸 규모의 건물이다. 가운데 칸은 사찰로 진입하는 공간이며 흙바닥으로 통로로 사용하고 있으며 좌우 측칸에는 마루를 깔고 사천왕상을 나누어 모셨다. 기둥 간격은 정면 정칸이 3,130mm, 좌·우 측칸이 각각 3,770mm, 3,820mm로서 측칸이 정칸보다 약 2자(尺) 정도 더 크다. 이처럼 측칸을 정칸보다 더 길게 설정한 것은 대형 사천왕상을 모시기 위함으로 보인다. 비슷한 사례로는 직지사 천왕문, 하동 쌍계사 천왕문, 통도사 천왕문, 흥국사 천왕문이 있다. 측면의 기둥 간격은 앞에서부터 1,960mm, 2,200mm, 2,230mm로 약간씩 차이를 보인다. 기둥 간격을 영조적으로 환산하면 대략 312mm로 추정된다.

기단은 1단으로 낮게 조성하였으며, 정면과 배면 통로 앞에는 계단을 설치하였다. 초석은 큼지막한 냇돌을 사용하였다. 기둥은 원기둥으로 10본이 사용되었는데 동측면과 배면의 기둥 6본은 신재로 교체된 것이다. 이때 기존 규격과 다르게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교체 기둥 하부 초석 (옛 기둥 흔적이 보임) 교체 기둥 주두 하부에 보이는 옛 기둥 흔적

가구 구조는 정칸과 측면의 구조가 다르다. 정칸은 5량 구조로서 전·후면 기둥에 대들보를 걸고, 대들보 상부에 동자주를 세워 보아지와 뜯창방을 십자로 결구하고 주두를 놓아 종보를 받도록 했다. 종보 위에는 초각한 판대공을 사용하였다. 측면은 2고주 5량 형식으로 아무런 조각이 없는 판대공을 사용하였다. 대량의 단면 크기는 430mm×510mm이며, 종보는 295mm×360mm이다. 주심도리, 중도리, 외목도리는 굴도리로서 직경은 310mm 정도이다. 중도리는 240mm×300mm의 납도리를 사용하였다. 도리의 배치는 3분 변작법을 적용하였다.



능가사 천왕문 공포



여수 진남관 공포



마곡사 영산전 공포

공포는 제주두를 사용하지 않은 외 2출목 3익공 형식으로 독특한 형식을 지니고 있다. 기둥 상부에 초익공을 결구하고 주두를 놓아 이익공과 삼익공을 올렸으며, 삼익공 위에는 운공을 설치하였다. 초익공과 이익공은 다포에서 볼 수 있는 제공과 유사한 형태이다. 초익공과 이익공 쇠서는 양서형인데 각각 연화와 연봉을 조각하였다. 삼익공은 익공형이다. 첨차는 소첨차와 대첨차를 사용하였다. 주심 첨차는 교두형이고 출목 첨차는 연화두형이다. 그런데 주심첨차를 보면 정면과 배면 모두 좌측과 우측이 다른 형태를 지니고 있다. 이는 후대에 중수하는 과정에서 바뀐 것으로 보인다.

화반은 정칸에만 설치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천왕문 내부에는 4구의 사천왕상(전라남도 유형문화재)이 봉안되어 있다. 이 상은 소조가 아닌 목조상으로 입구를 들어서면 오른쪽에 동방지국천왕과 남방지국천왕이 있고 왼쪽에는 북방다문천왕과 서방광목천왕을 배치하였다.

지붕은 홑처마 맞배지붕으로 내부 천장은 연등천장으로 개방하였다. 용마루는 착고, 부고 위에 5단의 적새를 올렸고, 내림마루와 추녀마루는 착고 위에 4단의 적새를 올렸다. 용마루와 내림마루에는 망와를 올렸으며 기와 끝은 막새를 사용하지 않고 와구토로 마감하였다. 측면에는 풍판을 달았는데 측면 기둥 상부에서 좌우측면 모두 장부 구멍이 확인된다. 이는 풍판을 달았던 흔적으로 보수하면서 바뀐 것으로 판단된다.



능가사 천왕문 화반(주심침차의 형태가 다름)



측면 고주 상부

3. 문화재 지정 가치 및 근거 기준

고흥 능가사 천왕문은 상량문 기록을 통해 1666년(현종 7)에 창건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능가사사적비」 비문이 작성되는 1688년 경 한차례 중수된 것으로 보인다. 이후 1824년에 중창되었고 1936년에 보수공사가 있었다. 이처럼 능가사 천왕문은 창건 및 관련 연혁이 명확하여 역사적 가치가 높다. 또한 능가사 천왕문은 전국적으로 많은 건물을 지은 벽암(碧巖) 각성대사의 제자들이 건립한 것이다. 벽암 각성대사가 중건한 것으로 전해지는 구례 화엄사, 하동 쌍계사, 완주 송광사는 사찰 초입에 일주문-금강문-천왕문이 차례로 배치되는 산문 체계를 갖추고 있다. 「능가사사적비」를 보면 능가사에도 일주문-해탈문(금강문)-천왕문이 차례로 배치되고 천왕문 안쪽에는 정문(正門)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능가사는 조선 후기 사찰의 산문 체계를 그대로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일정한 장인 조직의 계보를 이었다는 점에서

학술적 가치가 있다.

능가사 천왕문은 건축적으로도 독창적인 수법을 보여주고 있다. 공포는 외 2출목 3익공으로 독특한 구조를 지니며 다포계 공포의 특징을 지니고 있어 학술적 가치가 높다. 이러한 형식을 지니고 있는 건물은 여수 진남관, 마곡사 영산전 등에서도 볼 수 있는데 공포의 조각 수법이 서로 다르며 이는 건축 시기에 따른 차이로 보인다. 또한 평면은 정칸을 좌우 측칸보다 좁게 설정한 특징을 지니며, 화반을 정칸에만 설치한 것은 다른 건물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수법으로 건축적 가치가 있다.

<종합의견>

고흥 능가사 천왕문은 1666년에 창건되었으며 창건 및 중수 관련 연혁이 명확하여 역사적 가치가 높다. 또한 벽암 각성대사의 제자들에 의해 건립된 것으로 관련 인물도 가치가 높다. 그리고 2출목 3익공 형식의 공포와 정칸에만 설치한 화반을 설치한 것은 다른 건물에서는 쉽게 보기 어려운 독창성을 지니고 있다. 특히 공포의 경우 다포계 공포의 특징을 간직하고 있으며 주심첨차에서는 중수하면서 변화된 특징도 볼 수 있다. 그러나 능가사 천왕문은 1995년에 보수하면서 기둥, 대들보, 도리 등 주요 부재들이 대다수 교체되었으며 창호 및 외관도 변화되었다. 특히 기둥의 경우에는 기존 규격보다 작은 것을 사용하여 입면의 비례감이 바뀌는 문제가 있으며, 측면 풍판의 설치 방법도 옛 수법을 상실하였다. 고흥 능가사 천왕문은 역사적, 학술적, 건축적 가치가 높으나 수리 과정에서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일부 상실하여 국가지정문화재인 보물로 지정하기에는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 대상 문화재의 핵심 보존가치

2출목 3익공 형식의 공포

내부에 봉안된 사천왕상의 독특한 배치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230629	대상문화재	고흥 능가사 천왕문	
조사자	성명	○○○	전공 분야	한국건축사
	소속	○○대학교	직위(직책)	교수
주요 지정 사항 검토	문화재 종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문화재 명칭	고흥 능가사 천왕문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세부내용 별첨 참조		
	연혁·유래 및 특징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세부내용 별첨 참조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3 년 8 월 30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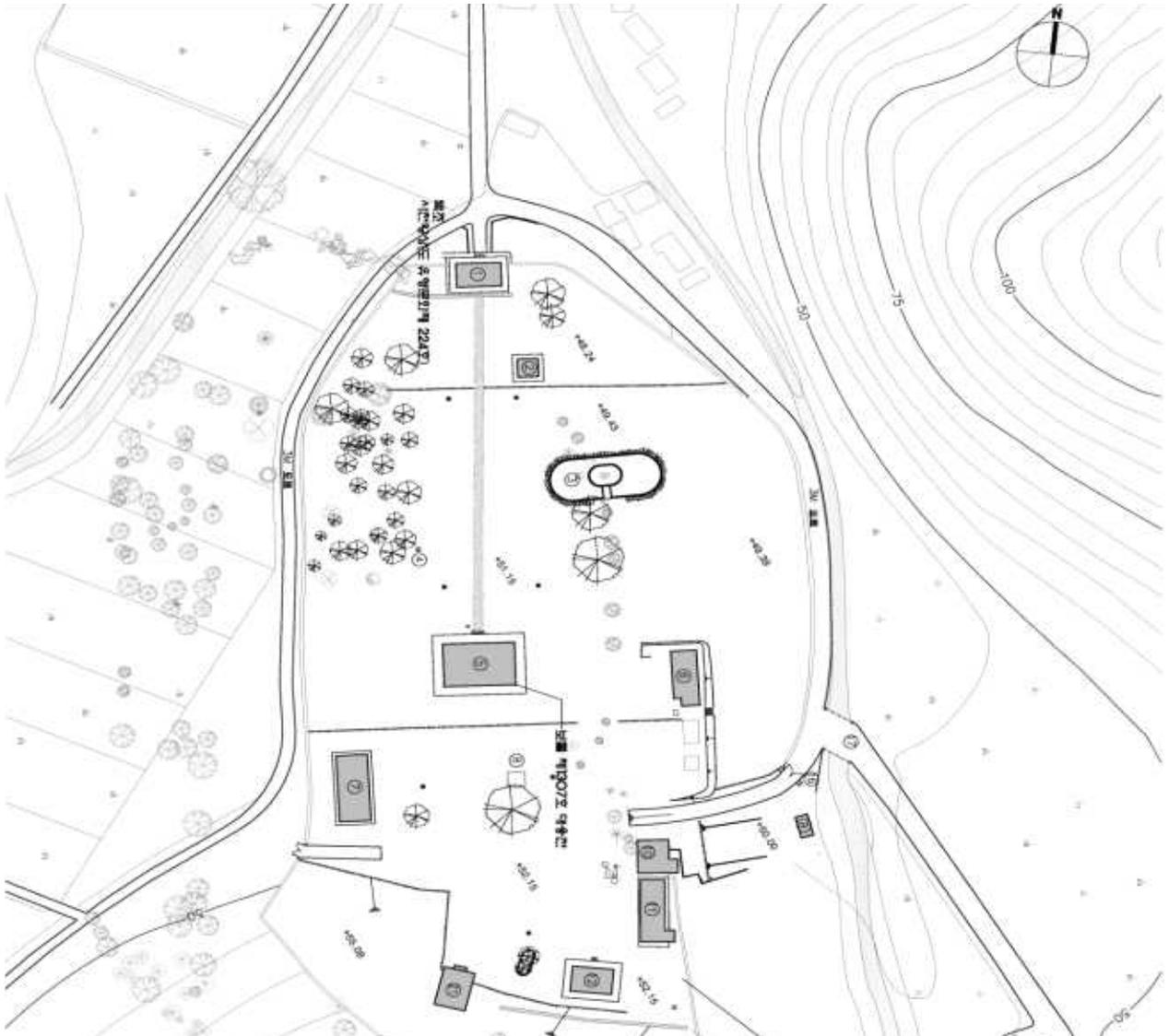
1.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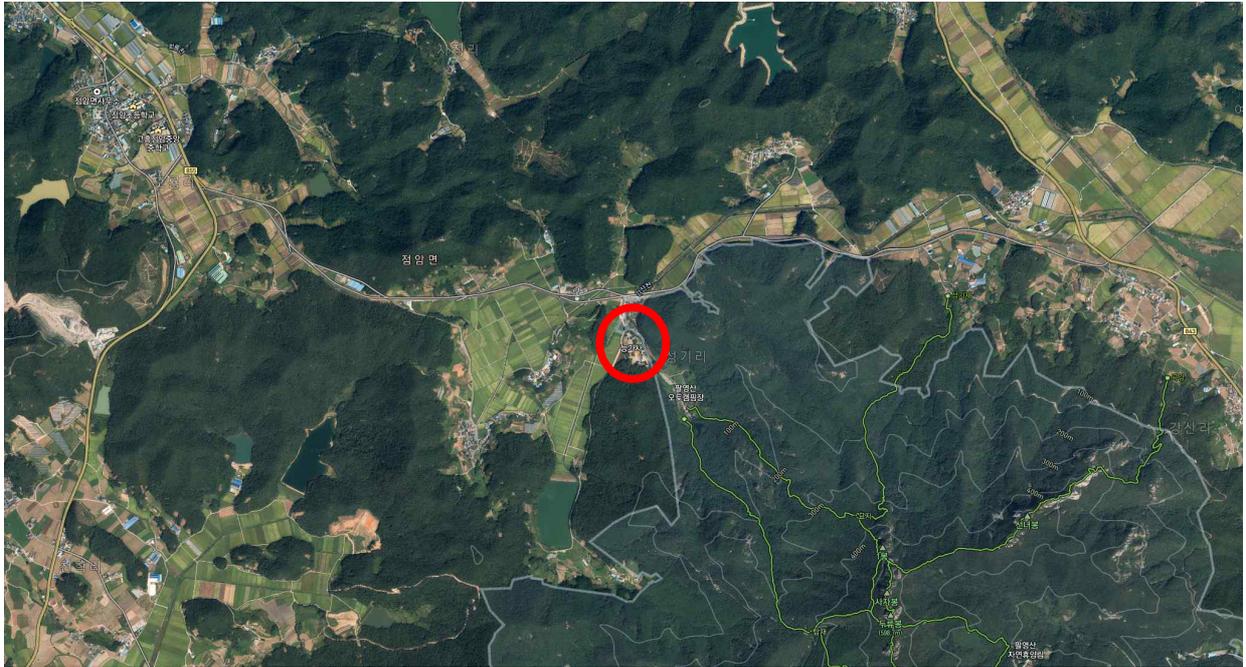
1.1 입지 현황

능가사 천왕문은 전라남도 고흥군 점암면 팔봉길 21번지에 위치해있다. 팔영산 기슭에 자리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산으로 둘러싸인 부지에 위치한 사찰이다. 능가사의 부지는 대체로 평탄한 지형으로 남쪽에 주산이 있고, 북쪽으로 향한 배치로 되어 있어 건물들의 배치 형태가 북향을 하고 있다.

천왕문 대웅전 응진당 종각 등이 남북축을 이루고 있고 현재는 대웅전과 천왕문 사이에 누각을 건립하고 있는 중이다.

능가사는 천왕문으로 진입하여 바로 종각이 옆에 있고 대웅전과 넓은 마당이 있다. 대웅전의 뒤쪽인 남쪽에 요사채 등이 있다. 대웅전과 요사채로 둘러싸인 마당에 현재는 법계도를 만들어 사람들이 다닐 수 있도록 하여 특징적이다.





1.2 역사문화환경

능가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제 21교구에 속한 송광사의 말사이다. 417년 신라 눌지왕 원년에 아도화상에 의하여 보현사로 창건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임진왜란 이후 1644년 (인조22년) 중창하면서 능가사로 변경되었다. 능가사 내에는 대웅전, 동종, 목조석가여래삼존상 및 십육나한상 등의 국가지정 문화재와 능가사 사적비, 목조사천황상, 추계당 및 사영당 부도 등 지방지정 문화재가 있다. 이외에도 사양당 부도, 벽암선사 부도 등이 있다.

능가사에 관련된 연혁이 자세히 수록된 능가사 사적비는 1750년 제작되었고 비문은 오수채(吳遂采, 1692~1759)가 지었으며, 조명교(曹命敎, 1687~1753)가 글씨를 썼다.

이에 따라 능가사는 호남 지역 사찰 건축의 중요한 부분을 보여주는 좋은 역사문화 환경을 가지고 있다.

2. 연혁 유래 및 특징

2.1 연혁 및 유래

1644년(인조22년)-1668년 (숙종14년) 능가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천왕문등 20여동 중창

1666년(현종7년) 천왕문 건립, 목조사천왕상 제작

1824년(순조 24년) 천왕문 중창

1936년 천왕문 삼창

1995년 천왕문 보수, 목조사천왕상 보수

1995년의 보수는 산자이상 해체하고 자연석 기단 설치 기둥하부 인공수지처리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재의 모습은 1824년 중창이후의 모습으로 보인다. 그러나 천왕상을 1666년에 건립 하였던 것으로 보아서는 천왕문의 전체적인 형태가 크게 바뀌지는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천왕상과 천왕문의 건물이 어느정도 일체와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포 등의 형태는 조선 후기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 1824년 중창 이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목조사천왕상은 17세기 목조 사천왕상중에서 가장 큰 규모이다.

현재는 단청이 새로 되어 있으며 기존의 단청을 보면 상부의 단청은 독특한 색채를 보여주고 있었지만 현재는 일반적인 단청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부재가 많이 바뀌었지만 언제 바뀌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특히 판벽이었던 부분이 회벽으로 바뀌었던 것 등은 기록이 없다. 1994년 문화재 수리보고서에는 배면과 측면의 하인방과 중인방 사이가 판벽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는 보수에 대한 기록과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아쉽다.



그림1. 2004년 이전의
천왕문으로 추정



그림2. 2004년 천왕문



그림3. 현재 능가사 천왕문

2.2 건축적 특징

천왕문은 정면3칸, 측면 3칸이며 이고주 5량가 형식이다. 정면길이는 10,720mm이고, 측면길이는 6,200mm이며, 면적은 68.46㎡이며 정면 정칸이 3,130mm, 좌·우 퇴칸이 3,705mm, 3,820mm 정도로 퇴칸이 정칸보다 약 2尺(665mm)정도 더 큰 것이 특징이다. 커다란 크기의 천왕상을 모시기 위해 퇴칸을 더 크게 구성한 것이다. 퇴칸에는 마루가 설치되어 있으며 구성방식이 좌측과 우측이 달라 보수할 때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내부 기둥은 없고 대량이 전면에서 배면까지 이어진다. 대공은 파련형으로 장식되어 있다.

이출목 삼익공의 형식이다. 기둥 상부에 초익공을 놓고 주두를 설치하여 이익공을 올렸다. 그러나 채주두나 소로없이 두공과 이익공을 결구하고 바로 삼익공을 올렸다. 삼

익공 상부에는 운공형 첨차를 두어 대들보를 받치고 있다. 제주두와 내출목 없이 부재를 쌓아 올렸다. 어칸에 화반이 설치되어 있다. 익공계 공포이지만 다포계 특징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

현재는 회벽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단청도 화려하게 칠해져 있다. 이전 시기의 사진 자료에서는 배면과 측면에 중인방과 하인방사이가 판벽이었으며 단청은 백색이 두드러지게 보이는 간단한 문양으로 추정되는데 현재는 새로 칠한 것 같은 모로단청으로 되어 있다.

3.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3.1 역사적 가치

1750년(영조15) 건립된 [능가사사적비]와 1995년 수리시 발견된 상량문의 기록을 통해 1666년 건립되었고 2번의 중창이력이 확인되었다. 1666년 4월 초창에는 도감겸 화주 신찬(信讚)이 기록되어 있다. 1824년3월 중창은 도감 추파당 양초라 기록되어 있다. 초창에 대한 기록이 명확하여 17세기 중반의 천왕문 건축양식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있어 가치가 있다.

천왕상 제작연도와 천왕문 건립연도가 동일하고 천왕상이 천왕문의 건물에 기대어 설치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 현존하는 천왕문들은 임진왜란 이후에 대부분 건립되었으며 그 규모가 크다.

현대에 들어와서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936년에 중창이라고 할 만큼 커다란 공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나 그 자료는 찾기 어렵다. 또한 1995년의 보수 공사와 그 이후 공사 등에 대한 자료를 확인하기 어렵다.

천왕문에 모셔져 있는 천왕상은 천왕문의 상량문과 사적비에 따라 1666년에 천왕문과 동시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천왕상의 형식은 라마교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3.2 건축사적 가치

능가사 천왕문은 정면3칸 측면 3칸, 면적은 68.46㎡이다. 천왕상들을 설치하기 위해 퇴칸이 어칸보다 크게 계획되어 있다. 3익공의 공포형식과 화려한 대공 모습은 17세기의 형식을 일부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공포의 형식은 제주두가 없이 3익공을 구성하고 다포의 형식을 일부가지고 있어 초창 당시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도 있다. 천왕문은 1666년 건립기록을 비교적 정확하게 가진 17세기 중반의 형식의 기준이 될 수 있다.

또한 천왕문의 건립과 천왕상의 제작년대가 같아 서로 같이 고려하여 크기와 형태 등을 계획하였을 것으로 볼 수 있어 천왕상과 천왕문의 관계를 파악하기에 용이한 특

정을 가진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 변형된 기록이 명확하지 않고 현재 교체된 부재가 많아 보여 원래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

3.3 학술적 가치

능가사는 전남 고흥지역의 대표적인 사찰로서 사적기 등의 자료와 함께 건축학적인 가치가 높은 사찰로서 가치가 높다. 그리고 능가사 천왕문은 건축적, 학술적으로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다.

능가사 천왕문은 능가사 사적비와 상량문 등의 기록에 보면 1666년 초창되었기 때문에 기준이 되는 건축물로서 가치가 높다. 1666년 초창하였고 1824년 중창하였고 1936년 삼창하였다. 천왕문 내부에 있는 사천왕상은 1666년에 조성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천왕문과 동일한 시기에 건립된 것이다. 천왕문은 초창의 모습을 일부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대체적으로는 1824년의 형식을 보여준다 할 수 있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 변형된 부분과 부재가 많고 그에 대한 기록이 없어 변경의 근거를 찾기 어렵다.

4. 종합의견

- 1666년 건립연대가 거의 명확하다는 점에서 그 특징을 가진다.
- 사천왕상의 제작연대와 천왕문의 건립연대가 동일하여 사천왕상과 천왕문의 배치, 크기, 형태 등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
- 중창 이후의 변화에 대하여 알 수 있는 자료가 거의 없다.
- 특히 1936년의 삼창과 그 이후 변화에 대하여 알 수 있는 자료 및 근거가 미약하다.
- 현재는 근래 단청이 되어 있고 교체된 부재가 많아 보이는데 근거를 알기 어렵다.
- 문헌 등에 대한 근거자료를 확인하기 어렵고 특히 근래 교체된 부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관련자료를 찾기 어려워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대상 문화재의 핵심 보존가치

- 1666년 건립연대가 명확한 편이어서 다른 천왕문의 표준 모델이 될 수 있음
- 사천왕상의 제작연대와 천왕문의 건립연대가 동일하여 사천왕상과 천왕문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직접적 근거가 될 수 있다.
- 지역의 대표성을 가진 천왕문이 될 수 있다.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23.06.29.	대상문화재	고흥 능가사 천왕문	
조사자	성명	○○○	전공 분야	건축역사
	소속	○○문화재단	직위(직책)	수석연구원 (문화유산팀장)

주요 지정 사항 검토	문화재 종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문화재 명칭	고흥 능가사 천왕문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능가사는 주산인 팔영산 북쪽 평탄한 지형에 배치가 북향을 하고 있으며, 대웅전과 동종 등 보물 2점과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3점이 보존되어 있음
	연혁·유래 및 특징	능가사 천왕문은 1644년 碧川大師가 능가사를 중창 이후 1666년 천왕문 건립하고, 1824년과 1936년, 1994년 등 3차례의 수리가 있었음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천왕문은 17세기 중반 건립된 40여동의 건물 중 하나로 대웅전과 함께 중창시 능가사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으나 근래 수리과정에서 주요 부재등이 다수 교체됨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68㎡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천왕문은 몇 안되는 17세기 천왕문의 변화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건축사적 가치는 있으나 1994년 수리시 부재교체율이 높아 진정성 입증에 지남함.
------	---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3 년 9 월 20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고흥 능가사는 경내 사적비에 의하면 417년(신라 눌지왕 원년) 아도화상(阿道和尚)에

의하여 보현사(普賢寺)로 창건되었다고 전하지만 660년 나·당연합군에게 백제가 멸하지 않을 때까지 고흥지역은 백제 관할지역이므로 신라 창건설은 다소 무리가 있다. 하지만 보현사라는 명칭이 1530년(중종 25년) 『新增東國輿地勝覽』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늦어도 조선 전기까지는 팔영산에 존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보현사가 능가사로 이름이 변경된 시기는 사적기나 비문의 기록과 같이 보현사가 왜란 때 소실되고, 1644년(인조 22년) 벽천 정현대사(碧川 正玄大師)가 그의 스승 벽암대사(碧巖大師)와 상의한 후 광희대사(廣熙大師)와 함께 예전의 보현사 터를 찾아내고, 북쪽으로 이어 능가사를 중창하였다고 한 것으로 보아 능가사라는 이름은 중창 이후 사명(寺名)으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천왕문 건립연대는 1995년 수리 시 발견된 상량도리 목서에서 1666년(현종 7년) 건립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 능가사 중창을 시작한 1644년보다 22년 늦게 천왕문이 상량된 것을 알 수 있다. 상량도리 목서에는 다른 상량연대가 적혀 있는데 1824년과 1936년에도 대대적인 수리가 진행된 것을 알 수 있어 1995년 수리까지 총 3회의 수리가 진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고흥 능가사가 자리잡고 있는 지형은 대체로 평탄한 지형으로 전체적으로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산지형 사찰이다. 다른 사찰과는 다르게, 남쪽에 주산이 있고, 북쪽으로 흘러내려가는 지형에 위치하고 있어, 건물의 배치형태가 북향을 하고 있다. 이는 남동쪽이 산과 계곡으로 막혀 있고 비교적 북서쪽이 개방되어 있어, 주 건물인 대웅전을 넓은 공간에 위치하게 하여, 북향의 어두운 단점을 극복하고 있다. 평지와 넓게 접하는 사역의 북서쪽에는 산과 연결되어 북서쪽의 찬바람을 막고 경내의 영역성을 강조하고 있다. 천왕문, 종각, 대웅전, 응진당이 남·북 축을 이루고 있으며, 좌·우로 동 서향을 하는 요사채들로 구성되어 있다. 천왕문은 북쪽으로부터 정문으로 사용되는 맨 앞쪽에 있고, 남쪽으로 떨어져 대웅전이 자리하고 있다.

능가사 천왕문은 정면 3칸, 측면 3칸이며, 가구는 5량가 형식이다. 정면(북측면) 정칸에는 2짝 판문이 설치되었으며, 정칸은 통로로 이용되고 양 협칸은 마루를 깔고, 그 위에 사천왕상을 모시고 있다. 내부에는 기둥이 설치되지 않았다. 대량 상부에 동자주를 세우고 그 상부에 종량을 얹고, 종량 상부에 판대공을 설치하여 종도리 및 종도리 장여를 받는다. 동자주 상부에는 뜯창방과 종량 보아지가 결구된다. 종도리 상부에서 종도리를 받치는 대공은 판대공이지만 부재를 파련형으로 화려하게 꾸몄으며, 대공의 상부 종도리 장혀와 결구되는 부분에서는 장혀 하부에 다시 수장폭의 단장혀와 같은 짧은 받침재를 사용하였다.

공포는 2출목 3익공 형식이다. 기둥 상부에 초익공을 얹고 주두를 놓아 이익공을 올렸으며, 재주두나 소로없이 두공과 이익공을 결구하고 바로 삼익공을 올렸다. 삼익공의 상부에는 운공형 첨차 하나를 더 두어 보아지의 역할을 하며 대들보를 받치고 있다. 재주두가 설치되지 않았으며, 삼익공의 상부에 첨차를 한단 더 두어 보를 받치는 점은 특이하다. 살미첨차의 초각은 초익공은 연화형 양서, 이익공은 연봉형 양서이며, 삼익공은 연화수서형이다. 대들보를 받치는 4운공은 운공형으로 익공재보다 춤이 작다. 두공은 교두형이며, 외출목 행공첨차 밑면은 연화두형으로 하였으며, 주심 행공첨차 밑면은 사절형으로 차이가 있다.

지붕은 맞배지붕으로 양측면에 박공 및 풍관이 설치되어있으며, 내부 천장은 연등천장으로 출목장여 사이는 순각판으로 마감되어있다.

<종합의견>

능가사는 조선 중기인 1644년 벽암 각성대사의 제자인 벽천 정현대사에 의해 중창된 사찰이다. 경내 사적비 기록에 의하면 벽천대사가 벽암대사와 상의하여 중창하였다고 하는데 이 당시 벽암대사와 그 문파는 완주 송광사 대웅전 중건에 참여하고 있어 벽암대사가 직접 능가사 중창에 개입되었을 여지는 적어 보인다. 실제 건물의 기법이나 공포의 양식, 사천왕상의 재료나 형상에서도 차이를 보여 벽암계의 기술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하지만 1994년 천왕문 수리시 발견된 상량도리 목서에 조성연대와 수리연대 기록이 명확하게 있으며, 2023년 9월 보물지정 예고된 능가사 천왕문 사천왕상이 17세기에 제작된 가장 이른 시기의 목조사천왕상으로, 같은 전남 지역의 사천왕상과는 다른 계통의 조각 양식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발달단계를 연구할 수 있는 학술적 가치는 인정된다.

그러나 천왕문 상량도리의 목서에서 1666년 기록 서체와 1824년 기록 서체가 유사하여 1824년 전면 보수 가능성 있고, 1994년 수리 이전의 모습 역시 16세기 조성되었던 사문의 조성기법과는 시기적 차이가 있다. 또한 1994년 수리 전 사진과 현 모습을 비교해 볼 때 입면의 모습 역시 출입구인 정칸 개구부의 높이와 판벽으로 구성된 양퇴칸이 벽체로 변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장조사 과정에서도 능가사 천왕문의 기둥과 보 등 현 부재들 다수가 신재로 교체되

어 있어 1994년 수리시 많은 부재들이 교체되었을 것으로 추측하지만 당시 수리보고서에 기록된 수리내용에는 누락되어 있어 현 모습으로 변천과정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1994년 수리전 전경>



<2023년 천왕문 전경>

※ 대상 문화재의 핵심 보존가치

1994년 수리보고서(1994년도 文化財修理報告書 상권, 문화체육부 문화재관리국)에 기록된 공사내용에는 목공사에서 ‘산자이상 해체 및 주두교체, 기둥 인공수지처리’에 대한 내용만 남아있어 현재 모습으로 변화된 것에 대한 납득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

따라서 보물로 지정될 문화재가 지닌 진정성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능가사 천왕문의 보물 지정 이전에 천왕문에 대한 정확한 수리이력 및 부재에 대한 연륜조사, 교체율 등의 면밀히 조사의 선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11. 구례 화엄사 천왕문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검토

가. 제안사항

전남 구례군 소재 「구례 화엄사 천왕문」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전남 구례군 소재 「구례 화엄사 천왕문」을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 받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전라남도지사
- (2) 대상문화재 : 비지정 「구례 화엄사 천왕문」
 - 소재지 : 전라남도 구례군 마산면 화엄사로 539 등(황전리)
- (3) 신청내용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
 - 명칭 : 구례 화엄사 천왕문(求禮 華嚴寺 天王門)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화엄사
 - 소재지 : 전라남도 구례군 마산면 화엄사로 539 등(황전리)
 - 조성연대 : 조선시대
 - 수량 : 1동
 - 지정면적 : 64.32㎡
 - 구조/형식/형태 : 단층 목구조 / 정면3칸, 측면3칸 / 맞배지붕 / 겹처마

라. 현지조사 의견(2023.06.29. / 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전)경기도문화재위원 ○○○)

- 문화재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있음.
- 문화재전문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있음.
- 전)경기도문화재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있음.

마. 지정조사보고서 : 붙임참조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 원안가결 11명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23.6.29	대상문화재	구례 화엄사 천왕문	
조사자	성 명	○○○	전공 분야	건축역사
	소 속	○○○○○○○○○○○○	직위(직책)	대표
주요 지정 사항 검토	문화재 종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문화재 명칭	구례 화엄사 천왕문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세부내용 별첨 참조		
	연혁·유래 및 특징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세부내용 별첨 참조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3 년 10 월 09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1. 입지현황 및 역사문화 환경

구례 화엄사는 전라남도 구례군 마산면 황전리 지리산 서남 꼭간지에 위치한 사찰이다. 화엄사 동쪽으로는 노고단-형제봉-월령봉으로 이어지는 산줄기가 있고, 서쪽으로는 종석대-차일봉-원사봉으로 이어지는 산줄기가 있으며, 두 산줄기의 가운데에는 마산천을 중심으로 하는 계곡이 형성되어 있다. 화엄사는 마산천(화엄사)계곡 서변의 너른 땅에 지형을 살려 조성되어 있다. 현재 화엄사로의 진입은 지리산 산록 하단부 분지 위치한 구례로부터 마산천 계곡을 따라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다. 일주문-금강문-천왕문-보제루를 거쳐야 대웅전, 각황전 등의 불전으로 구성된 중심영역에 이를 수 있다.

지리산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산으로 오래전부터 큰 산으로 유명을 떨쳤다. 그래서인지 지리산에는 화엄사뿐만 아니라, 대원사, 쌍계사, 법계사, 실상사, 천은사, 영월사, 벽송사 등 대찰들이 자리하고 있다. 구례로부터 하동으로 진행하는 방향에는 천은사·화엄사·문수사·연곡사·쌍계사가 있는데 천은사, 화엄사, 쌍계사는 지리산 3대 사찰로 꼽힌다. 이 가운데 쌍계사는 화엄사와 마찬가지로 임진왜란 이후 승려 벽암(碧巖)에 의해 중건된 사찰이다.



화엄사 배치와 천왕문의 위치 ©카카오맵

이 밖에도 화엄사 인근지역에는 봉서리 지식묘군(청동기시대), 석주관성(고려시대 성곽), 석주관 철의사묘(정유재란 당시 전투에서 전사한 7인의 무덤), 오산 사성암(화엄사 말사), 구례향교, 매천사, 남악사, 운흥정 등 청동기시대~근현대 시기의 역사문화환경을 알 수 있는 다양한 문화유산이 분포되어 있다.

화엄사 경내에 소재한 문화유산으로는 화엄사각황전앞석등(국보, 1962년 지정)·화엄사사자삼층석탑(국보, 1962년 지정)·화엄사동오층석탑(보물, 1963년 지정)·구례 화엄사 서 오층석탑(보물, 1963년 지정 제133호)·화엄사대웅전(보물, 1963년 지정)·구례 화엄사 원통전 앞 사자탑(보물, 1963년 지정)·화엄사에는 화엄사각황전(국보, 1990년 지정 제67호)·구례 화엄사 화엄석경(보물, 1990년 지정)·화엄사 영산회 괘불탱(국보, 1997년 지정)·화엄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및 사보살입상(보물, 2021년 지정)·화엄사 올벗나무(천연기념물, 1962년 지정), 화엄사 매화(천연기념물, 2007년 지정)·화엄사 사천왕상(보물, 2023년 지정)·화엄사 보제루(전라남도 유형문화재, 1974년 지정)·구층암석등(전라남도 유형문화재, 1986년 지정) 등이 있다.

2. 화엄사 중건과 천왕문의 건립

1) 화엄사의 연혁

화엄사의 연혁에 관해서는 『신라백지묵서대방광불화엄경(新羅白紙墨書大方廣佛華嚴經)』(통일신라), 『신증동국여지승람』(1611), 『호남도구례현지리산대화엄사사적(湖南道求禮縣智異山大華嚴寺事蹟)』(1636), 해동호남도구례현지리산대화엄사사적(海東湖南道求禮縣智異山大華嚴寺事蹟)』(1924) 『구례속지(求禮續誌)』(1924)등의 사료를 근거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창건시기 및 창건인물 등에 대한 일부 내용은 시대적 상황과 부합하지 않아 일찍부터 의문이 제기되었지만 함께 정리하였다.

시기	내용	출처
연대미상	승려 연기(煙氣) 가 창건	『신증동국여지승람』
543년	(진흥왕4) 연기조사 창건, 백제법왕이 3000명 승려 주석케 함	『구례속지』
544년	(진흥왕5), 인도 승려 연기조사(緣起祖師) 창건	『호남도구례현지리산대화엄사사적』등
신라 선덕왕	자장(慈藏) 증축	『호남도구례현지리산대화엄사사적』
신라 문무왕	의상(義湘) 장륙전(丈六殿) 건립	『호남도구례현지리산대화엄사사적』
(742~765)	신라 경덕왕, 승려 연기(煙氣, 실존인물) 대가람 조성	『신라백지묵서대방광불화엄경』을 통해 연기가 8세기 실존인물임이 밝혀짐
875년	신라 헌강왕, 도선(道詵), 중창	『화엄사중건사적비명』 『호남도구례현지리산대화엄사사적』
고려 광종	홍경선사(洪慶禪師), 퇴락한 건물 중수	

시기	내용	출처
고려 문종	일주문 밖에 큰 창고 2채 건립	
고려 인종	정인왕사(定仁王師)로 하여금 중수	
1172년	도선국사의 비 건립	
고려 충숙왕	조형왕사(祖衡王師) 대대적인 보수	
1424년	선종대본산(禪宗大本山)으로 승격	세종실록
임진왜란	병화로 소실	
1630~1636년	각성(覺性) 대웅전을 비롯한 약간의 건물 중건	
1649년	선종대가람(禪宗大伽藍)으로 승격	
1699-1702년	성능(性能)이 장륙전을 중건,	조선국전라도구례현지리산대화 엄사장륙전중건상량문
1703년	삼존불, 사보살상 완성 경찬대법회 숙종 각황전으로 사액 선교양종대가람(禪敎兩宗大伽藍)으로 승격	강희42년계미10월초4일삼여래 사보살조성연기검발원문
1757년	대웅전 중수	
1769년	각황전 중수	
1798년	적묵당 중수	
1827년	보제루 중수	
1851년	각황전 수리	
1885년	각황전 중수	호좌구례현대화엄사각황전창건 중수기
1915년	대웅전 중수	
1938년	각황전 중수	지리산화엄사각황전중수기
1939년	각황전 벽화모사 채색조사(임천)	
1977년	각황전 해체보수	
1984년	만월당, 일주문 건립	
1989년	원용료, 청풍당 건립, 연기암 복원	

2) 고려시대 화엄사의 공간구성과 삼문(三門)

조선초기 선종대본산이었던 화엄사는 그 규모가 대단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당시 화엄사의 공간구성과 각 전각의 규모를 알 수 있는 내용이 『호남도구례현지리산대화엄사사적』에 기록되어 있다. 『호남도구례현지리산대화엄사사적』은 『화엄사사적』이라는 책명으로 국립중앙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벽암각성(碧巖覺性, 1575~1660)에 의해 화엄사 중창불사가 시작된 1630년에 화엄사의 영수(領袖) 승려가 해안에게 집필을 의뢰하였으며, 불사가 마무리된 1636년에 『호남도구례현지리산대화엄사사적(湖南道求禮縣智異山大華嚴寺事蹟)』이라는 제목으로 완성되었다.⁴⁾

4) 1권 1책. 목판본·필사본 현존. 해안이 집필한 이 필사본 『화엄사사적』은 1697년(숙종 23)성충(性聰)이 발문을 붙여 목판으로 간행하였다. 1636년 필사본은 현전하지 않는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인용)

그런데 이 책에는 고려시대 최대 규모였을 때의 화엄사의 공간구성과 규모를 기록했을 뿐, 1630년대 중건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다.

『화엄사사적』에 기록된 전각과 그 규모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대웅상적광전 21칸, 응향각 3칸, 칠층탑 1좌, 회견보살석상 1구, 석연지 1좌, 광명대 1쌍, 노주 1쌍/ 장륙전 2층 4면 7칸, 사방벽 석경 화사경, 응향각 3칸, 7층탑 1좌, 광명대 1쌍 노주 1쌍/ 미륵전검봉로당 7칸, 오층탑 1좌, 광명대 1쌍, 노주 1쌍/ 원통전검봉로당 5칸, 광명대 1쌍/ 지장전 3칸, 광명대 1쌍/ 시왕전검 봉로당 7칸, 광명대 1쌍/ 해장전 30칸, 응향각 3칸, 원교국사영당 3칸, 영산전검 팔상전 21칸, 세존사리탑 9층 1좌, 응향각 3칸, 광명대 1쌍, 노주 1쌍/ 전단립 13칸, 광명대 1쌍/ 광학장 31칸, 축수전 13칸, 수록전 9칸, 향적전 13칸, 서운루 7칸, 무설전 5칸, 선등전 5칸, 무영당 5칸, 원용료 15칸, 범음료 11칸, 사미료 5칸, 벽안당 3칸, 만세루 9칸, 왕자각 3칸, 시자료 3칸, 동서방장 각 5칸, 동서운집 각 7칸, 동서별실 각 5칸, 요월료 5칸, 송월료 5칸, 완월료 3칸, 인원당 3칸, 임경당 3칸, 척변당 3칸, 관정료 5칸, 청심당 5칸, 청풍루 5칸, 산영루 5칸, 궁현당 3칸, 심검당 3칸, 영빈료 10칸, 송객실 7칸, 동서양로방 각 7칸, 견명실 3칸, 장경료 3칸, 동서 벽(옥)실 각 3칸, 성행당겸열반 13칸, 동서행랑 각 15칸, 석당자(당간) 1기, 대석조 1기, 연지 2소, 연지조사선각영당 3칸, 부도 1기, 해동육조영당 3칸, 십성영당 3칸, 천왕문 3칸, 해탈문 3칸, 조계문 3칸(용담 밖)

그 외에 봉천원, 남쪽의 안지법당, 서남쪽에 홍교원, 서쪽 7층 부도, 서북쪽 서유원, 동북쪽 미타원, 북쪽 5리지점의 선림원, 동쪽 10리 지점의 적기암, 남15리 지점에 오산사, 서쪽 15리 지점에 백련사, 북쪽 20리 지점 반야봉에 도선굴, 연기암을 구성하고 있는 전각과 규모도 기록되어 있다.

화엄사 본사의 건물 구성에 천왕문, 해탈문, 조계문의 삼문이 포함되어 있다. 기존의 연구(이대암, 「조선시대 라마계 천왕문의 수용 및 전개에 대하여」, 2007.12)에 따르면 우리나라 천왕문의 창건기록 가운데 가장 이른 것은 통도사의 천왕문(1337년)이며 그 이후 시기의 것으로는 장흥 보림사의 천왕문(1539년) 기록이 전부고, 천왕문이 본격적으로 조성되기 시작한 것은 17세기 초부터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화엄사사적』에 따르면 화엄사의 천왕문도 통도사의 천왕문처럼 고려후기(시기는 명확하지 않음)에 처음 건립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3) 임진왜란 이후 화엄사의 중건과 천왕문

조선초기 선종대본산이었던 화엄사도 다른 사찰과 마찬가지로 임진왜란 병화로 다수의 전각이 소실된 채로 30여 년간 폐허였다가 1630년부터 벽암각성(碧巖覺性, 1575~1660)에 의해 중건공사가 진행되었다. 대웅전에는 1636년 8월 의창군(義昌君) 이광(李珪, 1589~1645)이 쓴 현판이 걸려 있어 당시 중건공사로 대웅전이 건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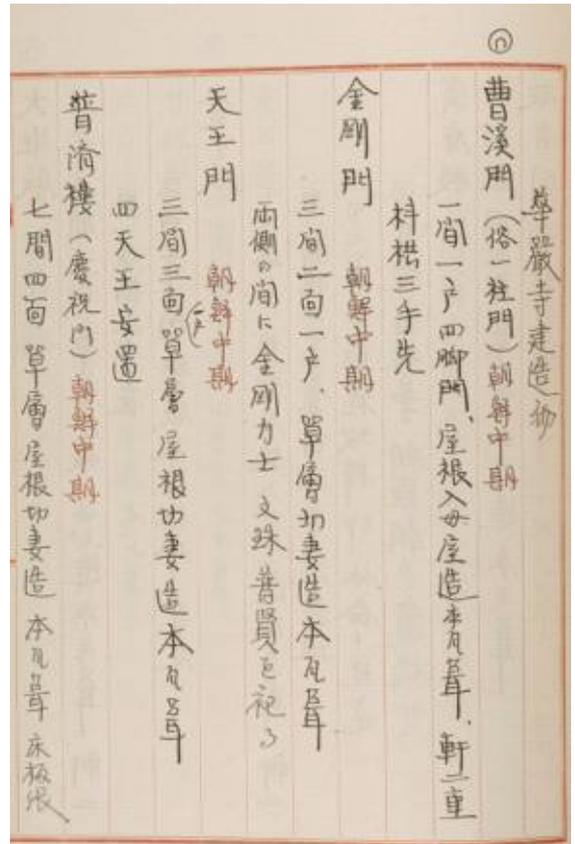


일제강점기 화엄사 원경(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총독부박물관 유리건판 사진)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전남광양군 기타고적유물조사보고서>에는 화엄사의 건조물 목록과 규모, 건립시기가 기록되어 있어 1630년대 증건시점에 대웅전과 함께 건립된 건물을 추정해볼 수 있다. 그 목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대웅전(조선중기)/각황전(조선중기)/명부전(조선후기)/응향각(조선후기)/원통전(조선중기)/나한전(조선후기)/영산전(조선후기)/범종각(조선중기)/적묵당(조선후기)/삼전(조선후기)/만월당(조선후기)/견성당(조선후기)/덕장전(조선후기)/보제루(조선중기)/천왕문(조선중기)/금강문(조선중기)/조계문(일주문, 조선중기)

이상의 내용으로 볼 때 현 천왕문은 대웅전과 함께 1630년대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1630년대 편년에 관해서는 건축적 내용을 통해 판단해보도록 하겠다.



화엄사 건조물, 소화1930~1932년/ 전남광양군 기타고적유물조사보고서(국립중앙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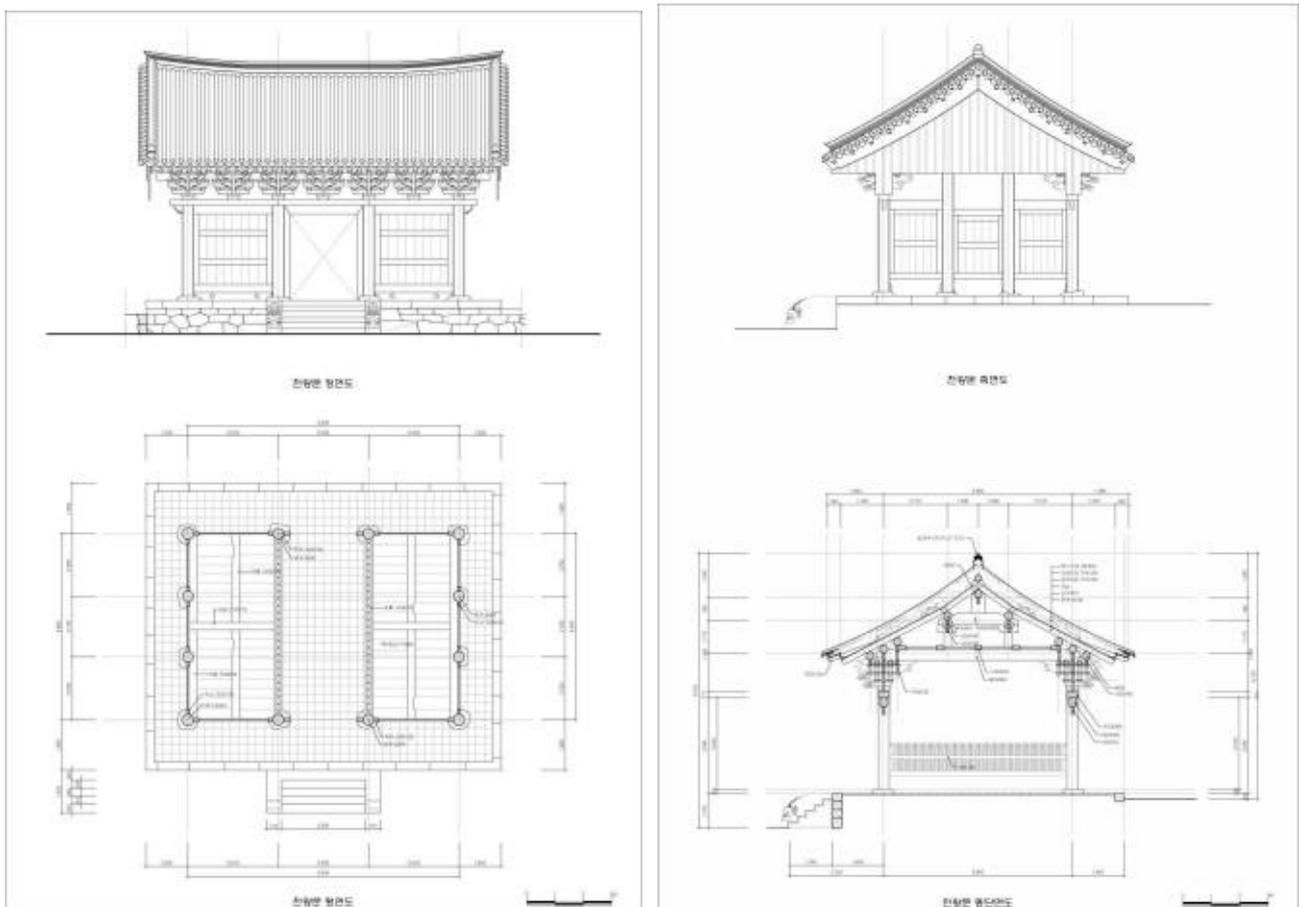
3. 화엄사 천왕문의 건축적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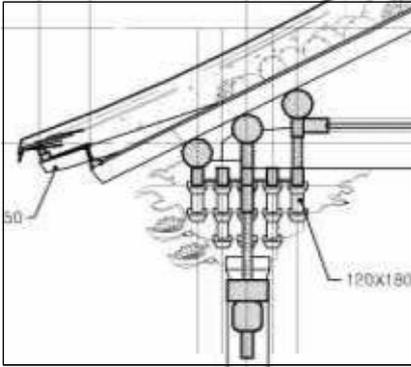
1) 건축적 구성과 포작구성방식으로 본 천왕문 건립시기 편년

화엄사 천왕문은 정면 3칸, 측면 3칸 건물로 자연석 초석에 원기둥을 올렸으며, 지붕가구는 5량, 포작은 다포식이다. 칸잡이는 정면이 10자, 측면이 7자 가량된다. 중앙칸을 제외하고는 판재로 벽을 구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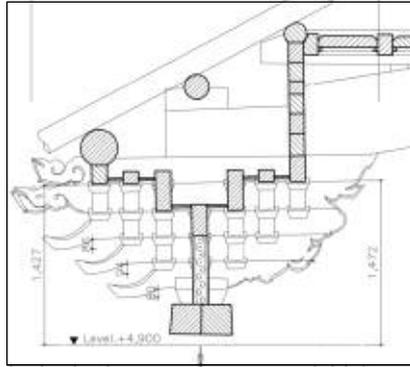
건물의 편년을 가능케 하는 포작은 다포식이다. 현전하는 천왕문 가운데 다포식 천왕문은 순천 송광사, 김천 직지사, 보은 법주사뿐이다. 그 외의 대부분은 익공식으로 만들어졌다. 화엄사 천왕문의 포작은 내외 2출목으로 첨차와 내외출목의 결구 방식이 17~18세기 초에 쉽게 볼 수 있는 방식으로 결구되어 있다. 다만 내 2출목 상부장혀와 대들보의 결구 방식은 당대의 다른 건물들과 달리 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들보의 높이를 1단 높여서 포작을 구성하였기 때문으로 판단하고 있다.

결구부 없이 엮어 놓는 것만으로 결구한 사례는 화엄사 대웅전, 화엄사 각황전에서만 볼 수 있는 수법이다. 이로써 보건대 화엄사 천왕문은 대웅전보다 약간 늦은 시기 **1636년 즈음 건립된 것**으로 편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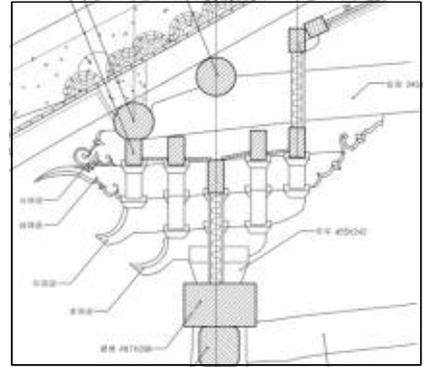




천왕문 포작 단면(지정조사보고서, 2023)



대웅전 포작단면(『구례 화엄사 대웅전 정밀실측보고서』, 2013)



각황전 상층포작단면(『화엄사 각황전 정밀실측보고서』, 2009)

천왕문의 건립시기를 17세기로 편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건축적 특징은 통평고대의 사용이다. 천왕문의 정면과 배면 초매기는 통평고대 형태를 띠고 있다. 이연노의 연구(영건의뢰 및 산릉의뢰에 기록된 건축부재 구로대에 관한 연구, 2009.06.)에 따르면 통평고대는 고식(古式)기법으로 의뢰에는 ‘구로대’로 기록되어 있으나 18세기 후반부터는 사라지기 시작한 기법이라 한다. 원릉 정자각, 여주 대로사(1785)와 같은 관영 건축에서는 18세기 후반에도 보이지만 사찰건축과 같은 민간 건축에서는 이보다 훨씬 이전에 사라진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로써 볼 때 화엄사 천왕문은 17세기 건축물로 추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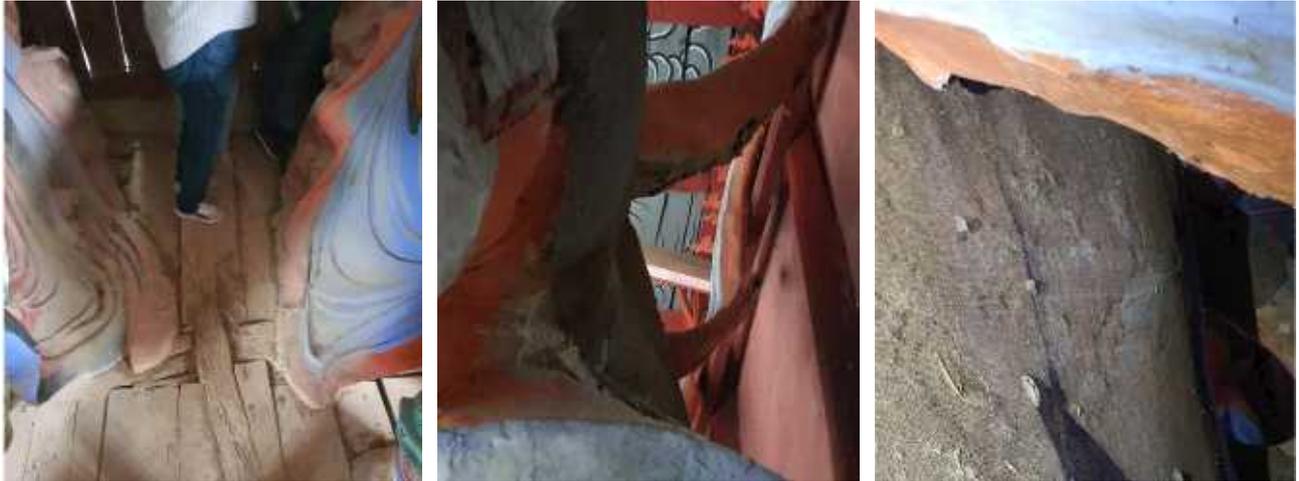
2) 사천왕 소조상의 설치와 천왕문의 일제강점기 수리

기존연구(임영애, <순천 송광사 산천왕상의 방위문제와 조성시기>, 2006)에 따르면 천왕상은 소조와 목조각 두 가지 방식으로 제작하는데 소조방식은 1630년대에 집중되며, 17세기 말~18세기 초가 되면 목조각방식으로 바뀌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화엄사 천왕문의 사천왕상은 동서칸에 각 2좌씩 안치되어 있는데, 다리하부는 목조로 틀을 짜서 지면에 닿도록 설치하고, 천왕상 다리틀 사이로 마루 귀틀을 짜고 마루널을 칸 다음 흙으로 빚어 만든 소조상이다. 흙으로 빚어 만든 천왕상의 상체가 쓰러지지 않도록 달대를 달아 천장에 고정하고 뒷부분에는 벽체와 연결하여 지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임영애의 연구에 따르면 화엄사의 사천왕상은 제작시기를 1630년대로 추정해볼 수 있다. 하지만 소조상을 자세히 살펴본 결과 등부분이 매쉬망으로 덧씌워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소조상의 최초 제작시기는 17세기 중반이라 하더라도, 후대에 수리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사천왕 소조상은 목조각상과 달리 설치방식이 건물과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매쉬망의 사용은 아무리 빨라도 일제강점기나 되어야 가능해진다. 이로써 보자면 천왕문은 일제강점기에 대대적인 수리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마루귀틀과 널판 위에 붙여 빚은 천왕상

천왕상을 벽에 고정하기 위한 지지대

천왕상 후면 수리를 위해 부착한 매쉬

4.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1) 역사적 가치

천왕문은 불법을 수호하는 사천왕을 모시는 문으로 천왕도 또는 조상을 봉안한다. 중국 사찰에는 송말-원초가 되면 불전 바로 앞에 천왕상을 모신 대규모의 천왕전을 건립하기 시작했고, 우리나라는 그 영향을 받아 천왕상을 봉안하는 천왕문을 건립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로써 우리나라 중세 사찰의 진입은 일주문(조계문)-해탈문(금강문)-천왕문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 되었다. 일주문은 사찰 경역의 입구에 천왕문은 사찰 주공간의 경계에 세우고 해탈문이나 금강문은 일주문과 천왕문 사이에 두는 것이 보통이지만 천왕문 입구문에 금강역사를 그리고 따로 건립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로써 보자면 화엄사로 진입하는 일주문-금강문-천왕문의 구성은 당대의 시대상을 반영함과 동시에 우리나라 중세사원제도에서 경계와 입구를 상징하는 보편성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역사적 가치가 있다.

2) 예술적 가치

천왕문은 사람이 출입하는 문이면서 동시에 천왕상을 봉안하는 불전이이기도 한다. 즉 이중적 성격을 지닌 건물이라 할 수 있다. 출입구임을 상징하기 위하여 장식적이면서도 천왕상을 봉안하기 위한 구조를 형성하지 않으면 안된다. 화엄사 천왕문은 임진왜란 이후 건립된 천왕문 가운데서도 장식이 비교적 화려한 다포식 건물이면서 육중한 소조 천왕상을 봉안하기 위하여 달대와 지지대 등을 설치하고 그를 가릴 수 있도록 반자 높이를 조절하는 등의 섬세한 배려를 했다는 측면에서 뛰어나다고 평가할 수 있다.

3) 학술적 가치

화엄사 천왕문의 포작은 장혀와 대들보의 결구방식을 통해 대웅전, 각황전과의 계통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 대웅전과 유사한 포작 결구법과 통평고대 사용을 통해 건립시기를 17세기 중후반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점, 19-20세기에 통용되던 판벽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소조상과 건물 구조체의 존재양상을 통해 시공순서를 추정할 수 있다는 점, 소조상에 사용된 재료인 매쉬망을 통해 수리시기를 일제강점기로 추정할 수 있다는 점등은 화엄사 천왕문의 학술적 가치를 증명한다.

이상의 가치로 볼 때 보수를 통해 여러 부재가 교체되었을 수는 있으나, ‘구례 화엄사 천왕문’은 중요한 원형의 기법을 유지하고 있기에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보호관리하는 것이 적의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23.06.29	대상문화재	구례 화엄사 천왕문	
조사자	성 명	○ ○ ○	전공 분야	한국건축사
	소 속	○ ○ 대학교	직위(직책)	교수
주요 지정 사항 검토	문화재 종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문화재 명칭	구례 화엄사 천왕문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세부내용 별첨 참조		
	연혁·유래 및 특징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검토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세부내용 별첨 참조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3 년 8 월 30 일

제출자

○ ○ ○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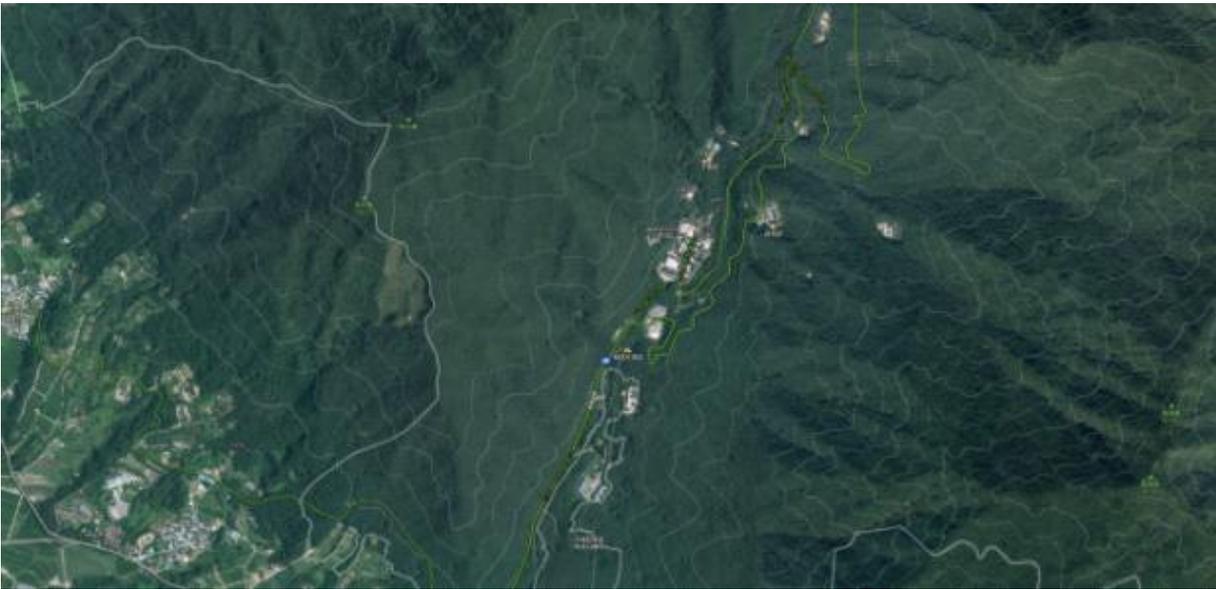
문화재청장 귀하

1.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1.1 입지 현황

구례 화엄사 천왕문은 전남 구례군 마산면 화엄사로 539번지에 위치해있다. 지리산을 주산으로 하여 서쪽에 반야봉 노고단이 있고 원시봉과 형제봉 사이 계곡을 끼고 있는 사찰이다.

화엄사 초입에는 대형주차장과 지리산 탐방객 안내소 등 관광단지가 있다. 진입하면 일주문처럼 생긴 산문과 매표소가 있고 승탑원을 지나면 일주문에 이르게 된다.



화엄사는 계곡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남서향의 축을 이루고 있다. 지형에 맞추어 축선을 따라 길게 건물들이 배치되어 있다. 즉 일주문에서부터 대웅전까지 긴 진입공간을 가지고 있다.

현재 구례화엄사 천왕문은 사찰의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다. 천왕문의 남쪽에 새로 지어진 건축물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일주문에서 금강문까지는 주변이 개방된 공간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금강문에서 천왕문까지의 축이 일주문에서 금강문의 축과는 일치하지 않고 서쪽으로 틀어져 있다. 그리고 천왕문에서 보제루까지의 축에서도 서쪽으로 더 틀어져 있다. 전체적인 축이 지형에 맞추어 축을 조금씩 서쪽으로 치우치게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1.2 역사문화환경

구례 화엄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제 19교구 본사이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교구 본사로서 사격을 가지고 있다.

각황전 앞 석등, 사사자 삼층석탑, 각황전,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 영산회 괘불탱, 동서오층석탑, 서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대웅전, 대웅전 삼신불탱, 원통전 앞 사자탑, 화엄석경,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및 사보살입상 등 수많은 문화유산이 있으며 울벚나무, 매화등 천연기념물까지 포함되어 있다. 거기에 더하여 화엄사 자체가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지리산 화엄사 일원은 명승으로 지정되어있다.

화엄사의 주변에는 석주관성, 칠의사묘, 천은사, 구례향교 등 다양한 문화유산이 있으며 지리산이라는 좋은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다.

2. 연혁 유래 및 특징

2.1 연혁 및 유래

화엄사는 544년 백제 성왕 22년 인도에서 온 연기존자에 의해 창건된 사찰로 알려져 있다. 642년 자장법사가 중창하고 장육전 및 화엄석경은 의상대사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알려져 있다. 도선국사, 의천 등 여러 고승이 중창하였으며 1424년(세종6년) 선종 대본산으로 승격하였다.

임진왜란에 소실되었다가 1630년경 벽암 각성 대사가 중창하기 시작하여 현재의 모습에 이르고 있다. 천왕문은 이 시기인 17세기 초반에 건립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사천왕상 제작연대로 보아 1636년 중건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후 계파당 성능대사가 1699년(숙종 25)에 각황전 중건을 시작하였다. 1703년 선교 양종 대가람으로 승격되었다.

2.2 건축적 특징





화엄사 천왕문은 정면3칸, 측면 3칸이다. 천왕문은 정면부분은 높은 기단이 설치되어 있고 측면과 배면은 외별대 장대석으로 마감되어 있다. 정면의 계단은 화강석 장대석 계단으로 되어 있으며 계단 소맷돌은 사자상으로 조각되어 있다. 외부 바닥과 사람이 통행하는 어칸 내부 바닥은 방전으로 마감하였다. 초석은 자연석 주초로 되어 있다. 협간에는 사천왕상을 배열하였다. 협간의 바닥은 마루로 되어 있으며 사천왕상과 연결되어 있다. 이에 따라서 마루의 설치와 사천왕상의 설치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사천왕문의 전체적인 구조와도 연결되어 있다.

공포는 내외 2출목의 다포식 공포이다. 다포 건물 중 장식적인 경향이 강화되고, 첨차 간격이 소로 크기보다 좁아지는 현상이 보인다. 이에 따라 17세기 초반 천왕문 건축의 기준이 될 수 있다.

천정은 평천정으로 반자가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천정은 가장자리로 갈수록 높아지게 설치되어 있다. 그래서 키가 큰 사천왕상을 설치하기 위해 천정을 높여 놓은 것으로 보인다. 지붕은 겹처마의 맞배지붕을 두었다.

사천왕상은 소조이며 1649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1636년 건립된 천왕문보다 후기에 만들어졌다고 추정할 수 있다.

3.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3.1 역사적 가치

구례 화엄사는 544년 인도에서 온 연기존자에 의해 창건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장 법사, 원효대사, 의상대사, 도선 국사, 의천 등의 고승과 연관되어 있으며 1424년 선종 대본산으로 승격하였다.

구례화엄사는 임진왜란 때 경내 전각이 전소하였고 1630년 (인조8년)에 벽암 각성 대

사가 중건을 시작하였고 1636년 대웅전, 천왕문등이 건립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1703년 선교 양종 대가람으로 승격되었다. 그리고 1911년 사찰령 당시의 기록에 천왕문이 확인되었었다. 1924년 화엄사가 본산으로 추가되어 선교 양종 지리산 대본산이 되었다.

즉 임진왜란 때 화엄사가 전소한 이후 벽암 각성 대사가 중건을 하는 시기에 천왕문도 건립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사천왕상은 1649년에 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천왕문도 중건이 된 것이며 현재의 사천왕상 이전에도 다른 사천왕상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 천왕문과 사천왕상의 연속적인 관계를 알 수 있다.

그러나 천왕문에 관련된 기록이 거의 없어 이에 대한 추정만 가능할 뿐이다. 그리고 근·현대 시기에 천왕문이 중건되거나 보수된 기록도 찾기 어려워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2 건축사적 가치

화엄사는 계곡의 넓은 부지에 배치되어 있어 계곡을 따라 길게 건물의 배치 축이 이루어져 있다. 일주문에서 금강문까지 개방된 공간으로 축을 이루고 있고 금강문에서 천왕문까지는 기존의 일주문-금강문 축에서 서쪽으로 치우쳐 축이 구성되어 있다. 천왕문에서 보제루까지는 서쪽으로 더 치우쳐있는 축이 구성되어 있어 지형에 맞춘 축을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천왕문은 사찰 영역의 중심부 인근에 있어 사찰의 변화와 확장을 보여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천왕문은 정면 3칸 측면3칸의 겹처마 맞배집이다. 전면부는 높은 기단으로 계단이 설치되어 있고 측면과 배면은 외벌대 기단으로 되어 있어 경사지를 정리하고 건립되어 있다. 기단 바닥은 방전으로 깔려있다. 천왕문의 어칸도 기단보다는 작은 방전으로 깔려있으며 천왕상이 있는 협칸은 목재 마루로 되어 있다. 벽체는 목재 판벽으로 되어 있다. 단지 측면의 중인방 상부는 회벽으로 되어 있어 독특한 벽체 구성을 하고 있다.

특히 동쪽 협칸의 장귀틀은 고막이벽의 외부로 돌출되어 있다. 사천왕상은 바닥과 벽체에 긴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서쪽 협칸의 장귀틀은 고막이 벽 외부로 돌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추후 보수될 때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소조 천왕상이 마루와 결구되어 있어 동시에 건립되거나 보수해야하는 구조를 가진다.



내외 2출목의 다포식 공포를 사용하였다. 장식적인 공포의 형식을 보인다. 어칸의 천정은 수평으로 평천정을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협칸의 천정은 측면으로 갈수록 높아지는 경사를 만들었으며 협칸에서도 중앙부는 높고 가장자리는 낮게 설치되어 있다. 이는 키가 큰 사천왕상을 설치하기 위해 천정을 높게 배치한 것으로 보인다. 대량에서 측면의 보까지 연결하는 부재가 추가 되어 있어 사천왕상을 지지하고 건물이 뒤틀리지 않게 보조하고 있다.

사천왕상-목재 바닥- 벽체 - 천정구조 등이 전체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3.3 학술적 가치

구례화엄사는 대한불교 조계종 제 19교구 본사이다. 각황전 앞 석등, 사사자 삼층석탑, 각황전, 대웅전, 울벚나무, 매화 등 많은 문화유산이 있으며 전체 영역인 지리산과 화엄사도 사적과 명승으로 지정되어 있다. 화엄사의 주변에도 석주관성, 천은사 등이 있어 좋은 역사문화환경을 가지고 있다.

1649년 소조 사천왕상이 제작되었다. 천왕문이 1936년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사천왕상이 나중에 제작되어 봉안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화엄사 천왕문은 임진왜란 후 17세기 초반에 건립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17세기 초반 천왕문 건축의 기준이 되고 있다.

그러나 천왕문에 대한 기록이 부족하여 명확한 역사적 전후 관계나 보수 기록을 확인하기 어렵다.

<종합의견>

구례 화엄사는 주변에 석주관성, 칠의사묘, 천은사, 구례향교 등이 있으며 지리산 화엄사 일원은 명승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구례 화엄사는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고 화엄사는 다양한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지리산을 배경으로 한 다양하고 좋은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구례 화엄사는 544년 창건되었다고 알려져 있으며 1424년 선종 대본산으로 승격되고 1703년 선교 양종 대가람이 되었으며, 현재는 대한불교 조계종 제 19교구 본사로서 역사문화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중 구례 화엄사 천왕문은 1636년 건립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소조 사천왕상은 1649년 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건축적으로 17세기 전반기의 건축양식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시기를 특정할 수 있는 다포계 천왕문으로서의 가치가 크다.

구례 화엄사 천왕문은 사천왕상의 제작년대와 천왕문의 건립연대에 대한 관계를 연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천왕문의 건축적 형식과 천왕상의 설치의 관계도 연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단지 천왕문과 관련된 조선시대의 기록이 부족하여 건립연대 뿐 아니라 중창, 중건의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게다가 근현대 시기의 기록 또한 부족하여 보수된 기록 등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다.

기록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분히 보완한다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다.

※ 대상 문화재의 핵심 보존가치

구례 화엄사의 좋은 역사문화 자연환경을 더 돋보이게 할 수 있는 가치를 가진다.

오래된 사찰의 형식과 배치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17세기 전반기에 건립된 천왕문으로서 건축적 가치를 가진다.

사천왕상과 천왕문의 관계를 보여주는 예술적 학술적 가치를 가진다.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23.06.29.	대상문화재	구례 화엄사 천왕문	
조사자	성 명	○ ○ ○	전공 분야	고건축
	소 속	전 경기도문화재위원회	직위(직책)	위원
주요 지정 사항 검토	문화재 종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문화재 명칭	구례 화엄사 천왕문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세부내용 별첨 참조		
	연혁·유래 및 특징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해당 천왕문의 면적 : 64.32㎡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세부내용 별첨 참조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3 년 10 월 12 일

제출자

○ ○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1. 화엄사 천왕문의 연혁

화엄사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사료로 「호남도구례현지리산대화엄사사적(湖南道求禮縣智異山大華嚴寺事蹟)」이 전한다. 이 사적은 매우 이른 시기인 1636년에 만들어졌고, 1697년에 간행되었다. 하지만 내용에서 당시 화엄사에 있었던 전각을 기술하지 않아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는 상태다. 한편 사적은 고려시대 화엄사에서 경영했던 전각을 무수히 많이 기술하고 있다. 그 건물들 중에는 ‘천왕문(天王門)’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 내용을 신뢰하기에 우리가 있어서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화엄사는 8세기 중엽 연기조사에 의해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계속적으로 유지되어 오던 화엄사는 임진왜란으로 사내의 전각이 모두 소실되었다. 한동안 폐허로 방치됐던 화엄사는 30여년이 지난 1630년대 초반에 벽암각성(碧巖覺性, 1575~1660)을 중심으로 재건되기 시작했다. 현재의 대웅전은 이때 재건되었는데 1636년에 만들어진 것이다. 현 대웅전의 현판은 1636년 8월에 의창군(義昌君) 이광(李珖, 1589~1645)이 쓴 것이다. 이 당시 대웅전 이외에도 여러 전각이 새롭게 복구되었겠지만 명확한 기록은 전하지 않는다. 이후 1652년에 화엄사의 괘불이 완성되었으며, 1699~1702년에 계파성능(桂坡性能)에 의해 각황전이 재건되었다.

기존 문헌 중에는 화엄사 천왕문의 건립년대를 특정해서 기술한 것들이 많다.

i. 1630년경에 벽암선사가 건립하였으며 정면 3칸, 측면 3칸 다포계 건물 양식으로 지붕은 맞배지붕 형태이며 본 건물은 1971년 8.16 ~ 9.10 단청공사를 시행한 바 있다. (문화재관리국, 『구례 화엄사 실측조사보고서』, 1986, p191)

ii. 화엄사에서는 괘불을 제작하기 이미 20여 년 전에 천왕상을 조성하였다. 사찰 진입로에 위치한 천왕문에는 1632년에 높이 3.8m에 이르는 천왕상을 봉안되어 있다. 이 시기는 화엄사가 재건을 시작한 때로 사찰의 중심 전각인 대웅전과 보제루, 명부전을 조성하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천왕문과 천왕상이 세워졌다. 전란 후 사찰 재건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상황에 준해보면 천왕상 조성은 비교적 이른 시기에 이루어져 이례적이다. 사찰 재건에서 천왕상의 조성을 서두르는 현상은 화엄사뿐만 아니라 법주사(1624년), 순천 송광사(1628년), 완주 송광사(1649년)에서 동일하게 발견된다. 이 사찰들은 두 가지 공통점이 있다. 승군의 본거지였던 사찰이란 점과 부휴 선수의 법맥을 계승한 승려들에 의해 조직적으로 재건되었다는 점이다. (국립중앙박물관, 『화엄사 괘불』, 2008, p21)

iii. 1636년 중건한 정면 3칸, 측면 3칸의 겹처마 맞배집이다. (문화재청, 『화엄사 각황전 실측조사보고서』, 2009, p272)

이들이 제시한 화엄사 천왕문의 건립시기는 1630년, 1632년, 1636년으로 각각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모두 천왕문의 건립년대를 기술한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이 와중에 『화엄사 괘불』에서는 천왕문의 건립 시기에 대해 역사적인 해석까지 덧붙이고 있다.

화엄사의 건축에 대한 연혁은 이강근의 글이 참조된다.¹⁾ 이 논문의 2장 ‘화엄사 불전의 재건역(再建役)’ 중에서 1절은 ‘17세기 전반 대웅전의 재건’을 기술했는데, 1630년대 진행된 화엄사 대웅전의 재건에 대해 매우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글을 진행하는데 참고한 사료는 다음과 같다.

- (사료 1) 中觀 海眼 著 「湖南道求禮縣智異山大華嚴寺事蹟」 (1636년 撰)
- (사료 2) 柏巖 性聰 開刊, 「湖南道求禮縣智異山大華嚴寺事蹟」 (1697년 刊)
- (사료 3) 白谷 處能, 「賜報恩闡教國一都大禪師行狀」 (1660년 撰)
- (사료 4) 李景奭, 「報恩闡教圓照國一都大禪師碑銘并序」 (1663년 堅立)
- (사료 5) 鄭彙憲 著, 「智異山大華嚴寺誌」 (미간행)
- (사료 6) 鄭彙憲 輯錄, 「海東湖南道智異山大華嚴寺事蹟」 (1924년)

1절의 말미에는 “다른 한편, 대웅전 이외에 일주문이나 천왕문 및 금강문도 이때 재건되었는지, 대웅전 앞의 돌계단 및 대석축은 이 시기에 크게 변경된 것은 아닌지, 대웅전 뒤편에 남아있는 넓은 터와 관련하여 소실 이전의 가람배치와 재건된 가람배치의 관계는 어떠한지 등 중요한 건축적 물음에 대한 해답은 문헌 자료만으로는 해명할 수 없다.”고 기술했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여러 문헌의 ‘1630년대 화엄사 천왕문 건립’에 대한 기술은 사료에 근거한 것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크다.

현재까지 알려진 역사적 사료를 통해 화엄사 천왕문의 건립 시기를 알기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게다가 화엄사 천왕문의 중수 기록 역시 전하는 것이 전혀 없어서 역사적 사료를 통해 천왕문의 변천 과정을 살펴볼 수도 없는 상황이다.

2. 건축적 특징

1) 평면

화엄사 천왕문은 도리통 3칸, 양통 3칸의 평면을 갖고 있다. 천왕문의 평면형은 크게 양통이 2칸인 경우와 3칸인 경우로 구분된다. 현전하는 천왕문 중에서 3칸 × 3칸의 평면을 갖는 것으로 장흥 보림사 천왕문, 순천 송광사 천왕문, 김천 직지사 천왕문, 고흥

1) 이강근, 「화엄사 불전의 재건과 장엄에 관한 연구」, 『불교미술』 14호, 19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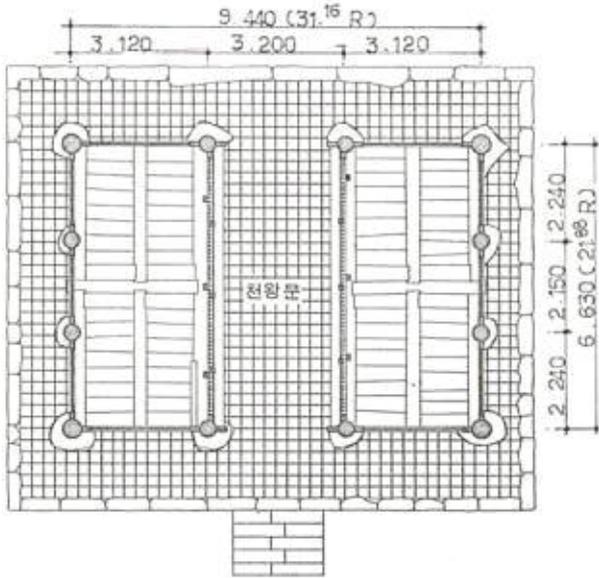


그림 1. 평면도(『구례 화엄사 실측조사보고서』, 1986)

측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약실측으로 만들어진 도면이 전하고 있다. 약실측 도면에서 정칸은 3,200mm 좌우 협칸은 3,120mm로 기술했는데 각 칸의 길이를 동일하게 설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영조척으로는 10자 길이인 것으로 보인다. 양통의 경우 중앙 정칸은 2,150mm, 전후 협칸은 2,240mm로 기술했다.

2) 공포의 결구 방식

화엄사 천왕문은 다포식 건축으로 만들어졌다. 현전하는 천왕문 중에서 공포가 다포식으로 구성된 천왕문은 극히 소수에 해당한다. 화엄사 천왕문과 더불어 순천 송광사 천왕문, 보은 법주사 천왕문, 김천 직지사 천왕문이 다포식으로 만들어졌다. 남아있는 천왕문 중에 4동의 건물만 다포식이고, 그 외 다른 천왕문은 대부분 익공식이다. 이런 점에서 화엄사 천왕문의 가치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림 2. 천왕문 공포 외부



그림 3. 천왕문 공포 외부

능가사 천왕문, 안성 칠장사 천왕문, 공주 마곡사 천왕문, 완주 송광사 천왕문 등을 들 수 있다. 상당히 많은 수의 천왕문이 3칸 × 3칸의 평면형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록 양통의 칸수가 3칸이라고 하더라도 2칸인 것보다 실제 양통의 길이가 길다고는 할 수 없다. 대신 좌우 측벽의 가구를 어떤 가구 방식으로 설정했는지에 차이가 있다. 3칸인 경우는 고주 2개와 종보만을 결구하는 것이고, 2칸인 경우는 중앙에 심고주를 두고 앞뒤로 맞보를 결구한 것에서 차이를 보인다.

아직까지 화엄사 천왕문에 대한 정밀실

화암사 천왕문의 공포는 내외2출목을 갖고 있다. 평방 상부에 주두를 두고, 주두 위에서 받을장의 주심소침과 옆을장의 초제공을 결구했다. 이 위에 주심의 경우 받을장의 주심대침, 내외1출목에 받을장의 1출목소침을 두고, 옆을장의 이제공을 결구했다. 또 그 상부에는 주심의 경우 장혀, 내외1출목에는 받을장의 1출목대침, 내외2출목에는 2출목소침을 두고 옆을장의 삼익공을 결구했다. 한편 이들 상부에는 각 출목마다 받을장의 장혀를 놓은 다음, 옆을장의 운공을 결구했다. 운공의 상부에는 외2출목 자리에 외목도리를 놓았다. 순각판에 가려 보이지 않지만, 주상포의 경우 외목도리 안쪽에는 보머리의 끝단을 놓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결구 방식은 17 ~ 18세기초에 만들어진 많은 다포 건축물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표준화된 공포 결구 방식이다.

다만 내2출목 상부 장혀와 대들보의 결구 방식은 다른 건축물과 비교해 매우 독특한 모습이다. 통상적으로 17 ~ 18세기초 다포 건축물에서 각 출목 상부의 장혀는 대들보 하부에 홈을 파내고 이곳에 끼워 넣어 결구한다. 경산 환성사 대웅전은 대들보 하부에 모든 출목의 장혀 자리를 파내고 이곳에 장혀를 결구한 사례다. 비록 모든 출목은 아니더라도 안성 청룡사 대웅전과 같이 내출목 최외곽 장혀는 거의 대부분 대들보 하부에 홈을 파내고 결구한다. 이 경우에는 외부로 돌출하는 운공을 짧게 만들어 보머리 끝에 꽂아 넣는 방식을 사용한다.



그림 4. 경산 환성사 대웅전 대들보 하부
(『경산 환성사 대웅전 실측 수리보고서』, 2013)



그림 5. 안성 청룡사 정면 좌측 대들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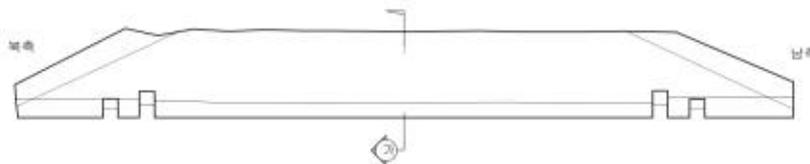


그림 6. 완주 화암사 극락전 대들보 상세도
(『완주 화암사 극락전 실측 및 수리보고서』, 2004)

하지만 화엄사 천왕문은 이들과 다르게 내출목 최외곽 장혀와 대들보 사이에 아무런 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통상적인 17 ~ 18세기 초 건축물보다 대들보의 높이를 1단 높여서 공포를 구성한 결과다. 흔히 볼 수 없는 방식이지만 기존에 알려진 다포 건축물 중에서 이와 같은 기법으로 공포를 구성한 사례가 있다. 이들 건물은 같은 사찰 내에 위치한 화엄사 대웅전과 각황전이다. 두 건물 모두 대들보 하부에 아무런 홈을 따내지 않았고, 장혀와 전혀 결구하지 않았다. 즉 화엄사 천왕문은 화엄사 대웅전 혹은 화엄사 각황전과 유사한 기법으로 공포를 구성한 사례다. 이들 외에 다른 다포 건축물에서 이러한 수법을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화엄사 천왕문은 화엄사 대웅전 혹은 각황전과 거의 유사한 시기에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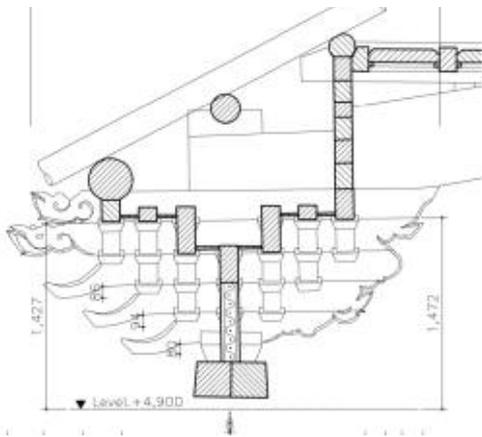


그림 7. 대웅전 공포도
(『구례 화엄사 대웅전 정밀실측보고서』,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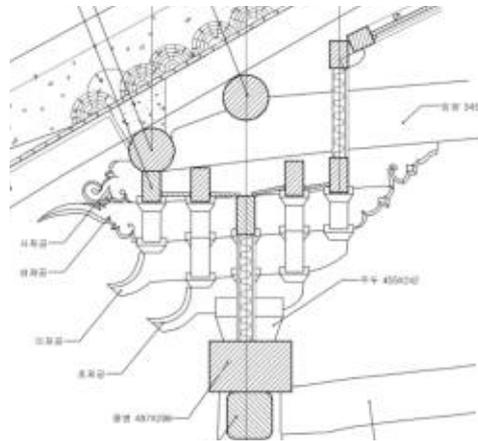


그림 8. 각황전 상층 공포도
(『화엄사 각황전 정밀실측보고서』, 2009)

3) 첨차의 조형

화엄사 천왕문은 각 출목마다 2종류(소첨과 대첨)의 첨차를 사용했고, 최외곽 출목에는 소첨 하나만을 사용했다. 다포건축에서 통상적으로 보이는 표준화 된 첨차의 사용이다. 하지만 외부와 내부에 사용한 첨차의 형태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외부에 놓인 첨차는 ‘연화두형(쌍S자곡선)’이라고 하는 초각이 있는 반면, 내부의 첨차는 따로 초각을 하지 않았다. 2종류의 첨차가 같은 시기에 만들어졌을 가능성도 있으나 서로 다른 시기에 만들어진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 서로 다른 시기에 만들어졌다면 외부에 사용된 화려한 초각의 첨차가 후대에 만들어졌을 것이다.

천왕문 공포의 내출목에 놓인 첨차는 좌우 마구리를 경사지게 사선으로 만들었고, 하부는 완만한 곡선의 형태를 띠고 있다. 같은 사찰 내에 위치한 대웅전과 각황전도 마구리를 경사지게 깎았으며, 하부는 완만한 곡선형을 하고 있다. 17~ 18세기 초 다포 건축에서 첨차의 마구리는 곧게 수직으로 잘라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앞서 기술한 공포의

결구 방식과 더불어 화엄사 천왕문이 대웅전 또는 각황전과 매우 유사한 모습을 보이는 또 다른 부분이다.



그림 9. 천왕문 공포 외부



그림 10. 천왕문 공포 내부



그림 11. 대웅전 배면 정칸 공포 외부



그림 12. 각황전 하층 공포 외부

화엄사 천왕문의 출목첨차는 소첨은 소첨끼리, 대첨은 대첨끼리 서로 같은 길이를 갖고 있다. 한편 주심의 소첨과 대첨은 출목첨차에 비해 훨씬 긴 길이를 갖고 있다. 주심첨차를 출목첨차에 비해 길게 만드는 것이 포벽의 구성과 관련된 것이라는 연구가 있다. 이를 ‘첨차조절’이라고 한다.²⁾ 화엄사 천왕문 공포와 같이 주심첨차를 출목첨차에 비해 길게 조성한 것이 화엄사 대웅전에서 확인된다. 화엄사 대웅전의 정칸과 좌우 제1협칸은 정면의 경우 주간포를 2조씩 배치했지만, 배면에서는 1조의 주간포만 두었다. 이때 배면의 포벽이 넓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주심첨차를 출목첨차에 비해 넓게 만들었다. 화엄사 천왕문과 같이 주심첨차를 길게 조성해서 포벽을 구성한 사례는 다른 사찰 건축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완주 화암사 극락전을 들 수 있다. 하지만 같은 사찰 내에 위치한 대웅전에서도 이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천왕문과 대웅전이 기법적으로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2) 양윤식, 「다포계건축의 첨차 조절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003. 10, 화엄사 천왕문은 모든 공포의 주심첨차를 똑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첨차조절이라는 용어가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

화엄사 각황전의 공포 역시 첨차에서 독특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각황전은 모든 소침을 같은 길이로 만들었지만, 최외곽 출목첨차는 다른 소침에 비해 길이가 길게 만들어졌다. 하지만 이런 모습이 화엄사 천왕문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화엄사 천왕문은 대웅전과 훨씬 유사한 방식의 공포를 갖고 있으며 각황전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내부 포벽의 조성

다포 건축 공포의 최외곽 내출목 상부에는 포벽을 만든다. 이 포벽은 시대에 따라 크게 다른 모습을 보인다. 17~18세기초에 만들어진 다포건축은 포벽에 단순하게 화반만을 설치하고, 화반과 화반 사이에는 벽체를 조성한다. 경산 환성사 대웅전, 공주 마곡사 대웅보전과 같이 거의 대부분 건축에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다. 하지만 18세기 중반 이후 만들어진 다포건축은 화반을 놓지 않고 모두 판벽으로 구성하거나, 화반을 사용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직각 방향으로 내운공(또는 두공)이라는 부재를 교차시켜 벽체를 따라 몇 겹을 쌓아 올린다. 이런 까닭에 이전 시기의 건물에 비해 내부 공간이 훨씬 화려하게 조성되는 특징이 있다.

화엄사 천왕문은 내부 포벽에 직사각형의 화반만을 설치했다. 또 내부에 내운공(두공)과 같은 부재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대들보의 보머리에 하나의 화반을 설치했고, 주간포 상부에도 하나의 화반을 놓았다. 유사한 모습의 화반은 화엄사 대웅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도 화엄사 천왕문이 17~18세기초에 건립되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화엄사 각황전 역시 내부 포벽에 화반을 설치했다. 하지만 하층에는 화반을 두지 않았고, 상층의 내부 포벽에서만 화반을 발견할 수 있다. 또 각황전의 화반 형태는 직사각형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전혀 다른 독특한 모양의 화반을 사용했다. 천왕문의 화반과는 조형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으로 판단된다.



그림 13. 경산 환성사 대웅전(17세기)



그림 14. 공주 마곡사 대웅보전(17세기)



그림 15. 남해 용문사 대웅전(18세기 후반)



그림 16. 부안 내소사 대웅전(18세기 후반)



그림 17. 천왕문 내부 포벽



그림 18. 대웅전 내부 포벽(『구례 화엄사 대웅전 정밀실측보고서』,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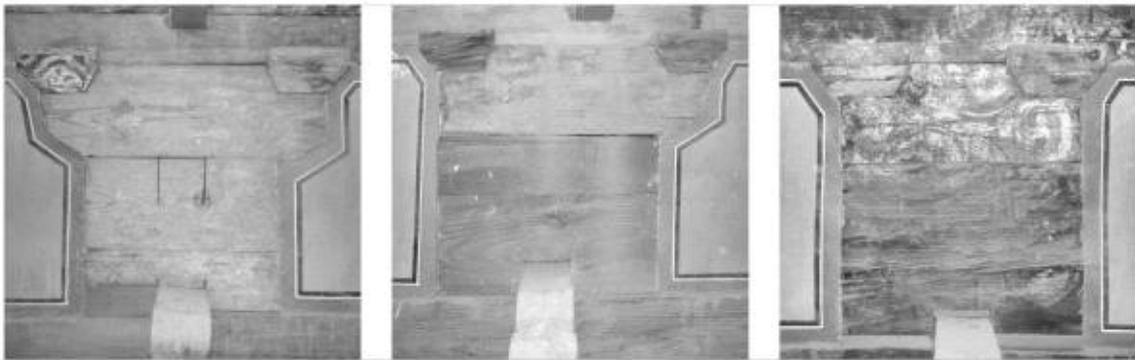


그림 19. 각황전 상층 화반(『화엄사 각황전 정밀실측보고서』, 2009)

5) 살미의 조형

화엄사 천왕문은 각 공포마다 초제공, 이제공, 삼익공, 사운공의 4가지 종류 살미를 사용하고 있다. 앞서 공포의 결구방식을 비롯해 여러 면에서 화엄사 천왕문의 공포가 17~18세기초에 만들어진 것들과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기술했다. 하지만 살미의 형태는 다른 특징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은 시기에 유행하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외부로 돌출한 개별 살미의 상면 끝부분에는 소로를 놓아 상부의 첨차를 지지한다. 그런데 시대에 따라 이 소로를 감싸는 방식에 차이가 있다. 17~18세기초 다포건축 살미는

상단 외곽 마지막 끝단에 소로자리를 만든다. 따라서 살미가 소로를 완전히 감싸지 않고, 소로의 바깥 마구리를 외부에 노출시킨다. 반면 18세기 중반 이후의 살미는 상대적으로 길이를 길게 만들고, 최외곽 끝단이 아닌 약간 안쪽에 소로자리를 만든다. 이때 살미는 소로를 대부분 감싸게 되어 소로의 마구리가 외부로 거의 노출되지 않는다. 이는 외관에서 아주 큰 차이를 만든다. 화엄사 천왕문의 살미는 외부에 소로 마구리가 전혀 노출되지 않도록 공포를 구성했다. 이는 18세기 중반 이후에 유행하던 모습이다.

살미의 쇠서 형태 역시 17~18세기초의 것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천왕문의 초제공과 이제공은 쇠서 상부에 커다란 연꽃이 만개한 모습이다. 살미에 이런 연꽃이 조각되는 것 역시 18세기 중반 이후에 등장한다. 최상단에 위치한 운공에는 봉황 머리가 조각되어 있는데 이것 역시 마찬가지다. 1702년에 만들어진 같은 사찰 내의 각황전 공포와 비교해도 모습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화엄사 천왕문 공포에 사용된 살미는 18세기 중반 이후 어느 시기에 교체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 앞서 살펴본 바 있는 외부의 첨차 역시 같은 시기에 교체되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0. 천왕문 공포 외부



그림 21. 각황전 하층 공포 외부

6) 통평고대 사용

천왕문 정면과 배면에 사용된 초매기는 통평고대 형태를 띠고 있다. 통평고대는 고식(古式)의 기법으로 알려져 있다. 상당히 많은 수의 건축물에 통평고대가 사용되었겠지만 후대의 수리과정에서 사라진 경우가 많다. 따라서 현재는 소수의 건축물에서만 통평고대를 볼 수 있다. 한편 통평고대에 단청이 칠해진 경우, 초매기와 착고 부분이 전혀 다른 단청 패턴으로 구획되기 때문에 눈에 띄지 않아 통평고대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통평고대는 18세기 후반에 사라진 건축기법이다. 사료에서는 ‘구로대’로 기록된 부재인데, 1776년(정조 즉위)의 원릉 정자각, 1785년(정조 9)에 왕명으로 건립된 대로사가 기법이 사라지기 직전의 건축물들이다. 하지만 이들은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관영 건축의

사례이며 사찰건축과 같은 민간 건축에서는 이보다 훨씬 이전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22. 천왕문 통평고대 1



그림 23. 천왕문 통평고대 2

7) 기타

화엄사 천왕문은 공포 형태에서 화엄사 대웅전과 유사한 부분이 많이 발견되기 때문에 같은 시기 또는 17세기 중엽에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후에 중수를 거치면서 형태가 변경된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1) 창방

17세기에 건립된 건축물은 창방과 기둥이 결구하는 부분에서 내외에 노출되는 창방의 끝부분을 잘라내어 기둥의 형상이 드러나도록 조성한다. 하지만 후대의 건축물은 창방의 끝을 타원형으로 만들어 기둥머리를 감싸는 형태로 만들었다.³⁾ 화엄사 천왕문의 창방은 기둥머리를 완전하게 감싸는 형태 즉 끝단을 타원형으로 가공했다. 반면 화엄사 대웅전의 창방은 끝부분을 잘라내 기둥이 드러나도록 조성한 차이가 있다. 이는 명확히 조형면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천왕문이 17세기 중반에 처음 건립되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창방은 후대에 교체되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3) 정상문, 『다포계 목조건축물 창방의 결구 특징에 관한 연구 : 임진왜란 이후 중건된 사찰의 건물들을 중심으로』, 명지대 석사학위청구논문, 2004



그림 24. 천왕문 창방



그림 25. 대웅전 창방

(2) 내부 좌우의 충량

화엄사 천왕문 내부에는 좌우측으로 충량이 설치되어 있다. 하지만 일반적인 충량과 같이 단면이 큰 보부재가 아니라 가느다란 각재의 형태를 띠고 있다. 현재 이 부재에는 각종 철물을 매달아 이것으로 소조 사천왕상을 지탱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부재는 건축 목부재가 아니라 소조상을 지지하기 위한 보조재로 판단된다.

이 부재가 천왕문에 설치되어 있는 상태는 다소 의아하다. 측벽을 따라 가로로 띠장을 놓은 다음, 이 띠장 상부에 아무런 결구 없이 걸쳐 놓았다. 따라서 이 부재는 천왕문의 건립 초기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조선말 또는 일제강점기에 소조상을 수리하면서 추가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26. 좌우 충량 1



그림 27. 좌우 충량 2

(3) 반자

화엄사 천왕문은 내부 전체에 걸쳐 반자가 설치되어 있다. 반자들은 도리방향으로만 놓았는데 각 칸마다 5개씩 설치해서 총 4개의 구획으로 나뉘어 반자를 설치했다. 반자들로 사용한 목재는 위치에 따라 규격이 제각각이다. 1986년에 발간된 『구례 화엄사 실

측조사보고서』의 횡단면도에서 반자는 정간 부분이 낮고 좌우 측벽으로 갈수록 높이가 약간씩 높아지는 것으로 묘사되었다. 한편 좌우 측벽에 놓인 보방향 반자들은 중앙의 2칸만 노출되어 있고 전면과 배면의 반자들은 보이지 않는다. 또 충량과 반자관이 겹쳐진 모습도 확인된다. 전체적인 반자틀과 반자의 마감으로 판단하건데 초장 당시부터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앞서 충량과 마찬가지로 조선말 또는 일제강점기에 추가되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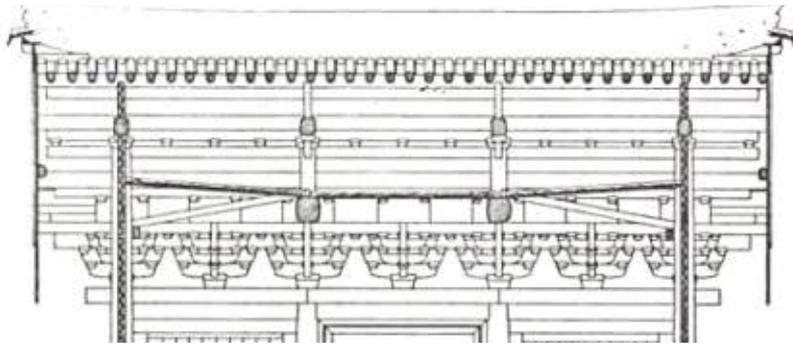


그림 28. 횡단면도(『구례 화엄사 실측조사보고서』, 1986)



그림 29. 천왕문 반자 1



그림 30. 천왕문 반자 2

3. 종합의견

지금까지 구례 화엄사 천왕문의 건축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화엄사 천왕문은 1630년대에 건립된 것으로 알려져 왔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료는 발견되지 않았다. 천왕문에 대한 역사적인 사료가 전하는 것이 없어 명확한 건립연대와 중수 시기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는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에 있어서 커다란 단점이라고 할 수 있다.

화엄사 천왕문의 공포 결구 방식, 개별 부재의 조형 및 구성 등을 살펴본 결과, 천왕문은 같은 사찰 내에 위치한 화엄사 대웅전과 건축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유사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화엄사 대웅전은 1636년에 완성된 것이다. 따라서 화엄사 천왕문 역시 1630년대에 초창되었다는 추정이 일견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화엄사 천왕문은 초창 이후 몇 차례의 수리를 통해 일부 부재가 교체된 것으로 추정된다. 공포의 살미는 18세기 중반 이후에 유행하던 모습을 하고 있어서 이때 새롭게 교체된 듯하다. 또 외목에 결구된 첨차 역시 내목의 교두형과 다르게 연화두형의 모습이어서 이 역시 후대에 교체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실내에 설치된 반자와 내부 좌우 중앙에 걸려있는 충량 등 몇몇 부재는 화엄사 천왕문과 조화롭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명확히 초창 당시의 모습이 아니며 조선말 또는 일제강점기에 천왕문을 수리하거나 소조상을 수리하는 과정에 첨가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이 화엄사 천왕문은 초창 당시의 모습과 더불어 후대의 수리로 변경된 부분이 어우러져 현재의 모습을 이루고 있다.

천왕문은 사찰의 진입로에 위치해서 통과하는 문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사찰 주불전에 비해 낮은 등급의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까닭에 대부분의 사찰에 조성된 천왕문은 익공식으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화엄사 천왕문은 최고의 건축기법이라고 할 수 있는 다포식으로 조성해서 문의 격을 최대한으로 높인 건물이다. 현재 국내에 전하는 천왕문 중에서 다포식으로 만들어진 건물은 순천 송광사 천왕문, 보은 법주사 천왕문, 김천 직지사 천왕문과 함께 오직 4동만 전하고 있다. 다포식으로 조성한 천왕문이 극히 적은 것을 감안하면 ‘구례 화엄사 천왕문’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해서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12. 영광 불갑사 천왕문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검토

가. 제안사항

전남 영광군 소재 「영광 불갑사 천왕문」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전남 영광군 소재 「영광 불갑사 천왕문」을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 받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전라남도지사
- (2) 대상문화재 : 비지정 「영광 불갑사 천왕문」
 - 소재지 : 전라남도 영광군 불갑면 불갑사로 450(모악리 8)
- (3) 신청내용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
 - 명칭 : 영광 불갑사 천왕문(靈光 佛甲寺 天王門)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불갑사
 - 소재지 : 전라남도 영광군 불갑면 불갑사로 450(모악리 8)
 - 조성연대 : 조선시대
 - 수량 : 1동
 - 지정면적 : 59.74㎡
 - 구조/형식/형태 : 단층 목구조 / 정면3칸, 측면2칸 / 맞배지붕 / 겹처마

라. 현지조사 의견(2023.07.05. / 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 문화재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있음.
- 문화재전문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있음.
- 문화재전문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있음.

마. 지정조사보고서 : 불임참조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 원안가결 11명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23. 7. 5	대상문화재	영광 불갑사 천왕문	
조사자	성명	○○○	전공 분야	건축
	소속	○○○○대학교	직위(직책)	교수
주요 지정 사항 검토	문화재 종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문화재 명칭	영광 불갑사 천왕문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세부내용 별첨 참조		
	연혁·유래 및 특징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세부내용 별첨 참조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3 년 10월 7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1. 입지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1) 입지현황

불갑사는 불갑산(516m) 기슭에 자리잡고 있다. 불갑산과 모악산 줄기가 있고, 경내 앞으로는 서쪽으로 흘러 서해안으로 빠지는 불갑저수지로 연결되는 계곡 하천이 흐르고 있어 전형적인 배산임수(背山臨水)이다. 불갑사 뒤 오솔길을 따라가면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는 天然記念物 第112號인 참식나무 자생지가 있다. 오솔길을 따라 조금 더 오르면 불갑사제가 있으며, 불갑산을 수놓는 상사화로 유명하다. 불갑사의 풍수 형국은 늙은 쥐가 먹이를 찾아 밭으로 내려오는 형국인 “노서하전형(老鼠下田形)” 명당이라고 전한다. 모악산 노적봉을 주산(主山)으로 하여 뒤쪽에는 모악산의 능선이 병풍처럼 둘러져 있고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은 지형을 따라 건물들을 서향으로 배치하였다.

불갑사 경내에 들어서서 돌계단을 오르면 먼저 천왕문을 만난다. 이 가운데 보물 대웅전은 정면 3칸, 측면 3칸의 팔작지붕 건물로 정면과 측면 가운데 칸의 문은 연화문과 국화문, 보상화문, 좌우 칸에는 소슬 빗살무늬로 우수하게 조각되어 있다. 현재 불갑사는 대웅전을 비롯하여 만세루, 사천왕문, 명부전, 일광당, 팔상전, 칠성각, 향로전, 백운당, 요사채, 범종루, 무각선원, 염화실 청풍각 등이 있다. 영광 불갑사(佛甲寺)사는 전라남도 영광군 불갑면 불갑사로 450에 소재한 대한불교조계종 제18교구 백양사의 말사이다.

2) 역사문화환경

불갑사는 384년(침류왕 원년) 마라난타가 백제에 불교를 전하고 처음으로 개창한 절로, 부처 ‘불(佛)’, 첫째 ‘갑(甲)’의 ‘불갑사(佛甲寺)’이다. 강항(1567-1618)이 지은 「불갑사중수권시문(佛甲寺重修勸施文, 1608년)」을 통해 이미 통일 신라 때 고쳐 지은 적이 있는 고찰임을 알 수 있다. (류호철, 불교 사찰 사적 지정을 통한 문화재로서의 가치 인식 확장과 보존·활용 증진-영광 불갑사를 사례로, 동아시아고대학(DONG ASIA KODAEHAK(The East Asian Ancient Studies, Vol.- No. 69 [2023])

그리고 고려시대 각진 국사가 법당을 중수하기 위해 서까래를 걷어내니 대들보에 정원 원년(貞元元年, 785년)에 개조하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이 기록으로도 불갑사는 785년 이전에 창건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1799년에 간행된 『범우 고(凡宇考)』에는 신라 시대에 건립되었다는 기록 등으로 오랜 역사와 풍부한 문화 환경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불갑사 경내에는 보물 영광 불갑사 대웅전과 보물 영광 불갑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보물 영광 불갑사 불복장 전적,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영광 불갑사 대웅전 삼세불회도, 영광 불갑사 팔상전 영산회상도, 영광 불갑사 지장시왕도,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영광 불갑사 동종, 영광 불갑사 명부전 목조지장보살삼존상과 시왕상 일괄, 영광 불갑사 목조 석가여래삼존좌상과 나한상 일괄, 불갑사 만세루, 영광 불갑사 고적 및 위시답

병록 등이 있다. 최근에는 천왕문 내에 있는 목조사천왕상이 복장전적과 함께 국가지정 문화재 보물로 지정 예고되었다. 목조사천왕상은 원래 전라북도 무장 소요산 연기사에 있던 것으로 연기사가 폐사됨에 따라 불갑사의 설두선사(雪竇禪師, 1824~1889)가 1876년 이안한 것으로 전한다.

2. 연혁·유래 및 특징

1) 직지사 천왕문의 건축연혁

천왕문은 「모악산불갑사기」에 ‘문’과 ‘지국천왕’의 기록으로 보아 1725년 이전에 건립된 것으로 알 수 있다. 불갑사 천왕문에 걸려 내려오는 1760년대에 조성된 원교 이광사의 친필 편액이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자료가 되고 있다. 1876년에는 설두스님이 고창 소요산 연기사 터에 남아 있던 사천왕상을 불갑사로 옮겨 봉안하였다. 그러나 기존 천왕문보다 사천왕상이 커서 사천왕상을 봉안할 수 없었기 때문에 현재의 천왕문과 만세루 사이에 사천왕상을 모셔두고 천왕문을 해체하여 이 건하였다. 본래의 위치에서 뒤쪽으로 10여m 정도 옮긴 것이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천왕문 자리에는 옛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 전나무 4그루를 심어 놓았다. 이것은 후대에 천왕문을 원래 위치로 다시 옮길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다. 1938년에는 설제 정연 스님이 천왕문을 보수하였다. 1997년 1월에는 천왕문 앞에 있던 전나무가(높이 25m, 직경 80cm)가 쓰러져 천왕문을 덮치자 긴급 보수하였다. 1938년에 천왕문을 보수한 기록이 모악산불갑사천왕문상량문, 모악산 불갑사 천왕문 중건 사실에 있다. 1997년에 보수를 통해 대들보를 교체하였고 2009년 발굴조사를 거쳐 천왕문의 위치를 원래의 자리로 옮겼다. 이때 기둥을 교체하였으며, 2013년에 단청공사가 있었다. 1876년 이 건한 천왕문의 1998년 수리전 사진에는 어칸 전후 면에 문짝을 달아 개폐할 수 있게 되어 있었다.



그림 1 천왕문(1998년 수리전 사진/김봉렬 논문 발췌)

2) 불갑사 천왕문의 건축적 특징

불갑사의 천왕문은 정면에는 천왕문(天王門)이라 쓴 편액을 걸었고 배면에는 천왕전(天王殿)이라 쓴 편액을 걸었다. 정면의 천왕문 편액은 1760년대에 원교 이광사의 친필로 조성된 것으로 천왕문의 역사를 고증해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그림 2 정면 어칸 편액



그림 3 배면 어칸 편액

정면과 배면 기둥에는 주련을 달았는데 글씨는 월각경천이 썼으며 모두 최근에 단 것이다. 정면 주련의 글씨는 四大天王威勢雄 護世巡遊處處通 威光遍照滿乾坤 眞界無爲解脫門¹²⁾라고 쓰여있다. 배면 주련에는 梵王帝釋四天王 佛法門中誓願堅 列立招提千萬歲 自然神用護金仙¹³⁾이라고 쓰여있다.

그리고 불갑사 천왕문은 불전처럼 높은 기단 위에 건축되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불갑사 천왕문은 20세기초까지만 해도, 천왕전이라 불리울 정도로 격이 높았다고 한다. (김봉열, 불갑사 가람구성과 건축구조, 동국대학교 사찰조경연구소 1998.12 사찰조경연구 6권 87-105(19pages) 이는 다른 사찰의 천왕문과는 다른 위상을 갖는 특별한 천왕문으로서의 의미를 두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림 4 높은 기단 위의 사천왕문

불갑사 천왕문의 평면(平面) 규모는 정면 3칸, 측면 2칸이다. 주칸은 정면 정칸이 3,340mm, 좌우 협칸 3,120mm이며, 측면은 3,100mm 내외이다. 기둥의 형태는 민흘림이며,

길이는 3,060mm 내외이다. 벽체는 어칸 전·후면과 내부에는 벽 없이 개방되어 있고, 양 협칸은 중방을 설치하고 상부는 2칸, 하부는 3칸 입면으로 되어 있다.

공포는 2출목 3익공 형식이다. 주두는 굽 부분을 사절한 형태이다. 주심첨차는 사절하였으며 출목첨차는 연화를 조각하였다. 초제공과 2제공은 앙서형이며 3제공은 운공형이다. 살미 내부는 초제공의 경우 아래를 향해 활짝 핀 연화를 조각하였고, 2제공은 위를 향하고 있는 연봉을 조각하였다. 운공 위에 있는 보 뺨목은 봉황이 연화를 물고 있는 형상으로 조각하였다. 공포부에 사용된 첨차와 제공은 익산 승림사 보광전의 공포와 조각 수법이 거의 유사하며 부안 개암사 대웅전 공포와도 유사한 형태이다.

가구 구조는 5량가이며, 대들보는 2매의 부재를 이어 사용한 합보이며, 불갑사 만세루에서도 합보가 사용되어 있다. 대들보 이음부 하부에는 심주를 세워 받쳤으며, 양쪽 심주는 가로 방향으로 창방을 결구하고 그 위에 뜬 장여를 설치하여 대들보를 받치도록 했다. 이것은 대들보의 이음부를 보강하기 위한 기법으로 불갑사 천왕문의 구조적 특징이다. 대들보 위에는 동자주를 세워 받쳤으며 동자주 상부에 뜬 창방과 보아지를 결구하고 주두를 놓아 종보를 받쳤다. 종보 위에는 조각이 화려한 파련 대공을 놓아 종도리를 받치도록 했다.

천장은 어칸과 협칸이 다르게 구성되어 있다. 어칸은 연등 천장으로 개방하였으며 사천왕상이 봉안된 협칸은 중도리 사이에는 고미반자를 설치하고 중도리와 주심 도리 사이에는 빗천장으로 구성하였다. 불갑사 천왕문은 17세기 사문 건축의 특징을 보여주는 사례이며 특히, 서남해안 사찰의 지역적 조각수법과 심주를 활용한 보강기법을 가지고 있다.

3. 지정가치 및 근거기준

불갑사 천왕문은 정면에는 천왕문(天王門), 배면에는 천왕전(天王殿)이라 쓴 편액이 걸려 있으며, 20세 초까지 천왕전이라 불리웠던 건축물이다. 백제의 불교가 도래한 사찰로서, 불갑사의 천왕문은 다른 사찰의 천왕문과는 다른 위상을 갖는 특별한 천왕문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한 다른 천왕문들과는 다르게 불전처럼 높은 기단 위에 건축되어 있는 희소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이에 대한 연구 가치도 있다. 그리고 천왕문은 1760년대에 조성된 원교 이광사의 친필 편액과 「모악산불갑사기」에 ‘문’과 ‘지국천왕’의 기록으로 보아 1725년 이전에 건립된 역사성을 지니고 있다. 현재의 사천왕문은 1876년에는 고창 소요산 연기사 터에서 사천왕상을 옮겨와서, 사천왕상을 봉안하기 위하여 기존 천왕문을 해체하여 이건하고, 다시 원래의 자리로 옮긴 것이다. 이러한 유래는 불갑사 사천왕문의 역할이 특별했다는 역사적 가치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공포부와 화반, 파련대공의 우수한 조각 수법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익산 승림사 보광전, 부안 개암사 대웅전과 유사하여 지역성을 반영한 특징을 갖고 있다. 또한, 대들

보 이음부 하부에는 심주를 세워 받치고 각각의 심주를 창방으로 서로 결구하고 그 위에 뜬장여를 설치하였다. 이것은 대들보의 이음부를 보강하기 위한 기법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구조는 다른 사문(寺門)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구조 기법으로서 학술적 가치가 있다.

4. 종합의견

영광 불갑사 천왕문은 마라난타가 백제에 불교를 전하고 처음으로 개창한 사찰의 천왕문으로서의 의미와 1725년 이전 건립 기록, 이건의 역사성이 특별한 가치를 갖는다. 그리고 천왕전이라는 편액과 불전처럼 높은 기단은 다른 천왕문들과 다른 격을 갖추고 있다는 가치가 있다. 그리고 부재 구성 형식과 구조 기법은 창의적이고 독특한 예술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공포부의 조각들은 인근 지역 사찰들과 유사하여 지역성도 잘 구현하고 있다. 영광 불갑사 천왕문은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측면에서 우수하고 가치가 높은 건축물로 보물 지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대상 문화재의 핵심 보존가치

백제시대 처음 개창한 사찰의 천왕문의 의미와 건립 시기, 이건의 역사성
천왕전으로 불리던 명칭과 기단의 특수성
서남해안 사찰과 유사한 공포형식이 반영된 지역성
독특한 부재 구성 형식, 조각, 보강기법의 독창적 예술성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23. 7. 5.	대상문화재	영광 불갑사 천왕문	
조사자	성 명	○○○	전공 분야	전통건축
	소 속	○○○○○○대학	직위(직책)	전업강사
주요 지정 사항 검토	문화재 종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문화재 명칭	영광 불갑사 천왕문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세부내용 별첨 참조		
	연혁·유래 및 특징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세부내용 별첨 참조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3년 9월 27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 문화재명 : 영광 불갑사 천왕문(靈光 佛甲寺 天王門)
- 신청종별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 소재지 : 전라남도 영광군 불갑면 불갑사로 450(모악리 8)
- 구조 및 형식 : 정면 3칸, 측면 2칸, 5량가, 이출목 삼익공, 맞배지붕, 겹처마
- 재 료 : 목조, 한식기와
- 시 대 : 조선시대 1725년

1.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1.1. 입지현황

영광 불갑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제18교구 본사 백양사의 말사로 전라남도 영광군 모악산(516m) 기슭에 자리한 사찰이다. 서해안고속도로 영광IC 또는 불갑사IC로 빠져나와 영광과 함평을 연결하는 23번 국도를 따라가다가, 안맹삼거리로 나오면 동쪽 4.5km 지점에 자리하고 있다. 광주와 영광을 연결하는 24번 국도에서는 삼학육교에서 서쪽으로 5km 정도 지점에 자리하고 있다. 불갑사는 모악산 노적봉을 주산(主山)으로 하여 뒤쪽에는 모악산의 능선이 병풍처럼 둘러 있다. 사찰의 앞쪽으로는 개울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며 불갑저수지를 거쳐 서해로 흐른다. 불갑사의 풍수 형국은 늙은 쥐가 먹이를 찾아 밭으로 내려오는 형국인 “노서하전형(老鼠下田形)” 명당이라고 전한다. 불갑사는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은 지형을 따라 전각들이 서향하여 배치되어 있다.

1.2. 역사문화환경

불갑사는 백제 침류왕(384년) 때 마라난타가 백제에 불교를 전래하면서 제일 처음 지은 불법도량이라고 전한다. 그리고 불갑(佛甲)이란 사찰의 명칭은 불사의 으뜸이자 시작이란 뜻에서 붙여진 것이라고 한다.

2001년 동국대학교 박물관에서 실시한 정밀지표조사에서는 토기편과 기와편을 비롯하여 청자편, 분청사기편, 백자편 등이 발견되었다. 지표상에서 채집된 유물에서는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의 유물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청자편은 주로 고려시대 후기의 청자상감편이 나왔다. 이러한 유물은 고려 후기 각진국사의 중창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불갑사 연혁 관련 자료로는 「불갑사중수권시문(佛甲寺重修勸施文, 1608년)」, 「불갑사고적기(佛甲寺古蹟記, 1741년)」, 「모악산불갑사중창서(母岳山佛甲寺重勸序, 1765년)」, 「불갑사중수기(佛甲寺重修記, 1869년) 등이 있다. 가장 앞선 기록인 「불갑사중수권시문(1608년)」에는 ‘厥初之經營孰爲而孰傳之其重 則老僧因法堂改椽時 勸得見其上梁 則有大書六字曰貞元元年改造’ 라는 기록이 있다. 고려시대 각진국사가 법당을 중수하기 위해 서까래를 걷어내니 대들보에 정원원년(貞元元年, 785년)에 개조하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다는 것이다. 이 기록이 사실이라면 불갑사는 785년에 창건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1799년에 간행된 『범우고(凡宇考)』에는 신라시대에 건립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불갑사는 정유재란 때 전란으로 소실되어 법릉(法陵)전사에 의해 중건되었다. 법릉은 1608년에 불사를 발원하여 재목을 모으고 1623년까지 중건공사를 진행하였다. 수은(睡隱) 강항(姜沆)이 「불갑사중수권시문」을 지었다. 당시 중창된 불갑사의 규모는 법당과 불전 5곳, 방사(房舍) 11곳, 암당(庵堂) 12곳이라고 한다. 이후 1635년(인조 13)에는 대웅전의 본존불을 조성하고 1644년(인조 22)에는 조암스님이 만세루를 5칸으로 중수하였다. 1654년(효종 5)에는 명부전에 지장시왕상을 조성하였다. 1661년에는 대웅전 삼존불을 개금하고 1675년(숙종 1)에는 만세루를 7칸으로 증축하였다. 1694년(숙종 20)에는 법전의 기와가 새고 서까래도 썩은 것이 많아 해릉(海陵)스님이 보수하였으며 공전(公殿), 방사(房舍), 제료(諸寮), 암자 등 30여 개소에 500~600칸이 폐허가 되고 무너진 곳이 많았다고 한다. 해릉스님은 모연문(募緣文)을 통해 법전 등을 개조했으며 그 후 1702년(숙종 28) 팔상전에 팔상탱화를 조성 봉안하였고 1705년(숙종 31) 백운당(白雲堂) 등 7칸을 새로 지으며 낡은 기와를 교체하였다 이듬해에는 팔상전에 석가삼존불 및 16나한을 봉안했다.

1725년에 작성된 「모악산불갑사기」에는 당시 불갑사의 건축물과 배치에 대해 기록되어 있다. 이 기록에는 방사가 11곳, 작은 암당이 또 11곳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암당의 개수만 차이가 난다. 이 기록에 보이는 건물은 대웅보전(大雄寶殿), 누각(만세루), 팔상전(八相殿), 금당(金堂), 영자전(影子閣), 나한전(羅漢殿), 명부전(冥府殿), 비전(碑殿), 관음전(觀音殿), 첨성각(瞻星閣), 선당(禪堂), 승당(僧堂), 상실(上室) 2동, 별실(別室) 2동, 청풍각(淸風閣), 백운당(白雲堂), 명경당(明鏡堂), 향적전(香積殿), 양진당(養眞堂) 등이다. 그리고 문수전(文殊殿)은 이미 허물어졌다고 기록되어 있다.

1741년(영조 17)이후 채은(採隱) 스님이 불전을 중수하고 사찰을 새롭게 하였는데 「불갑사고적기」에서는 이를 5중창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1743년(영조 19)에는 학경스님에 의해 대웅전 삼존불 개금 및 지장시왕 개금·개채가 이루어졌다. 6중창은 1764년에 이루어졌다. 당시 기록은 2002년 대웅전 해체수리공사 중에 발견된 종도리 목서와 「전라남도 영광군 모악산 불갑사 중창상량문(全羅南道靈光郡母岳山佛甲寺重創上樑文, 1764년)」 및 「법당상량문 제육창건(法堂上樑文 第六創建), 1764년」 등에서 확인된다. 기록에는 동별실(東別室), 양진당(養眞堂) 서별실(西別室), 청풍각(淸風閣), 관음각(觀音閣), 명경전(明鏡殿), 남암(南庵), 오진암(悟眞庵), 부도암(浮屠庵), 전일암(錢日庵), 명도암(明道庵), 해불암(海佛庵), 불영대(佛影臺) 등의 명칭이 보인다. 상량문 뒤쪽에는 「道光五年乙酉二月日 大法堂三尊佛像坐向改正記」가 부기되어 있다. 1762년에 폐허가 되었던 법당을 1764년에 새로 중건하였는데 동좌서향(東坐西向)이었다. 이듬해 단청을 하고 불상을 봉안하였는데 남향을 했다. 1825년에는 불상의 좌향을 법당과 같이 정면으로 봉안했다는

기록이 있다. 대웅전 불상을 지금처럼 다시 봉안한 것은 1986년이다.

1869년에는 설두(雪竇)스님에 의해 다시 중창공사가 이루어졌다. 1876년(고종 13)년에는 폐사가 된 전라북도 고창 연기사에서 사천왕상을 옮겨 와 봉안하였다. 이후 1904년에는 만세루를 개수하면서 6칸으로 축소하였고, 1909년에는 동파스님이 대웅전을 보수하였다. 1923년에는 칠성각을 중건하였다. 1936년에는 만암(曼庵) 스님이 후원에 있던 명부전을 현재의 대웅전 앞 옛 선당자리로 옮겨지었으며 각 전각의 불상을 개금하였다. 1937년부터 1941년까지는 설제(雪醜)스님에 의해 대웅전, 만세루, 일광당, 천왕문 등이 개보수되었다.

현재 불갑사에 남아 있는 국가지정문화재로는 대웅전을 비롯하여 보물 3건이 있으며,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4건,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5건 등 총 12건이 있다. 그리고 대웅전 옆에는 글씨가 거의 보이지 않는 각진국사비가 세워져 있다.

2. 연혁 및 특징

2.1. 연혁 및 유래

영광 불갑사 천왕문의 창건연대는 명확하지 않으나 1725년에 작성된 「모악산불갑사기」에는 당시 불갑사의 배치와 건물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대웅보전(大雄寶殿)이 중앙에 우뚝하게 서 있으면서 높이 솟아 날아 갈듯한 높은 누각과 마주하고 있다. 선당(禪堂)과 승당(僧堂)은 좌측에 있으면서 오른쪽을 향하고, 상실(上室) 2동과 별실(別室) 2동은 동쪽으로 향하기도 하고 서쪽으로 향하기도 한다. 팔상전(八相殿)과 영자전(影子閣)은 비취빛 용마루가 서로 잇닿아 있으며, 나한전(羅漢殿)과 침성각(瞻星閣)은 단청한 대들보가 서로 빛을 발하고 있다. 청풍각(淸風閣)과 백운당(白雲堂)은 난간이 환하게 비추고, 명경당(明鏡堂)과 향적전(香積殿)은 담장이 구불구불 이어졌다. 비전(碑殿)과 양진당(養眞堂)이 앞뒤로 놓여 있고, 금당(金堂)과 관음전(觀音殿)은 위아래로 서로 통하며 명부전(冥府殿)은 여전히 남아있으나 문수전(文殊殿)은 이미 허물어져 버렸다. 몽둥이를 잡고 문을 지키는 자는 금강역사가 아닌가, 칼을 빼어들고 마주보고 있는 자가 바로 지국천왕이다.’

위의 기록에서 천왕문이란 명칭은 보이지 않으나 ‘문’이란 명칭이 나오고 사천왕 중 하나인 지국천왕에 대한 기록을 볼 때 천왕문은 1725년 이전에 이미 건립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고, 불갑사 천왕문에 걸쳐 내려오는 1760년대에 조성된 원교 이광사의 친필 편액이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자료가 되고 있다. 1876년에는 설두 스님이 고창 소요산 연기사 터에 남아 있던 사천왕상을 불갑사로 옮겨 봉안하였다. 그러나 기존 천왕문보다 사천왕상이 커서 사천왕상을 봉안할 수 없었기 때문에 현재의 천왕문과 만세루 사이에 사천왕상을 모셔두고 천왕문을 해체하여 이건하였다. 본래의 위치에서 뒤쪽으로 10여 m 정도 옮긴 것이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천왕문 자리에는 옛 위치

를 표시하기 위해 전나무 4그루를 심어 놓았다. 이것은 후대에 천왕문을 원래 위치로 다시 옮길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다. 1938년에는 설제정연 스님이 천왕문을 보수하였다.

1997년 1월에는 천왕문 앞에 있던 전나무가(높이 25m, 직경 80cm)가 쓰러져 천왕문을 덮치자 긴급 보수하였다. 천왕문을 보수하면서 본래 위치로 옮기고자 계획하였으나 전라남도 문화재위원회에서 반대하여 보수공사만 진행하였다. 보수공사를 진행하면서 가능한 옛 부재를 사용하고자 계획하였는데 대들보의 경우 항아리 크기의 구멍들이 나 있을 정도로 부식되어 교체하였으며 춘양목을 사용하였다고 한다. 2009년에는 천왕문 주변 발굴조사를 거쳐 원래 위치인 현재 자리로 이관하였으며, 이때 상태가 좋지 않은 기둥을 교체하였다. 2013년에는 천왕문 단청공사를 실시하였다.

2.2. 배치

현재 불갑사는 여러 차례 중창불사를 통해 많은 건물들이 들어서 있다. 문헌 기록을 통해 적어도 1725년 이전에 이미 건립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불갑사 천왕문에는 1760년대에 조성된 원교 이광사의 친필 편액이 보존되어 내려오므로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 하고 있다. 천왕문은 사찰의 사문(寺門)으로 사찰에서 꼭 필요한 건축물이므로 불갑사 천왕문의 건립연대는 빠르면 정유재란 후 중창불사가 이루어지던 1608년부터 1623년 사이에 세워졌을 가능성이 있다.

중창불사 이전인 1997년 당시 작성된 불갑사 배치도를 보면 중창불사 이전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사찰 입구에는 부도전이 자리하고 있으며 개울을 건너면 금강문이 불갑사 편액을 걸고 위치하고 있다. 금강문을 지나 석계를 오르면 2단 석축 위에 천왕문이 자리하고 있다. 천왕문을 들어서면 만세루와 대웅전이 직선 축선상에 배치되어 있다. 대웅전 일곽은 앞마당을 중심으로 북쪽에 대웅전이 자리하고 남쪽에는 만세루(萬歲樓)가 있다. 대웅전은 만세루를 돌아 진입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서쪽에는 명부전, 동쪽에는 요사인 일광당(一光堂)이 자리하여 불갑사의 중심 영역은 4동 중정형 가람배치를 이루고 있었다. 지금은 명부전 자리에 설선당이 들어서 있고, 천왕문의 우측에 종무소가 있고 종무소 앞쪽에는 전시관이 자리하고 있다.



[그림.1] 영광 불갑사 천왕문 위치도(출처:지정조사보고서)



[그림.2] 영광 불갑사 천왕문 정면 현황(2023.7.5.)

2.3. 건축적 특징

불갑사 천왕문은 정면3칸, 측면 2칸 규모의 겹처마 맞배지붕 건물이다. 기둥 간격을 보면 정면 정간이 좌우 퇴칸보다 1자 정도 크게 조성되어 있다. 평면의 비율은 정면과 측면이 약 3:2의 비율을 이루고 있다. 내부 중앙 정칸 통로에는 강희다짐으로 마감하고 좌·우 퇴칸에는 우물마루를 설치하고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불갑사 사천왕상을 봉안하였다. 오른쪽 퇴칸에는 뒤쪽에 동방 지국천왕을 앞쪽에는 남방 증장천왕을 봉안하였으며, 왼쪽 퇴칸에는 뒤쪽에 북방 다문천왕을 앞에는 서방 광목천왕을 배치하여 조선 후기의 전형적인 배치법을 따랐다.

기단은 2단 석축 위에 자연석을 사용하여 외벌대로 조성하였으며, 기단 전면 진입계단 좌우측면과 상부석축 상단에 돌난간대가 설치되어 있다. 기단상부는 강희다짐으로 마감하였으며, 좌측면과 배면 기단 전면에 화강석 경계석으로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화강석 덮개석을 덮었다.



[그림.3] 영광 불갑사 천왕문 배면 및 좌측면 현황(기단 및 배수로.)

불갑사 천왕문에 사용된 초석은 전체 덩벙주초가 상부 기둥을 받치고 있다. 기둥은 민흘림이 있는 원기둥을 사용하였으며, 내부 심주는 방형의 각주가 사용되었는데 뚜렷한 민흘림이 특징이다.

2009년 이전 복원시에 원기둥은 부식이 심해 3개만 기존 기둥을 재사용하면서 하부 부식부분은 동바리 이음으로 보수하였다. 그 위치는 정면 정칸 우측 기둥, 배면 좌측 귀기둥, 우측면 중앙 기둥이다. 내부 심주는 2개가 사용되었는데 동바리 이음으로 보수되었다. 기둥과 기둥을 결구시키는 창방뿔목은 아무런 조각이 없이 직절하였다.

천왕문은 지붕부와 축부가 1:1의 비례를 지니고 있다. 일제 강점기 사진을 보면 출입

문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나 1997년에 작성된 도면을 보면 판문이 설치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퇴칸의 벽체는 중방 위는 2칸으로 나누어 사천왕을 그려 넣었으며, 중방 하부는 3칸으로 나누었다. 측면은 정면과 동일하게 수장재를 설치하였으나 벽화를 그리지 않았으며, 처마부분 또한 홑처마이며 와구토마감이다. 옛 사진과 비교할 때 벽체의 입면 구성과 처마부에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정면에는 천왕문(天王門)이라 쓴 편액을 걸었고 배면에는 천왕전(天王殿)이라 쓴 편액을 걸었다. 정면의 천왕문 편액은 1760년대에 원교 이광사의 친필로 조성된 것으로 천왕문의 역사를 고증해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정면과 배면 기둥에는 주련을 달았는데 글씨는 월각경천이 썼으며 모두 최근에 단 것이다.



[그림.4] 영광 불갑사 천왕문 일제 강점기 현황(출처:지정조사보고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리건판 사진)

불갑사 천왕문 공포는 2출목 3익공 형식으로 주두는 굽 부분을 사절한 형태로서 조선 시대의 일반적인 주두의 모습이다. 주심두공은 사절하였으며 출목두공은 연화를 조각하였다. 초익공과 이익공은 양서형이며 삼익공은 운공형이다. 내부는 초익공 보아지는 아래를 향해 활짝 핀 연화를 조각하였고, 이익공 보아지는 위를 향하고 있는 연봉을 조각하였다. 운공 위에 있는 보 뺄목은 봉황이 연화를 물고 있는 형상으로 조각하였다. 창방과 장여 사이에 파련화반을 끼워 넣었다. 2009년에 보수하면서 주요 구조재는 신재로

교체하였지만 공포는 옛 부재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5] 영광 불갑사 천왕문 정간 공포



[그림.6] 영광 불갑사 천왕문 공포



[그림.7] 영광 불갑사 천왕문 귀기둥 상부 공포

불갑사 천왕문의 가구구조는 5량 구조이다. 대들보는 1997년에 보수하면서 모두 신재로 교체하였다. 대들보는 하나의 부재가 아니고 2매의 부재를 이어 사용한 합보로 이음부는 꺾쇠를 사용하여 보강하였으며 이음부 하부에는 심주를 세워 받쳤다. 양쪽 심주는 가로 방향으로 창방을 결구하고 그 위에 뜯장여를 설치하여 대들보를 받치도록 했다.

이것은 대들보의 이음부를 보강하기 위한 기법으로 불갑사 천왕문의 구조적 특징 중 하나이다. 뜯장여와 고주창방 사이에는 소로를 끼워 넣었다.

대들보 위에는 동자주를 세워 받쳤으며 동자주 상부에 뜯창방과 보아지를 결구하고 주두를 놓아 종보를 받쳤다. 종보는 대들보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신재로 교체되어 있다. 우측면에 사용된 종보는 굽은 부재를 사용하였는데 이 부재는 부재의 상태를 볼 때 본래의 부재로 판단된다. 종보 위에는 조각이 화려한 파련대공을 놓아 종도리를 받치도록 했다. 도리는 모두 굴도리를 사용하였다.



[그림.8] 영광 불갑사 천왕문 가구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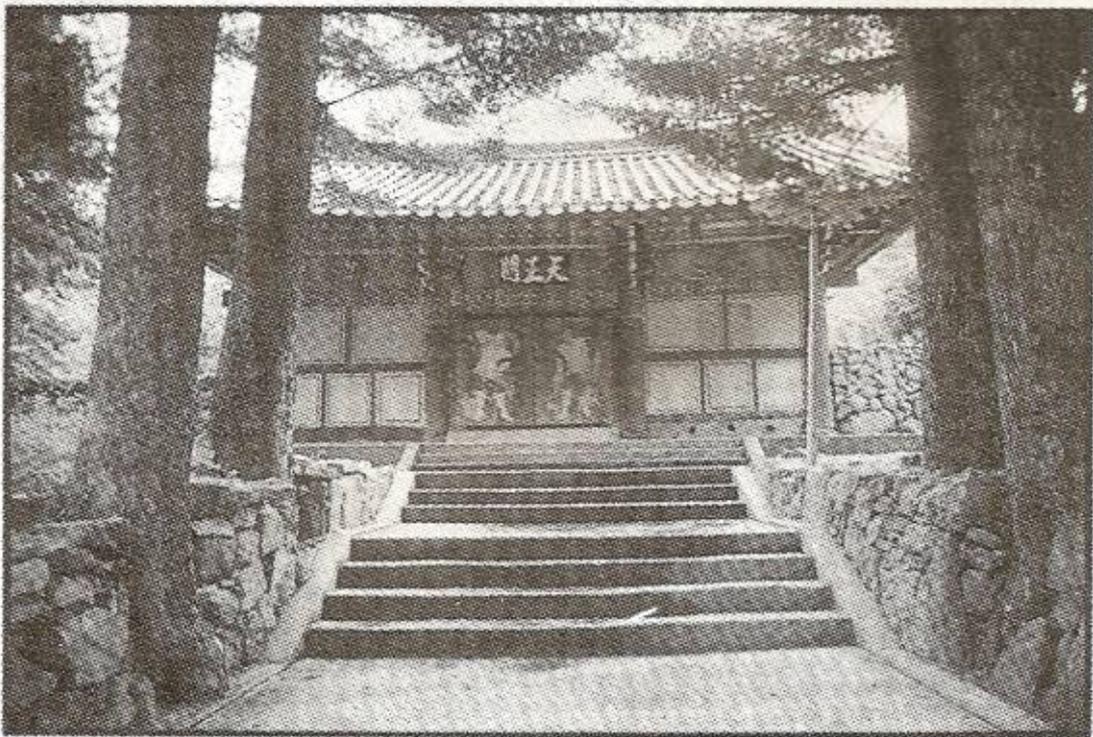
[그림.9] 영광 불갑사 천왕문 가구 구조

천장은 정칸에는 연등천장으로 개방하여 단청으로 도채하였으며, 사천왕이 봉안된 퇴칸은 중도리 사이와 종보 상부에 우물반자를 설치하고 중도리와 주심도리 사이에는 빗반자로 세로로 긴널을 대서 장반자로 구성하였다



[그림.10] 영광 불갑사 천왕문 내부 천장

불갑사 천왕문 지붕은 겹처마 맞배지붕으로 용마루는 착고와 부고 위에 적새 7단을 쌓고 숫마루장으로 마감하였으며, 내림마루는 적새 5단을 쌓았다. 지붕 끝에는 막새기와를 사용하고 지붕 측면에는 박공널과 방풍판을 설치하였다. 일제강점기 사진을 보면 당시 지붕은 본래 양곡이 뚜렷한 홑처마로 구성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용마루는 적새 5단쌓기이고 내림마루는 적새 3단쌓기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막새기와는 사용하지 않았다. 이는 1998년 수리 전에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11] 영광 불갑사 천왕문 1998년 수리전 전경(출처:불갑사 제공)

3.지정 가치 및 근거

(1) 역사적·학술적 가치

불갑사는 전라남도 영광군에 위치한 불갑산 기슭에 자리 잡은 사찰로 대한불교조계종 제18교수 본사 백양사의 말사이다. 불갑사는 여러 차례 중창불사를 통해 많은 건물들이 들어서 있다. 문헌 기록을 통해 적어도 1725년 이전에 이미 건립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불갑사 천왕문에는 1760년대에 조성된 원교 이광사의 친필 편액이 보존되어 내려오므로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 하고 있다. 천왕문은 사찰의 사문(寺門)으로 사찰에서 꼭 필요한 건축물이므로 불갑사 천왕문의 건립연대는 빠르면 정유재란 후 중창불사가 이루어지던 1608년부터 1623년 사이에 세워졌을 가능성이 있다. 1876년에는 설두 스님이 고창 소요산 연기사 터에 남아 있던 사천왕상을 불갑사로 옮겨 봉안하기 위해 기존 천왕문보다 사천왕상이 커서 천왕문과 만세루 사이에 사천왕상을 모셔두고 천왕문을 해체하여 이건하였다. 이후 1938년에는 설재정연 스님이 천왕문을 보수하였다. 1997년 재해로 인해 보수시 다시 당초 위치로 이건하고자 하였으나 이건하지 못하고 2009년 발굴조사를 거쳐 현재 원래 위치로 이건하게 되었다.

불갑사 경내에는 보물로 지정된 대웅전은 정면 3칸, 측면 3칸의 팔작지붕 건물로 화려한 무늬와 조각을 새긴 조선 후기 목조 불전 건축으로 시대적 특징을 잘 보존하고 있어 중요한 연구 자료가 되고 있다. 또한 시도 유형문화재를 비롯한 만세루·명부전·일광당 그리고 요사채가 있고, 절 뒤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참식나무 군락이 있어 학술적·역사적·미술사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2) 건축적 가치

불갑사 천왕문은 정면3칸, 측면 2칸 규모의 겹처마 맞배지붕 건물이다. 좌·우 퇴칸에 봉안된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사천왕상의 배치형태는 조선 후기의 전형적인 배치법을 따르고 있다.

기단은 2단 석축 위에 외벌대 자연석으로, 기단상부는 강회다짐으로 마감하였다. 초석은 전체 덩벙주초가 상부 기둥을 받치고 있다. 기둥은 민흘림이 있는 원기둥을 사용하였으며, 내부 심주는 방형의 각주가 사용되었는데 뚜렷한 민흘림이 특징이다.

2009년 이전 복원시에 원기둥은 부식이 심해 정면 정칸 우측 기둥, 배면 좌측 귀기둥, 우측면 중앙 기둥 3개만 기존 기둥을 재사용하여 하부 부식부분은 동바리 이음으로 보수하였다. 내부 심주 2개 역시 동바리 이음으로 보수되었다.

일제 강점기 사진자료와 비교한 결과 퇴칸의 벽체는 중방 위는 2칸으로 나누어 사천왕을 그려 넣었으며, 중방 하부는 3칸으로 나누었다. 측면은 정면과 동일하게 수장재를 설치하였으나 벽화를 그리지 않았으며, 처마부분 또한 홑처마이며 와구토마감이다. 옛 사진과 비교할 때 벽체의 입면 구성과 처마부에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으나 주요구

조와 공포형식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불갑사 천왕문 공포는 2출목 3익공 형식으로 주두는 굽 부분을 사절한 형태로서 조선 시대의 일반적인 주두의 모습이다. 주심두공은 사절하였으며 출목두공은 연화를 조각하였다. 초익공과 이익공은 양서형이며 삼익공은 운공형이다. 내부는 초익공 보아지는 아래를 향해 활짝 핀 연화를 조각하였고, 이익공 보아지는 위를 향하고 있는 연봉을 조각하였다. 운공 위에 있는 보 빨목은 봉황이 연화를 물고 있는 형상으로 조각하였다. 창방과 장여 사이에 파련화반을 끼워 넣었다. 2009년에 보수하면서 부분적으로 구조재는 신재로 교체하였지만 공포는 옛 부재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불갑사 천왕문의 가구구조는 5량 구조이다. 대들보는 1997년에 재해로 인해 보수하면서 모두 신재로 교체하였다. 대들보는 하나의 부재가 아니고 2매의 부재를 이어 사용한 합보로 이음부는 꺾쇠를 사용하여 보강하였으며 이음부 하부에는 심주를 세워 받쳤으며, 양쪽 심주는 가로 방향으로 창방을 걸구하고 그 위에 뜬장여를 설치하여 대들보를 받치도록 했다. 이것은 대들보의 이음부를 보강하기 위한 기법으로 불갑사 천왕문의 구조적 특징 중 하나이다. 뜬장여와 고주창방 사이에는 소로를 끼워 넣었다.

대들보 위에는 동자주를 세워 받쳤으며 동자주 상부에 뜬창방과 보아지를 걸구하고 주두를 놓아 종보를 받쳤다. 종보는 대들보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신재로 교체되어 있다. 우측면에 사용된 종보는 굽은 부재를 사용하였는데 이 부재는 부재의 상태를 볼 때 본래의 부재로 판단된다. 종보 위에는 조각이 화려한 파련대공을 놓아 종도리를 받치도록 했다.

천장 정칸에는 일반적인 연등천장으로 개방하고 사천왕이 봉안된 퇴칸은 중도리 사이와 종보 상부에 우물반자를 설치하고 중도리와 주심도리 사이에는 빗반자로 세로로 긴 널을 대서 장반자로 구성하였다.

불갑사 천왕문 지붕은 겹처마 맞배지붕으로 용마루는 착고와 부고 위에 적새 7단을 쌓고 솟마루장으로 마감하였으며, 내림마루는 적새 5단을 쌓았다. 지붕 끝에는 막새기와를 사용하고 지붕 측면 박공널과 방풍판을 설치하였다.

상기와 같이 여러 번의 보수 및 이건을 통해 원래 자리로 이건 되었지만 가구구조와 공포형식은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고 지역성을 반영한 조각수법 등 전형적인 조선 후기 건물로서 당시 건축 양식을 알 수 있는 자료이다.

4. 종합의견

영광 불갑사 천왕문은 문헌기록 등을 통해 건립 및 중수, 이건과 관련 기록을 알 수 있다. 1876년에 기존 천왕문자리와 만세루 사이에 사천왕상을 모셔두고 천왕문을 해체하여 이건한 이후 2009년 발굴조사를 거쳐 현재 원래 위치로 이건하게 되었다. 여러 번의 보수 및 이건에도 불구하고 가구구조와 공포형식은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는 것으

로 보여 진다.

불갑사 경내에는 보물로 지정된 대웅전을 비롯한 천연기념물, 시도유형문화재 등이 산재하고 있다. 천왕문은 건축적 가치와 지역성을 반영한 조각수법 등 전형적인 조선 후기 건물로서 당시 건축 양식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영광 불갑사 천왕문은 조선후기 2출목 3익공의 건축기법과 가람배치의 특성을 고려하여 높은 건축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하여 보존할 만한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23.07.05.	대상문화재	영광 불갑사 천왕문	
조사자	성 명	○○○	전공 분야	전통 건축
	소 속	○○○문화연구소 ○○	직위(직책)	대표
주요 지정 사항 검토	문화재 종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문화재 명칭	영광 불갑사 천왕문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세부내용 별첨 참조		
	연혁·유래 및 특징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세부내용 별첨 참조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3 년 11 월 22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1.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불갑사는 전라남도 영광군 모악산 기슭에 자리한 사찰이다. 불갑사는 모악산 노적봉을 주산(主山)으로 하여 뒤쪽에는 모악산의 능선이 병풍처럼 둘러 있다. 사찰의 앞쪽으로는 개울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며 불갑저수지를 거쳐 서해로 흐른다. 불갑사의 풍수형국은 늙은 쥐가 먹이를 찾아 밭으로 내려오는 형국인 “노서하전형(老鼠下田形)” 명당이라고 전한다. 불갑사는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은 지형을 따라 건물들이 배치되어 있으며 서향하고 있다.

불갑사는 백제 침류왕(384년) 때 마라난타가 백제에 불교를 전래하면서 제일 처음 지은 불법도량이라고 전한다.¹⁾ 그리고 불갑(佛甲)이란 사찰의 명칭은 불사의 으뜸이자 시작이란 뜻에서 붙여진 것이라고 한다.²⁾ 2001년 동국대학교 박물관에서 실시한 정밀지표조사에서는 토기편과 기와편을 비롯하여 청자편, 분청사기편, 백자편 등이 발견되었다. 지표상에서 채집된 유물에서는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의 유물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청자편은 주로 고려시대 후기의 청자상감편이 나왔다. 이러한 유물은 고려 후기 각진국사의 중창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³⁾ 현재까지 불갑사에는 창건설화를 뒷받침할만한 삼국시대의 유물과 유구가 존재하지 않아 백제 창건설을 그대로 따르기에는 무리가 있다. 불갑사 연혁 관련 자료로는 「불갑사중수권시문(佛甲寺重修勸施文, 1608년)」⁴⁾, 「불갑사고적기(佛甲寺古蹟記, 1741년)」, 「모악산불갑사중창서(母岳山佛甲寺重勸序, 1765년)」, 「불갑사중수기(佛甲寺重修記, 1869년) 등이 있다. 가장 앞선 기록인 「불갑사중수권시문(1608년)」에는 ‘厥初之經營孰爲而孰傳之其重 則老僧因法堂改椽時 搨得見其上梁則有大書六字曰貞元元年改造’라는 기록이 있다. 고려시대 각진국사가 법당을 중수하기 위해 서까래를 걷어내니 대들보에 정원원년(貞元元年, 785년)에 개조하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다는 것이다.⁵⁾ 이 기록이 사실이라면 불갑사는 785년에 창건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1799년에 간행된 『범우고(凡宇考)』에는 신라시대에 건립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현재 불갑사에 남아 있는 국가지정문화재로는 대웅전을 비롯하여 보물 3건이 있으며,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4건,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5건 등 총 12건이 있다. 그리고 대웅전 옆에는 글씨가 거의 보이지 않는 각진국사비가 서있다.

1) 관련 문헌으로는 「正門漆造重創上樑記文」, 「靈光郡佛甲寺萬歲樓重 修上樑文」, 「佛甲寺古蹟記」, 「靈光郡佛甲寺萬歲樓重 修上樑文」, 「佛甲寺萬歲樓重修記」 등이 있다.

2) 강황, 「불갑사중수권시문」, 『조선사찰사료』, 1608년경

3) 동국대학교 박물관, 「영광 모악산 불갑사 지표조사보고서」, 2001

4) 조선총독부 내무부지방국, 〈조선사찰사료〉 상, 1911년

5) 「佛甲寺古蹟記(1741년)」에도 유사한 기록이 있다. / 佛法東來之後始有迦藍之築則厥初經營想在羅濟之始漢魏之間而飛鳥過空往 事烟沈則果未知何世而何年孰爲而孰傳之耶其重創則在於唐德宗貞元元年己酉有法堂改椽時梁間大書六字可徵

2. 불갑사 사천왕문의 연혁 및 건축적 특징

1) 연혁 및 유래

불갑사 천왕문의 창건연대는 명확하지 않으나 1725년에 작성된 「모악산불갑사기」에는 당시 불갑사의 배치와 건물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대웅보전(大雄寶殿)이 중앙에 우뚝하게 서 있으면서 높이 솟아 날아갈 듯한 높은 누각과 마주하고 있다. 선당(禪堂)과 승당(僧堂)은 좌측에 있으면서 오른쪽을 향하고, 상실(上室) 2동과 별실(別室) 2동은 동쪽으로 향하기도 하고 서쪽으로 향하기도 한다. 팔상전(八相殿)과 영자전(影子閣)은 비취빛 용마루가 서로 잇닿아 있으며, 나한전(羅漢殿)과 침성각(瞻星閣)은 단정한 대들보가 서로 빛을 발하고 있다. 청풍각(淸風閣)과 백운당(白雲堂)은 난간이 환하게 비추고, 명경당(明鏡堂)과 향적전(香積殿)은 담장이 구불구불 이어졌다. 비전(碑殿)과 양진당(養眞堂)이 앞뒤로 놓여 있고, 금당(金堂)과 관음전(觀音殿)은 위아래로 서로 통하며 명부전(冥府殿)은 여전히 남아있으나 문수전(文殊殿)은 이미 허물어져 버렸다. 몽둥이를 잡고 문을 지키는 자는 금강역사가 아닌가, 칼을 빼어 들고 마주보고 있는 자가 바로 지국천왕이다.’

위의 기록에서 천왕문이란 명칭은 보이지 않으나 ‘문’이란 명칭이 나오고 사천왕 중 하나인 지국천왕에 대한 기록을 볼 때 천왕문은 1725년 이전에 이미 건립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고, 불갑사 천왕문에 걸려 내려오는 1760년대에 조성된 원교 이광사의 친필 편액이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자료가 되고 있다.

1876년에는 설두 스님이 고창 소요산 연기사 터에 남아 있던 사천왕상⁶⁾을 불갑사로 옮겨 봉안하였다. 그러나 기존 천왕문보다 사천왕상이 커서 사천왕상을 봉안할 수 없었기 때문에 현재의 천왕문과 만세루 사이에 사천왕상을 모셔두고 천왕문을 해체하여 이건하였다. 본래의 위치에서 뒤쪽으로 10여 m 정도 옮긴 것이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천왕문 자리에는 옛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 전나무 4그루를 심어 놓았다. 이것은 후대에 천왕문을 원래 위치로 다시 옮길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다. 1938년에는 설제정연 스님이 천왕문을 보수하였다.⁷⁾

1997년 1월에는 천왕문 앞에 있던 전나무가(높이 25m, 직경 80cm)가 쓰러져 천왕문을 덮치자 긴급 보수하였다. 천왕문을 보수하면서 본래 위치로 옮기고자 계획하였으나 전라남도 문화재위원회에서 반대하여 보수공사만 진행하였다. 보수공사를 진행하면서 가능한 옛 부재를 사용하고자 계획하였는데 대들보의 경우 향아리 크기의 구멍들이 나 있을 정도로 부식되어 교체하였으며 춘양목을 사용하였다고 한다. 2009년에는 천왕문 주변 발굴

6) 동국대학교 박물관, 「영광 모악산 불갑사 지표조사보고서」, 2001 / 불갑사 사천왕상에서 발견된 불교 전적은 대부분 14세기 전반부터 17세기 중반 사이에 집중적으로 간행된 것이다. 그중에서 비교적 완전한 상태인 31 종 중에 『父母恩重經』(1441년간)을 비롯한 15종은 임진왜란 이전에 간행된 판본으로 귀중본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특히 전라도 고산 화암사에서 개관된 『佛說大報父母恩重經』과 『地藏菩薩本願經』(1453년간)은 중요 문화재로 평가되는 귀중한 유품이라 하겠다. 그리고 『月印釋譜』(1569 년중간)는 비록 후대의 중간본이나 중세 국어의 변화 양상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7) 모악산불갑사천왕문상량문(1876년), 모악산불갑사천왕문중건사실(1938년)

조사를 거쳐 원래 위치인 현재 자리로 이견하였으며, 이때 상태가 좋지 않은 기둥을 교체하였다. 2013년에는 천왕문 단청공사를 실시하였다.



1966년 항공사진(국토지리정보원)에 보이는 천왕문



이건 전 천왕문 위치(카카오맵)

2) 건축적 특징

현재 불갑사는 수차례 이루어진 중창불사를 통해 많은 전각이 들어서 있기에 원래의 가람배치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본격적인 불사가 이루어지기 전인 1997년 작성된 배치도를 통해 살펴보아야 한다. 도면을 분석해보면 사찰 입구에는 부도전이 자리하고 있으며 개울을 건너면 천왕문이 나온다. 진입계단을 통해 천왕문을 들어서면 만세루와 대웅전이 직선 축선상에 배치되어 있다. 대웅전 일곽은 앞마당을 중심으로 북쪽에 대웅전이 자리하고 남쪽에는 만세루(萬歲樓)가 있다. 대웅전은 만세루를 돌아 진입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서쪽에는 명부전, 동쪽에는 요사인 일광당(一光堂)이 자리하여 불갑사의 중심 영역은 4동 중정형 가람배치를 이루고 있었다. 지금은 명부전 자리에 설선당이 들어서 있고, 천왕문의 우측에 종무소가 있고 종무소 앞쪽에는 전시관이 자리하고 있다.

현재 불갑사 전면 진입부는 공원화 사업으로 많은 개발이 진행되어 있다. 본 경내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진입공간의 생태공원을 지나게 되며 최근 만들어진 홍교를 건너게 된다. 다리를 건너 높은 계단을 오르면 천왕문이 위치하며 이를 통해 경내로 진입한다. 천왕문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다포계 맞배 건물로 초창 이후 수차례의 중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1876년 사천왕상의 봉안과 함께 이견 되었으며 최근 발굴조사를 통해 원래의 자리로 재 이견된 이력이 있다.

<기단 및 평면>

불갑사 천왕문은 정면3칸, 측면 2칸 규모의 건물로 기단형식은 자연석 외벌대 기단으로

전면에 계단에 설치되어 있다. 기단 내밀기는 기둥 중심선을 기준으로 정면 1,780mm, 배면 1,520mm, 양 측면이 1,050mm이다. 초석은 자연석 덩벙주초를 사용하였고 기둥하부에 그랭이질하여 높이를 맞추었다. 정간 하인방에는 화강석 디딤석을 놓아서 통행시 생기는 기단면 파손을 예방하였다.

기둥 간격을 보면 정면 정간은 3,340mm이고 좌우 협간은 3,120mm로 정간이 협간보다 1자 정도 크게 설정하였다. 측면은 전체 3,100mm 내외로 조사되었다. 평면의 비율은 정면과 측면이 약 3:2의 비율을



불갑사 배치도(1997년)

이루는 장방형이다. 외부 평주와 우주는 원주로 민흘림을 두었다. 내부에는 각주를 사용하여 대들보 하단을 지지한다. 우주의 크기는 약 440mm 내외이며 평주는 390~405mm로 시각 보정을 위해 귀기둥이 1.5치(寸) 정도 더 큰 것을 사용하였다. 전체적으로 민흘림이 뚜렷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보고서의 도면자료에 따르면 여러 차례 기둥교체와 동바리 보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현재 원형의 기둥은 정면 정간 우측 기둥, 배면 좌측 귀기둥, 우측면 중앙 기둥 3본이다. 원형의 기둥은 모두 하부를 동바리 이음으로 보수하였으며 그 외 기둥은 2009년에 보수과정에서 부식과 부후가 심해 교체하였다. 내부 각주도 모두 동바리 보수 하였다.

통행이 이루어지는 구간은 강회다짐하였고 사천왕상을 봉안한 양 협간에는 우물마루를 두었다. 우측 협간에는 뒤쪽에 동방 지국천왕을 앞쪽에는 남방 증장천왕을 봉안하였으며, 좌측 협간에는 뒤쪽에 북방 다문천왕을 앞에는 서방 광목천왕을 배치하여 조선 후기의 전형적인 배치법을 따랐다.

<가구>

가구구조는 무고주 5량 구조로 평주에서 대들보를 두고 상부에 동자주를 세워 받쳤으며 동자주 상부에 뜯창방과 보아지를 결구하고 주두를 놓아 종보를 받쳤다. 대들보는 중간의 각주 상부에 주두를 두고 전·후면의 보가 상단에서 맞보 형식으로 결구된다. 맞보 상단에는 주먹장을 두어 결속하였으며 꺾쇠를 사용한 철물 보강도 확인된다. 대들보 이음부 하부에는 심주를 세워 받쳤으며, 양쪽 심주는 가로 방향으로 창방을 결구하고 그 위에 뜯장여를 설치하여 대들보를 받치도록 했다. 이것은 대들보의 이음부를 보강하기 위한 기법으로 불갑사 천왕문의 구조적 특징 중 하나이다. 뜯장여와 고주창방 사이에는 소로를 끼워 넣었다. 뜯장여의 규격은 100mm×180mm이고, 고주 창방의 규격은 90mm×273mm로 제공의 높이와 동일하다. 과거 도면과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리건판 사진에서 확인되는 보와 형상을 비교해 보았을 때 대부분의 보부재는 직선재로 교체된 것으로 보인다. 우측 곡재

종보는 형상과 결구로 수법으로 보아 원형재일 것으로 짐작된다. 종보 상부에는 조각이 화려한 파련대공을 놓아 종도리를 받치도록 했다.

도리는 모두 굴도리이며 직경은 320mm 내외이다. 1997년 보수공사 때 작성된 도면을 보면 외목도리는 직경이 300mm이고 주심도리, 중도리, 종도리의 직경은 240mm로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건물을 보수하면서 도리의 직경을 더 크게 조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서까래는 단연과 장연을 사용하였으며, 직경은 185mm 내외이다.

<공포>

기둥 상부에 창방을 두고 주상포를 형성하였다. 공포는 정면과 배면에만 두었고 측면은 평주와 보로 간격하게 처리하였다. 공포 구성은 외 2출목 3익공으로 양서형의 제공에 운공형의 상부 제공을 결합한 형식이다. 운공 위 보 머리는 봉황이 연화를 물고 있는 형상으로 조각하였다. 초제공과 2제공의 형태는 유리건판 사진과 비료해 보면 형상에서 약간의 차이는 보이나 원형의 기법을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첨차는 소첨차와 대첨차를 사용하였는데 출목에 사용된 것과 주심에 사용된 것이 다르다. 주심첨차는 사절하였으며 출목첨차는 연화를 조각하였다. 제공의 내부형태는 초제공의 경우 아래를 향해 활짝 핀 연화를 조각하였고, 2제공은 위를 향하고 있는 연봉을 조각하였다.

2009년에 보수과정에서 기둥과 보 등의 주요 구조재는 교체하였지만 공포는 옛 것을 지켜 나간 것으로 보인다. 공포부에 사용된 첨차와 제공은 익산 송림사 보광전의 공포와 조각 수법이 거의 유사하며 부안 개암사 대웅전 공포와도 비슷한 형태여서 주목된다.



영광 불갑사 천왕문 공포 정면



익산 송림사 보광전 공포 정면



부안 개암사 대웅전 공포 정면

<지붕>

지붕은 맞배지붕으로 전면과 후면 모두 서까래와 부연을 구성한 겹처마를 설치하였고, 측면은 하단을 직절한 풍판을 달았다. 일제강점기 사진을 보면 당시 지붕은 본래 양곡이 뚜렷한 홑처마로 구성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용마루는 적새 5단쌓기이고 내림마루는 적새 3단쌓기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막새기와는 사용하지 않았었다. 2009년에 본래 위치로 이견하였을 때 현 지붕의 모습으로 변화되었다. 정칸의 천정은 연등천정이며 협칸에는 고미반자, 중도리와 주심도리 사이에는 빗천장을 구성하였다.

<입면>

천왕문의 유리건판 사진을 보면 출입문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나 1997년에 작성된 도면을 보면 판문이 설치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협칸의 벽체는 중방 위는 2칸으로 나누어 사천왕을 그려 넣었으며, 중방 하부는 3칸으로 나누었다. 측면은 정면과 동일하게 수장재를 설치하였으나 벽화를 그리지 않았다. 옛 사진과 비교할 때 벽체의 입면 구성에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과거사진에서는 측면 인방재의 원목 곡재 사용이 확인되는데 보수과정에서 직선재로 변경된 것이 확인된다.

<서남해안 지역 사찰건축의 장식화 경향>

17세기 이후 본격화되는 사찰의 장식화 경향은 서남해안지역 사찰 건물의 건축적 특성으로 설명될 수 있다. 기단, 주초를 포함해서 계단의 소맷돌, 불전 공포에 이르기까지 용, 연화, 봉황 등 다양한 조각으로 장식되어 있다. 이러한 장식은 모두 불국 이상세계를 반영하는 것으로 각각이 모두 그 의미를 담고 있다. 서남해안지역 사찰의 주불전에서는 공포장식에 연화를 사용한 예가 9곳이나 있으며, 천왕문에서 사용된 예는 불갑사가 유일하다. 정수사 법당, 개암사 대웅전, 내소사 대웅전에 보이는 연봉의 형태는 입체적인 조각을 보이며, 특히, 개암사 대웅전은 연화 조각을 한 하엽주두, 첨차는 연꽃 줄기로, 소로는 연꽃 봉오리 모양을 입체적으로 조각하여 전체적으로 위로 올라가면서 연꽃들이 층층이 환하게 핀 형상이다. 송림사 보광전과 정수사 법당은 투각된 출목첨차를 가진 불전으로 하엽주두의 형태를 하고 있으며, 살미 역시 연화를 사용하여 그 기법이 화려하고, 구성이 서로 유사하다. 불갑사 천왕문 공포부에 사용된 첨차와 제공은 익산 송림사 보광전의 공포와 조각 수법이 거의 유사하며 부안 개암사 대웅전 공포와도 비슷한 형태여서 주목된다.

서남해안지역 사찰건물의 연화 조각장식의 특징은 그 구성이 화려하다는 것이다. 낙동강 유역 사찰건물의 연화조각은 만개한 연화를 찾아보기 힘들고, 제공의 끝에 한 두 송이의 연봉만을 작게 조각하고 있는데 반해서, 서남해안지역은 변화가 많은 다양한 연화로, 연봉부터 활짝 핀 연화까지 입체적이고 단계적으로 표현하여 화려한 구성을 보인다.

또 다른 조각의 예로 봉황을 들 수 있는데 서수중의 하나로 옛 부터 신성시되어 왔다. 봉황이 언제부터 불교적 성격으로 사용되었는지는 명확히 알 수 없지만, 서수 중 하나로서 신성한 예불장소인 사찰건축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서남해안지역 사찰 조각장식의 특성 중 하나는 봉황조각의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송림사 보광전 외부공포의 봉황은 날카로운 부리와 벼슬을 묘사하고 있고, 내부에 공포에 있는 조각은 날개를 펴고 비상하는 모습을 사실적으로 표현했다 선운사와 내소사의 경우는 부채를 깎

아 전체적인 형태만을 표현해 승림사보다 장식의 섬세함이 약하나, 개암사 대웅전의 경우는 내부에 봉황 13마리 와 외부에 9마리를 조각할 만큼 장식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불갑사 대웅전에서는 외부 공포의 초공에 봉두를 조각했고, 내부 공포 위의 부재에 봉두를 조각하였다. 이러한 장식화 경향은 서남해안지역 사찰들의 공통된 특성 중의 하나로 당시 시주세력의 경제적 영향력의 반영이라 할 수 있다. 서남해안지역의 조각장식은 그 구성이 화려하고, 섬세함을 특징으로 하는데, 불교적 상징성과 시주층의 기복적 성향을 동시에 반영한다. 8)

3. 지정 가치 및 근거 기준

1) 역사적 가치

불갑사는 전라남도 영광군 모악산 기슭에 자리한 사찰이다. 불갑사는 백제 침류왕(384년) 때 마라난타가 백제에 불교를 전래하면서 제일 처음 지은 불법도량이라고 전한다. 불갑사 천왕문의 창건연대는 명확하지 않으나 1725년에 작성된 「모악산불갑사기」에는 당시 이미 건립되어 있음이 기록되어 있다. 이 기록에서 천왕문이란 구체적 명칭은 보이지 않으나 ‘문’이란 명칭이 나오고 사천왕 중 하나인 지국천왕에 대한 기록을 볼 때 천왕문은 1725년 이전에 이미 건립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고, 불갑사 천왕문에 걸려 내려오는 1760년대에 조성된 원교 이광사의 친필 편액이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자료가 되고 있다. 1610년~1623년 사이에 창건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천왕문은 정유재란 후 사찰이 전국적으로 중건되는 시기 사문(寺門)의 건축으로 이 시기는 1610년~1623년 사이로 불갑사 천왕문도 이 시기 건립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1876년에는 설두 스님이 고창 소요산 연기사 터에 남아 있던 사천왕상을 불갑사로 옮겨 봉안하였는데 기존 천왕문보다 사천왕상이 커서 봉안할 수 없었기에 천왕문과 만세루 사이에 사천왕상을 모셔두고 천왕문을 해체하여 이 건하였다. 이후 2009년 발굴조사를 통해 현재 위치로 재 이 건된 이력이 있다.

2) 건축사적 가치

천왕문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다포계 맞배 건물로 초창 이후 수차례의 중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기단형식은 자연석 외별대 기단으로 전면에 계단에 설치되어 있다. 초석은 자연석 덩벙주초를 사용하였고 기둥하부에 그랭이질하여 높이를 맞추었다. 기둥은 전체적으로 민흘림이 뚜렷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보고서의 도면자료에 따르면 여러 차례 기둥교체와 동바리 보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현재 원형의 기둥은 정면 정칸 우측 기둥, 배면 좌측 귀기둥, 우측면 중앙 기둥 3본이다. 원형의 기둥은 모두 하부를 동바리 이음으로 보수하였으며 그 외 기둥은 2009년에 보수과정에서 부식과 부후가 심해 교체하였다. 내부 각주도 모두 동바리 보수 하였다.

8) 전성원, 「조선후기 서남해안지역 사찰건축의 특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pp.73~80.

가구구조는 무고주 5량 구조로 평주에서 대들보를 두고 상부에 동자주를 세워 받쳤으며 동자주 상부에 뜬창방과 보아지를 결구하고 주두를 놓아 종보를 받쳤다. 대들보는 중간의 각주 상부에 주두를 두고 전·후면의 보가 상단에서 맞보 형식으로 결구된다. 맞보 상단에는 주먹장을 두어 결속하였으며 꺾쇠를 사용한 철물 보강도 확인된다. 과거 도면과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리건판 사진에서 확인되는 보와 형상을 비교해 보았을 때 대부분의 보부재는 직선재로 교체된 것으로 보인다. 우측 곡재 종보는 형상과 결구로 수법으로 보아 원형재일 것으로 짐작된다.

공포는 정면과 배면에만 두었고 측면은 평주와 보로 간격하게 처리하였다. 공포 구성은 외 2출목 3익공으로 양서형의 제공에 운공형의 상부 제공을 결합한 형식이다. 운공위 보 머리는 봉황이 연화를 물고 있는 형상으로 조각하였다. 초제공과 2제공의 형태는 유리건판 사진과 비료해 보면 형상에서 약간의 차이는 보이나 원형의 기법을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주심첨차는 사절하였으며 출목첨차는 연화를 조각하였다. 2009년에 보수과정에서 기둥과 보 등의 주요 구조재는 교체하였지만 공포는 옛 것을 지켜 나간 것으로 보인다. 공포부에 사용된 첨차와 제공은 익산 승림사 보광전의 공포와 조각 수법이 거의 유사하며 부안 개암사 대웅전 공포와도 비슷한 형태여서 주목된다.

지붕은 맞배지붕으로 전면과 후면 모두 서까래와 부연을 구성한 겹처마를 설치하였고, 측면은 하단을 직절한 풍판을 달았다. 일제강점기 사진을 보면 당시 지붕은 본래 양곡이 뚜렷한 홑처마로 구성되어 있으며 막새기와는 사용하지 않았었다. 2009년에 본래 위치로 이건하였을 때 현 지붕의 모습으로 변화되었다.

천왕문의 유리건판 사진을 보면 출입문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나 1997년에 작성된 도면을 보면 판문이 설치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옛 사진과 비교할 때 벽체의 입면 구성에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과거사진에서는 측면 인방재의 원목 곡재 사용이 확인되는데 보수과정에서 직선재로 변경된 것이 확인된다.

불갑사 천왕문은 기둥과 보, 도리 등 주요 구조재들이 많이 교체되었으며 형태의 변화도 과거 사진에서 확인된다. 그러나 이것은 건물을 이건하면서 부재가 크게 파손되어 불가피하게 교체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과 최대한 이음을 통해 부재를 사용하고자 했던 노력, 1997년 보수공사 당시에 작성된 도면이 남아 있어 부재의 규격을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은 참작해 볼 필요가 있다. 다행히 사진이 남아 있으므로 원형 복원의 가능성도 크다.

3) 학술적 가치

17세기 이후 본격화되는 사찰의 장식화 경향은 특히, 서남해안지역 사찰 건물의 특성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러한 장식은 모두 불국 이상세계를 반영하는 것으로 각각이 모

두 그 의미를 담고 있다. 서남해안지역 사찰의 주불전에서는 공포장식에 연화를 사용한 예가 9곳이나 있으며, 천왕문에서 사용된 예는 불갑사가 유일하다. 정수사 법당, 개암사 대웅전, 내소사 대웅전에 보이는 연봉의 형태는 입체적인 조각을 보이며, 특히, 개암사 대웅전은 연화 조각을 한 하엽주두, 첨차는 연꽃 줄기로, 소로는 연꽃 봉오리 모양을 입체적으로 조각하여 전체적으로 위로 올라가면서 연꽃들이 층층이 환하게 핀 형상이다. 승림사 보광전과 정수사 법당은 투각된 출목첨차를 가진 불전으로 하엽주두의 형태를 하고 있으며, 살미 역시 연화를 사용하여 그 기법이 화려하고, 구성이 서로 유사하다. 불갑사 천왕문 공포부에 사용된 첨차와 제공은 익산 승림사 보광전의 공포와 조각 수법이 거의 유사하며 부안 개암사 대웅전 공포와도 비슷한 형태여서 주목된다.

또 다른 조각의 예로 봉황을 들 수 있는데 서수중의 하나로 옛 부터 신성시되어 왔다. 서남해안지역 사찰 조각장식의 특성 중 하나는 봉황조각의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승림사 보광전 외부공포의 봉황은 날카로운 부리와 벼슬을 묘사하고 있고, 내부에 공포에 있는 조각은 날개를 펴고 비상하는 모습을 사실적으로 표현했다. 선운사와 내소사의 경우는 부채를 깎아 전체적인 형태만을 표현해 승림사보다 장식의 섬세함이 약하나, 개암사 대웅전의 경우는 내·외부에 모두 조각 할 만큼 장식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불갑사 대웅전에서는 외부 공포의 초공에 봉두를 조각했고, 내부 공포 위의 부채에 봉두를 조각하였다. 이러한 장식화 경향은 서남해안지역 사찰들의 공통된 특성 중의 하나로 조각장식의 구성이 화려하고, 섬세함이 특징이다. 이는 조선후기 서남해안지역의 사찰건축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으로 당시의 불교적 상징성과 시주층의 기복적 성향을 동시에 반영하기에 가치를 지니고 있다.

<종합의견>

영광 불갑사는 여러 차례 중창으로 변화를 겪었지만, 꾸준한 중창과 노력으로 현재 사찰로서 기능과 문화유산 보존의 가치를 유지하고 있다. 불갑사 천왕문의 창건연대는 명확하지 않으나 1725년에 작성된 「모악산불갑사기」에는 당시 이미 건립되어 있음이 기록되어 있다. 1876년에 설두 스님이 고창 소요산 연기사 터에 남아 있던 사천왕상을 불갑사로 옮겨 봉안하였는데 기존 천왕문보다 사천왕상이 커서 봉안할 수 없었기에 천왕문과 만세루 사이에 사천왕상을 모셔두고 천왕문을 해체하여 이건한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건축사적 측면에서는 천왕문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다포계 맞배 건물로 초창 이후 수차례의 중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기둥과 보, 도리 등 주요 구조재들이 많이 교체되었으며 형태의 변화도 과거 사진에서 확인된다. 그러나 이것은 건물을 이건하면서 부채가 크게 파손되어 불가피하게 교체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과 최대한 이음을 통해 부채를 사용하고자 했던 노력, 1997년 보수공사 당시에 작성된 도면이 남아 있어 부

재의 규격을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은 참작해 볼 필요가 있다. 다행히 사진이 남아 있으므로 원형 복원의 가능성도 크다.

천왕문의 가구 구조는 5량 구조로서 대들보 위에 동자주가 종보를 받고, 종보 위에 파련대공을 종도리를 받는 구조이다. 대들보는 하나의 부재가 아닌 2매의 부재를 이어 사용한 합보를 사용하였으며 이음부 하부에는 민흘림이 뚜렷한 심주를 세워 받쳤다. 양쪽 심주는 창방으로 서로 결구하고 그 위에 뜬장여를 설치하였는데 이것은 대들보의 이음부를 보강하기 위한 기법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구조는 다른 사문(寺門)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구조 기법으로서 학술적 가치가 높다.

학술적으로는 서남해안지역 사찰 건축의 특징이 두드러지는 공포의 장식화 경향이다. 공포부와 화반, 파련대공에서 우수한 조각수법을 보여준다. 부재들은 초새김이 뚜렷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불갑사 천왕문 공포부에 사용된 첨차와 제공은 익산 송림사 보광전의 공포와 조각 수법이 거의 유사하며 부안 개암사 대웅전 공포와도 비슷한 형태여서 주목된다. 이러한 장식화 경향은 봉황 장식에서도 확인되는데 불갑사 대웅전에서는 외부 공포의 초공에 봉두를 조각했고, 내부 공포 위의 부재에 봉두를 조각하였다. 이러한 장식화 경향은 서남해안지역 사찰들의 공통된 특성 중의 하나로 조각장식의 구성이 화려하고, 섬세함이 특징이다. 이는 조선후기 서남해안지역의 사찰건축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으로 당시의 불교적 상징성과 시주층의 기복적 성향을 동시에 반영하기에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학술적 가치가 있다. 수차례 이루어진 이 건과 보수과정을 통해 재료의 진정성 측면에서는 문화재 지정에 있어 불리할 수 있으나 발굴을 통한 원래 위치의 이 건과정과 원형을 추정할 수 있는 도면과 사진이 있기에 외형적 역사성의 회복은 일부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국가지정 문화재(보물)로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 대상 문화재의 핵심 보존가치

1. 영광 불갑사는 여러 차례 중창으로 변화를 겪었지만, 꾸준한 중창과 노력으로 현재 사찰로서 기능과 문화유산 보존의 가치를 유지하고 있음.
2. 사천왕문 건립과 사천왕상 조성 및 봉안의 시기를 유추할 수 있는 사료의 실증적 확인이 가능함.
3. 사천왕상을 봉안하기 위한 이 건 및 재이 건 과정, 대들보 이음부 보강, 곡재의 사용 및 공포의 장식화 기법에서 건축사적 조영 기법이 돋보임
4. 조선후기 서남해안지역의 사찰건축에서 나타나는 장식화 경향이 두드러지며 이는 당시의 불교적 상징성과 시주층의 기복적 성향을 동시에 반영하기에 가치를 지님

13. 포항 보경사 천왕문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검토

가. 제안사항

경북 포항시 소재 「포항 보경사 천왕문」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북 포항시 소재 「포항 보경사 천왕문」을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 받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경상북도지사
- (2) 대상문화재 : 비지정 「포항 보경사 천왕문」
 - 소재지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송라면 보경로 523
- (3) 신청내용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
 - 명칭 : 포항 보경사 천왕문(浦港 寶慶寺 天王門)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보경사
 - 소재지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송라면 보경로 523
 - 조성연대 : 조선시대
 - 수량 : 1동
 - 지정면적 : 42.80㎡
 - 구조/형식/형태 : 단층 목구조 / 정면3칸, 측면2칸 / 팔작지붕 / 겹처마

라. 현지조사 의견(2023.06.30. / 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전)문화재전문위원 ○○○)

- 문화재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유보.
- 문화재전문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있음.
- 전)문화재전문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있음.

마. 지정조사보고서 : 붙임참조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 원안가결 10명 / 제척 1명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23.06.30	대상문화재	포항 보경사 천왕문	
조사자	성 명	○○○	전공 분야	건축역사
	소 속	○○대학교	직위(직책)	교수
주요 지정 사항 검토	문화재 종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문화재 명칭	포항 보경사 천왕문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세부내용 별첨 참조		
	연혁·유래 및 특징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세부내용 별첨 참조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3 년 9 월 6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1. 입지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포항 보경사는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송라면 보경로 523 (송라면 중산리 622번지)에 위치한 대한불교 조계종 제11교구 본사 불국사의 말사다. 송라면은 조선시대 청하현(淸河縣)의 관할이었으나,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청하, 홍해, 연일, 장기 4현이 합하여 영일군이 되었고, 1995년 포항시와 통합되었다.

보경사가 자리한 곳은, 내연산(內延山, 711m)에서 발원하여 동쪽으로 흘러 동해로 빠져나가는 광천(光川) 골짜기 깊숙한 곳에 있는 제법 평평한 대지로, 해발 고도는 100~150m 사이가 되며, 광천의 중하류 계변의 저평지에 형성되어 있는 송라면의 면소재지와 주거지 및 농경지가 끝나고 지면의 경사가 급해지는 초입에 위치한다. 해안으로부터는 약 5km 정도 떨어져 있다.



그림 1 근대초기 지도에서 보는 청하면과 보경사의 위치도



그림 2 보경사 주변의 지세

보경사에는 광천의 동편에 자리하는데, 약간 동쪽으로 튼 남북축을 따라서, 아래로부터 천왕문, 석탑, 적광전, 대웅전이 차례로 늘어서 중심축을 이루고, 그 좌우로 요사채와 종각, 강당들이 늘어서 마당을 이루고 있다. 대웅전 뒤편으로는 다시 마당을 앞에 두고 팔상전, 산신각, 응진전, 영산전 등이 좌우로 나란하게 선 신중단이 위치하고, 그 마당의 동쪽 끝을 서향한 명부전이 막아선다. 그러므로 천왕문 앞마당으로부터 모두 4개의 마당이 차례로 늘어난 종축형 배치를 가지고 있으며, 비로자나불을 주불로 하는 적광전과 석가모니불을 주불로 하는 대웅전의 두 개의 주불전을 앞뒤로 가지고 있는 독특한 배치를 하고 있다.

근래의 불사는 이 중심 영역의 동편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전시관과 설법전, 템플

스태이, 그리고 강원 등이 모두 중심축의 동편 영역에 들어서 있다.

사찰 내에서 제일 먼저 보물로 지정된 원진(圓眞)국사비(보물 제 252호, 1963.01.21.지정)는 대웅전의 뒤편 오른쪽 명부전 앞에 있으며, 그 승탑(보물 제 430호, 1965.09.01.지정)은 사찰 중심 영역 뒤편의 산기슭에 따로 있다. 원진국사는 고려 무신집권기 선풍을 크게 일으키고 보경사의 중창에도 크게 관여하였던 승려이다.

이외에도 보경사에는 사인(思印) 비구가 제작한 동종(보물 제11-1호), 괘불탱(보물 제 1609호), 적광전(보물 제1868호), 비로자나불도(보물 제1996호) 등의 보물을 비롯하여, 대웅전(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461호), 서운암 부도군(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478호), 그리고 탕자나무(경상북도 기념물 제11호) 등의 문화재가 다수 있으며, 절 뒤의 내연산 계곡에 있는 내연산 폭포는 2021년 명승으로 지정되었다.



그림 3 보경사 배치도 (『포항 보경사 천왕문 보물 지정 자료보고서』(2023.05. 포항시, 이하 『보고서』로 약함)에서 전제) 원 안이 중심 영역

2. 연혁

사찰의 창건은 신라 진평왕 25년(602)이라 전해지고 있으나, 보경사와 관련된 문헌 기록은, 고려말 이규보가 지었다는 「故寶鏡寺住持大禪師贈諡圓眞國師教書」가 『동문선』(1478)에 실려 있는 것이 처음이다. 같은 내용이 영조 연간에 복간된 『동국이상국집』에도 실려 있다. 원진국사 승형(承迥, 1171-1221)은 속성은 신(申)씨이고, 상주 산양(현재의 문경군 산양면) 출신으로, 7살에 출가하여 13살에 문경 봉암사에서 사미계, 14살에 김제 금산사에서 구족계를 받았다. 이후 조계산 수선사에서 보조국사 지눌(知訥, 1158-1210)에게 법요를 받았으며, 오대산, 춘천 청평산 등을 순력하며 『능엄경(楞嚴經)』을 으뜸으로 삼는 능엄선(楞嚴禪)을 주창하였다. 금강산 유점사 주지를 거쳐 1215년 대선사가 되어 6년간 보경사에 주석하고, 1221년 팔공산 염불사(念佛寺)로 옮겨 입적하였다. 사후 국사로 추증되고 원진의 시호를 받았다.

보경사 내에는 원진국사와 관련된 두 가지 유적이 있는데, 원진국사의 승탑인 ‘포항 보경사 승탑’(보물 제430호)은 절 뒤편 산록의 조금 평평한 곳에 터를 잡았고, 탑비인 ‘포항 보경사 원진국사비’(보물 제 252호)는 사찰 내 대웅전 뒤 명부전 앞마당에 있다. 이 비석은 1224년(고려 고종 11), 원진 국사의 사후 3년에 세워졌으며, 이수는 없이 귀부가 있고, 그 위의 비석은 양 모퉁이를 비스듬하게 접은 규수형(圭首形)을 띤다. 「寶鏡寺圓眞國師碑文」은 동 시기의 대문장가인 이공로(李公老, ?~1224)⁹⁾가 찬하였다.



그림 4 원진국사 탑비 및 승탑 (2023.06.30. 촬영)

9) 이공로(?~1224)는 고려 고종 때의 문신으로, 자는 거화(去華)이다. 안변 판관(判官)으로 사재를 털어 민부(民賦)를 대신하는 등 선정을 베풀었다. 고종 6년(1219)에 의주의 한순(韓恂)이 반란을 일으키자 선무사가 되었다. 문학계의 중진으로, 특히 변려문에 뛰어났다. (『표준 국어 대사전』)

원진국사 승형은 보경사의 주지로 있으면서, 보경사의 중창에 힘을 들였다. 그는 왕실 및 최씨 무신정권의 중심인 최충현과도 사이가 원만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는 실제로 보경사에 있으면서, 운문(雲門)과 팔공산(八公山) 일대의 초적을 제압하는 공을 세웠다.¹⁰⁾

조선 전기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영일현(迎日縣)」 ‘불우’조에는 내영산(來迎山)으로 소재지가 나와 있고, 이송로(李松老, ?~?)¹¹⁾가 찬한 원진국사비가 있다는 정도의 간략한 설명이 있을 뿐이다. 조선 후기의 지리지인 『여지도서』(1760) 「청하현」 ‘사찰’조에서는 산 이름은 내연산(內延山)으로 바뀌었으나, 원진국사비의 찬자는 여전히 이송로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여지도서』에서는 ‘新增寶鏡寺’라 하여 좀 더 자세한 설명이 추가되었는데, 그 내용을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東漢永平中，佛法始通中國，梵僧麻騰法蘭二人，奉佛經而來，所持十二面鏡及八面圓鏡，埋於中國雍門外，以白馬馱經而來，故遂名白馬寺，八面鏡則騰蘭使弟資日照去東國朝鮮日出之方，終南山有百尺深潭，東國之明堂，填水埋置立法堂，卽萬歲不壞之處，稱之曰“寶鏡金堂”也，改號內延者，新羅眞平王避甄萱亂離，故後稱內延也，且有李松老所撰元眞國師碑，且有四溟山人惟政所撰記。

보경사라는 이름과 관련된 이 설화는 사명당 유정(惟政, 1544-1610)이 찬하였다고 하는 「내연산 보경사 금당탑기(內延山寶鏡寺金堂塔記)」(1588)(『朝鮮寺刹史料』 소수)의 내용을 요약하여 옮긴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중국에 불교를 전래한 두 범승이 가져온 거울을 이곳 종남산(후에 내연산으로 개명)에 깊은 못이 있어, 옮겨와서 묻고 땅을 메워 법당을 세워 보경사라는 이름을 얻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같은 글에서 창건 시기를 명시하지 않고 있지만 동한 영평(永平) 연간 즉, 기원후 58년~75년으로부터 멀지 않은 시기에 세워졌다는 것은 좀 이르다는 생각이 들고, 나아가 같은 기록에서, 시간이 흘러 322년 문언(文彦)이 중창하였다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불교가 전해진 시기를 고려하면 역사적 사실로 삼기는 어렵다. 다만, 보경사라고 하는 이름의 유래를 더듬어 볼 수 있는 창건 설화로서 의미가 있으며, 오히려 뒤에 나오는 신라말의 견훤(甄萱)과 관련하여, 내연산으로 산 이름을 바꾸었다고 하는 내용이 보경사의 지리적 의미와 관련하여 좀 더 의미있는 것으로 보여 흥미롭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옥룡자 산수비기(玉龍子山水祕記)」에 전한다고 하는데, 원문은 확인하기 어렵다.

10) 채민석, ‘圓眞國師 承迥의 행적과 崔氏武臣政權과의 관계’, 『한국학논총』 58호, 2022. pp. 145-182 참조

11) 이공로(李公老)의 오기이다. 관찬의 지리지는 물론 「내연산 보경사 금당탑기」에도 반복되어 이송로로 표기되어 있다.

이후 고려시대의 보경사와 관련해서 「내연산 보경사 금당탑기」에는, 1023년(고려 현종 14) 도인 각인(覺仁)과 문원(文遠)이 오층 석탑을 세웠으며, 원진국사가 1214년(고려 고종 원년) 보경사의 주지가 되어, 법당 5칸, 주방 4처, 정문 1칸, 그리고 그 전각 안에 작은 보각을 짜고 미타존상(彌陀尊像)을 봉안하였다고 한다.

한편, 1792년 작성된 「청하군 내연산 보경사 사적(淸河郡內延山寶鏡寺事蹟)」에는, 원진국사 입적 후 왕명에 의하여 금법당 옆에 절을 짓는데, 3 법당과 8 요사, 식당, 누각, 정중탑(庭中塔), 불이문 등을 세웠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현재 남아있는 탑과 관련해서, 도인 각인 및 문원과 관련된 1023년 설과 원진국사와 관련된 13세기 초의 설 등 두 가지 연혁이 있는데, 탑의 형식이나 오중탑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 등을 보아, 1023년 건립설이 채택되고 있다. 같은 기록에 나오는 적광전 안에 있는 소조비로자나삼존불좌상 역시 고려 전기의 소작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선사이자 사후 국사로 추증되는 원진국사가 주석하면서 인근한 팔공산과 운문산 일대의 정치군사적 상황까지 관장하였던 사실을 고려하면, 13세기 당시 보경사의 위세를 짐작할 수 있고, 그러므로 그의 주지 재임 중 혹은, 사후 앞서 언급한 보물 승탑과 탑비를 세우면서(1224년) 사찰 전체에 대한 대대적인 중창이 있었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이처럼 보경사는 고려 중기와 후기에 크게 중창하고 조선 전기에도 사세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조선 중기 심화된 역불 정책의 영향과 전쟁의 피화를 견디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고, 현재 남아있는 건물들은 모두 임진왜란 이후 중창된 것들이다. 그 중창의 연혁은 앞서 본 「내연산 보경사 금당탑기」와 「청하군 내연사 사적」을 통하여 추적해볼 수 있다. 「내연산 보경사 금당탑기」는 1588년 작성된 것이지만, 그 글의 뒤에 부기된 내용이 전한다.

위의 기록들을 따르면, 17세기 후반에 한 번 큰 중창이 있었다.

강희 16년 정사(丁巳) 즉, 1677년 뜻이 있는 승려 도인(道仁), 천순(天淳), 도의(道儀) 등이 장인 태심(太諶)을 불러 그해 봄에 법당을 중창하게 하여, 1679년 기미(己未) 가을에 마치도록 하였고, 좋은 화공을 청하여 삼존불상을 만들어 연화좌에 봉안하고, 또 영산회 후불탱화를 그려 걸고, 단청을 마쳤다. 이어서 종각은 영원(靈遠)이 한 것이고, 국사전 정문과 사천왕, 식당은 비구니 총지인¹²⁾ 신원(信遠)이, 금당 중창은 초한(草閑)이 한 것이고, 명부전은 석일(釋日)이 한 것이다. 팔상탱은 신

12) 원문에 尼總持로 되어 있어, 총지도 역시 승려의 이름인지, 아니면 신원을 꾸미는 말인지 불분명하다.

원(信遠)이 한 것이다. 열반당은 신평(信特)이 하였고, 관음전 중창은 도의(道儀)가 하였다. 각 집의 단청은 모두 도의(道儀), 신원(信遠)이 하였다. 응향전은 국헌(國軒)이 하였고, 괘불과 증(甌)은 치근(致根)이 하였고, 향적전과 국사전은 학열(學悅)이 하였다. 청련암은 도인(道仁)이 하였고, 서운암은 탁근(卓根)이 하였으며, 팔상전은 지충(志聰)이 하였다.

또, 뒤이어서,

옹정 12월 을사(乙巳), 즉 추정하자면 1725년 혹은 1734년¹³⁾ 봄에 이르러 산승과 승려 성희(性熙), 완신(宛信) 등이 명부전을 망월료의 구기로 옮기고자 하였으며, 괘불을 중수하였는데, 성희(性熙)의 일이다. 명부전 단청 역시 성희의 일이고, 목수 담회(曇懷)의 일이고, 화공은 선혜(善惠), 행잠(幸岑)이다. 참으로 장려하여 지난 천백년의 성상의 유적이 일시에 개변하였다고 한다.

이 내용을 따르다면, 1677년부터 79년에 걸쳐 법당을 중창하였으며, 이어서 종각, 국사전 정문, 식당, 금당, 명부전, 열반당, 관음전, 응향전, 향적전, 국사전, 팔상전 등 많은 전각의 중창과 청련암, 서운암 등의 부속 암자의 건축사업이 이어졌다. 이때 중창된 법당을 적광전(1679년)으로 보고 있으며, 같은 시기에 해당하는 보경사의 유물로 사인(思仁) 비구가 제작하였다는 포함 보경사 서운암 동종(1667년작)이 있고, 조금 시차를 두고 1708년(숙종 34) 10m에 이르는 대형의 괘불탱이 조성되고, 1725년 중수되었다.

천왕문 역시 이 시기에 중창된 것으로 나오지만, 이후 한 차례 확대 중창이 이루어진다. 그 중건기가 천왕문에 현판으로 걸려 있으며, 『清河縣 邑誌』(1871)에 그 내용이 옮겨 있다.

寶鏡寺四天王門重建記¹⁴⁾

東海海上有清河縣 縣之以內迎山 山之中有寶鏡寺 寺之南有天王門 山古繻(新)羅王避敵之地 寺故漢明時(帝)郎(所)建 門郎(郎)[改]諸天王 降自兜率而(出)入者也 飛騰鬱崱六龍回日仙鶴停驂山之勢也 瓊松五(玉)削或(角)碁希(布)星羅(洞)之石也 怒(濤)吼空飛流直搗 雷霆搏擊龍龍(之)(?)也 泚(珠)樹琪林四面 縹(錦)繡(鋪)[諸]山(天)之花也 棟宇神靈千年獨立(如)來之閼(閼)也 單(翬)飛鳥草(華)巋然峽岬天王之門也 門之向(內)有四王塑像 靈怪(怪)雄偉(傳)所

13) 雍正 12월 乙巳라는 연기로는 해를 알 수 없다. 옹정 연간에 을사년은 1725년이 있고, 옹정 12년은 1734년이다.

14) 『청하연읍지』의 영인본에 있는 「보경사사천왕문중건기」 내용을 바탕으로, 『보고서』의 실려있는 활자본을 첨삭 수정한 것이다. 괄호 안이 새로 읽은 글자이고, 중괄호는 추가한 글자이거나 빠져야 하는 글자이며, 다른 글자이거나 빠진 글자이지만 읽지 못한 글자는 물음표로 표시하였다.

(呵)㉔(禁)不祥 山鬼海若(?)畏不散(敢)近佛之靈永妥(安)寺之僧長㉔(無)灾也 是門[也]重建於邃古 **南(丙)寅始立**之歲筵(茫)不可記舊㉔(制) ㉔(湫)隘不宣於 名山古寺 諸禪侶相謂曰可㉔(惜)也 已取木於山鳩財於寺 自丙午㉔(至)壬子 積 年徑始而未就 **洎歲辛巳**有陸招(哲)滕(勝)言者兩人 寂(最)爲(多)禪緣幹其事而 ㉔(主)之仍舊址而 ㉔(新)之使㉔(制)㉔(度)稍增乾坤在此門(間) 門之上大揭天王 門㉔(?)額 列四像而㉔(復)㉔(安)道場 增次(光)㉔(瞻)㉔(?)甚美 八(入)其門而 [芒㉔竹杖]㉔(?)㉔(?)仙窟者 問㉔(之)曰往(是)[?]也 ㉔(誰)之謀也 咸(惑)[兩]釋 子(者)之功 而忝謀者漢圭也 ㉔(移)像者玄(宣)眞也 云余以㉔(洛)陽歸雲(客) 東 遊海上邊(適)有薇坦 ㉔(新)命病不能㉔(行)㉔(行)釗(到)此山 始得平生壯觀門之 成也 有睜(時)㉔(客)㉔(之)來也 亦有緣耶時有山㉔(之)僧義吳錫杖雲衲而來訪 仙(山)㉔(形)道骨粲於(松)吸㉔(霞)㉔(談)經誦呪 無一默塵世色不覺俗㉔(客)㉔ (之)忘㉔(形)也 又有致澄者㉔(淳)愿質慤最有功於釋家 亦緇㉔(徒)中傑㉔(然)者 也 交渴(謁)而請㉔(?)言山中㉔(故)事遂爲㉔(之)記 歲丁亥維夏司諫院正言李宗榮仁吉

여기서 천왕문은 처음 지었다는 병인(丙寅)년은 앞서, 1679년 법당을 중창하고 이어서 천왕문 등 많은 건물의 중창이 이루어진 17세기 말인 1686년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옛 제도가 명산고사(名山古寺)에 어울리지 않아서 ‘조금 늘려서 새로운 제도로 고쳐지었다 (主之仍舊址而新之使制度稍增乾坤在此間)’는 신사(辛巳)년은 중창 상량문이 나온 1761년, 그리고 이 중건기를 기록한 정해(丁亥)년은 1767년으로 보는 것이 적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상의 내용을 종합할 때, 보경사 천왕문은 1686년(丙寅)에 처음 세워지고, 1761(辛巳)년~1767년(丁亥)에 제도를 조금 바꾸어 중창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여기서 옛 제도를 버리고 새 제도를 선택하였다고 하는 것이 혹 문에 일반적인 맞배지붕을 포기하고 팔작지붕을 선택한 것은 아닌지 의심할만하다. 남북방향으로 조금 늘려 지었다는 점도 이 지붕 형식의 변화와 관련 있는 것은 아닐까 의심한다. 천왕문이 팔작지붕을 가지고 있는 것은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감히 추측해본 것이다.

앞서 괘불탱이 1708년에 조성되고 1725년에 중수되었는데, 이어서 천왕문을 중건한 1761~7년과의 사이에 1740년(영조 16) 적광전의 후불벽을 조성하고(목서), 1742년(영조 18)에는 '포항 보경사 비로자나불도'(보물 제1996호)가 만들어지는 것을 보면, 동종이 만들어지는 1660년대부터 천왕문이 중건되는 1760년대까지 보경사에서는 건축과 불화 등의 불사가 계속해서 이어졌음을 알 수 있다.

사찰 내에 명문을 가진 와당이 3점 전하는데, 각각 1587년 명 암막새, 1730년 명의 암기와 1742년 명의 암막새가 그것이다. 그 가운데 특히 1730년 명의 암막새에는 ‘盈德面谷’이란 지명이 있어 흥미롭다. 1580년 것을 제외하면 보경사의 중창 시기에 걸쳐있다.

근대기에 들어 보경사는 정비공사가 이어진다. 특히 1932년 대웅전을 중수하고 1935년에는 상지전(上持殿)을 중수한 것이 큰 건축 관련 불사였다.

해방 이후로는 1970년대 중반 이후 각종 건물들에 대한 보수 정비 작업들이 이어지고, 천왕문과 관련해서는 1979년 주변 축대를 개수하였다는 기록이 나온다. 옛 사진과 달라진 기단의 정비가 이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또 1980년에는 사천왕상을 새로 봉안하였다.

3. 건축적 특징

보경사 천왕문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단층 팔작집으로, 가운데 두칸은 통로칸으로 삼고, 좌우의 측칸에는 사천왕상을 봉안하였다. 통로칸의 전면에는 한 칸 가득히 지방과 문선, 문인방 등을 기둥 사이에 설치하여 문얼굴을 짜고 두 짝의 안여닫이 널판문을 달았다. 통로칸 후면에는 따로 문짝과 문얼굴을 두지 않았다.

좌우의 협칸을 둘러싸는 외벽면은 모두 흙심벽으로 마감하였는데, 옛 사진에는 판벽으로 되어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흙심벽의 열개를 이루는 중방과 셋기둥 등의 구성은 전면과 후면, 좌우의 측면이 서로 달라서, 정면은 중방만 두었을 뿐이고, 후면과 좌우면에서는 이에 더해 셋기둥으로 벽면을 세로 분할하고, 그 윗부분에는 벽화를 그려 넣었다. 한편, 내부의 통로칸과 좌우 협칸 사이에는 홍살로 경계를 만들었다.

기단은 매끈하게 다듬은 장대석을 사방으로 한 줄 나란히 둔 외벌대 기단으로, 원래는 막돌 기단이었던 것을 1979년에 개수한 것으로 추정되며, 전면에는 정칸의 폭에 맞추어 소맷돌과 법수를 갖춘 2단의 계단을 두었고, 후면은 다만 한 단의 디딤돌을 두어 간단히 처리하였다. 기단 상면에는 통로칸과 외벽 바깥으로 방전을 깔고, 사천왕상이 있는 좌우 칸에는 강회다짐으로 마감하였다. 사천왕상은 1980년에 조성한 것이다.

주칸의 설정은 도리칸의 정칸은 2,910mm, 좌우의 협칸은 2,610mm로 정칸을 한 자 정도 크게 잡았다. 보칸으로는 두 칸 모두 2,640mm로 하여, 도리칸의 좌우 협칸과 같은 치수를 사용하여 사방의 모퉁이 칸을 정방형의 크기로 맞추었다.



그림5 보경사 천왕문 전경 (20203.06.30 촬영)



그림6 보경사 천왕문 평면도 (『보고서』에서 전재)

전면 문얼굴의 구성에서, 하부 문지방과 직교하여 신방목이 짜이는데, 안쪽으로는 튀어나가 문짝의 아래 지도리를 잡는 문둔테가 되고 바깥쪽으로 튀어나간 부분에는 환조로 사자 모양의 조각을 하여 이채롭다. 비슷한 모양의 신방목 조각이 적광전에서 보인 다.



그림 7 천왕문의 신방목 조각(좌, 『보고서』에서 전재)과 적광전의 신방목 조각(우, 2023.06.30. 촬영)

기둥은 10본 모두 민흘림을 가진 두리기둥으로, 지름이 390mm가량 되고, 다만 측면의 가운데 기둥만 지름이 약 360mm로 조금 가는 기둥을 사용하였다.

공포는 1출목 이익공의 공포를 기둥 위에 두었고, 주칸에는 화반을 한 개씩 두었다. 기둥 머리에서 초익공과 창방을 직교하여 짜고, 그 위에 주두를 놓은 다음 이익공과 주심 첨차를 직교하여 짜서, 주심도리의 가점장여를 받치고 있다. 일출목에서는 초익공의 초

가지 위에 소로를 두고 이익공 내민 부위와 행공침차를 직교하여 짜서 출목도리 장여와 보빨목을 받치고 있다.

다른 이익공 공포와 차이가 나는 부분은, 행공침차 위에 소로를 둔 방식인데, 일반적인 침차에서 중앙부와 좌우 단부에 하나씩 모두 3구의 소로를 두는 것과 달리, 보경사 천왕문에서는 중앙부에 소로를 두지 않고 바로 보빨목과 맞닿게 하는 한편, 행공 침차의 양쪽으로는 소로를 2개씩 두어서 모두 4개의 소로로 출목도리 장여를 받치게 하고 있다. 주심 침차에서는 일반적인 침차의 예와 같이 3개의 소로를 두었다.

초익공의 외부 초각은 앙서형의 쇠서 위에 연화를 두었고, 이익공의 외부 초각은 앙서형 쇠서 위에 연봉을 두어서 조금 차이를 주었다. 보빨목은 운공형의 초각을 하였으며, 내민 길이는 초익공, 이익공과 비슷한 정도로 돌출하였다. 내부의 초각은 초익공, 이익공으로 구분된 2개의 판재 내단 전체를 보아지형으로 초각하고 이익공 판재에는 작은 연봉 초각을 추가하였다.

팔작지붕을 이루고 있는 모퉁이의 추녀 아래의 귀포는 전각포를 사용하였는데, 그 구성이 특이하다. 창방의 빨목을 거의 초익공의 내민 길이만큼 길게 빼고, 그 위에 대각선으로 가로질러 이방을 두어서 이익공 및 귀한대를 받치고 있는데, 이러한 수법은 출목익공계의 전각포 구성에서 보기 힘든 희귀한 사례이다. 출목익공계의 전체 건축물에 대하여 조사해본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보물로 지정된 13건의 출목익공계 공포를 갖는 건축물에서는 다른 사례가 없다.¹⁵⁾ 일반적으로 이방은 다포계 공포에서만 평방의 위에서 사용되며, 출목익공계 건축의 전각포에서는 창방은 모퉁이 기둥에서 끝나고, 바깥쪽으로는 초익공의 외단을 꽃아서 공포를 구성한다.

그나마 가장 비슷한 사례가 제천 청풍 한벽루의 본루의 전각포인데, 여기서도 이방은 사용되지 않았고, 창방의 빨목을 모퉁이 기둥 바깥으로 돌출하기는 하였지만, 초익공 부재를 그 밖에 끼워서 전각포를 구성하고 있을 뿐이다.

또, 이익공 위에 있는 행공침차는 서로 간섭이 일어나므로 좌우대로 만든 점도 다포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익공 위에 출목도리와 장여를 다시 직교하여 짜서 받쳤다. 이때 추녀 방향의 이익공 귀한대 위로도 작은 부재를 두어서 장여 빨목들과 서로 짜이게 하였다. 장여의 빨목은 장여쪽 그대로 길쭉하게 내민 것과 그 내민 끝을 침차의 하단처럼 초각한 것이 함께 사용되었다.

15) 고성 옥천사 자방루, 나주 금성관, 나주향교 대성진, 밀양 영남루, 보은 법주사 팔상전, 성남 봉국사 대광명전, 수원 화령전 운한각, 수원 화서문, 여수 진남관, 전주 풍남문, 제주 관덕정, 제천 청풍 한벽루 (본루), 통영 세병관 등



그림8 천왕문의 정면 정칸과 향우측 모퉁이 공포(2023.06.30. 촬영) 창방의 뿔목을 길게 빼어 초익공을 대신하고, 그 위에 이방을 놓고 이익공을 받은 형식은 출목익공계의 전각포에선 보기 힘든 희귀한 사례다.



그림 9 제천 청풍 한벽루 본루의 귀포에 사용된 전각포 (<https://ko.wikipedia.org/wiki/> 에서 인용)

첨차의 세부 가공은 평주 위와 모퉁이 기둥 위가 서로 다르다. 평주 위에서는 주심첨차의 하단부를 연꽃 모양으로 화려하게 조각한 데 비하여, 귀포에서는 양단을 사절하고 그 하부는 간단한 곡선으로 처리하여서 차이가 주었다. 또, 행공첨차에서는 평주 위에서는 귀포의 주심 첨차와 비슷하게 양단부는 사절하고 그 하부는 조각을 한 데 비하여, 귀포에서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좌우대로 짜여서, 한쪽은 양성형 조각에 연봉을 올린

평주 위 이익공 외단처럼 초각하고, 다른 한쪽은 평주 위 행공첨차와 같이 처리하였다. 주간에 놓인 화반은 모두 10개가 사용되었는데, 윗면의 중앙에 소로를 두고 장여를 받치고 있다. 전후면의 화반은 역사다리꼴로 위가 넓은 판재의 양측면을 당초문으로 초각한 화려한 화반을 사용하였고, 양 측면에서는 사각형으로 직절한 판재 안에 단청을 그려 넣은 다소 간단한 화반을 사용하였다.

전체적인 구조는 전후의 기둥 위에 대들보를 걸고, 그 위에 판모양의 동자주를 두어서 종보와 중도리를 받치고, 종보 위에 다시 판대공을 두어서 중도리를 받는 평주 5량가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전체의 보칸 치수가 5,280mm 밖에 되지 않는 소규모의 건물이고 내부 공간의 쓰임새 역시 간단한 건물에 어울리는 구조다. 주심도리에서 중도리까지의 간격이 1,620mm, 중도리에서 종도리까지의 간격이 1,020mm로서, 3분변작에 가까운 도리 배열을 보여준다. 출목도리가 345mm 튀어 나가 있으므로, 출목도리 사이의 간격을 생각하면, 거의 3등분 자리에 중도리를 두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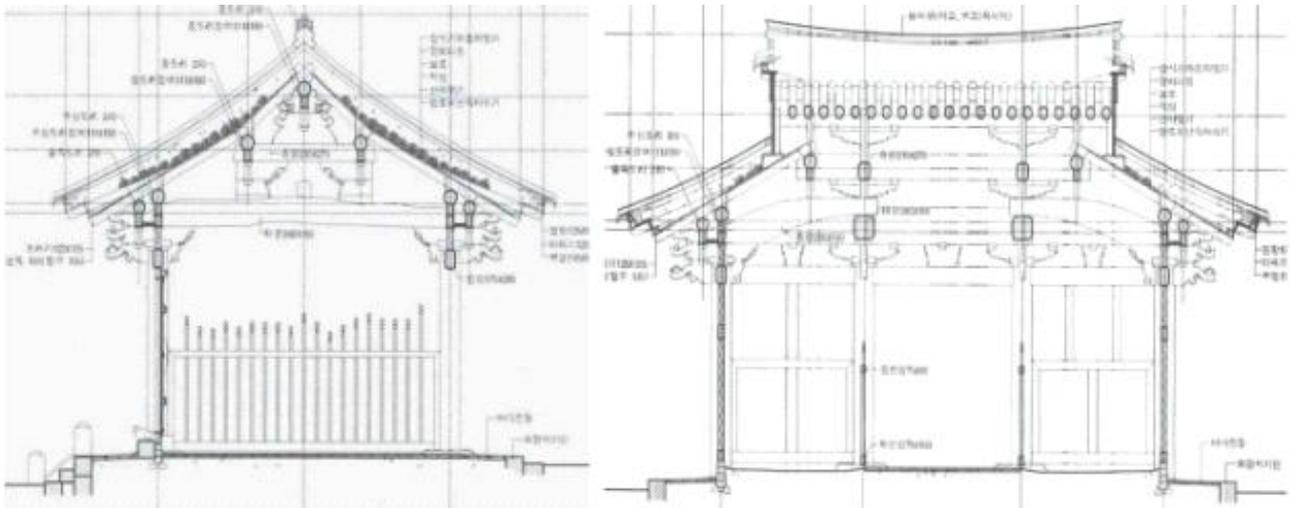


그림 10 보경사 천왕문 종단면도와 횡단면도 (『보고서』에서 전재)

중도리와 직각으로 외기도리가 짜여서, 측면의 평서까래를 받치고 있고, 중도리와 외기도리의 왕지 짜임으로 추녀의 뒷뿌리를 받치고 있다. 측면 가운데 기둥 위에서 대들보 위에 걸쳐서 위로 볼록한 곡선형의 충량을 두고, 충량의 가운데 위에 동자주를 두어서 외기도리 장여의 가운데 부분을 저울대처럼 받치고 있다.

중도리를 받치는 동자주는 판재로 만들어서, 바깥쪽은 직절하고 안쪽으로만 당초문을 초각하여 단부를 가공하였으며, 마루 대공은 파련대공 모양으로 짰다. 동자주와 대공에 별도의 첨차는 없고 바로 도리와 장여와 짜이는 간단한 구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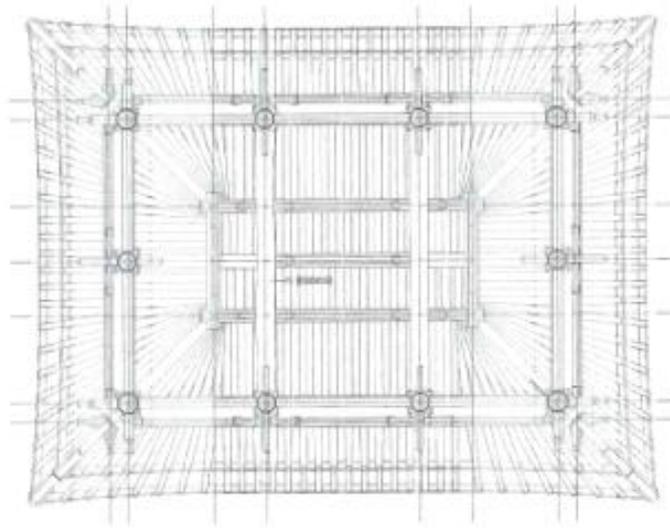


그림 11 보경사 천왕문 양시도(『보고서』에서 전재)
(충량이 그려져 있지 않다)

<종합의견>

포항 보경사 천왕문은 보경사의 중심 영역의 남단에 자리한 정면 3칸, 측면 2칸의 단층 팔작집으로, 1686년에 건축되고, 1761년~1767년에 제도를 조금 바꾸어 증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근래에 들어 기단을 수축하고 사천왕상을 새로 봉안하였다.

단층의 기단 위에 두리기둥을 세우고 1출목 2익공 형식의 공포를 사용하였다. 귀포는 전각포를 사용하였는데, 창방의 뺄목을 길게 빼어 초익공의 자리에 두고, 그 위에 이방을 놓아 출목익공을 받쳤으며, 출목 첨차는 좌우대로 짚다. 이러한 전각포의 구성은 출목익공계나 주심포식 공포에서는 볼 수 없는 다포계 공포의 형식을 닮은 것이다. 가구는 평주 5량가이며, 팔작지붕의 측면 서까래와 추녀를 받치기 위한 외기도리가 중도리 열에 짜여 있고, 충량이 이를 받치고 있다.

전체적인 규모나 축부 및 지붕 가구의 구성에서는 특별한 점을 보기 어려우나, 18세기 후반의 연혁을 가지고 있는 건축물이라는 역사성과 보경사의 중심 영역을 구성하는 장소적 의미, 그리고 세부적으로는 출목익공계의 전각포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구성과 이방의 사용, 전면 정칸의 문얼굴에 있는 신방목의 외부를 꾸민 사자 모양의 조각, 사천왕문 가운데 유일하게 팔작지붕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은 다른 천왕문과 구분되는 세부 기법과 의장으로서 학술적 의미가 있다.

이상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보경사 천왕문의 보물로의 승격 지정에는 다른 사례와의

비교를 통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대상 문화재의 핵심 보존가치

천왕문 건물의 축부 구성 및 상부 가구 및 지붕틀 전체

공포, 특히 전각포의 세부 양식

신방목의 조각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23.06.30.	대상 문화재	포항 보경사 천왕문	
조사자	성 명	○○○	전공 분야	건축물 보존/수리
	소 속	○○○○○○○○○○○○○○○○ ○○	직위(직책)	수석 부이사장
주요 지정 사항 검토	문화재 종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문화재 명칭	포항 보경사 천왕문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세부 내용 별첨 참조		
	연혁·유래 및 특징	세부 내용 별첨 참조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세부 내용 별첨 참조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포항 보경사 천왕문 <보호물> 포항 보경사 천왕문 <보호구역>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송라면 중산리 622		
보호 관리 사항 검토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재<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구역<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구역(오층석탑, 적광전, 대웅전, 탕자나무)<문화재보호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보경사(원진국사비, 승탑, 적광전) 1구역)<문화재보호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포항보경사 서운암 부도군(유형문화재 478호))<문화재보호법>, 국가지정문화재구역<문화재보호법>, 군립공원(보경사)<자연공원법>, 공원문화유산지구<자연공원법> 준수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포항 보경사 천왕문 실측조사보고서 작성		
종합의견	*세부내용 별첨 참조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3 년 10 월 6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보경사 천왕문이 위치한 보경사는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송라면 보경로 523(송라면 중산리 622번지)에 위치하고 대한불교조계종 제11교구 본사인 불국사의 말사이다. 보경사는 내연산의 남동쪽 주능선의 문수봉을 주봉으로 앞쪽에 광천을 끼고 평지에 입지하고 있다.

보경사가 위치한 송라면은 조선시대 청하현에 해당하는 곳으로, 청하현은 강원도 영동 지방에서 영덕을 거쳐 포항과 경주로 이어지는 길목에 해당하여 동남해안의 주요 방어 거점 중 하나였다.

보경사는 평탄하고 넓은 대지에 입지하고 불전영역인 후면으로 향할수록 석축을 쌓아 단을 높여 공간을 분리하고 있다. 천왕문을 지나면 오층석탑과 적광전이 보경사의 중심 축선상에 위치하여 보경사의 중심 영역을 구성하고 있다. 적광전 후면에는 대웅전이 적광전과 다른 좌향으로 입지하고, 대웅전의 후면에는 한 단 높은 석축 위에 팔상전, 명부전 등의 부불전이 일렬로 배치되어 있다.

<연혁·유래 및 특징>

보경사 천왕문이 있는 포항 보경사는 602(진평왕 25) 창건하였다고 전하고 있다. 천왕문에 대한 가장 이른 시기 자료는 「내연산 보경사 금당탑기」이며 임진왜란 이후의 대대적인 보경사 중창과 관련된 기록으로도 추정된다. 1677년에 가장 먼저 법당인 대웅전을 중창하였고 1679년에 삼존불의 조성과 연화좌를 봉안하고 후불탱을 새로 조성하고 단청하여 마무리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국사전 정문, 사천왕문, 식당도 중창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후의 기록은 1761년에 지은 「천왕문중창상량문」과 1767년에 이종영의 「보경사 사천왕문중건기」로 보아 1679년 천왕문 중창 이후 약 88년 후인 1767년에 다시 중건된 것으로 보인다.

1871년에 편찬된 『청하현읍지』, 『영남읍지, 청하현읍지』 등에 보경사, 금법당, 사천왕문에 대한 기록이 동일하게 남아 있고, 사천왕문에는 이종영의 기문이 실려 있다.

1767년 중건기록 이후로 중수 기록은 보이지 않으며, 1975년에 사천왕문을 단청한 기록이 있다. 사이에 추가 중수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입증할 자료가 없어 알 수 없다.

1980년에 사천왕상을 새로 조성하여 봉안한 기록과 번와공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보경사 천왕문은 기록을 통해 임진왜란 이후에 1679년에 보경사가 대대적으로 중창할 때 여러 전각과 함께 사천왕문도 함께 중창한 것으로 보이며, 1679년에 중창 후 1761

년~1767년 사이에 중건되어 오늘날까지 존재해왔다. 따라서 현존 사천왕상 조각상을 안치한 천왕문 건축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17세기 이후 사찰 천왕문의 조성과 시기적 변화양상을 관찰할 수 있는 중요한 천왕문의 사례로 가치가 있다.

현존 다른 천왕문과 비교했을 때 보경사 천왕문의 경우, 통로로 사용되는 중앙 어칸 전면에 출입문을 둔 것, 널문의 하부에 보경사 적광전(보물)과 동일한 섬세하게 조각된 사자상 신방목이 존재하는 것, 18세기의 출목익공형식을 갖춘 것, 천왕문 중 국내 유일의 팔각지붕인 것, 지붕형태와 관련하여 5량가의 지붕가구와 귀한대를 갖춘 귀포가 존재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보경사 천왕문의 이러한 역사성 및 건축적 특성은 조선후기 사찰 천왕문 건축과 18세기 후반 건축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가치가 있어,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의 지정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종합의견>

1. 보경사 천왕문이 위치한 보경사는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송라면 보경로 523(송라면 중산리 622번지)에 위치하고 대한불교조계종 제11교구 본사인 불국사의 말사이다. 보경사는 내연산의 남동쪽 주능선의 문수봉을 주봉으로 앞쪽에 광천을 끼고 평지에 입지하고 있다. 보경사가 위치한 송라면은 조선시대 청하현에 해당하는 곳으로, 청하현은 강원도 영동지방에서 영덕을 거쳐 포항과 경주로 이어지는 길목에 해당하여 동남해안의 주요 방어거점 중 하나였다. 보경사는 평탄하고 넓은 대지에 입지하고 불전영역인 후면으로 향할수록 석축을 쌓아 단을 높여 공간을 분리하고 있다. 천왕문을 지나면 오층석탑과 적광전이 보경사의 중심축선상에 위치하여 보경사의 중심 영역을 구성하고 있다. 적광전 후면에는 대웅전이 적광전과 다른 좌향으로 입지하고, 대웅전의 후면에는 한 단 높은 석축 위에 팔상전, 명부전 등의 부불전이 일렬로 배치되어 있다.

2. 보경사 천왕문이 있는 포항 보경사는 602(진평왕 25) 창건하였다고 전하고 있다. 천왕문에 대한 가장 이른 시기 자료는 「내연산 보경사 금당탑기」이며 임진왜란 이후의 대대적인 보경사 중창과 관련된 기록으로도 추정된다. 1677년에 가장 먼저 범당인 대웅전을 중창하였고 1679년에 삼존불의 조성과 연화좌를 봉안하고 후불탱을 새로 조성하고 단청하여 마무리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국사전 정문, 사천왕문, 식당도 중창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후의 기록은 1761년에 지은 「천왕문중창상량문」과 1767년에 이종영의 「보경사 사천왕문중건기」로 보아 1679년 천왕문 중창 이후 약 88년 후인 1767년에 다시 중건된 것으로 보인다. 1871년에 편찬된 『청하현읍지』, 『영남읍지, 청하현읍지』 등에 보경사, 금법당, 사천왕문에 대한 기록이 동일하게 남아 있고, 사천왕문에는 이종영의 기문이 실려 있다. 1767년 중건기록 이후로 중수 기록은 보이지 않으며, 1975

년에 사천왕문을 단청한 기록이 있다. 사이에 추가 중수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입증할 자료가 없어 알 수 없다. 1980년에 사천왕상을 새로 조성하여 봉안한 기록과 변와 공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보경사 천왕문은 기록을 통해 임진왜란 이후에 1679년에 보경사가 대대적으로 중창할 때 여러 전각과 함께 사천왕문도 함께 중창한 것으로 보이며, 1679년에 중창 후 1761년~1767년 사이에 중건되어 오늘날까지 존재해왔다. 따라서 현존 사천왕상 조각상을 안치한 천왕문 건축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17세기 이후 사찰 천왕문의 조성과 시기적 변화양상을 관찰할 수 있는 중요한 천왕문의 사례로 가치가 있다.

3. 보경사 천왕문은 기록을 통해 임진왜란 이후에 1679년에 보경사가 대대적으로 중창할 때 여러 전각과 함께 사천왕문도 함께 중창한 것으로 보이며, 1679년에 중창 후 1761년~1767년 사이에 중건되어 오늘날까지 존재해왔다. 따라서 현존 사천왕상 조각상을 안치한 천왕문 건축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17세기 이후 사찰 천왕문의 조성과 시기적 변화양상을 관찰할 수 있는 중요한 천왕문의 사례로 가치가 있다. 현존 다른 천왕문과 비교했을 때 보경사 천왕문의 경우, 통로로 사용되는 중앙 어칸 전면에 출입문을 둔 것, 널문의 하부에 보경사 적광전(보물)과 동일한 섬세하게 조각된 사자상 신방목이 존재하는 것, 18세기의 출목익공형식을 갖춘 것, 천왕문 중 국내 유일의 팔작지붕인 것, 지붕형태와 관련하여 5량가의 지붕가구와 귀한대를 갖춘 귀포가 존재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보경사 천왕문의 이러한 역사성 및 건축적 특성은 조선후기 사찰 천왕문 건축과 18세기 후반 건축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가치가 있어,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의 지정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 대상 문화재의 핵심 보존가치

- 통로로 사용되는 중앙 어칸 전면의 출입문
- 널문의 하부에 보경사 적광전(보물)과 동일한 섬세하게 조각된 사자상 신방목 존재
- 18세기의 출목익공형식
- 천왕문 중 국내 유일의 팔작지붕
- 팔작지붕형태와 관련하여 5량가 지붕가구와 귀한대를 갖춘 귀포의 존재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23.06.30.	대상문화재	포항 보경사 천왕문	
조사자	성명	○○	전공 분야	건축계획
	소속	○○대학교	직위(직책)	교수
주요 지정 사항 검토	문화재 종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문화재 명칭	포항 보경사 천왕문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세부내용 별첨 참조		
	연혁·유래 및 특징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세부내용 별첨 참조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3년 10월 8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1. 포항 보경사 입지 및 역사문화환경

1) 입지현황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송라면 보경로 523 (송라면 중산리 622번지)에 위치한 보경사는 내연산(內延山)의 남동쪽 주능선의 문수봉을 주봉으로 하고 서쪽으로 광천(廣川)을 끼고 있는 입지를 가지고 있다. 보경사가 위치한 송라면은 조선 시대에는 청하현에 해당하는 곳이며, 강원도 영동지방에서 영덕을 거쳐 포항과 경주로 이어지는 길목에 위치하여 동남해안의 주요 방어거점 중 하나였다.

내연산은 암봉(巖峰)이 없는 토산(土山)이지만 광천의 상류인 청하골(보경사 계곡)을 따라 기암절벽과 12개의 폭포가 형성되어 있어 절경을 이루고 있는 곳이다. 내연산은 태백산맥의 줄기인 중앙산맥에 있는 높이 711m의 산이다. 북쪽에는 동대산(東大山, 792m)과 바데산(645m)이 있고, 서쪽 4km 지점에는 한국전쟁 당시 격전지인 향로봉(香爐峯, 929m)이 있다. 동쪽과 남쪽 사면은 급경사이나 북서쪽은 완사면을 이루고 있다. 경상북도 포항시의 북구 송라면 중산리, 죽장면 하옥리, 영덕군의 남정면 화리에 걸쳐 있다.

내연산은 원래 종남산(終南山)이라 불리다가, 신라 진성여왕(?~897)이 이 산에서 견훤(867~936)의 난을 피한 뒤에 내연산이라 개칭하였다는 이야기가 전한다.¹⁾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권 제23 경상도 청하현 산천조에는 내영산(內迎山)이라 표기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현의 북쪽 11리에 있다. 산에는 대(大)·중(中)·소(小) 세 개의 바위가 솔밭처럼 벌려 있는데, 사람들이 3동석(動石)이라고 한다. 손가락으로 건드리면 조금 움직이지만 두 손으로 흔들면 움직이지 않는다. 신라 진평왕(眞平王)이 견훤(甄萱)의 난을 이 산에서 피했다.」

이러한 내용은 이후 간행된 대부분의 지리지에서도 대동소이하게 인용되고 있는데, 조선후기 지리지인 「여지도서(輿地圖書)」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내연산 (청하)현 북쪽 11리에 있는데, 주된 산줄기는 응봉산(鷹峰山)에서 온다. 산에 대(大), 중(中), 소(小) 세 개의 바위가 나란히 있는데 사람들은 삼동석(三動石)이라고 부른다. 손가락으로 밀면 미동을 하지만, 양손으로 밀면 움직이지 않는다. 신라 진평왕이 견훤의 난을 피해 이 산에 머물렀다.」

1) 한국지명유래집 경상편. 조선시대 지리지와 사명당이 기록한 「內延山寶鏡寺金堂塔記」 등에는 진평왕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 견훤의 생몰연대를 바탕으로 진성여왕으로 추정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관련된 정사의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보경사(寶鏡寺)는 내연산에서 뻗어 나오는 동쪽 자락에 남향하여 자리하고 있다. 내연산 등산로 초입에 위치하지만 비교적 평탄하고 넓은 대지에 펼쳐져 있으며, 불전 영역의 후면으로 갈수록 석축을 쌓아 단을 높이고 공간을 분리하였다.

보경사 가람 및 공간구조는 진입영역, 주불전 영역, 부불전 영역이 각각 석축으로 구획된 단 위에 구분해 배치되어 있다. 경내의 제일 남쪽에 위치한 일주문에서 북서쪽 방향으로 진입하면 해탈문(解脫門)이란 편액이 걸린 불이문(不二門)이 나오고 같은 방향으로 50여 미터를 진입하다 북쪽으로 꺾으면 낮은 석축 위의 천왕문(天王門)이 보이는데 천왕문 전방까지가 진입영역에 해당한다.

주불전 영역에는 천왕문, 5층석탑, 적광전(寂光殿)이 비교적 좁은 공간에 일직선 축선 상에 놓여 있으며, 대웅전은 적광전 뒤쪽에 석축으로 한 단 높은 곳에 축향이 서쪽으로 약간 틀어져 위치한다. 주불전 영역 내 5층석탑 서쪽으로 범종각, 적광전 서쪽으로 강당, 천왕문 동쪽으로 심금당 등이 각각 위치한다. 그리고 대웅전 서쪽과 동쪽으로는 요사채가 놓여 있다.

대웅전 동측면의 계단을 오르면 한 단 높은 석축 위를 평탄하게 조성하여 동쪽에 원진국사 비각이 서향하고 있으며, 그 뒤쪽 가구식 석축 위에는 서쪽부터 팔상전, 산령각, 원진각, 영산전이 나란히 배치된 부불전이 위치한다. 영산전 동쪽 모서리에는 명부전이 서향하고 있다.

주불전과 부불전을 포함한 중심영역 동쪽으로는 근년에 새로 조성한 부지에 요사채가 앞뒤로 배치되어 있고, 더 동쪽으로는 설법전과 주차장, 남쪽으로는 전시관이 각각 위치해 있다. 요사채 북쪽으로는 무문관, 응향각, 원응료 3동이 나란히 건립되어 있고, 그 북쪽에는 ㄷ자형의 청련암(동암)이 있다.

이처럼 보경사는 천왕문, 적광전, 대웅전이 있는 중심영역에서 후대로 내려오면서 동쪽과 북쪽으로 사역을 확장하고 여러 전각과 요사채 등을 새로 신축해가고 있는 고찰이다.

2) 보경사 연혁

내연산 보경사의 신라대 창건설은 「사명당 유정(1544~1610)」이 지은 「內延山寶鏡寺金堂塔記」²⁾에 수록된 창건설과 「옥룡자 산수비기」³⁾에 전하는 창건설 등 두 가지가 전해진다. 전자는 신라의 일조(日照)스님 이야기로 스님이 당나라 유학 후 귀국할 때 가지고 온 팔면경(八面鏡)을 묻고 사찰을 세운 것이 지금의 보경사라는 설이다.

후자는 신라의 지명(智明)법사가 중국 진(陳)에 유학 중 전수받은 팔면보경(八面寶鏡)을 602년(진평왕 25)에 지금의 내연산 아래 못을 메운 자리에 묻어 세운 절이 보경사라

2) 「內延山寶鏡寺金堂塔記」, 1588년(조선사찰사료 상권)

3) 옥룡자는 조선국사의 별호로 「옥룡비기(玉龍秘記)」라고도 한다. (이종익, 해동명장 보경사의 사적과 설화, 1980)

는 설이다. 이 두 가지 창건설에서 팔면보경을 묻은 자리에 사찰을 창건하였다는 점은 일치하나 창건주·창건시기·창건과정이 서로 달라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다. 이러한 창건설은 1792년(정조 16) 동봉(東峰) 스님이 지은 「清河郡內延山寶鏡寺事蹟」에도 소개되어 있지만, 신라대 창건설은 사찰의 연기설화로서 이해하고 그 의미를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고려시대에 들어 보경사의 중창 상황은 앞서 살펴본 「內延山寶鏡寺金堂塔記」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이 수록되어 있다.

「**관조계종대덕선 고려왕사 원진당이 고려 고종원년(1214)에 보경사의 주지로 임명 받아 부임하여 법당 5칸을 세우고 주방을 4곳에 설치하였으며 다음으로 정문 1칸을 세웠다. 승방(僧房) 4동과 정문(正門) 1칸을 불전 앞 중앙에 세웠다. 작은 보각을 하나 건립하여 연화좌를 설치하고 미타존상을 봉안하였다. 이후에는 번와, 단청, 도벽(塗壁), 종(鐘), 경(磬), 법고(法鼓), 요발(鐃鉢) 등 도구를 완비하였다.**」

이 기록을 근거로 하면 원진국사(1171~1221)는 보경사에 주석하면서 대대적인 중창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하지만 이 기록보다 200여년 후인 1792년에 작성된 「清河郡內延山寶鏡寺事蹟」⁴⁾에는 이와 조금 다른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원진국사 입적 후에 왕의 명에 의하여 금법당(金法堂)과 삼법당(三法堂), 요사 여덟 곳, 식당, 누각, 마당의 탑, 불이문 등을 세웠다.**」

이처럼 고려시대 중창에 대해서는 원진국사의 중창설과 원진국사 입적 후 중창설이 서로 다르게 수록되어 있어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은 어려우나, 원진국사 입적 전·후 두 번의 중창이 있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즉 경내에 원진국사의 승탑과 탑비가 건립되었다는 사실로 미루어 당시 보경사가 국사의 주석처로 사격을 가지고 있었음은 분명하고 그에 따른 중창 역시 지속적으로 이뤄졌을 개연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보경사의 조선시대 중창기록은 창건설화와 관련하여 이미 살펴본 「內延山寶鏡寺金堂塔記」의 후반부⁵⁾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內延山寶鏡寺金堂塔記」의 부기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도인(道仁), 천순(天淳), 도의(道儀) 등이 법당 중창을 장인 태심(太謹)을 불러 丁巳年(1677) 봄부터 시작하여 己未年(1679) 가을에 마쳤다. 가을 화공을 청하여 삼존불**

4) 「清河郡內延山寶鏡寺事蹟」, 1792년(조선사찰사료 상권)

5) 조선시대 중창과 관련된 내용은 사명당의 글 뒷부분에 부기되어 있는 내용으로 작성자와 작성 시기는 미상이다.

을 조성하여 연화좌에 봉안하고 영산회상도로 후불탱을 그려 걸었으며 단청을 마쳤다. 이때 종각은 영원(靈遠)이 하였으며, 국사전 정문과 사천왕문, 식당은 비구니 총지(摠持)와 신원(信遠)이, 금당(적광전) 중창은 초한(草閑)이 한 것이다. 명부전은 석일(釋日)이 하였고, 팔상탱은 신원(信遠)이 이룩하였다. 열반당은 신평(信特)이, 관음전 중창은 도의(道儀)가 하였으며 각각의 단청은 모두 도의(道儀)와 신원(信遠)이 한 것이다. 응향전은 국헌(國軒)이, 괘불과 증(甌: 시루)은 치근(致根)이, 향적전과 국사전은 학열(學脫)이 이룩하였다. 청련암(靑蓮庵)은 도인(道仁)이, 서운암(瑞雲庵)은 탁근(卓根)이 이룩했다. 팔상전은 지충(志聰)이 이룩했다.

乙巳年(1725) 봄에 성희(性熙), 원신(宛信) 등이 명부(전)을 망월(료)터로 옮기고자 하였으며, 다음에 괘불의 중수와 명부전 단청 역시 성희(性熙)가 하였다. 목수는 담회(曇懷)요, 화공은 선혜(善慧), 행잠(幸岑)이다。」

이상의 「조선사찰사료(朝鮮寺刹史料)」에 수록된 기문 외에 사찰에서 소장하고 있는 기문은 현판으로 게시되어 있는 「寶鏡寺四天王門重建記」와 「서운암중수문(瑞雲庵重修文)」이 있다. 寶鏡寺四天王門重建記는 丁亥年(1767년)에 작성된 것으로 이때 사천왕문의 중건이 이뤄진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서운암 중수문은 1898년에 작성된 것으로 당시 서운암의 중건경위가 기록되어 있다. 1725년 중창 이후 조선시대의 전각과 관련된 중창기록은 별도로 확인되지 않는다.

기문류 이외 보경사의 중창을 짐작할 수 있는 자료로 기와의 명문을 들 수 있다. 현재 보경사에서 소장하고 있는 명문기와는 3점이 있다. 각기 만력(萬曆)15년(1587), 건륭(乾隆)7년(1742), 옹정(雍正)8년(1730)년에 제작된 것이다. 기와의 제작년도가 기문속의 중창시기와 일치하지는 않아 중창전후로 진행된 번와를 위하여 제작된 기와로 추정된다.

이후의 기록은 1761년에 의민스님이 지은 「천왕문중창상량문」과 1767년에 이종영(李宗榮)이 찬기한 「寶鏡寺四天王門重建記」가 있어 1679년에 천왕문을 중창한 후 80여년 후인 1761년~1767년에 중건한 것으로 보인다.

1871년에 편찬된 청하현읍지, 영남읍지 등의 불우(佛宇)조에 보경사, 금법당, 사천왕문에 대한 기록이 동일하게 남아 있고, 사천왕문에는 이종영(李宗榮)이 찬기한 기문이 실려 있다.

1761년~1767년에 중건한 사천왕문은 이후 중수 기록은 보이지 않으며, 1975년에 사천왕문을 단청한 기록이 있다. 그간 중수 등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1980년에 사천왕상을 새로 조성해 봉안한 기록과 번와공사가 있었다는 것 외에 입증할 기록이 없다.

2. 천왕문의 건축적 특징

보경사의 천왕문은 경내 진입로에 위치하는 일주문과 불이문(해탈문) 다음으로 통과하는 문이다. 천왕문을 지나면 오층석탑과 적광전을 가까이에 마주하게 된다. 천왕문에는 동서남북의 사방을 지키는 방위신인 사천왕상을 모셨다. 안치된 사천왕상은 2m 높이의 목조사천왕상이며 1980년에 새로 조성한 것이다. 동협칸에 칼을 든 동방지국천왕과 창을 든 남방증장천왕, 서협칸에는 짧은 창을 든 서방광목천왕, 보탑과 창을 든 북방다문천왕이 안치되어 있다.

보경사의 천왕문은 전반적으로 평지로 조성된 적광전 영역의 전방에 남향해 위치한다. 적광전을 비롯한 중심 불전영역인 천왕문·5층석탑·적광전은 남북 일직선 축선 상에 위치한다. 따라서 사찰 배치구성상 **천왕문은 중심 주불전영역의 정문 역할**을 한다고도 볼 수 있다. 이런 배치를 한 유사사례는 범주사 천왕문, 완주 송광사 천왕문, 능가사 천왕문 등이 있다. 이들 천왕문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특징 중 하나는 통로 칸 전면 또는 전·후면에 출입문을 단 점이다.

보경사 천왕문은 정면 3칸×측면 2칸의 규모이며, 정면 3칸 중 중앙 어칸을 통로칸으로 사용하고 있다. 정면 주칸 설정은 어칸이 협칸보다 1척 가량 크게 잡았고, 측면 2칸은 동일 주칸으로 설정되었다.

비교적 평탄한 지형에 외별대 기단을 구성하고 기단 바닥에는 방전을 깔았다. 공포는 사방의 주상부에 일출목이익공양식을 갖추었고, 주칸에는 각 칸마다 화반을 1조씩 배치했다. 통로칸의 남쪽 면에는 쌍여닫이 띠장널문이 달려 있으며, 널문 하부에는 적광전에서도 볼 수 있는 사자상의 신방목이 설치되어 있다.

지붕가구는 5량가이며, 현존 국내 천왕문에서는 볼 수 없는 팔작지붕에 총량과 외기 중도리를 갖춰 추녀와 서까래를 받았다. 대들보 위에는 화반형 판대공을 세우고 그 위에 종보, 중도리, 파련대공, 중도리 순으로 결구하였다.

1) 평면

보경사 천왕문의 평면 규모는 정면 3칸×측면 2칸의 규모이다. 주칸 설정은 정면 어칸 2,910mm, 양 협칸 2,610mm로 전체 길이 8,130mm로 되어 있으며, 측면 2칸은 동일한 주칸(각 2,640mm)으로 설정되어 전체 길이는 5,280mm이다. 평면의 비율은 정면과 측면이 1:0.65의 장방형 비율을 이루고 있으며, 구례 화엄사(1:0.69)와 영광 불갑사(1:0.65)의 평면비율과 유사하다.

출입이 이루어지는 어칸 통로는 방전을 깔았고 협칸에는 강회다짐한 바닥 위에 평상처럼 짠 좌대를 놓고 그 위에 사천왕상을 올렸다. 사천왕상은 1980년에 새로 조성해 안치한 것이다.

정면 어칸에는 쌍여닫이 띠장널문을 달았고 널문 하부에 하인방을 놓고 그 앞에 장

대석 디딤돌이 1단 설치되어 있다. 후면은 개방되어 있으며 기단 바닥과 통로 바닥이 같은 면으로 조성하였다. 통로칸과 사천왕상이 안치된 협칸과의 사이에는 홍살을 세워 공간을 분리하였다.

2) 기단

천왕문의 기단은 화강석을 장대석으로 가공해 외벌대로 낮게 조성하였으며, 기단 상부에는 어칸 통로와 마찬가지로 방전을 깔았다. 건물 사면으로 설치된 기단의 너비는 동·서·북측이 모두 1,320mm인 반면 남측면은 1,500mm로 되어 있어 약간 차이가 있으며, 따라서 처마길이기도 남측면이 북측면보다 길게 빠져나와 있다.

정면 기단의 전면에는 화강석계단이 2단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계단의 아래쪽과 위쪽에 낮은 엄지기둥을 세웠고 그 사이에 소맷돌을 갖추고 있다. 배면 기단 전면에도 화강석계단이 1단으로 설치되어 있다.

3) 축부

기둥은 모두 10본으로 약한 민흘림을 둔 원기둥을 사용하였으며, 어칸 전후면 4본의 기둥은 모두 기둥하단으로부터 4/3 위치에서 장부이음으로 이어져 있다. 정면과 배면의 통로칸인 어칸을 제외한 4면의 기둥과 기둥사이 칸에는 인방과 주선 또는 셋기둥을 결구하고 그 사이는 한식토벽으로 마감하였다.

정면 3칸은 모두 상·하인방과 주선이 설치되어 있으며, 그중 양협칸은 중간에 중인방을 걸고 그 사이를 한식토벽으로 마감하였다. 2005년 사진에는 정면 양협칸 벽체가 판벽으로 확인되어 그 후 보수 시 한식토벽으로 바뀐 것으로 보인다.

배면의 어칸은 개방되어 있으며, 통로와 기단상면은 턱이 없는 동일면으로 처리되어 있다. 배면 양협칸에는 하인방과 중인방을 걸고 중인방 하부는 주선과 1개의 셋기둥으로 보강한 후 그 사이를 토벽으로 마감하였으며, 중인방 상부는 주선 없이 동측 2개의 셋기둥과 서측 1개의 셋기둥을 중인방과 창방 사이에 설치하여 서로 다르게 꾸몄으며 그 사이 벽체에는 벽화를 그려 넣었다.

좌·우측면 벽체는 하인방과 기둥하단으로부터 3/4 위치에 상인방을 설치하고 그 사이 셋기둥 2개로 보강한 후 한식토벽으로 마감하였다. 상인방과 창방 사이에는 짧은 셋기둥으로 보강하고 그 사이에 벽화를 그려 넣었는데 좌측면(서측)의 전면칸 셋기둥은 1개만 설치되어 우측면(동측)과는 다르게 꾸몄다.

통로칸인 정면 어칸에는 최근의 것으로 보이는 쌍여닫이 띠장널문이 달려있다. 이 널문은 하인방과 주선, 상인방을 차례로 결구한 뒤 초석 위에 놓은 신방목에 문장부를 끼웠다. 신방목은 쭈그려 앉은 모습을 실감나게 조각한 사자상으로 되어 있는데, 천왕문 뒤편에 있는 적광전(보물)에도 동일한 신방목이 있어 두 건물의 건립시기를 밝히는데

주요 단서이기도 하다.

4) 공포부

보경사 천왕문은 팔작지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4면의 외진평주 상부에 주상포가 설치되었고 킷기둥에는 귀포가 설치되었다. 공포는 4면 주상부에 외일출목 이익공으로 가구된 출목익공형식이다. 기둥 상부에 초익공을 얹고 주두를 놓아 이익공을 올렸다. 주간에는 각 칸마다 화반 1조씩을 끼웠는데 위치에 따라 형태를 달리했다. 구조는 기둥 사개에 보 방향으로 초익공 부재를 창방과 직교하도록 결구시키고 그 위에 주두를 놓은 다음 주심첨차와 출목첨차, 이익공을 서로 결구시키고 상부의 주심도리와 출목도리를 받쳤다.

첨차는 주심상에 있는 주심첨차와 출목상에 있는 출목첨차로 구분된다. 외진평주 상부에 설치된 주심첨차는 양단에 소로좌를 두고 연꽃모양으로 조각했으며 하단부는 연화형으로 다듬은 형태이다. 외진평주 상부의 출목첨차는 마구리를 사절하고 하단부는 연화형으로 조각한 형태이며, 상단에는 소로좌없이 이익공 좌우로 소로 2조씩을 더 배치했다. 주심첨차 위에는 2단으로 장여를 겹쳐 주심도리를 받쳤고, 출목첨차는 출목도리와 받침장여를 받고 있다.

귀포의 결구양상은 킷기둥 상부에 주두를 놓았고, 교차 결구된 창방뿔목 위에는 이방을 걸쳐 받쳤다. 귀포의 주심첨차 내단은 상단에 소로좌를 두고 마구리를 약하게 사절한 뒤 하단부는 연화형으로 다듬은 형태이며, 외단은 뿔목으로 돌출해 외진평주 상부의 초익공과 동일 형태로 가공하였다. 귀포의 출목첨차 내단은 상단에 소로좌를 두고 마구리를 사절하고 하단부는 연화형으로 조각한 형태이며, 외단은 뿔목으로 돌출해 외진평주 상부의 이익공과 동일한 형태의 익공으로 가공했다. 그리고 전면과 측면으로 돌출된 각 익공의 중앙 45°방향으로 귀한대를 함께 교차 결구하였는데, 돌출된 익공은 외진평주 주상부의 초익공과 동일한 형태이다. 외진평주상의 공포가 킷기둥 상부에도 서로 교차되게 결구하면서 귀한대까지 두어 타 천왕문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귀포를 구성하였다.

익공은 초익공이 창방, 이익공은 주심첨차 및 출목첨차와 각기 결구하였다. 초익공 외단은 끝단 위에 연꽃이 조각된 양서형이고 내단은 간단한 초각형이며, 이익공의 외단은 초익공과 동일한 양서형이나 끝단 위에 연봉이 조각되어 있으며 내단은 단부에 연봉을 조각하여 대량 단부를 받았다. 익공의 마구리 형태는 일반적으로 끝이 뾰족한 쇠서형이 아니라 사절 또는 직절된 오각형 모양⁶⁾을 하고 있어 17세기 이후 다포식 건축의 상징이 익공식 건축에 수용된 현상을 잘 표현하고 있다. 대량의 뿔목은 운공형 조각

6) 내진평주 상부의 익공 마구리와 귀한대 살미의 마구리는 바로 선 오각형(△)이고 킷기둥 상부의 주심첨차와 출목첨차의 뿔목 마구리는 거꾸로 선 오각형(▽)으로 처리한 것이 특이하다.

을 끼워 장식했다.

주상부의 익공 구성과 함께 주간에는 화반 1조씩을 배치하였다. 화반은 전·후면의 형태와 양측면의 형태가 다르다. 전·후면 각 칸에는 판화반이지만 양단부를 초각하였고 상부 중앙에 소로 1개를 얹어 장여를 받았다. 양측면 각 칸에는 3매의 판재를 겹쳐 만든 판화반인데, 상부 중앙에 소로 1개를 얹어 장여를 받았다.

5) 가구부

지붕가구는 5량가이고 전·후면 주상부의 이익공 상부에 길게 단일재의 대량을 걸었으며, 뿔목은 운공형으로 조각해 장식했다. 대량의 상부에는 삼분변작법에 맞춰 3매의 판재를 겹쳐 쌓은 화반형 판대공에 도리방향으로 침차를 끼워 중도리와 종량을 받쳤다. 특히 판대공의 내단은 각 단마다 길이를 달리하면서 연봉을 섬세하게 조각하여 장식했다. 종량 상부에는 2매의 판재를 겹치고 양단부에 초각과 연꽃을 위·아래로 조각해 장식한 파련대공을 세웠다. 양측면의 내진평주 상부의 이익공 위에서부터 대량 상부에 이르기까지 대량과 직교하도록 결구된 총량이 있다. 총량 상부에는 팔작지붕의 추녀와 귀서까래 등을 받는 외기중도리가 있고 총량과 외기중도리 사이에 화반모양의 판대공을 세워 받쳤다.

6) 입면

지붕은 겹처마 팔작지붕으로 되어 있다. 현존 국내 천왕문 중에 팔작지붕인 사례로는 유일한 것으로 보인다. 전면 어칸 처마끝에는 천왕문(天王門), 동협칸에 내연산(內延山), 서협칸에 보경사(寶鏡寺) 3개의 현판이 걸려 있다.

건물 전체에는 금단청으로 되어 있으며, 기록상 1975년에 적광전을 비롯해 원조루, 천왕각 등과 함께 단청한 것으로 되어 있다. 포벽에는 초화 및 산수화 등 벽화가 그려져 있고, 측벽의 상인방과 창방사이에도 셋기등으로 구획된 벽면에 산수화 등이 그려져 있다.

3. 문화재 지정 가치 및 근거 기준

1) 역사적 가치

보경사 천왕문은 임진왜란 이후 대대적인 사찰 중창 시에 여러 전각과 함께 중창된 사실이 확인된다. 「內延山寶鏡寺金堂塔記」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법당 중창을 장인 태심(太諶)을 불러 丁巳年(1677) 봄부터 시작하여 1679년(己未) 가을 화공을 청하여 삼존불을 조성하여 연화좌에 봉안하고 영산희상도로 후불탱을 그

려 걸었으며 단청을 마쳤다. 이때 종각은 영원(靈遠)이 하였으며, 국사전 정문·사천왕문·식당은 비구니 총지(摠持)와 신원(信遠)이, 금당(적광전) 중창은 초한(草閑)이 한 것이다. 명부전은 석일(釋日), 팔상탱은 신원(信遠)이 이룩하였다. 열반당은 신평(信特), 관음전 중창은 도의(道儀)가 하였으며, 각각의 단청은 모두 도의(道儀)와 신원(信遠)이 한 것이다. 응향전은 국헌(國軒), 괘불과 증(甌 : 시루)은 치근(致根)이, 향적전과 국사전은 학열(學脫)이 이룩하였다。」

위 기록은 임진왜란 이후 보경사의 중창과 관련된 것으로 1677년에 제일 먼저 법당(대웅전)을 중창하고, 1679년부터는 삼존불의 조성과 연화좌를 봉안하고 후불탱을 새로 조성한 뒤 단청까지 하여 마무리한 것이다. 곧이어 경내 여러 전각도 동시에 중창하였는데 여러 전각과 함께 사천왕문도 중창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후의 기록으로는 의민스님이 1761년에 지은 「천왕문중창상량문」과 1767년에 이종영이 찬기한 「보경사사천왕문중건기」가 있다. 이들 기록을 통해 1679년에 사천왕문을 중창한 후 80여년 뒤인 1761~1767년간에 낡고 좁은 건물을 중건⁷⁾하고 옛 사천왕상을 옮겨 모셨다고 한다. 1761~1767년간에 중건한 천왕문은 이후 중수 기록이 전하지 않아 수리 내역은 알 수 없다. 1975년에 천왕문을 단청한 기록이 있고, 1980년에 목조 사천왕상을 새로 조성해 봉안한 기록이 있어 후대 여러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보경사 천왕문은 임진왜란 직후에 보경사가 대대적으로 중창할 때 다른 전각들과 함께 중창되었다. 1761년~1767년간에 현 규모로 중건한 기록이 남아 있으며, 1975년 단청기록과 1980년에 목조사천왕상을 새로 조성해 봉안하는 등 중건이후 오늘날까지 존속해 오고 있다.

따라서 보경사 천왕문은 17세기 이후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사찰 천왕문의 조성과 시기적 변화양상을 살필 중요한 사찰 문의 사례로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2) 건축적 가치

현존 국내 천왕문과 비교해 보경사 천왕문의 건축적 특징으로는 첫째, 평면 및 입면 구성상 통로칸인 어칸 전면에 출입문을 둔 점, 둘째, 출입문과 연동해 널문의 하부에 쭈그려 앉은 사자상이 섬세하게 조각된 국내 유일의 보경사 적광전(보물)과 동일한 신방목이 존재한다는 점, 셋째, 18세기의 출목익공형식을 갖춘 점, 넷째, 천왕문 중 국내 유일의 팔작지붕인 점을 들 수 있다. 이런 보경사 천왕문의 제반 건축적 특성은 1761년~1767년 중건 당시의 모습을 잘 반영하고 있어 조선후기 사찰 천왕문의 건축과 18세기 후반 건축사연구에 중요한 자료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7) 보경사와 관련된 기록 중 중건시기를 불교문화재연구소에서 편찬한 「한국의 사찰문화재(2007)」에는 1777년, 이종익이 편찬한 「보경사의 사적과 사화(1980)」에는 1708년으로 각기 다르게 기록하고 있으나, 본 보고서에서는 「천왕문중창상량문(1761)」과 「보경사사천왕문중건기」의 작성시기인 丁亥年(1767년)을 기준으로 보았음

-통로칸인 어칸 전면에 출입문을 둔 점 : 통로칸인 어칸 전면에 출입문을 둔 사례로는 법주사 천왕문, 완주 송광사 천왕문(어칸 전·후 판문설치), 능가사 천왕문 등이 있다. 이들 사찰의 배치구성 특징으로는 천왕문이 진입영역의 산문(山門)이라기보다는 중심 주불전 영역의 정문으로서 상징성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신방목의 사자상 : 정면 어칸의 평주 하부에는 적광전(보물)과 동일형상의 신방목이 남아있어 천왕문 건립시기를 밝힐 수 있는 단서가 되며, 특히 신방목의 형태를 사자상으로 새긴 것은 보경사 적광전(보물)과 함께 국내 유일한 사례에 속한다.

-17세기 이후에 등장한 출목익공형식의 공포 : 보경사 공포는 1출목 이익공형식이다. 초익공 외단은 끝단 위에 연꽃이 조각된 양서형이고 내단은 간단한 조각형이며, 이익공의 외단은 초익공과 동일한 양서형이나 끝단 위에 연봉이 조각되어 있으며 내단은 단부에 연봉을 조각하여 대량 단부를 받았다. 익공의 마구리 형태는 일반적으로 끝이 뾰족한 쇠서형이 아니라 사절 또는 직절된 오각형 모양을 하고 있어 17세기 이후 다포식 건축의 상징이 익공식 건축에 수용된 현상을 잘 표현하고 있다.

현재 일출목이익공 형식은 완주 송광사 천왕문(1649년 소조사천왕상 안치, 초익공은 양서, 이익공은 수서, 보빨목은 단순한 형태), 보림사 천왕문(목조사천왕상, 1666년 중수, 1774년 중창, 초익공은 양서+연꽃조각형, 이익공은 수서+하부 연봉조각형, 보빨목은 봉두형), 쌍계사 천왕문(목조사천왕상, 1704년, 초익공은 양서+상부 연꽃형, 이익공은 수서형, 보빨목은 운공형), 칠장사 천왕문(소조사천왕상, 1726년, 초익공은 양서+상부 연꽃형, 이익공은 양서+연꽃형, 보빨목은 운공형)이 대표적이다. 이들 출목익공 중에 보경사 천왕문의 출목익공과 화반의 형태는 칠장사 천왕문(1726)과 비슷하다. 보경사 천왕문의 출목익공형식은 다포형식 이후로 등장한 출목익공형식이며, 1761년~1767년 중건시의 구조형태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현존 천왕문 중 유일한 팔작지붕 : 보경사 천왕문의 여러 건축적 특성 중 또 하나는 현존 천왕문 중 유일한 팔작지붕인 점이다. 이런 지붕형태와 연동해 4면으로 공포 설치, 컷기둥마다 귀한대를 둔 귀포의 복잡한 짜임기법, 대량과 직교해 결구된 층량으로 외기중도리를 받는 지붕가구의 구사기법은 맞배지붕의 현존 천왕문과는 다른 특징을 보여준다.

<종합의견>

보경사 천왕문은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에 일출목이익공 형식의 출목 공포를 둔 5량가 팔작 기와집이다. 보경사 천왕문은 1679년 보경사가 대대적으로 중창할 때 다른 전각들과 함께 중창되었다. 1761년~1767년간에 현 규모로 중건한 기록이 남아 있으며, 1975년 단청기록과 1980년에 목조사천왕상을 새로 조성해 봉안하는 등 중건이후 오늘

날까지 존속해 오고 있다. 따라서 보경사 천왕문은 17세기 이후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사찰 천왕문의 조성과 시기적 변화양상을 살필 중요한 사찰 문의 사례로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천왕문의 건축적 특징은 먼저 가람배치상 주불전 영역의 정문 역할을 하는 점, 중앙어칸 전면에 섬세하게 조각된 사자상의 신방목을 설치하여 안쌍여단이 널문을 단 점, 현존 천왕문 중에서 유일한 팔작지붕인 탓에 4면 주상부에 일출목익공형식의 출목익공과 컷기둥에 귀한대가 있는 귀포가 가구된 점 등이다. 보경사 천왕문의 출목익공과 주간의 화반은 칠장사 천왕문(1726)과 유사하며, 18세기 중건시의 구조형태를 잘 갖추고 있어 18세기 천왕문의 건축적 특성을 살피는데도 중요한 건축사적 자료로서의 가치가 있다.

현재 천왕문 중 통로칸에 널문을 단 사례는 법주사 천왕문(1624년, 안여단이 널문), 완주 송광사 천왕문(1633년, 밖여단이 널문), 칠장사 천왕문(1726년, 전·후면에 안여단이 널문) 등이 있다. 이들 천왕문은 대개 주불전의 중심영역 전방 진입로 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천왕문을 통과하면 사찰의 중심영역인 중정으로 진입하는 배치구성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천왕문의 통로칸에 널문을 단 점은 출입동선 상의 기능적 요소보다는 사찰의 중심영역으로 들어서는 정문으로서의 상징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섬세하게 조각된 사자형의 신방목은 보경사 적광전(보물) 외에 그 사례가 없는 보경사만의 특징이다.

보경사 천왕문은 현존 천왕문 중 유일하게 팔작지붕 구조이다. 따라서 4면의 공포 설치, 컷기둥마다 귀한대를 둔 귀포의 복잡한 짜임기법, 대량과 직교해 결구된 층량이 외기중도리를 받는 지붕가구의 구사기법은 맞배지붕의 천왕문과는 다른 특징을 보여준다.

이상과 같이 보경사 천왕문은 대대로 전승·보존되어야 할 소중한 문화유산으로서의 역사적, 건축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하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 대상 문화재의 핵심 보존가치

- 섬세하게 조각된 사자상의 신방목
- 팔작지붕 구조
- 출목익공형식과 귀포의 짜임기법

14. 김천 직지사 천왕문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검토

가. 제안사항

경북 김천시 소재 「김천 직지사 천왕문」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북 김천시 소재 「김천 직지사 천왕문」을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 받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경상북도지사
- (2) 대상문화재 : 비지정 「김천 직지사 천왕문」
 - 소재지 : 경상북도 김천시 대항면 직지사길 95
- (3) 신청내용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
 - 명칭 : 김천 직지사 천왕문(金泉直指寺天王門)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직지사
 - 소재지 : 경상북도 김천시 대항면 직지사길 95
 - 조성연대 : 조선시대
 - 수량 : 1동
 - 지정면적 : 63.00m²
 - 구조/형식/형태 : 단층 목구조 / 정면3칸, 측면3칸 / 맞배지붕 / 겹처마

라. 현지조사 의견(2023.06.27. / 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 문화재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있음.
- 문화재전문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있음.
- 문화재전문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있음.

마. 지정조사보고서 : 불임참조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 원안가결 11명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23.06.27	대상문화재	김천 직지사 천왕문	
조사자	성 명	○ ○ ○	전공 분야	건축
	소 속	○ ○ ○ ○ 대학교	직위(직책)	교수
주요 지정 사항 검토	문화재 종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문화재 명칭	김천 직지사 천왕문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세부내용 별첨 참조		
	연혁·유래 및 특징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세부내용 별첨 참조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3 년 10월 7일

제출자

○ ○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1. 입지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1) 입지현황

김천 직지사(直指寺)는 경상북도 김천시 대항면 직지사길 95에 소재하는 대한불교조계종 제8교구 본사이다. 이곳은 소백산맥의 준령이 남쪽으로 뻗어 내려오다가 그 서쪽 추풍령에서 잠시 머물러 관문을 이루었고, 다시 서남쪽으로 웅장한 산세를 유지하며 달려와 힘차게 솟아오른 황악산(黃岳山) 동남쪽 산자수명한 곳에 자리해 있다. 해발 1,111m에 달하는 황악산은 북쪽으로 충청도, 서쪽으로 전라도, 동남쪽으로는 경상도에 연이은 3도의 도계에 접하였으며, 이 중심에 위치하는 직지사는 행정구역상으로는 경상북도 김천시 대항면 운수리 216번지이다.

직지사가 위치한 황악산의 산세와 지형을 살펴보면, 최상봉인 비로봉(毘盧峰)에서는 경상, 충청, 전라의 3도를 한 눈으로 굽어볼 수 있으며, 바로 아래에는 선유봉(仙遊峰)을 비롯하여 천룡봉(天龍峰)과 운수봉(雲水峰)이 있다. 조금 내려와서 절경대(絶景臺)가 있으며, 그 중턱에 운수암(雲水庵)이 있어 승경(勝景)을 이룬다. 운수봉에서 다시 2km쯤 올라가면 백운봉(白雲峰)이 있고, 그 아래로 만경대(萬景臺)가 펼쳐진다. 다시 남서로 난 능선을 따라가면 망월봉(望月峰)과 함께 신선봉(神仙峰)을 만날 수 있다. 그 위에 형제봉(兄弟峰)은 백운봉과 마주하여 아름다운 절경을 이루고 있다.

현재 직지사는 임진왜란 때 병화를 모면한 천불전(현 비로전), 사천왕문, 자하문(일주문)을 비롯해 영조 11년(1735)에 중건한 대웅전, 극락전, 관음전, 응진전, 명부전, 사명각, 만세루, 극락전, 비로전, 청풍료, 만불전, 범종각, 천불선원, 요사채 등이 있다.

2) 역사문화환경

직지사에는 국보 도리사 세존 사리탑 금동 사리기, 보물 사인비구 제작 동종 - 문경김룡사동종, 보물 김천 직지사 석조약사여래좌상, 보물 문경 도천사지 동·서 삼층석탑, 보물 문경 도천사지 삼층석탑, 보물 직지사 대웅전 삼존불탱화, 보물 예천 한천사 금동자물쇠 및 쇠북, 보물 전 구미 강락사지 삼층석탑, 보물 예천미타도량참법 권6~10, 보물 백지금니금강 및 보문발원, 보물 묘법연화경, 보물 예천용문사팔상탱, 보물 김천 직지사 대웅전, 보물 김천 직지사 괘불도,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직지사석조나한좌상 등이 있다.

그리고 천왕문에 있는 소조사천왕상도 보물 지정 예고되어 있다. 소조 사천왕상은 화려하고 섬세하게 채색, 조각되었는데 동방지국천왕상은 전체 높이 470cm, 최대 폭 213.1cm, 서방광목천왕상은 전체 높이 452cm, 최대 폭 208.5cm, 남방증장천왕상은 전체 높이

452cm, 최대 폭 282cm, 북방다문천왕상은 전체 높이 460cm, 최대 폭 206cm이다. 조선 후기 사천왕상으로는 드물게 발원문이 발견되었다. 이를 통해 1665년 완주 송광사를 근거로 활동하던 단응과 탁밀, 경원, 사원, 법청 등 그의 유파 조각승을 초청해 조성한 것임이 밝혀졌다.

2. 연혁·유래 및 특징

1) 직지사 천왕문의 건축연혁

직지사는 418년(신라 눌지왕 2)에 창건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정확한 자료는 없으며, 직지사 사적비에 의하여 능여대사에 의해 943년(고려 태조 26) 사역이 확장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임진왜란 때인 선조 29년(1596)에 왜적의 방화로 43동의 건물 중 천불전, 천왕문, 자하문을 제외한 모든 건물이 불탔다고 한다. 『직지사지』에 따르면 임진왜란 때 직지사가 병화를 입어 전각이 거의 전소되었는데, 천불전, 사천왕문, 자하문(조계문, 일주문)만 남았음이 기록되어 있다. 조선 전기에 존속했던 천왕문과 자하문은 임진왜란의 병란에도 피해를 면해 남았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임진왜란 이후인 1681년에 조종저가 글을 쓴 「김산황악산직지사사적비명」의 기록에 4개의 문에 대한 내용이 있다. 이 기록을 통해 선조 35년(1602) 인수, 명례 등이 중건하기 시작하여 묘연, 상원 등이 그 일을 맡아 현종 3년(1662)에 사찰을 거의 복구한 것으로 보인다. 임진왜란 이후 17세에 사찰의 중건 시에 복구된 4문은 병화를 입지 않은 천왕문, 조계문을 포함해 대양문 만세루, 해탈문로 추정되며, 당시 4문이 복구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당시에 중수 등의 보수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천왕문은 최근 사천왕상 보수 중 복장유물 중에 출토된 「중창봉안기」를 통해 1665년에 전라도 전주 송광사 화원들에 의해 을사년에 진흙으로 만들었음이 확인되었다. 이후 「직지사사천왕각중증서」에 1830년에 군수 신학휴가 사천왕 몸체를 수리하고 단청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고종 27년(1890)에 본승 흔히 화상이 화주하여 천왕각을 중수하였다는 기록이 「천왕각기」에 있다. 이후 1969년~1971년에 녹원 화상에 의하여 보수가 있었다. 그리고 2014년에 천왕문 해체보수(부식재 교체 및 번와보수)가 있었다.

2) 직지사 천왕문의 건축특징

직지사 천왕문은 가장 큰 규모를 가지고 있는 보은 범주사 사천왕문 다음으로 큰 사천왕상과 건물 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지붕가구, 공포형식 등에서 17세기 건축적 특징을 보여준다.

평면(平面)의 규모는 정면 3칸, 측면 3칸이다. 주칸은 정면이 어칸 3,150mm, 협칸 3,750mm로 사천왕상이 봉안된 협칸이 600mm 정도 더 넓다. 측면은 어칸 2,410mm, 협칸 1,750mm로 어칸이 협칸보다 600mm 정도 더 넓다. 3칸×3칸 규모의 17세기 천왕문은 순천 송광사 사천왕문, 화엄사 천왕문, 능가사 천왕문 등이 있다. 어칸이 협칸보다 더 넓은 사례는 거의 없으며, 능가사 천왕문이 유사하다. 직지사 사천왕상의 높이는 4.55~4.74m로 법주사 사천왕상 다음으로 대규모이며, 건물 높이도 9.15m로 법주사 천왕문 다음으로 높다. 지붕은 2고주 7량가이다. 이런 지붕 가구는 순천 송광사 사천왕문(1612)이 유일하고, 사천왕문 내 안치된 소조 사천왕상의 규모와 연계하여 건물의 규모적 특징을 갖는다.

천왕문의 기둥인 모두 원형의 민흘림이며, 길이는 4,470mm 내외로 높다. 현재 기둥은 정면 4본, 배면 어칸 2본이 교체되었으며, 측면의 하부 동바리 보수한 5본과 1본은 오래된 원형 부재로 남아 있다. 벽체는 어칸은 벽 없이 개방되어 있고, 그 외 양 협칸 전·후면과 양 측면에는 각기 한식 토벽에 회 미장 되어 있다. 어칸은 벽이나 문 없이 꾸몄고, 어칸과 양 협칸 사이는 홍살 형식이다.

공포는 전·후면에 내외 2출목의 다포 형식과 어칸 중앙에 판화반+공포가 조합되어 있다. 앞뒤 측칸에만 주간포를 설치하였고 어칸에는 주간포 대신 화반을 설치한 점이 독특하다. 다포의 주간포와 익공 화반의 절충형으로 보기 드문 예이다. 측칸의 주간포는 주간거리 12척의 중앙에 하나만 설치하였기 때문에 일반적인 다포건축과 달리 포간 거리가 매우 넓다. 출목은 내외 모두 2출목으로 동일하다. 제1제공 살미~제4제공 살미로 되어 있으며, 살미는 생기 있고 자연스러운 짧은 초각으로 의장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직지사 천왕문에서는 시대를 판정할 수 있는 건축적 기준으로서 按草栱을 발견할 수 있다. 직지사 안초공 형식은 평방까지 감싸는 모습이 아니라 평방을 뺀 기둥과 창방만 결구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1616년(광해군 8년) 건축의 창경궁의 명정전, 명정문, 그리고 홍화문과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직지사 천왕문은 순천 송광사 천왕문(1612), 보은 법주사 사천왕문(1624), 구례 화엄사 천왕문(1632)과 함께 현존하는 17세기 다포 양식의 특징도 가지고 있어서, 1612년(송광사 천왕문)에서 1636년(화엄사 천왕문) 사이에 건축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류성룡, 17세기 사천왕상 천왕문(天王門)의 건축형식 전개(展開)에 관한 연구, Journal of architectural history v.21 no.5, 2012년 참조)

벽화로는 전·후면 양 협칸의 상인방 위에는 구름 속에 노니는 힘찬 용 그림이 있다. 그 외 양측벽 3면, 후면 양 협칸 6면에 각기 팔부신중상이 그려져 있다. 공포부의 포벽 8면에는 나한상을 비롯한 다양한 벽화가 그려져 있다. 실내 천장에는 각 칸마다 3면으로 반자틀을 만들어 각 면마다 비천상이 그려져 있다. 특히 어칸 전·후면 포화반에는 용 얼굴이 사실적으로 그려져 있다.

3. 지정가치 및 근거기준

직지사 천왕문은 고려말~조선 초에 창건되어 임진왜란에도 화를 면한 건물로써, 1665년 소조사천왕상을 새로 조성해 안치한 기록을 통해 1665년 이전 중수된 것으로 보고 있다. 고려말~조선 초에 창건되어 중건, 중수를 거쳐 오늘날까지 존속하고 있어서 오래된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천왕문의 평면은 3칸x3칸 규모에 통로 칸보다 사천왕상이 안치된 양 협칸이 더 넓은 독특한 구성이며, 법주사 다음으로 큰 건물과 사천왕상이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

순천 송광사 천왕문(1612), 보은 법주사 사천왕문(1624), 구례 화엄사 천왕문(1632)과 17세기 다포식 천왕문을 대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어칸 주상부에 궁궐건축에 주로 사용된 창방 안초공의 형식은 평방까지 감싸는 모습이 아니라 평방을 뺀 기둥과 창방만을 결구하는 형식으로 창경궁의 명정전(1616년), 명정문, 홍화문(1616년)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어서, 공포 형식에 대한 학술적 연구 가치도 높다.

공포부는 내외 2출목의 다포이며, 제1제공 살미~제4제공 살미로 되어 있다. 공포부의 제공 살미는 하나의 생기 있는 자연형태로 독특한 장식적 역할을 하고 있다. 어칸 중앙의 용 문양 포 화반의 사실적이고 민화적인 표현, 전·후면 양 협칸의 상인방 위에는 구름 속에 노니는 힘찬 용 그림, 나한상을 비롯한 다양한 벽화, 실내 천장의 비천상들의 색채와 문양들은 오래된 원형의 가치와 미적 가치를 간직하고 있다.

4. 종합의견

김천 직지사 천왕문은 1665년 소조사천왕상을 새로 조성해 안치한 기록을 통해 1665년 이전 중수된 것으로 보고 있다. 고려말~조선 초에 창건되어 중건, 중수를 거쳐 오늘날까지 존속하고 있어서 역사적 가치가 높다. 우리나라 천왕문 중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적 특징과 어칸보다 양협칸이 더 넓은 평면적 특징, 그리고 큰 소조사천왕상의 규모에 맞는 축 2고주 7량가의 지붕구조도 가치 있는 특징이다. 다포식과 안초공이 사용된 공포 형식도 학술적 가치가 높으며, 공포부의 조각 장식과 벽화들도 우수한 미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김천 직지사 천왕문은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측면에서 우수하고 희소 가치가 높은 건축물로 보물 지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대상 문화재의 핵심 보존가치

천왕문의 창건시기 및 보존의 역사성

천왕문의 규모와 평면구성, 지붕구조의 희소성

천왕문의 사천왕상과 벽화, 조각 장식의 예술성

천왕문의 공포형식의 학술성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23.07.04.	대상문화재	김천 직지사 천왕문	
조사자	성 명	○○○	전공 분야	건축계획
	소 속	○○○○○ 문화재 연구원	직위(직책)	원장
주요 지정 사항 검토	문화재 종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문화재 명칭	김천 직지사 천왕문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세부내용 별첨 참조		
	연혁·유래 및 특징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세부내용 별첨 참조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3년 07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1. 연혁

김천 직지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제8교구 본사로 김천시, 구미시, 상주시, 예천군 일대의 50여개의 사찰을 관할하고 있다. 418년(신라 <사적기 事蹟記>에 의하면 신라시대인 418년(눌지마립간 2) 아도화상(我道和尚)이 선산 도리사를 개창할 때 함께 지었던 절이라고 하나 정확하지 않다. 직지사 사적비에는 능여대사가 943년(고려 태조 26) 사역을 확장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직지사 천왕문 연혁과 관련된 기록으로는 경상도 김산국 황악산 직지사 사적(1662·1635년 추정), 경상도 김산국 황악산 직지사 고선종대가람 사적(1776년), 김산 직지사 중기(1776년), 황악산 직지사 사적(1836년), 김천 직지사 사적(연도미상) 등이 있다.

직지사 천왕문은 조선 초에 창건되어 임진왜란에도 화를 면하였으며, 1665년 소조사천왕상을 새로 조성해 안치한 기록으로 보아 이 당시 중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 후 1830년 수리 및 단청, 1890, 1971년 중수, 2015년 해체보수를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직지사는 넓은 골짜기의 평지에 대웅전과 비로전을 중심으로 전각들이 배치되어 있으며, 그 앞쪽으로 승방과 요사 등 크고 작은 전각이 자리한다. 남동쪽에 위치한 일주문을 들어서면 금강문, 대양문, 천왕문이 차례로 자리 잡고 있다.

직지사 천왕문은 여러 문헌자료를 통해 고려말~조선 초에 창건되어 임진왜란 때에도 소실을 면했고 이후 수차례 중수를 거쳐 오늘날까지 존속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임난 후 1665년 전라도 송광사 승려 화원이 소조사천왕상을 새로 조성하였다는 기록을 통해 임란 이전 사천왕문의 존재는 알 수 없으나, 사천왕상이 사천왕문 내부에 꼭 차는 크기 로써 실내에 안치하기 위한 제반 여건을 고려해 볼 때 사천왕상을 새로 조성할 당시에 천왕문도 중건 또는 수리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공포는 다포형식이나 어칸은 주간포가 없이 방형 화반으로 구성한 점, 제공살미의 내외단 형태, 어칸 주상부에 창방과 결구된 안초공의 존재 등은 사천왕상 조성시기인 17세기 건축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어 추측에 신빙성을 더한다.

그 외 기록으로 소조사천왕상 화관 목서를 통해 숙종 39년(1713) 단청 보수, 영조 47년(1771)에도 화관 등을 보수하였음이 확인되었다. 순조 30년(1830)에 군수 신학휴가 사천왕상의 몸체를 수리하고 단청 보수하였고, 고종 27년(1890)에 천왕문을 중수하였다. 근년 1969년에 사천왕문의 중수가 있었고, 1989년에 사천왕의 보결 및 개채 보수가 있었다. 2015년에도 대대적인 보수가 있었다. 사천왕상을 받치는 마루의 침하와 기둥 등 목부재의 부식과 누수로 훼손이 심해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해체 보수를 진행하였다. 아울러 사천왕상도 과학적 보존상태(보존환경, 비파괴안전진단, 손상상태 조사, 안료분석 등)를 조사하고, 보수복원(구조물 해체, 복원성형, 장식물 복원, 보존처리)하였

다. 이때 전후면 어칸 기둥과 창방 및 종량 등의 주요 구조부재가 교체되었고, 처마를 길게 빼내면서 도리 부재와 서까래도 대부분 교체되었다. 따라서 보수 이후 원 부재로 확인되는 것은 양 측면 고주와 일부 외진주, 대량, 공포부재, 그 외 도리 등 일부 구조 부재 등이다.

이처럼 직지사 천왕문은 역사적으로 고려말~조선초에 창건된 뒤 임진왜란 때 병화를 면한 뒤 1665년에 사천왕상을 새로 조성하기 전에 중건한 것으로 추정된다. 중건이후 수차례 중수를 거쳐 오늘날 까지 존속해 것은 국내 사찰 가람의 배치 및 건물구성과 연동해 천왕문의 건축 구성에 중요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1890년, 1969년, 2015년 등 근래에 대대적인 보수를 거치며 원형에 대한 전반적인 판단을 명확히 내릴 수 없는 점도 사실이다. 따라서 기록으로 확인되는 2015년 보수 시 교체되지 않은 부재들을 대상으로 연륜연대측정 등을 통해 천왕문의 건립시기와 원형 여부에 대한 의문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림 1 보수 전



그림 2 보수 후

2. 건축형식

직지사 천왕문은 3×3칸의 맞배집으로, 통로칸인 어칸보다 사천왕상을 봉안한 양 협칸을 넓게 설정한 평면구성을 보여준다. 현존 천왕문의 규모는 3칸×2칸, 3칸×3칸, 5칸×2칸으로 구분되는데, 정면은 3칸이 가장 일반적이고, 측면은 2칸, 3칸 등으로 나뉜다. 이 중 3칸×3칸 규모는 순천 송광사 사천왕문, 화엄사 천왕문, 능가사 천왕문 등이 있다. 정면 3칸 중 어칸에 통로칸을 두고 그 좌우 협칸에는 2구씩 사천왕상을 각기 배치한 것이 일반적인데, 이때 주칸 설정은 통로칸인 어칸이 넓은 경우가 대부분이며, 어칸과 협칸인 동일 주칸인 예는 화엄사 천왕문이 있다. 직지사 천왕문처럼 어칸이 양 협칸보다 좁게 설정된 예는 능가사 천왕문(1666)뿐으로 매우 드문 사례이다. 입면구성은 정면의 경우 직지사 천왕문 어칸은 통로칸으로, 문없이 개방하고 양 협칸은 벽으로 막고 벽

화를 그린 단순한 형식이다. 어칸을 좁게 구성하면서 양 협칸에는 주간포를 둔 반면 어칸에는 단순한 화반으로 구성하였다.

직지사 천왕문의 큰 특징 중 하나는 규모이다. 현존하는 천왕문 중 법주사 사천왕문 다음으로 큰 규모와 높이이며, 높이 4.55~4.75m의 대규모 사천왕상을 봉안하고 있다. 이는 현존 법주사 사천왕문(1624)내 사천왕상(6.0m) 다음이다. 따라서 천왕문도 법주사 사천왕문(10.1m) 다음으로 큰 규모를 자랑한다. 규모가 큰 사천왕상을 봉안하기 위해 양 측면에 고주를 세웠으며 평주 또한 높게 세워 내부공간을 마련하였다. 직지사 천왕문의 지붕가구는 2고주 7량가인데, 이러한 지붕가구는 순천 송광사 사천왕문(1612)이 있으며, 법주사 사천왕문(1624)은 측면 2칸이므로 무고주 7량가, 그 외는 측1고주 또는 측2고주에 5량가이다. 사천왕문내 안치된 소조사천왕상의 규모와 연동된 건물의 규모, 높이에 따른 구조적 특성을 적절히 구사하기 위한 최적의 구조구성과 조치로 보여진다. 이와 함께 지붕처마에 비해 몸체가 다소 높은 형상이 되면서 비율적으로는 지붕에 비해 몸체가 과하게 큰 모습이다.

직지사 천왕문과 순천 송광사 천왕문(1612), 법주사 사천왕문(1624), 화엄사 천왕문(1632)이 내부에 소조사천왕상을 안치하고 있고 지역적으로도 인접한 사례들을 통해 형식적 특징을 고찰해보자면, 이들 천왕문의 공포형식은 법주사 사천왕문, 화엄사 천왕문, 송광사 천왕문은 다포형식이고 직지사 천왕문은 다포와 익공형식의 절충형식이다. 시기적 특성으로 볼 때, 완주 송광사 천왕문(1649)부터 출목익공형식이 등장하므로 능가사 천왕문(1666), 보경사 천왕문(1695), 통도사 천왕문(1714)의 중간단계의 형식이다. 수타사 천왕문(1676)부터는 무출목 익공형식이 등장한 후 선운사 천왕문(1680), 적천사 천왕문(1690), 용문사 천왕문(1702)에도 적용되었다. 즉 17세기 초 천왕문은 소조사천왕상과 다포형식의 조합이 뚜렷하고, 이후 17세기 중반에는 목조사천왕상+출목익공형식, 17세기 후반에는 소조·목조사천왕상+익공형식으로 변화하는 시기적 양상에서 소조사천왕상+다포형식과 목조사천왕상+출목익공형식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특성을 보인 유일한 사례라 할 수 있다.

또 다른 특징은 어칸 주상부에 창방과 결구된 소위 창방안초공의 존재이다. 현재 주상부에 창방과 결구된 안초공의 존재는 창경궁 명정전(1616), 명정문(1616), 홍화문(1616) 등 주로 17세기 초 궁궐건축에 남아 있다. 이는 정종 원년(1399)에 정조의 어태를 직지사 북봉에 안치함에 선종대가람으로 인정받아 사세를 유지하였던 것과 연동해 지속적인 왕실의 후원과 관련 있는 것이 아닐까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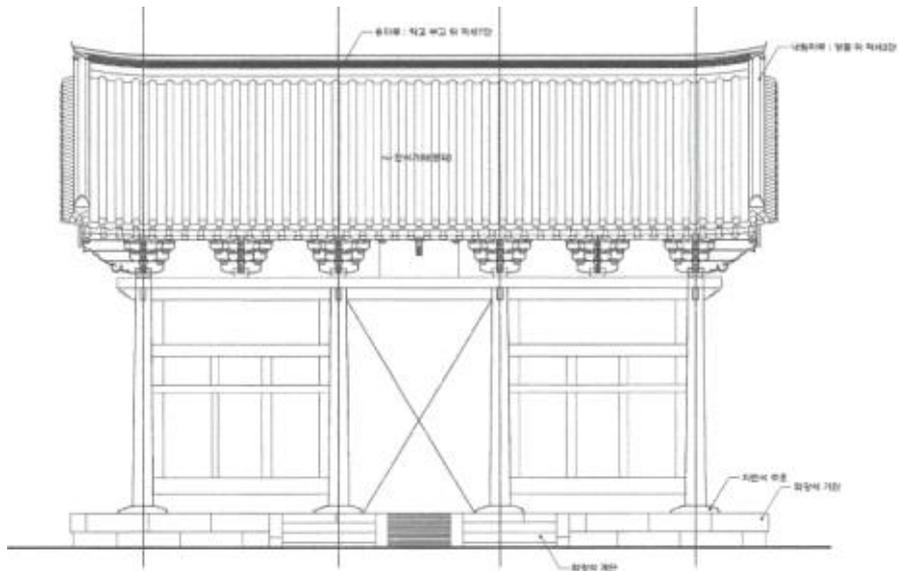


그림 3 직지사 천왕문 정면

※ 대상 문화재의 핵심 보존가치

직지사 천왕문은 기록을 통해 고려말에서 조선초에 창건된 뒤 임란에도 소실되지 않고 남은 직지사 내 몇 안되는 건물이다. 또한 문헌자료 및 1665년 소조사천왕상을 새로 조성해 안치한 기록을 통해 창건시기를 추정할 수 있다. 이후 1830년, 1890년, 1971년 사천왕문을 각기 중수하고 2015년에 전면 해체해 보수했다. 현재의 모습은 2015년 이후 주요 부재의 교체가 대부분 이루어진 상태로 이해된다.

규모는 3칸×3칸 규모이나 사천왕상이 안치된 양 협칸이 어칸보다 넓은 평면적 특징 외에, 법주사 사천왕상 다음으로 큰 규모의 소조사천왕상과 건물 규모는 직지사 천왕문의 큰 특징이 된다. 아울러 소조사천왕상과 함께 소조사천왕상+다포형식에서 목조사천왕상+출목익공형식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공포형식, 어칸 주상부에 궁궐건축에 주로 사용된 창방 안초공의 사용, 사천왕상을 봉안하기 위한 건립목적에 걸맞는 측2고주 7량가의 지붕가구 등에서 조선후기 17세기 건축적 특성 및 건축적 가치를 잘 보여준다. 특히 최근 소조사천왕상이 보물로 지정되었으므로 천왕문 역시 역사적 가치는 충분히 입증된 것으로 판단된다.

직지사 천왕문의 지정가치를 검토하자면 역사성에서 시대성과 문화사적 기여도 등에서 우수하다 할 것이다. 또한 예술성에서 보편성과 특수성, 우수성, 창의성 모두 우수하다. 학술성의 대표성, 지역성, 특이성, 연구 기여도가 우수하며, 공통사항의 동종문화재와의 비교검토 및 희소성에서 우수하다. 따라서 보물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하다 할 것이나, 현재 천왕문의 모습이 근래 및 최근에 보수를 거치면서 대부분 변형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다. 따라서 원형과 건립시기의 확인을 위한 근거를 보강하여 제시하고 이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23.06.27.	대상문화재	김천 직지사 천왕문	
조사자	성 명	○○○	전공 분야	건축역사
	소 속	○○대학교	직위(직책)	교수(부교수)
주요 지정 사항 검토	문화재 종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문화재 명칭	김천 직지사 천왕문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세부내용 별첨 참조		
	연혁·유래 및 특징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세부내용 별첨 참조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2 년 9월 24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1. 문화재 명칭 : 김천 직지사 천왕문

2.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적 환경:

김천 직지사(直指寺)는 경상북도 김천시 대항면 직지사길 95에 있는 대한불교 조계종 제8교구 본사이다. 사찰은 김천시청 소재지에서 서쪽으로 10km 떨어진 소백산맥의 한 줄기인 황악산(해발고도 1,111m)의 남쪽 자락에 자리하고 있다.

3. 연혁·유래 및 특징 :

직지사는 418년(신라 눌지왕 2) 아도화상(阿道和尚)이 도리사(桃李寺)와 함께 창건하였다.⁸⁾ 그 사명을 ‘직지(直指)’라고 지은 것은 ‘직지심인 견성성불(直指人心 見性成佛)’이라는 선종의 가르침에서 유래되었다 하며, 또 일설에는 창건주 아도화상이 일선군(善山) 냉산에 도리사를 건립하고 멀리 김천의 황악산을 가리키면서 저 산 아래도 절을 지을 길상지지(吉祥之地)가 있다고 하였기에 직지사라 이름지었다는 전설도 있다. 또는 고려의 능여화상이 직지사를 중창할 때 자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자기 손으로 측지(測地)하였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는 설도 있다.⁹⁾

신라 선덕여왕 때 자장율사가 당에 다녀온 후 태화사, 월정사 등과 함께 중건하였고,¹⁰⁾ 신라의 국운이 기울어가던 930년(경순왕 4) 천묵(天默)대사가 사찰을 중수하였다. 「금산직지사사적(金山直指寺事蹟)」에 따르면 950년(광종 원년) 50일간 법회를 열고 금자대장당의 낙성을 축하하였다. 왕사 선조(善照), 대선사 탄문(坦文), 대선사 극관(克寬) 등이 왕희지의 글씨를 집자하여 금자대장당기비를 완성하고 절의 북정(北亭)에 세웠다. 신라 경순왕 대에 천묵대사가 조성한 금자대장경을 고려 광종대에 대장당을 창건하고 봉안한 후 비석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946년(정종 1)에는 곡식 7만 석을 하사하여 직지사와 여러 사찰에 분배하고 이를 재원으로 장학기금인 불명경보(佛名經寶)와 광학보(廣學寶)를 설치하여 불법을 배우도록 권장하였다.¹¹⁾

1185년(명종 15) 능여의 제자 신흥·혜안 등 8인이 금자사경을 593함 만들고 함은 모두 칠을 하고 황금으로 장식하였다. 해장전을 짓고 그 안에 봉안하였으며, 전각은 용문양으로 장식하였다.¹²⁾

8) 「直指寺事蹟」, 『直指寺誌』, 한국학문헌연구소, 1980, p. 271. “新羅訥祇王時 有墨胡子阿度禪子 經過信宿 創桃李寺於一善冷山中 同時開基者也”; 「金山黃岳山直指寺事蹟碑銘」, “或傳墨胡阿道 朔一善冷山桃李寺時 同時開基者也.”

9) 정보문화재보존연구원, 앞의 책, 1995, p. 189.

10) 권상노, 『韓國寺刹典書』 下, 동국대학교출판부, 1979, p. 1044. 율곡 이이가 1577년에 찬한 「직지사사적」이 실려 있다.

11) 「直指寺事蹟」, 앞의 책, 1980, p. 273. “定宗又以穀七萬石 賜本寺及諸寺院 各置佛名經寶及廣學寶 以勸學法者.”

12) 「金山黃岳山直指寺事蹟碑銘」 “寺者甚至 命學士林民庇撰寺記 集王右軍字刻之石 能如弟子信弘慧安等八人 繼居之以金字寫經五百九十三函 函皆以髹塗黃金飾 作海藏堂以安之 殿宇之侈龍象之盛蔚.”

사적기에는 고려시대 석탑 건립에 대한 기록이 있다. 부승선(副承宣) 사재경(司宰卿) 임유(任濡)(1149~1212년)가 곡식 500석을 들여서 마당 가운데 13층 석탑을 조성하였다고 한다.¹³⁾ 임유는 신종대에 문하시랑평장사를 지냈으며, 1186년(명종 16)에 승선을 맡고 있어 이 시기가 건립의 상한시기가 될 것으로 보이고 12세기 말경 건립된 것으로 보인다.

조선전기 1399년(정종 1) 직지사의 북쪽 봉우리에 정종의 태실을 조성하였는 이를 보호하는 역할을 직지사에게 맡겨 직지사는 사세를 유지하였다.¹⁴⁾ 정종의 태를 봉안함에 따라 금산현(金山縣)에서 금산군(金山郡)으로 승격되었고, 전 15결, 노비 10인을 하사받고 원당을 세워 태실을 지키는 원찰로서, 승유역불의 기초를 내세운 조선시대에도 명맥을 이어갔다. 태실 수호 사찰이 된 직지사 내에는 어실(御室)을 조성하였고 각종 전각을 지어 사찰을 확장하였다. 이 시점에 사찰 내에 존재하는 건물은 14전각, 18당우, 4문루이다. 상세한 목록은 다음과 같다.

大雄大光明殿二層 五間, 凝香閣 三間, 大毘盧金堂 五間, 燃燈閣 三間, 極樂殿 五間, 圓通殿 五間, 地藏十王殿 五間, 應眞殿 三間, 說法殿 五間, 禪燈閣 五間, 海藏殿 二層 五間, 奉爐堂 三間, 輪藏殿 三間, 東上室 五間, 西上室 五間, 僧堂(一名 燕寂堂) 三間, 禪堂(一名 振海堂) 三間, 大陽門萬歲樓 七間, 梵鍾閣 二層 三間, 天王門 三間, 解脫門 三間, 曹溪門 三間, 香積殿 七間, 方丈 三間, 御室 三間, 望月堂 三間, 中房 三間, 能如影堂 三間, 新房 三間, 東雲集 五間, 西雲集 五間, 東板頭 三間, 西板頭 三間, 東隅房 三間, 西隅房 三間, 養老堂 三間, 海會堂 五間, 南月寮 五間, 湍室 三間, 緣化房 三間, 省行堂 三間¹⁵⁾

태종이 불교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으로 1407년(태종 7) 사찰을 혁파할 때 직지사는 선종 고찰이라는 이유로 보존업록(保存業錄)에 편입하고 예조로부터 <고선종대가람(古禪宗大伽藍)>이라는 첩문을 받아 그 화를 면하였다.¹⁶⁾

1488년(성종 19) 학조(學祖)화상¹⁷⁾이 해인사와 직지사의 주지를 겸하고 있을 때 인수

13) 성보문화재보존연구원, 앞의 책, 1995, p. 198.

14) 『定宗實錄』, 정조 1년 1월 4일, “遣中樞院事趙珍, 安胎于金山縣, 陞金山爲郡.”; 『直指寺事蹟』, 앞의 책, 1980, p. 271. “定宗恭靖大王卽位元年己卯 安御胎于寺之北峰 陞縣爲郡 自此綸音遠及山林 萬歲無疆之休 於斯極矣.”

15) 『慶尙道金山郡黃岳山直指寺古禪宗大伽藍事蹟』

16) 『直指寺沿革』, 『直指寺誌』, p. 207.

17) 성종 때 학조화상이 직지사 주지로 있을 때 병이 들자 성종이 내의를 보내어 진찰하게 하였다. 세조가 학조화상을 총애했기 때문에 성종이 학조화상을 대하는 마음은 남달랐다. 『成宗實錄』, 성종 14년 12월 29일, “僧學祖在金山郡 直指寺病劇. 特遣內醫問疾.”; 『成宗實錄』, 성종 16년 7월 4일, “此僧本土族子孫, 粗知古今事理, 非庸僧也, 待之不可卑下也. 世祖常令政院待之, 恩眷甚厚. 先王所畜, 雖犬馬猶且愛敬, 況此僧先王致敬者乎? 僧亦吾民也, 給穀救荒, 豈不可乎? 奉先寺, 先王眞殿所在, 常時禁火及掃除事繁, 居僧不可少也. 若無穀可食, 則寺將空矣, 兩大妃豈不軫慮? 予亦安心乎? 況此穀乃貞熹王后所賜, 不可奪也.”

대비의 명으로 해인사 대장경판당(大藏經板堂)을 중창하면서 직지사도 중수하였다. 먼저 법당을 중건하고 석가·아미타·약사삼존불상을 봉안하였다. 또 범종각, 만세루, 천왕문, 명부전, 영산전, 비로전, 백화당, 영전 등 삼백여 칸이나 되었고, 요사가 십여 칸이고 방이 백여 칸이었다.¹⁸⁾

1559년(명종 14) 사명대사(四溟大師)가 직지사(直智寺)에 출가하여 신묵대사(信默大師)의 제자가 되었고, 30세에 주지를 맡았다. 사명대사는 금강산에서 수도하던 중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조정의 근왕문과 스승 휴정의 격문을 받고 승병을 모아 순안에서 합류하였다. 의승도대장이 되어 의승병 2,000명을 이끌고 평양성과 중화 사이의 길을 차단하였고, 1593년 명나라 군과 평양성 탈환 작전에 참가해 전공을 세웠다. 삼각산 노원평 및 우환동, 수락산 전투에서 승리하여 선조는 사명대사를 (禪敎兩宗判事)를 제수하였다. 1604년 선조의 명으로 일본과의 전쟁을 마무리하기 위한 사신으로 파견되었으며 포로 3,000명을 데리고 귀국하였다.¹⁹⁾

그 사이 1596년(선조 29) 왜적의 방화로 직지사의 건물 대부분이 소실되었다. 법당 앞에 있던 5층 목탑도 이 때 소실되었다. 43동의 건물이 병화를 입었는데 40동은 전소되었고 천불전, 사천왕문, 자하문의 3개 동만이 남게 되었다.²⁰⁾ 직지사(直智寺)에서 출가한 사명대사가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큰 공을 세워 직지사는 조선 8대가람에 속하게 되고 오랜 중창 불사를 거쳐 17세기에 사세가 크게 확대되었다.

임진왜란 후 1610년(광해군 2) 사명대사가 해인사 홍제암에서 입적하자 직지사에서는 그의 유골을 모셔다가 부도를 절의 북편에 조성하였다. 임진왜란으로 가람이 큰 타격을 입었지만 사명대사의 공적으로 말미암아 17세기에 다시 대가람을 회복한다. 중창불사는 사명대사 생전에 이미 시작되었다. 1602년(선조 35) 인수(仁守), 명례(明禮) 등이 중수 발원하였고, 이어서 묘연, 상원, 신희, 보감, 도혜, 각순 등이 60년간 불사하여 1662년(현종 3) 옛 모습을 회복했다. 복구 후 건축물의 수가 8전, 3각, 12당, 4료, 3장, 4문, 353정실이고 회량은 그 배나 되었다.²¹⁾

1649년(인조 27) 태우(太佑), 상원(尙元) 등이 힘써 대웅전을 중수하고 불화를 아름답게 꾸몄다.²²⁾ 전란의 흔적을 없애고 가람이 안정되자 이번엔 직지사는 사찰의 역사를

18) 「慶尙道金山郡地西嶺黃嶽山直指寺佛像三尊改金腹藏重修記」, “金陵黃岳山慨見此寺之荒廢□之 大發誓願 因其蕉基先建**法堂** 奉安**三尊佛像** 釋迦彌陀藥師等佛也 泛鍾閣 萬歲樓 天王門 冥府殿 靈山殿 毘盧殿 白華堂 影眞 等三百餘間 僧寮十餘 房百數間 皆蒙學祖之指揮定然成立 學祖和尚重建此寺.”

19) 「惟政」,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0) 「直指寺沿革」, 앞의 책, p. 209.

21) 「金山黃岳山直指寺事蹟碑」, “壬辰之亂寺蕩爲灰燼 山人仁守明禮等發願重修 繼而有妙衍尙元信洽寶鑑道慧覺淳等 幹其役七十年間 首尾用力殿閣之數 供佛之具實復舊貫其榜 曰殿者八 曰閣者三 曰堂者十二 曰寮者四 曰莊者三 曰門者四 其正室三百五十三 楹廚廊倍之.”

22) 「金山郡西黃岳山直指寺大法堂重創記」, “順治六年己丑春行住持太佑尙元等戮力而重營其宮殿之宏廣繪畫之美麗.” ; 「直指寺大雄殿重創記」 懸板, “己丑春尙元戒林二比丘 慨然興懷 有志重新一務鳩材一管塗丹兩役 庇徒百工藏事 輪焉奐焉不日 而成無侈前視無墜舊規.” 이 현판의 뒷면에는 1735년 대웅전 중창에 대한 「直指寺大雄殿重創上樑文」가 판각되어 있다.

바로 세우고자 사적비를 건립한다. 1681년(숙종 7)에 화상 여상(呂祥)이 조종저(趙宗著)가 쓴 직지사사적비를 처음 새겼는데 완성하지 못하였고, 1741년(영조 17) 화상 태감이 다시 다듬어 비를 세웠다. 또한 전 화상 종익이 자하문 밖에 만세교라는 홍교를 만들었다.²³⁾ 사적비 중수 당시 사찰 내 건축물은 다음과 같다.

各殿 大雄殿, 八相殿, 千佛殿, 白華堂, 冥府殿, 影子殿, 燃香閣, 香積殿, 雲門閣, 大陽門, 泛鍾閣, 萬歲樓, 天王門, 金剛門, 紫霞門, 各房, 聽糾軒, 寂默堂, 說禪堂, 摠運寮, 聽雨堂, 詠流堂, 南月寮, 月暎寮, 淸風寮, 明月寮, 紙大同²⁴⁾

『직지사지』에 실려 있는 「황악산직지사사적」에 따르면²⁵⁾ 전우영건(殿宇營建)조에 당시의 전각 이름과 규모에 대해 기록하였다. 그러나 여러 사적 중 이 사적기에는 작성 시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시기를 알 수 없으나, 선조 때 사명당의 이름이 본문에 나오고 있고, 그 다음 영자대사당명조에 모운당진언대사(1622년~1703년) 부도가 있다고 되어 있어 18세기 이후 시기로 파악할 수 있다. 여기에 실려 있는 전각은 다음과 같다.

大雄殿 16칸, 千佛殿 14칸, 八像殿 12칸, 觀音殿 3칸, 十王殿 3칸, 不空藏 3칸, 影子殿 3칸, 香爐殿 3칸, 泛鍾閣 3칸, 大陽門 5칸, 萬歲樓 27칸, 天王門 3칸, 上別堂 3칸, 知事房 10칸, 省行堂 3칸, 別紙廳 5칸, 碧雲石橋, 雙運寮 7칸, 摠雲寮 8칸, 振海堂 3칸, 燕寂堂 3칸, 德兩堂 3칸, 詠流堂 7칸, 南月寮 12칸, 月暎寮 11칸, 淸風寮 9칸, 明月寮 7칸, 地藏殿 1칸

1658년(효종 9) 덕님이 대종을 주조하여 범종루에 걸었고 중종은 1713년에 조성하였다.²⁶⁾ 1688년(숙종 14) 국청이 팔상전을 창건하였다.²⁷⁾

1714년(숙종 40) 성호가 발원하여 법당 즉 대웅전에 단청을 하고 삼존불을 개금하고 복장을 납입하였다. 또, 천왕을 중수하고 대종을 주조하였는데 중수기에서 왕실의 번영

23) 「金山黃岳山直指寺事蹟碑」, “粵在辛酉 和尚呂祥 剞刻此碑 未克訖功 謾作無用片石 時 和尚泰鑑 慨然興歎 滌其莓苔 鉞其字畫 龍頭龜床 極力新備 屹立於周甲之辛酉 或非尋常 抑亦有待而然也 與前和尚宗益 又成. 況虹橋於紫霞門外 名曰萬歲 以助一寺顏色 可不美哉.”

24) 「金山黃岳山直指寺事蹟碑」, “各殿 大雄殿 八相殿 千佛殿 白華堂 冥府殿 影子殿 燃香閣 香積殿 雲門閣 大陽門 泛鍾閣 萬歲樓 天王門 金剛門 紫霞門各房 聽糾軒 寂默堂 說禪堂 摠運寮 摠運寮 聽雨堂 詠流堂 南月寮 月暎寮 淸風寮 明月寮 紙大同.”

25) 「黃岳山直指寺事蹟」, 『直指寺誌』, p. 159~167.

26) 「直指寺沿革」, 앞의 책, p. 210.

27) 「直指寺八相殿上樑文」, “八相儼照猶在茲 劫灰無限示來者 伏願上樑之後 栖神唄宇 凝精梵宮 石可朽山可夷 永萬歲而不墜 見其相知其法與一元而長存 康熙二十七年六月二十七日 沙門 熙信 撰 化主 國淸.” ; 「八相殿記」 懸板에서는 팔상전 창건을 정묘년(1687)이라 하고 있다. “丁卯年朞建時寺內時任秩.”

을 기원하는 문구가 있어 이 시기에도 왕실의 지원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²⁸⁾

영조 대에도 많은 불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1735년(영조 12) 대웅전을 중창하였다.²⁹⁾ 그 전 해에 승통 종익이 대웅전을 고치고자 사람을 모으고 자신의 재산을 내놓았다. 충목, 조원, 청원이 대화사를 맡았고 다음 해에 공사를 마치고 상량하였다. 1737년(영조 14) 승통 여상이 팔상전을 중수하였다.³⁰⁾ 1744년(영조 21) 대웅전에 영산회상도, 아미타회상도, 약사회상도를 봉안하였다.³¹⁾ 같은 해에 시왕도를 새로 조성하였다. 1768년(영조 45) 영전과 천불전을 함께 보수하였다.³²⁾ 1771년(영조 48) 우선이 불상을 개금하였다.³³⁾

1776년(정조 1) 급고자가 직지사사적을 썼고, 당시에는 전각 15동, 대방사 10동이 있었다.³⁴⁾ 1785년(정조 9) 환윤이 천불전에 봉안할 불상 259위를 경주 기림사에서 새로 조성하여 옮겨 왔고, 원래 있던 741위의 불상은 도분중수하여 함께 봉안하였다.³⁵⁾ 1789년(정조 13) 명부전이 퇴락하여 다시 지었다.³⁶⁾ 1791년(정조 15) 영조와 숙종의 어필을 봉안하기 위하여 굉협 등이 금릉군의 세미 80여석을 지원받아 어필각을 새로 지었다.³⁷⁾ 1800년(정조 24) 거영이 선당³⁸⁾을 중건하기 시작하여 1801년에 준공하였다. 거영은 항상 선당의 터를 가리키며 “이 堂이 없는 것은 鄉校에 廊이 없는 것과 같고 대붕의 날개를 꺾을 수 없는 것과 같다”³⁹⁾라고 하여 이 선당이 직지사에서 상징하는 바가 큰 건

28) 「慶尙道金山郡地西嶺黃嶽山直指寺佛像三尊改金腹藏重修記」, “康熙五十三年甲午也粵有性湖道人……癸巳甲午二年之間 法堂丹覆佛像改金 天王重修 大鍾改鑄 一時成……主上殿下萬歲 壽萬歲 王妃殿下齊年 壽齊年 世子邸下千秋 壽千秋.”

29) 「金山郡西黃岳山直指寺大天堂重創記」, “雍正十二年甲寅季夏時 僧統宗益受帖末幾深歎 佛宇之將圯 慨欲重葺 即日集衆而具告厥由自 出己財而 又勸諸有信者思佑世受太監宗順學澄宗任等 各出錢租 既至取百餘石 然後以道人忠默祖遠清遠等爲大化士 前往持就運雪雲爲都監晏現爲別座.” ; 「直指寺大雄殿重勦上樑文」 현판

30) 「八相殿記」 懸板.

31) 「直指寺大雄殿靈山會上幀畫」 畫記, “乾隆玖年甲子暮春初八丙戌日 大靈山會謹成起 五月二十二己亥日 畢點眼奉安.”

32) 「金陵黃嶽山直指寺千佛殿上梁」, “慨願寧豈灰心 而重營肆以時任信瓊 先謀其事出財寺內 持殿師彥亦慕山野鳩財若干 於是影殿此堂同時始役.”

33) 「直指寺佛像改金施主秩」 懸板.

34) 「直指寺沿革」, 앞의 책, p. 212.

35) 「千佛像造成記」, “乾隆甲辰十二月十二日 千佛中二百五十九位 於慶州地祇林寺造成 翌年正月二十四日點眼 二十六日發程陸路造輦 二十二次陸路移運 各寺僧軍搜眉爭侍 道路觀瞻鬧若市肆 二月初四日到本寺……二月初十日始舊佛七百四十一位 塗粉重修 至二月二十四日點眼 二十五日新舊千尊 并爲奉安.”

36) 「金山黃岳山直指寺冥府殿樑間錄」, “寺之西有一殿曰冥府 冥府者十王遺像之所 衆生薦化之檀 然而僧殘寺弊其殿 獨立於蕨岸之上 寺徒每有移建之心 而事山力蚊 未果憎之不已不覺 寒暑之往來椽檁自老 風雨之磨洗丹 堊已凋渾寺同心叶謀發化 而鳩財折簡而邀匠 研新材移礎.”

37) 「金陵黃岳山直指寺新建御筆閣文」 懸板, “英廟特垂親書 鑄役之寵光 又賜肅宗大王御筆當宇 又有畫給之恩 優宸章燦爛 寶墨焯煌 顧此卑賤何以蒙恤 歲辛亥之四月 寺之僧宏叶以衆議 往來內司 蒙獲本郡稅米 八十餘石 新建御筆閣 以安聖跡於是焉.”

38) 정종 때 선당은 진해당을 가리킨다고 하였고 1741년 태감이 직지사사적비를 세울 당시의 전각 중 진해당이 있으므로 동일한 건물을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39) 「黃岳山直指寺禪堂重建記」 懸板, “法堂下古有禪堂墟 寺之巨擘巨榮常指之 曰此堂無如鄉校無廊如大鵬折翼不可 歲己未遂與僧統及諸僧輒謀重建……明年二月日始役而榮也 且管陶瓦 僧統啓蓮摠領坦期 監家役近性任施財具和執斤斧費力數年 而功訖 乃嘉慶五年庚申九月日也.”, 향교는 통상적으로 대성전, 동무, 서무, 내삼문, 명륜당, 동재, 서재, 제기고, 고직사, 외삼문(문루) 등의 건축

축임을 알 수 있다.

1805년 직지사에서 가장 큰 건물인 만세루가 소실되었다.⁴⁰⁾ 1830년(순조 30) 천왕문을 중수하고 천왕상을 개채하였다.

1886년(고종 23) 경산의 월주, 한성이 와서 천불상을 도분개채하였다. 이때는 사세가 약해져 3~4명의 승려만이 불전을 지키는 상황이었다.⁴¹⁾ 또, 관찰사 겸 순찰사였던 이상공의 지원으로 당헌을 수리하였다.⁴²⁾ 1890년(고종 27) 혼허 화상이 천왕문을 중수하고 천왕상을 개채하였다.⁴³⁾ 1899년(고종 36) 청월 화상이 천불전을 중수하였다. 1901년 원허 창원이 팔상전의 기와를 고쳤다.⁴⁴⁾ 1908년(순종 2) 혼허가 발원하고 연암, 춘담이 화주가 되어 부도암을 천불전 옛터에 이건하고 천불암이라고 이름을 고쳤다.⁴⁵⁾ 1911년 일제의 사찰령 반포로 인하여 직지사는 해인사의 부속사찰이 됨으로써 조선 후기의 역사를 마감한다. 그러나, 같은 해에 춘담이 범종각을 중건하고 칠성각을 새로 건립하는 등 사세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은 일제강점기에도 그치지 않는다.⁴⁶⁾

19세기에 들어서는 왕권의 약화와 외세의 침략, 민란의 발생 등 경제적 곤궁함 등의 여파로 직지사의 경제력도 매우 낮아져 있었다. 1878년(고종 15) 경에는 직지사의 경제력이 매우 낮아 진상할 종이를 마련하지 못하고, 남아 있는 승려는 3~4명뿐이었는데 이마저도 다른 곳으로 흩어질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할 정도로 쇠약한 상태였기에 책지 진상과 정비 납부를 면제해주었다.⁴⁷⁾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종과 순종 연간에 혼허와 춘담 등이 천왕문, 천불전, 범종각을 중수하는 등 사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였다.

직지사에 전하고 있는 각종 기록에서 천왕문 기록을 간략하게 정리하며, 조선 전기 대양문만세루 7칸, 천왕문 3칸 등의 4문이 확인되고, 1596년 임진왜란의 사찰 전소 과정에서 천불전, 사천왕문, 자하문이 소실을 면한다. 1655년 천왕문 사천왕상을 조성하고, 1713년 단청이 이루어진다. 1771년 보수와 1776년 사찰의 대형 화재에도 다시 화재

으로 이루어져 회랑구조는 보기 어렵다. 그러나 강릉향교에는 대성전 좌우에 동무와 서무가 있고, 동무와 서무를 잇는 前廊이 있다. 즉, 가장 중심이 되는 건축물 주변에서 이를 호위하는 중요한 위치를 뜻한다고 볼 수 있다.

40) 「直指寺沿革」, 앞의 책, p. 213.

41) 「右金山黃岳山直指寺千佛像改彩重修功德主祝願文」, 懸板.

42) 「頌李相公功德文」, 懸板, “幸神應運復 上自宮闈下至營邑鳩財 特施惟我棠軒 李相公化洽.”

43) 「天王閣記」, 懸板. ; 「直指寺四天王閣重葺序」, 懸板, “歲月屢換風雨交侵屋 有常漏體 無完樣寧 不興感而歎惜 特出慈悲之義 雖積債之中 捐糜七白金 敢營重修之役事 巨力綿實不能盡善盡美是可歎也 褰其體塗 其面試以丹青七分繪像煥然如新 此所謂誠心所到金石可透者非此耶 畧陳顛末記其後日之考云爾 崇禎紀元後四庚寅九月日 行郡守申學休識.” ; 「直指寺沿革」, 앞의 책, pp. 213~214.

44) 「黃岳山直指寺八相殿蓋瓦記」, 懸板.

45) 「直指寺沿革」, 앞의 책, p. 214.

46) 「直指寺沿革」, 위의 책, pp. 215~217.

47) 『高宗實錄』, 고종 15년 7월 19일, “金山 直指寺, 寺樣凋殘, 進上冊紙, 萬無辦納之路. 情費又爲四百餘兩, 數三殘僧, 各懷渙散. 令該司稟旨分付事也. 進供所重, 則固不敢闊狹, 而若其情費一款, 不可無垂恤之政. 此則永勿舉論何如? 竝允之.”

를 면한다. 1890년과 1971년 천왕각 중수 기록이 확인되고 있다.

4. 지정 가치 및 근거 기준 :

1. 역사성 : 조선 초기 건립 가능성이 있는 건물로 역사적인 가치가 인정된다.

직지사에 전하고 있는 각종 기록 검토를 통해 조선 전기부터 사찰의 진입공간 체계를 확인할 수 있는데, 1399년 조계문(3칸)-해탈문(3칸)-천왕문(3칸)의 3문과 대양문만세루(7칸)가 확인된다. 이후 1596년 자하문-천왕문 2문이 임진왜란의 병화를 면한다. 1665년 천왕문 내부의 사천왕상을 봉안하고, 1681년 구체적인 문의 이름은 확인되지 않는 4문이 존재했던 것을 알 수 있다. 1741년은 자하문-금강문-천왕문-대양문-만세루와 1776년 조계문-해탈문-천왕문-대양루-만세루가 확인되어, 4문과 1누각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1741년 자하문이 조계문으로, 금강문이 해탈문으로 변경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천왕문과 대양문의 경우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이후 1890년 중수를 걸쳐 오늘날 일주문-금강문-천왕문-만세루를 차례로 통과하는 사찰 진입로 체계를 완성하고 있다. 이처럼 직지사 천왕문의 대략적인 변천 과정을 확인할 수 있으며, 건물은 1399년부터 존재했던 것이 틀림없어 보인다. 이후 조선 중·후기 사천왕상 봉안과 몇 차례의 중수를 통해 오늘날까지 전하는 역사적인 건물임을 확인할 수 있다.

2. 예술성(건축성) : 다포형식과 익공 부재가 혼합되어 있고, 안초공이 있는 유일한 천왕문이다.

우리나라 전통사찰 천왕문은 17~18세기 중점적으로 건립되고, 정면 3칸과 측면 2~3칸 형식이 주류를 이룬다. 이후 2~3차례의 중수 과정을 통해 지붕가구와 목구조 일부가 교체되기도 한다.

직지사 천왕문은 여타의 천왕문보다 비교적 이른 1399년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2~3차례 중수 과정에서 일부 부재의 교체가 확인된다.

직지사 천왕문은 정면 3칸, 측면 3칸 형식으로 일반적인 천왕문 평면과 동일하지만 좌우 협칸보다 정칸이 좁게 설정되어 있어 능가사 천왕문과 함께 유일한 사례이다. 천왕문을 구성하는 기둥은 모두 12기의 원기둥으로 6개의 기둥은 2015년 해체수리 과정에서 신재로 교체되고, 측면 4기를 포함한 6기의 기둥은 상부를 남겨두고 하부를 신재로 교체하여 동바리 이음 하였다.

직지사 천왕문의 공포는 정면과 배면의 협칸에 주심포와 주간포를 1조씩 놓는 다포 형식과 정칸 상부로 주간포를 대신하여 포화반으로 구성하는 익공형식을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다. 조선 후기 사찰의 천왕문은 17세기 다포형식에서 18세기 익공형식으로 변화하는 과정이 확인되고 있는데⁴⁸⁾, 직지사 천왕문은 다포와 익공을 함께 사용하는 유일

한 사례로 주목된다.

천왕문의 살미는 직설 양서 형태로 17세기 일반적인 다포계 천왕문인 송광사 천왕문(1612년), 법주사 사천왕문(1624년), 완주 송광사 천왕문(17세기)의 곡선 양서와는 다른 모습으로 고려시대 불전인 수덕사 대웅전(1308년)이나 거조사 영산전(조선 초기), 강릉 객사문(고려 후기), 관룡사 약사전(조선 초기) 살미 형태와 닮아있다.

직지사 천왕문은 특수한 공포형식과 함께 안초공을 사용한 유일한 천왕문이다. 안초공은 다포 건축의 무거운 공포와 기둥부가 결합부재가 없이 얹혀 있게 되는데, 이 구조적인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기둥상부에서 창방을 잡아주고 기둥과 창방을 연결하는 부재로 나타나며, 이것은 궁궐과 사찰의 주요 건축물에서 사용된다. 그러나 안초공을 사용하는 사찰 건물은 구조적인 측면보다는 장식적 효과를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 안초공 머리에 용장식을 가미하여 여수 흥국사 대웅전(1690년), 미황사 응진당(1751년), 영광 불갑사 대웅전(1764년), 불국사 대웅전(1767년)처럼 사찰 중심 불전에서 사용되고 있다. 직지사 천왕문의 창방 안초공은 용장식이 생략된 형태로 창경궁 명경전(1616년) 안초공과 비슷하여 조선 후기 사찰 중심불전 안초공 형태와는 다르다.⁴⁹⁾

직지사 천왕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포와 익공의 혼합기법과 단순한 형태로 조각된 안초공은 일반적인 조선 후기 천왕문에서 확인되지 않는 특수한 건축기법에 해당하며, 직지사 천왕문이 조선 초기 건립되어 오늘날까지 다양한 시기의 건축기법이 혼용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대목이다.

3. 학술성 : 경상남·북도 일원에서 가장 오래되고 큰 규모의 문이다.

직지사가 있는 경상도 일원에는 오랜 역사를 간직한 전통사찰이 다수 분포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사찰이 조선 중기 전란으로 소실되고, 17~18세기 중창되거나 재건되는 역사를 함께하고 있다. 이와 함께, 조선시대 산지 사찰을 대표하는 형식의 많은 문루가 확인되는 사찰이 적은 편이다.

직지사 천왕문은 보경사 천왕문(1695년), 통도사 천왕문(1714년 중건)과 함께 경상도 일원을 대표하는 조선시대 문에 해당한다. 특히 복장물과 발원문, 내부의 목서를 통해 1655년 제작된 소조사천왕상을 함께 봉안하고 있어 학술 가치는 더욱 높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면 김천 직지사 천왕문은 조선 초기 건립되어 2~3 차례의 중수를 통해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다. 천왕문에서 확인되고 있는 특수한 건축기법과 지역을 대표하는 학술적 가치를 통해 김천 직지사 천왕문은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해도 손색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8) 류성룡, 「17세기 사천왕상 天王門의 건축형식 展開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 2012, p.73.

49) 이우중, 「조선시대 창방안초공의 기원과 변천 재고찰」,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018, p.134.

※ 대상 문화재의 핵심 보존가치

첫 번째, 조선 초기 건립 가능성이 있는 건물로 역사적인 가치가 인정된다.(역사성)

두 번째, 다포형식과 익공 부재가 혼합되어 있고, 안초공이 있는 유일한 천왕문이다.(예술성)

세 번째, 경상남·북도 일원에서 가장 오래되고 큰 규모의 문이다.(학술성)

15. 함양 벽송사 삼층석탑 주변 선원 건립 기본설계(안) 검토(2차)

가. 제안사항

‘23년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보물 「함양 벽송사 삼층석탑」 주변 선원 건립 기본설계(안)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23년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보물 「함양 벽송사 삼층석탑」 주변 선원 건립 기본설계(안)에 대해 검토 받고자 하는 사항임.
- ※ ‘23년 문화재위원회 제11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23.11.16.) : 부결
 - 역사문화경관 저해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함양 벽송사 삼층석탑
 - 소재지 : 경남 함양군 마천면 광점길 27-59
 - 지정일 : 1968. 12. 19.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남 함양군 마천면 광점길 27-59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문화재에서 60m 이내
 - 사업내용 : 선원 건립
 - 건축 및 연면적 : 152.46㎡(약46평) → 152.47㎡(약46평)
 - 층 수 : 지상1층
 - 구조 : 전통한식 목구조 / 팔작지붕
- ※ 문화재보수정비사업(총액)-설계(2023년)
 - 사업예산 : 총 100백만원(국비 70백만원, 지방비 30백만원)

라. 현지조사 의견(2023.09.05. / 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 신청부지는 삼층석탑이 있는 벽송사 중심사역의 상단으로 신청건물이 들어설 경우 문화재 주변 경관저해 우려가 있으므로 위치를 조정하는 것이 좋겠음.

마. 의결사항

- 부결
 - 역사문화경관 저해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 부결 10명, 원안가결 1명

【보고사항】

안건번호 건축 2024-01-016

16. 건축문화재분과위원회 소위원회 결과 보고

가. 보고사항

경남 양산시 소재 국보 「양산 통도사 대웅전 및 금강계단」 주변 문화공간 건립 1건에 대하여 소위원회를 거쳐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나. 처리내용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소 계		1건	조건부가결 1건	
국보 양산 통도사 대웅전 및 금강계단	경남 양산 (대한불교 조계종 통도사 주지)	<input type="checkbox"/> 양산 통도사 문화공간 건립 * '23년 8차 건축문화재분과위원회 검토결과 ('23.08.17.) : 조건부 가결 -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함. * '23년 2차 건축문화재분과 소위원회 검토결과 ('23.09.08.) : 부결 - 주변 경관에 맞게 일부 배치, 평면 등 조정 검토 - 현황에 맞는 도면 작성 후 재검토 <input type="checkbox"/> 사업위치 : 경남 양산시 하북면 통도사로 108 통도사 경내 <input type="checkbox"/> 사업개요(1동 → 2동으로 변경) - 대지면적 · 문화공간 : 10,566㎡(약 3,202평) · 편의시설 : 12,923㎡(약 3,916평) - 건축면적 · 문화공간 : 2,795㎡(약 845평) · 편의시설 : 893㎡(약 270평)	조건부가결 (-문화시설 · 진입마당 석축은 지형을 고려 검토 · 장애인 이동에 대한 배려 검토 · 한식건물 의 입면 변화를 검토 - 편의시설 · 건물의 높이 축소	'23.12.21. (소위원회)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면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공간 : 3,028㎡(약 916평) · 편의시설 : 1,154㎡(약 349평) - 층수 / 높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공간 : 지상 2층 / 최고높이 13.4m · 편의시설 : 지상 2층 / 최고높이 11.2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면의 실용적 공간구획 조정) 	

다. 의결사항

- 원안접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 원안접수 11명

17.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처리결과 보고

가. 보고사항

경북 예천군 소재 보물 「예천 개심사지 오층석탑」 주변 예천 예누리길 조성 등 허가신청 14건에 대하여 자체검토회의 등을 거쳐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나. 처리내용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소 계		14건	원안가결 10건 조건부가결 4건	
보물 예천 개심사지 오층석탑	경상북도 예천군 (○○○)	<input type="checkbox"/> 예천 예누리길 조성 ○ 위치 : 예천군 예천읍 남본리 135-1 일원 * 제7구역(보호구역에서 약 120m 이격)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 및 옹벽 설치 개별검토 ○ 내용 : 문화공원 조성사업 - 사업면적 : 29,312㎡ - 황토콘크리트, 마사토, 블록 포장 - 파고라, 데크 등 시설물 설치 - 교목, 관목 등 식재 - 식생토 옹벽 설치(H=0.5~3.5m, L=67.5m) -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철거 등 - 사업기간 : '23. 12. ~ '24. 12. - 사업예산 : 5,850백만원	원안가결	'23.12.26.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p style="text-align: center;">보물 청송 대전사 보광전</p>	<p style="text-align: center;">경상북도 청송군 (○○○)</p>	<p>□ 청송 대전사 조경 정비(변경허가)</p> <p>○ 위치 : 청송군 주왕산면 공원길 226(상의리)</p> <p>* 보호구역 내</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 '23년 7월 자체검토회의 (2023.7.31.) : 조건부가결 (조경분야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시행)</p> </div> <p>○ 내용 : 대전사 경내 조경 정비사업</p> <p>- 철거 : 데크 1개소, 앓음벽 1개소 등</p> <p>- 수목제거 : 소나무 3주</p> <p>- 시설물설치 : 데크덤펀터 1개소, 앓음벽 1개소, 목재의자 11개소 화오 215m, 석축 24m 돌계단 1개소, 석축돌계단 1개소</p> <p>- 수목식재 : 교목-반송 등 3종(14주) 관목-회양목 등 9종(1,450주) 지피류-금낭화 등 11종(5,730주)</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10%;">구분</th> <th style="width: 45%;">기존(7월 2차)</th> <th style="width: 45%;">금회(11월 2차)</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시설물 설치</td> <td> <p>화오 220m</p> <p>목재의자 화장실 앞 면장</p> <p>기타 내용동일</p> </td> <td> <p>화오 215m 석축 24m 추가 석축돌계단 1개소 추가 화강석의자 화장실 앞 면장제거 기타 내용동일</p>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수목 식재</td> <td> <p>교목: 반송 등 3종(12주) 관목 : 회양목 등 9종(1,422주) 지피류 : 금낭화 등 11종(4,820주) 소나무 1종 3주 제거 기타 내용동일</p> </td> <td> <p>교목: 반송 등 3종(14주) 관목 : 회양목 등 9종(1,450주) 지피류 : 금낭화 등 11종(5,730주) 소나무 1종 4주 제거 기타 내용동일</p> </td> </tr> </tbody> </table>	구분	기존(7월 2차)	금회(11월 2차)	시설물 설치	<p>화오 220m</p> <p>목재의자 화장실 앞 면장</p> <p>기타 내용동일</p>	<p>화오 215m 석축 24m 추가 석축돌계단 1개소 추가 화강석의자 화장실 앞 면장제거 기타 내용동일</p>	수목 식재	<p>교목: 반송 등 3종(12주) 관목 : 회양목 등 9종(1,422주) 지피류 : 금낭화 등 11종(4,820주) 소나무 1종 3주 제거 기타 내용동일</p>	<p>교목: 반송 등 3종(14주) 관목 : 회양목 등 9종(1,450주) 지피류 : 금낭화 등 11종(5,730주) 소나무 1종 4주 제거 기타 내용동일</p>	<p>원안가결</p>	<p>'23.12.26.</p>
		구분	기존(7월 2차)	금회(11월 2차)									
		시설물 설치	<p>화오 220m</p> <p>목재의자 화장실 앞 면장</p> <p>기타 내용동일</p>	<p>화오 215m 석축 24m 추가 석축돌계단 1개소 추가 화강석의자 화장실 앞 면장제거 기타 내용동일</p>									
수목 식재	<p>교목: 반송 등 3종(12주) 관목 : 회양목 등 9종(1,422주) 지피류 : 금낭화 등 11종(4,820주) 소나무 1종 3주 제거 기타 내용동일</p>	<p>교목: 반송 등 3종(14주) 관목 : 회양목 등 9종(1,450주) 지피류 : 금낭화 등 11종(5,730주) 소나무 1종 4주 제거 기타 내용동일</p>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보물 경산 팔공산 관봉 석조여래좌상	경상북도 경산시 (○○○)	<input type="checkbox"/> 팔공산 갯바위 우회도로 개설 ○ 위치 : 경산시 와촌면 대한리 산42, 산44번지 * 제1구역(보호구역 인접) - 개별검토 ○ 내용 : 우회도로 개설(L=457m, W=1~1.5m) - 가설난간 및 야자매트 정비 L=116m, W=1.5m - 보행로 정비 및 야자매트 정비 L=80m, W=1m - 가설보행로(가설 제작) 설치 L=6.05m, W=1.5m - 가설계단(가설 제작) 설치 L=22.35m, W=1.5m	원안가결	'23.12.26.																		
보물 당진 안국사지 석조여래삼존 입상	충청남도 당진시 (○○○)	<input type="checkbox"/> 단독주택 건립 ○ 위치 : 당진시 정미면 수당리 690-44 * 제1구역(문화재에서 208m 이격) - 개별검토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 '18년 10월 자체검토회의 : 원안가결 ※ '21년 5월 자체검토회의 : 원안가결 (허가기간 만료로 인한 재신청) ※ '22.9. 건축신고 취하 </div> ○ 내용 : 단독주택 건립 - 사업면적 : 1,120㎡ - 건축면적 : 129.0㎡ - 높이 및 층수 : 3.2m / 1층 - 동수 : 6동 - 구조 : 조립식 판넬구조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 분</th> <th>기존('21년 5월)</th> <th>금회('23년 12월)</th> </tr> </thead> <tbody> <tr> <td>사업면적</td> <td>688.0㎡</td> <td>1,120㎡</td> </tr> <tr> <td>건축면적</td> <td>99.05㎡</td> <td>129.0㎡</td> </tr> <tr> <td>동수</td> <td>1동</td> <td>6동</td> </tr> <tr> <td>최고높이</td> <td>6.05</td> <td>3.2m</td> </tr> <tr> <td>구조</td> <td>경량철골조</td> <td>조립식판넬구조</td> </tr> </tbody> </table>	구 분	기존('21년 5월)	금회('23년 12월)	사업면적	688.0㎡	1,120㎡	건축면적	99.05㎡	129.0㎡	동수	1동	6동	최고높이	6.05	3.2m	구조	경량철골조	조립식판넬구조	원안가결	'23.12.26.
구 분	기존('21년 5월)	금회('23년 12월)																				
사업면적	688.0㎡	1,120㎡																				
건축면적	99.05㎡	129.0㎡																				
동수	1동	6동																				
최고높이	6.05	3.2m																				
구조	경량철골조	조립식판넬구조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보물 춘천 칠층석탑	강원도 춘천시 (○○○)	<input type="checkbox"/> 전기지중화 공사로 인한 전력설비 설치 ○ 위치 : 춘천시 소양로2가 162번지 * 보호구역 내(문화재에서 30m 내외 이격) - 개별심의 ○ 내용 : 전력설비 설치 - 면적 : 5.57㎡ -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3개월	원안가결	'23.12.26.												
보물 안동 임청각	경상북도 안동시 (○○○)	<input type="checkbox"/> 법흥인도교 개체공사(변경허가) ○ 위치 : 안동시 법흥동 265번지 일원 *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7m 이격) - 개별검토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 기존허가사항 *'18년 6차 문화재위원회 결과('18.6.21.) : 조건부가결 *'22년 12월 자체검토회의 : 원안가결 (위원회 의결사항과 동일) - 교량철거(L=320.0m, B=6.5m, 게르버교) - 교량개체(L=282.0m, B=5.5m, 거더교) </div> ○ 내용 : 법흥인도교 개체공사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기존('22년 12월)</th> <th style="text-align: center;">금회('24년 1월)</th> </tr> </thead> <tbody> <tr> <td>- 교량철거(L=320.0m, B=6.5m, 게르버교)</td> <td>- 교량철거(L=320.0m, B=6.5m, 게르버교)</td> </tr> <tr> <td>- 교량개체(L=282.0m, B=5.5m, 거더교)</td> <td>- 교량개체(L=282.0m, B=5.5m, 거더교)</td> </tr> <tr> <td></td> <td>- 보도 철거 및 포장, 경계석 재설치</td> </tr> <tr> <td></td> <td>- 측구설치</td> </tr> <tr> <td></td> <td>- 보행등, 신호등 설치 등</td> </tr> </tbody> </table>	기존('22년 12월)	금회('24년 1월)	- 교량철거(L=320.0m, B=6.5m, 게르버교)	- 교량철거(L=320.0m, B=6.5m, 게르버교)	- 교량개체(L=282.0m, B=5.5m, 거더교)	- 교량개체(L=282.0m, B=5.5m, 거더교)		- 보도 철거 및 포장, 경계석 재설치		- 측구설치		- 보행등, 신호등 설치 등	원안가결	'24.01.08.
기존('22년 12월)	금회('24년 1월)															
- 교량철거(L=320.0m, B=6.5m, 게르버교)	- 교량철거(L=320.0m, B=6.5m, 게르버교)															
- 교량개체(L=282.0m, B=5.5m, 거더교)	- 교량개체(L=282.0m, B=5.5m, 거더교)															
	- 보도 철거 및 포장, 경계석 재설치															
	- 측구설치															
	- 보행등, 신호등 설치 등															
국보 구례 연곡사 북 승탑	전라남도 구례군 (○○○)	<input type="checkbox"/> 전기차 충전기 설치 ○ 위치 : 구례군 토지면 내동리 1001-2 *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176m, 문화재에서 350m 이격) - 개별검토 ○ 내용 : 연곡사 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 - 수량 : 완속(7kw) 2대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0일 - 재원 : 국비	원안가결	'24.01.08.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보물 구례 천은사 극락보전	전리남도 구례군 (○○○)	<input type="checkbox"/> 전기차 충전기 설치 ○ 위치 : 구례군 광의면 방광리 산1-23 * 제2구역(문화재에서 462m 이격) - 허용기준 : 최고높이 5m 이하(평지붕), 7.5m이하(경사지붕) - 인근 지정문화재 : 보물 '구례 천은사 일주문'에서 254m 이격 ○ 내용 : 천은사 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 - 수량 : 11대 (급속50kw 2대, 완속7kw 9대)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0일	원안가결	'24.01.08.
보물 논산 쌍계사 대웅전	충청남도 논산시 (○○○)	<input type="checkbox"/> 호우피해지 수해복구사업 ○ 위치 : 논산시 양촌면 중산길 192, 쌍계사 * 제1구역(문화재에서 407m 이격) - 개별심의 ○ 내용 : 수해복구사업 - 사업량 : 1.67ha -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120일	원안가결	'24.01.08.
보물 거창 상림리 석조보살입상	경상남도 거창군 (○○○)	<input type="checkbox"/> 창고시설(농업용창고) 설치 ○ 위치 :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624번지 * 제4구역(문화재에서 390m 이격) - 개별심의 ○ 내용 : 창고시설(농업용창고) 설치 - 대지면적 : 147.0㎡ - 건축규모 : 18㎡ - 높이 : 3.78m - 지붕(붉은 갈색), 외벽(회색)	원안가결 (존치기간 3년 후 재심의)	'24.01.08.
국보 화순 쌍봉사 철감선사탑	전라남도 화순군 (○○○)	<input type="checkbox"/> 임시 가설컨테이너(농막) 설치 ○ 위치 : 화순군 이양면 증리 788 *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약 470m 이격) - 개별검토 ○ 내용 : 가설컨테이너(농막) 설치 - 목적 : 농기구, 농자재 등 보관 - L6.0m×W3m×H2.5m	조건부가결 (존치기간 3년 후 재심의)	'23.12.26.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보물 청주 안심사 대웅전	충청북도 청주시 (○○○)	<input type="checkbox"/> 가설건축물(농막) 설치 ○ 위치 :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사동리 247 * 제1구역(문화재에서 230m 내외 이격) - 개별심의 ○ 내용 : 가설건축물(농막) 설치 - 대지면적 : 4,594m ² - 건축규모 : 18m ² - 높이 : 2.5m	조건부가결 (존치기간 3년 후 재심의)	'23.12.26.
보물 청송 찬경루	경상북도 청송군 (○○○)	<input type="checkbox"/> 소헌공원 정비 ○ 위치 : 청송군 청송읍 월막리 373번지 * 보호구역 내 ○ 내용 : 수목 및 잔디식재 등 - 잔디식재(98.6m ²) - 소나무 3주 식재, 사철나무 255주 식재 - 소요사업비 : 50,000천원 - 사업기간 : '24. 1. ~ '24. 12.	조건부가결 (매장 문화재법상 처리 필요)	'24.01.08.
국보 합천 해인사 장경판전	경상남도 합천군 (○○○)	<input type="checkbox"/> 인경조사실 건립 ○ 위치 :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10번지 * 보호구역 내(문화재에서 10m 내외 이격) - 개별심의 ○ 내용 : 인경조사실 건립 - 건축면적 : 84m ² (21m×4m) - 높이 : 4m - 가건물(조립식 판넬)	조건부가결 (사업완료 시 철거, 월1회 주기 보고)	'24.01.08.

다. 의결사항

- 원안접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 원안접수 11명